

THE MISSILE

1962年 7月 20日 印
1962年 7月 25日 發

月刊 미사일

1962

8

人和와 團結에 대하여

特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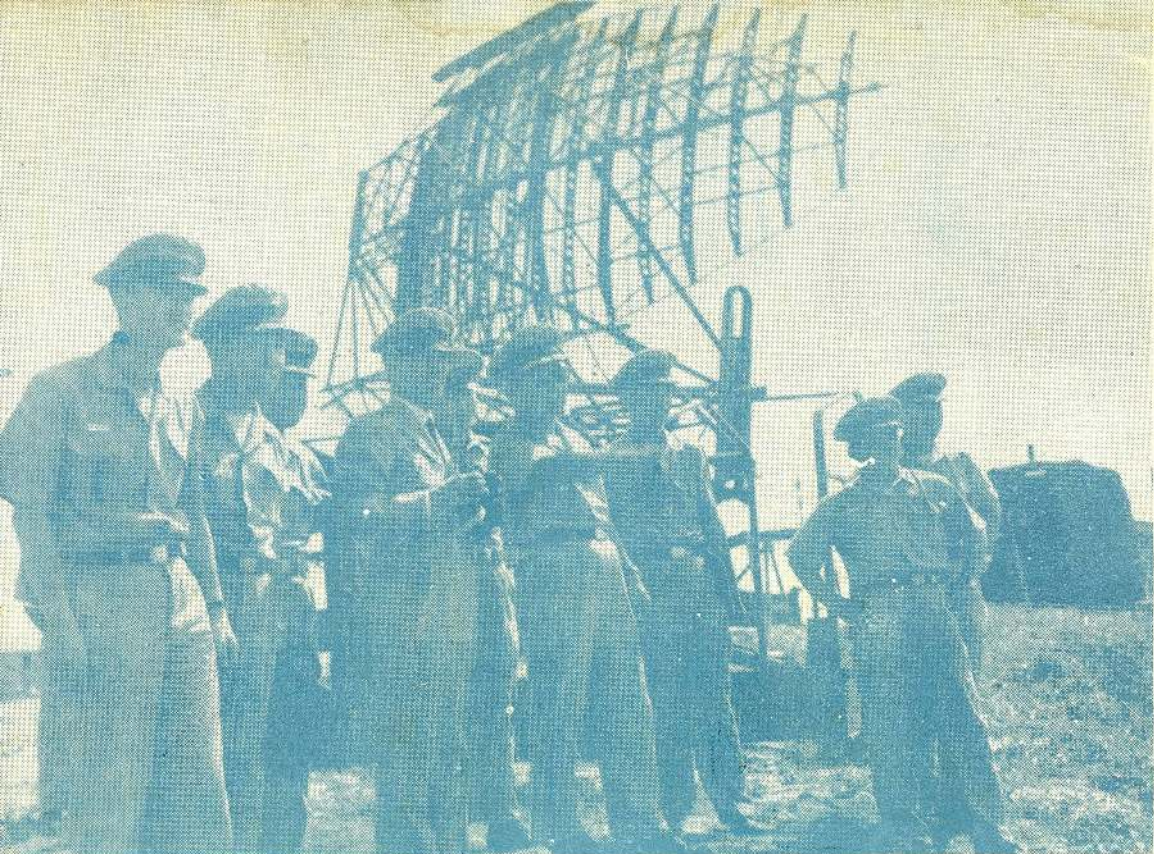
韓國民主主義가 디디고 서야 할 것

에바르민민주주의의 바탕을 기르자

美國民主主義의 바탕 · 프랑스民主主義의 바탕



第16號



金總長 各部隊 巡訪

金信참모총장은 7월 5일부터 25일까지 각 기지를 방문하고, 묵묵히 주어질 임무에 불철주야 충성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무 격려하였다. (사진은 K-53 기지에서)



- ◆ 金總長 各部談話
 ◆ 十戰飛行 無事故飛行 萬時間을 突破(表紙三면)
 ◆ K-14기지의 위령비 제막식(表紙三면)
 ◆ K-12기지 창단 군민합동수로 개척 작업(表紙四面)

현영회 제재수
 학기경회순영
 문유우이이배
 그림차례
 표지차례
 표지차례

人和라는 것

李熙昇 (一)
 金允經 (五)

이바라민주주의의 바탕이바라민주주의

- 主人노릇 해야지
 責任과 制度와 生活과
 누구나 통할 수 있다
 바빠면 돌아가라
 먼저 깨우쳐야겠다
 科學하는 마음
- 〈自主精神〉 車基璧 (八)
 〈責任觀念〉 權純永 (一〇)
 〈理解心〉 金在俊 (一一)
 〈創意心〉 金玉吉 (一三)
 〈自覺心〉 李相殷 (一五)
 〈創意精神〉 崔台鎬 (一七)
 申一澈 (一八)

韓國 民主主義가 디디고 서야 할 것

試練을 거듭하고 있는 韓國의 民主主義
 民主主義의 韓國化를 위한 基礎的 姿勢
 는 무엇인가?

- 美國 民主主義의 바탕
 프랑스 民主主義의 바탕
- 任永信 (二二)
 金鄉岸 (二四)

- △ 中共의 內腫 對 파키스탄 挑發·食糧과 人口苦悶·反革命事件
 △ 잉카族의 首都 對 世界 驚異巡禮
 △ 俗談春秋
 △ 漫 畫 韓의 春의 音
 미사일 人生案內
- 金史泉 (二四)
 김영주 (四九)
 김두현 (六六)
 고두현 (六七)

세계에의窓

현년의 韓國觀·柏林의 人情味
 美國을 마르게 알자

- 韓國의 復興과 農村의 役割
 軍縮을 위한 現實的인 길
- 梁大洙 (三五)
 梁潤世 (三六)
 洪基昶 (三二)
 부라켓트 (二八)
 K.나이트 (七六)

現代의 方向

教育 對 우리나라의 實情을 中心으로
 映畫 對 韓國 映畫의 現在性

- ☆ 政治와 經濟에 미치는 패스·김의 影響
 ☆ 虛 偽 的 藝 術
 共產主義作家인 蕭蕭는 共產主義 藝術의 虛假性을 浮트시킴에 對해 攻擊하고 追拂되었다
- 劉斗演 (四二)
 金基漸 (五三)
 나루이로프 (二五)

北韓偵察飛行

韓國 動亂의 實記——카나다의 陸軍少領과 美國 조종사의 이야기

- ☆ 내가 만난 잊을 수 없는 軍人
 ☆ 하늘을 누비는 오빠들께 空軍將兵의 위문편지
 經濟五個年 計劃 첫돌맞이 軍內 懸賞論文 佳作入選
- 安壽吉 (四六)
 劉敏伊 (六四)
 金星七 (五六)

장병 페이지

- ◇ 繪畫……宋秉敦
 ◇ 音樂……李成三
 ◇ 映畫……金奎東

第七航路保安團篇 (九四)

- 미사일教室
 民主主義原理 세미나
 共產主義 세미나
 生活經濟 A·B·C
 高分子化合物
- 김낙봉 (七九)
 李東賢 (八二)
 崔虎鎮 (八五)
 李鍾珍 (八三)

- ★ 血液循環의 原理 對 世界를 움직인 책들
 創作 對란窓과 아이의 幸福
 오병수 (九五)
 金耀燮 (九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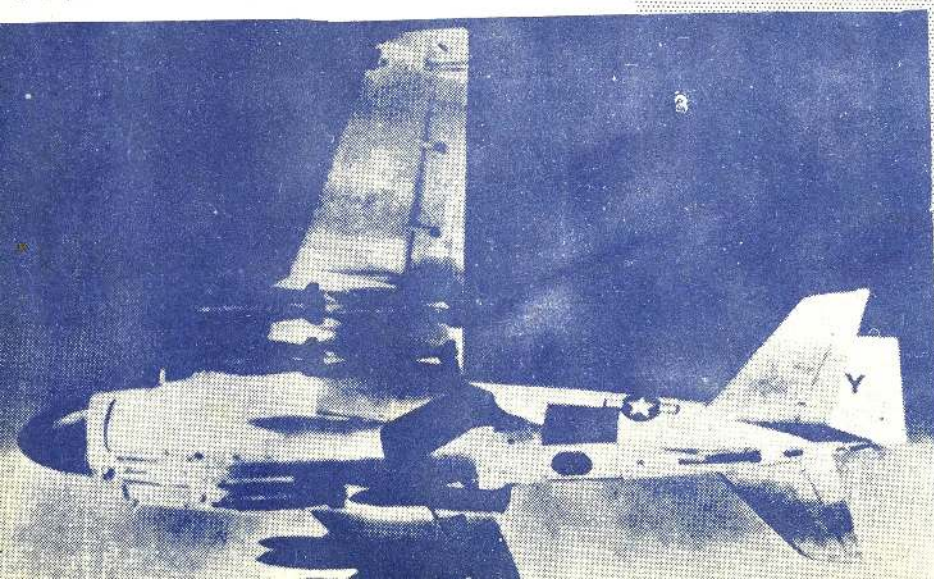
- 小說 殺人
 柳起英譯 (八七)

그는 殺人을 하였다. 누구를 위한 殺人인가? 아니 그는 殺人罪의 處刑을 받아야 마땅할 것인가? 作者는 讀者에게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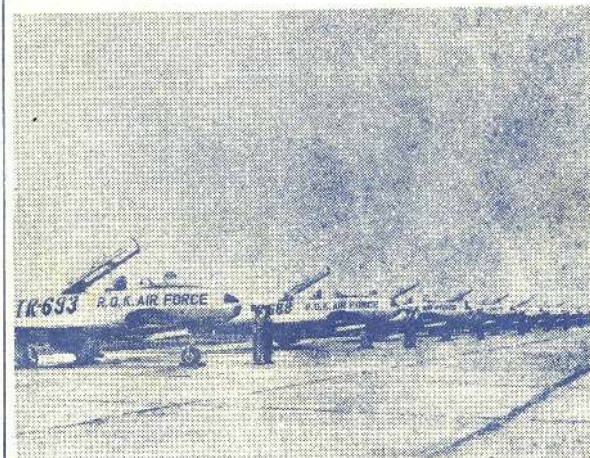
Avro vulcan (英) — 1957年 5月 最初로 就役한 以來 英國空軍攻擊의 核
心的 役割을 擔當하고 있는 同機는 在來式武裝에 追加하여 두개의 '스카이볼트' 탄도
탄을 장비할 수 있으며 6萬피트 高空에서 音速의 0.95倍로 비행한다.

Grumman A 2F Intruder (美) — 1960年 4月 最初로 비행한 同機는
美海軍이 韓國戰의 經驗을 土臺로 局地戰에 使用도록 製作한 것이다. 現在 生産中이
며, 탐색 및 추적 '레이다'를 裝備한 複座의 同機는 海拔高度에서 音速의 0.9倍로 비
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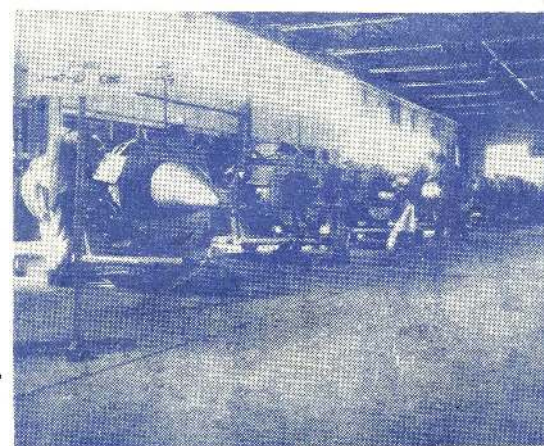
군 인 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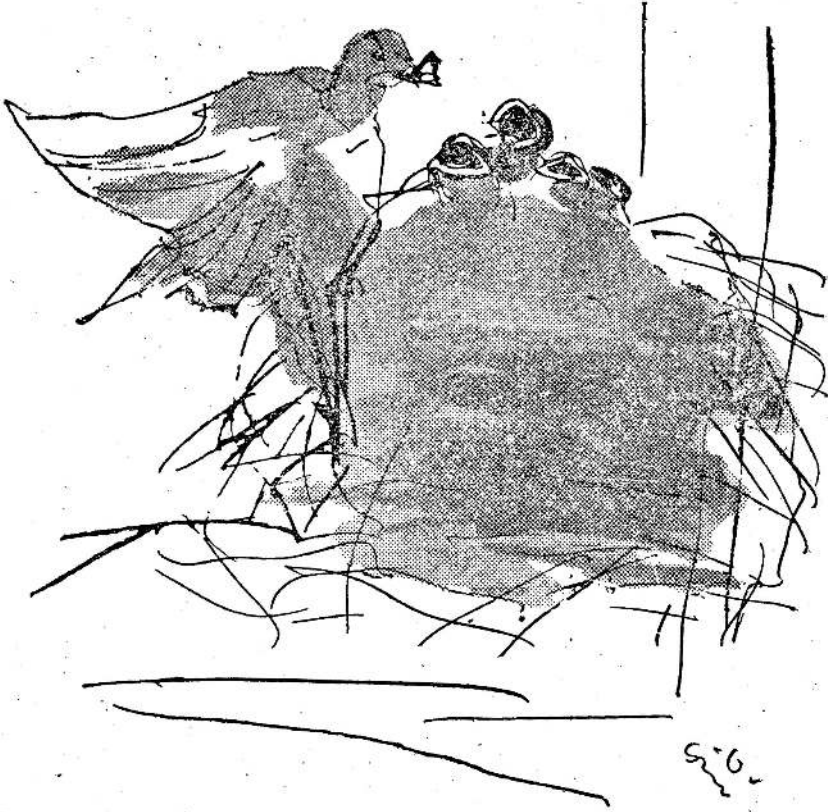
- 하나. 우리는 국토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친다.
- 둘. 우리는 필승의 신념으로써 싸움터에 나서며 왕성한 공격 정신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차지한다.
- 셋. 우리는 출신수범하여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고 명령에 부종하여 엄정한 군기를 확립한다.
- 넷.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을 즐기며 으며 새로운 전기를 끊임없이 연마하여 강한 전투력을 갖춘다.
- 다섯. 우리는 존경과 신애로써 예절을 지키며 공과사를 가리어 단결을 굳게하고 생사고락을 같이한다.
- 여섯. 우리는 청백한 품성과 겸소한 기풍을 가지며 군용시설을 애호하고 군수물자를 선용한다.
- 일곱. 우리는 국민의 자제로서 국민을 위하여 자유민의 전우로서 자유민을 위하는 참된 역군이 된다.



혁 명 공 약

1. 반공을 국사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깃.....禹 慶 熙

미 사 일

제 16 호

1962



發 行 處 · 空軍本部 政訓監室
 發 行 兼 編 輯 人 · 空軍大領 朱 貞 鎬
 印 刷 處 · 空 軍 教 材 廠
 印 刷 人 · 空軍大領 金 石 桓

人和라는 것

—서로 믿어야 한다—



李熙昇

〈서울文理大名譽教授〉

동양(東洋)에서 공자(孔子)에다가 가는 성인(聖人)이라고 불리우는 맹자(孟子)의 말씀에

「천시(天時)가 지리(地利)만 못하고, 지리가 인화(人和)만 못하다.」

(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孟子公孫丑章下)

여기서 천시(天時)라는 것은 시일(時日)·간지(干支)·주야(晝夜)·한서(寒暑)·청우(晴雨)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무슨 일을 실행에 옮길 적에(혹은 적에 대하여 공격(攻擊)을 가할 때에), 날씨가 명암(明暗)·밝은 때, 어두운 때(이나 또는 일진(日辰)이 좋은 날 즉 길(吉)한 날을 택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좋은 때를 고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리(地利)만은 못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지리(地利)라는 것은 전략상(戰略上) 좋은 지형(地形)을 이르는 것이니, 즉 훌륭한 요새지대(要塞地帶)를 의미한다. 중국에서 옛날부터 이러한 훌륭한 요새를 금성탕지(金城湯池)라 일컫었으니, 금성은 쇠로 쌓은 성이요, 탕지는 끓는 물이 고인 못을 가리키는 것이다. 아무리 공격하여도 도저히 두렵힐 수 없는 훌륭한 요새지대를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요새라도 또한 인화(人和)만은 못하다는 것이니, 무슨 일을 하여 내는 때는, 무에니 무에니 하여도 인화가 제일이라는 말이다.

그러면 인화(人和)라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별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집단(集團)이나 기관(機關)에 있어서 그 단체를 이룬 자 사람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화기애애(和氣霽霽)한 가운데 일치단결하는 정신(精神)을 이르는 말이니, 이와 같은 정신으로 무슨 일을 행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못 이루어 낼 일이 없다는 뜻이다.

인화는 이와 같이 훌륭하고 필요한 것이다. 모든 일에 대한 성공(成功)의 요제(要諦)는 실로 이 인화에 달렸다 할 것이다.

행정기관(行政機關)이나 기업체(企業體)나 학원(學園) 등 모든 단체에 있어서, 그 수행하는 업무(業務)를 성공적(成功的)으로 열매를 맺도록 하려면 이 인화 없이는 하나도 되는 것이 없을 것이다.

군대(軍隊)의 가장 중요한 전투행동(戰鬥行動)에 있어서도 이 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적(敵)을 격퇴(擊退)하거나 궤멸(潰滅)시킬 승산(勝算)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단체뿐만 아니라 한 가정(家庭)에 있어서도, 또는 비록 가족이 없는 어떤 개인이라 할지라도, 활동을 하고 생활을 영위(營爲)하려면, 사회적으로 여러 사람과 접촉(接觸)을 하여야 할 것이요,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는 대인관계(對人關係)에 있어서는 이 인화라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인화가 조금도 없다면 그 가정이나 사회에 아무런 안정(安定)이 없고 질서도 평화라는 것은 전연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그 가정이나 그 사회는 곧 쇠망(衰亡)의 비운(悲運)에 빠지게 될 것이요, 동시에 그 개인 자신도 필경 파멸(破滅)의 구렁텅이에 떨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고 보면 인화라는 것이 인간생활의 영고·성쇠(榮枯·盛衰)를 좌우(左右)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 우리는 이 인화라는 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이 인화를 조성(造成)하고 또 유지(維持)할 수 있을까?
첫째는 참는 일이다. 어렵고 곤란한 일이다. 비위에 틀리고 분

통이 터지는 경우엔 당면(當面)하였을 적이라든, 그쳐 꼭꼭 참아야 하겠다. 조금만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들어도 곧 탄하고, 조금만 눈골에 틀리는 일을 보아도 곧 대들어 서 시비곡직(是非曲直)을 가리겠다고 나서게 되면, 거기서 벌써 인화는 깨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사람이란 어떻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 수 있으며, 보기 싫은 꼴을 죄 탄해서, 나의 멋멋하고 정당할 것을 이루다 밝히고 살 수 있겠는가.

우리 속담에

「고기는 썰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맛이란다」

는 것도 있지마는 이 반면(反面)에,

「입 다물기를 병 마개와 같이 하여라」

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재앙(災殃)은 입에서 나온다」

라는 말도 있다.

좀 시대에 뒤떨어지고, 봉건적(封建的)인 잔재(殘滓)라고 비난을 받을 이야기 일는지는 모르나, 그 전날 우리 가정에서 무던한 재며느리가 되려면,

「귀머거리로 三年, 소경(小童)으로 三年, 병어리로 三年, 석 三年을 병신 구실을 하고 살아야 한다」

는 말이 전하여 오고 있으니, 이것은 갖 시집온 새며느리로서는, 무엇을 들어도 못 들은 체, 보아도 못 본 체, 하고 싶은 말도 병어리 인체, 그저 입을 꼭 다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하여 너무도 가혹(苛酷)한 제재(制裁)라고 하겠지만, 만일 이와 같이 실행하고, 말 없이 탈 없이 구순하게 지내 가는 며느리가 있다면, 그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人格者)며, 그 얼마나 화기애애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는가.

또 이런 며느리가 자라서 시어머니가 되고 가정 주부(主婦)가 된다면 그 가정은 물을 것 없이 화기가 가득 차서 있을 것 아닌가.

그러므로, 옛날부터

「백 번 참는 가정에는 큰 평화가 있다」(百忍堂中有太和)

라는 금언(金言)이 전하여 오는 것이다. 그리고

「참으면 덕이 된다」(忍之爲德)

는 말도 있다. 덕은 곧 참는 데서 생기는 것이요, 화기를 지어 내는 상징(象徵)이 되는 말이니, 그러므로

「덕은 외롭지 않아서, 반드시 훌륭한 이웃이 생기게 된다」(德不孤必有隣)

는 말도 인생 생활의 진리(真理)를 나타내는 말이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병신 생활을 三年씩 세 번이나 할 수 있겠느냐고 타박을 한다면, 문제는 그만이다. 인화는 곧 깨어져 버리고 말게 될 것이 불을 보느니 보다 더 분명한 일이다. 웬만한 일은 누구나 다 참을 수 있다. 요는 사람으로서 참기 어려운 일을 참아야 참는 보람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어떤 외국 속담에는,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진정한 참는 것이다」

라는 것이 있다. 또 중국 사람 여본중(呂本中)이 이도(吏道)의 좌우명(座右銘)이 될 만한 「관감(官箴)」이란 것을 만들었으니,

「참을 인(忍)자 한 자가 온갖 묘리의 문(門)이 되나니, 관리가 되어서 사무를 처리할 적에 더욱 이것을 먼저 힘써야 한다. 만일 청렴하고 조심성스럽고 부지런한 외에, 참는 것만 가지만 더한다면, 무슨 일을 해 내지 못하겠는가」(忍之一字衆妙之門, 當官處事尤是先務, 若能清慎勤之外, 更行一忍, 何事不辦)

라는 것이다. 그리고 송(宋)나라 처 부필(富弼)이란 사람은 어려서 자기에게 유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짐짓 못 들은 척 하는 것이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핑계 주면, 그는

「아마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유한 것이겠지」

하고 만다. 그 사람이

「아니오, 분명히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유을 합디다」

하면, 부필은

「여보 세상에는 같은 이름도 있을 것이 아니오」

하고 웃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를 유하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 고서는 몹시 부끄러워 하였다 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며 얼마나 부필의 참는 마음이 깨끗하였던가.

인화를 지어 내는 데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서로 믿는 일이다. 가정이나 사회 혼란의 원인의 태반은 불신(不信)인 믿지 못하는 일에서 생기는 것이다. 원인의 태반이 아니라, 거의 전부가 믿지 못하는 일에서 생기게 된다. 세상에는

「믿는 바에 믿음이 된다」

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믿는 정도가 지나친 데서 생기는

말이요, 그것이 곧 이 세상에 신(信)이란 있어서는 안된다는 그러한 뜻은 아니다. 사람은 서로 믿어야 하겠고, 그러므로 믿는 일이 다반사(茶飯事)와 같이 흔해빠지며, 너무 많은지라 그 중에서는 믿는 일로하여 낭패도 생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도무지 서로 믿지 않고 살아 본다고 하자. 부모, 자식 사이에도 믿을 수 없으니 재산을 서로 도둑질해 내는 것만 같고, 심지어는 저것이 과연 나의 자식인가, 저이가 진정 나의 부모인가 하는 것까지도 의심스러워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내외간에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의침증(疑妻症)이란 신경쇠약에 걸리어서,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비극이 이 세상에 무대기로 쏟아져 생기게 될 것이다.

면도로 부를 때를 찌를까봐 이발사 티밀에서 눈을 감고 얼굴을 치받칠 수가 없을 것이요, 안방 아랫목에 앉았더니 들보가 부러져 내리울 염려도 적지 아니할 것이다. 문밖엔 나저자니 땅이 꺼질까 겁이 날 것이요, 심지어는 하늘이 무너져서 노루가 창애에 처듯이 세상을 하직하게 될까봐 애가 마르게 될 것이다.

「열자(列子)라는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 「기(杞)라는 나라에 한 사람이 있으니, 하늘이 무너져서 떨어지면, 몸뚱이 없게 될 것을 걱정한다. 「기우(杞憂)라는 속어(熟語)까지 생기게 되었으니 이런 까닭에 「기우(杞憂)라는 속어(熟語)까지 생기게 되었으니 이 말은 「지나치는 걱정」·「쓸데 없는 염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우리 나라 속담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것은 「기우」와 정반대로, 모든 것을 믿고살라는 것을 강조(強調)한 좋은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적어도 사람끼리만은 서로 믿고 살아야 하겠다. 또

「하룻밤을 자도 만리성(萬里城)을 쌓는다.」는 속담이 있다.

옛날 진시황(秦始皇) 시절에, 북방 오랑캐를 막으려고 만리성을 쌓기 위하여 온 나라 안의 창정들을 징집하여 들였다. 워낙 커장한 공사인지라 수많은 창정이 모여서 여러 해를 계속하여 공사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자사람의 본집에서들은 전쟁(戰場)에 나가 아들이나 남편처럼 눈이 까맣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은 좀체로 돌아오지를 않았다.

어떤 지방에, 창성 쌓는 데 부역(賦役)을 나간 남편을 몇 해째 기다리고 있는 미모의 젊은 여자가 홀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미모의 여자를 은근히 사모하는 이웃 동리에 남자가 있어서, 사모하고 사모하면 나머지 애 하룻밤에는 단단한 결심을 하고, 그 여자의 집에 뛰어 들어갔다. 그리하여 평생의 소원을 호소하며 간절히 애원하였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한 가지 조건을 내놓는 것이었다. 조건이란 별다른 것이 아니라, 만일 자기 남편을 대신하여, 만리창성 쌓는 데 가서 부역을 하고 자기 남편을 돌려 보내 준다면 꼭 하룻밤 몸을 허락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남자는 꽤 허락하고 이를 굳게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하룻밤을 동침한 후, 그 약속대로 수천 리 길을 마다 않고 창성 쌓는 곳으로 찾아 가서, 그 여자의 남편을 찾아, 자기가 그 부역을 대신하고 그 사람을 돌려 보냈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하룻밤을 자도 만리성을 쌓는다.」라는 속담이 생겼다는 이야기다.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이웃 남자가 한 여자에 대하여 약속을 틀림없이 지켰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신의(信義)가 끔찍하다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것이 미담(美談)이 아닐 수가 없다.

어찌든 저만한 정도로 인내(忍耐)를 하고, 이만한 정도로 믿음을 지키는 세상이 된다면, 그 사회는 인화가 가득한 평화향(平和鄉)이 되고, 안락경(安樂境)이 될 것이니, 이것이 곧 「유토피아」가 아니고 무엇이냐, 낙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경영하는 일은, 만사 「오·케」요, 일마다 소원대로 성취(成就)되지 않을 리가 없다.

—一九六二·六·二四—

☆ 남에게 신뢰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인간 본능인 이상스러운 작용이다. 당신이 진실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며, 자기의 원칙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점을 알아 준다. 당신이 만일 성실하지 못하면 성실하지 못한 점도 곧 알려준다.

신뢰가 없는 지도자는 정말 무능력한 것이다. 그리고 신뢰받는 유일한 길은 「정직은 한때 써먹고 마는 편미주의보다 나은 것이라」고 믿는 일이다.

團結이라는 것

서로 아껴야 한다

김 윤 경



〈한글학각〉

편집자의 이러한 제부를 준 내용은 인화 단결의 요체인 『아끼는 마음』이라 하였다.

사람은 왜 인화(人和)와 단결(團結)을 요구하는가? 이는 인생의 목적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러면 과거의 어진 사람, 밝은 사람, 거룩한 사람들은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 되겠다고 보았는가? 공자는 인(仁) 또는 지(知)인(仁), 용(勇)을 말하였는데 『지』는 속지않는 것(知者不惑)이요, 『인』은 근심하지 않는 것(仁者不憂)이요, 『용』은 무서워 하지 않는 것(勇者不惧)이라 하였다. 맹자는 인(仁)과 의(義)와 예(禮)와 지(智)를 말하였고 한의 동종서는 맹자의 말에 신(信)을 하나 더하여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을 말하였고 맹자는 또 오륜(五倫)을 말하였는데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고(父子有親),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옴함이 있고(君臣有義),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구별함이 있고(夫婦有別),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고(長幼有序), 벗과 벗 사이에는 믿음직함이 있어야 한다(朋友有信) 함이 그것이다. 또 유교에서는 세 가지 버리(三綱)와 세 가지 좃음(三從)을 말하였는데 임금은 신하의 버리(君爲臣綱)가 되고 아버지는 아들의 버리(父爲子綱) 남편은 아내의 버리가 됨(夫爲婦綱)을 세 버리라 하였고 또 여자가 집에 있어서 는 아버지께 좃고 시집에 가아서는 남편에게 좃고 남편이 죽은 뒤에는 아들에게 좃고 좃음을 세 가지 좃음이라 하였다. 또 유교에서는 여자의 일곱 가지 버릴 죄악(七去之惡)을 말하였는데 첫째 어머니(父母)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버리고, 둘째 자식을 못 낳으면 버리

고, 셋째 음란하면 버리고, 넷째 질투하면 버리고, 다섯째 교질병이 있으면 버리고, 여섯째 말이 많으면(口無다하면) 버리고, 일곱째 도질질 하면 버린다 함이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덕들을 지키면 『인화』가 될 것은 사실이겠지만 여기에는 봉건적(封建的) 제급주의와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는 불평등 사상이 그 속에 쌓여 있어서 오늘날 같은 평등, 자유의 사상이 발달된 사회의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맹종하라는 어리운 것이다. 또 장자(莊子)는 상대적 유한계(相對的有限界)를 떠나야 절대적 무한계(絕對的無限界)에 거니는(逍遙하는) 신인(神人, 至人, 真人)됨이 인생 최종의 목적이라 하였고, 양주(楊朱)는 백편을살아도(百篇을 살아가도) 한 사람도 있기 드물지마는(아름병(痛疾)과 슬픈 괴로움(哀苦)과 실망(失望)과 근심되는 무저음(憂恨)으로 즐거움(快樂) 때가 없다가 죽으면 어진(賢)나 어리석은 이(愚)나 귀한 이(貴)나 천한 이(賤)가 다 같은 한 움큼의 흙에 지나지 않으니 인생은 빈방(空)이다. 그러므로 즐김 뿐이라 하여 구단의 쾌락설(非難論)을 주창하였다. 무자(墨者)는 하늘(天)은 상(賞)과 벌(罰)을 주창하며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이를게 하기를 원하며 서로 미워하고 서로 해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상(天)은 상(賞)과 벌(罰)을 주창하며 공자의 허세주의를 배척하였다. 예수교의 박애주의와 비슷한 점이 있다. 석가무니는 고통·질병·노쇠를 견디고 사람은 꼭 죽어야 알게 되어 살 가치가 없으니 살 기회를 피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여 『해탈(解脫)』과 『열반(涅槃, Nirvana)』에 이르러서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라 하였다. 예수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여 박애주의를 주창하고 하느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도 완전하라 함을 인생 최종의 목표로 교훈하였다. 공자나 석가 무니는 어느정도 소극적이라 하겠고 예수는 적극적이라 하겠다. 공자는 『나는 하늘의 도를 말하지 않는다(我不言天道)』하면서 『하늘에 죄를 지으면 벌이 없다(獲罪於天無所禱)』함에 대하여 예수는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느님과 같이 완전하여 지기를 원하라 하였다. 공자는 『자기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己所不欲勿施於人)』함과 같이 소극적이나 예수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함과 같이 적극적이다. 유교는 삼종의도나 천거지악을 말한 것이 제급적 불평등주

의라 하였으나 예수의 교훈은 세계 인류를 다한 동포형제로 보는 평등주의요 자유주의라 하였다.

자유와 평등과 사랑은 곧 『인화』의 필요불가결할 요건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흠(缺)이 있다. 흠이 있다고 하여 자유를 빼앗고 평등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 하면 한 사람도 자유와 평등과 사랑의 혜택을 누릴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론 사회의 질서와 행복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어길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 해당하는 제재를 받게 된다. 마땅하겠지만 이 공동의 규정(公定)의 제재에 걸림만 한 행동의 흠이 아니라면 서로 아끼고 아껴서 사랑하기를 힘써야 마땅한 일이다. 예수는 『원뿔을 치거든 바른 뿔을 돌려 대라』하였고, 또 『오미를 가자 하거든 십리까지 동행하여 주고 길웃을 달라 하거든 웃음까지 벗어 주라』하였다. 이는 보통 사람으로는 행하기 극히 어려운 일이라 하였으나 우리는 힘닿는 대로 이러한 정신으로 남을 대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인화』는 성기 어려울 것이다. 『인화』가 되지 못한다면 단결 더구나 공은 단결은 있을 수 없음이 확실하고 공은 단결이 아니고는 번영과 행복은 누리게 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우리가 단결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민족 전체가 세계에 가장 가난하게 되었고 남의 풍도 되었었고 가장 불행한 민족이 된 것임은 우리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과거의 선조들은 극단으로 사대 사상(은나라를 섬기어 종으로 자처하는 생각)에 중독되어 극단으로 자아를 잊어 버리어 『한무제 토벌지(漢武帝討滅之)』 하시고...』하는 파위 문구(文句)를 넣은 한문을 어린 아이 교과서로 써서 제나라 글을 가르치지 않고 한문만 가르칠 뿐 아니라 중국의 한나라 무제가 우리를 쳐 멸함의 그 형제도 고맙는지 극존칭의 『하시고』란 말을 어린이 마디속에 비판도, 반성도 없이 그 책은 사상을 불어 넣어 주어 왔다. 그 결과 자기의 고유한 역사, 문화, 풍속, 습관은 다 있어 버리고 완전히 중국 사람으로 화하여 버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국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작은 중국 사람이라 불렀다(華人, 稱之曰, 小中華). 이러한 모욕도 깨닫지 못하고 특하면 이를 큰 보배나 지닌 듯이 자랑으로 내세웠다. 이는 나 자신도 어릴 때 사숙에서 이러한 교과서인 『동몽선습(童蒙先習)』을 배웠다. 그리고 중국의 황하, 양자강이나 태산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는 잘 설명하여 주는 선생이 배두산, 금강산이나 금강이 어

더에 있는냐 물으면 손치 『내가 아니?』하고 등명과 역공과 책망을 퍼부음에 불평을 품고 반항하면 일이 아지도 기역에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 그리하여 한문배우는 사숙을 버리고 서울로 와서 학교에 입학하여 우리의 국어와 역사, 지리, 산술, 대수, 잇과... 따위의 새 학문을 배울 때 자아 망각의 사대사상의 한문교육이 얼마나 틀린 것을 알게 되는 동시에 새 교육이 얼마나 좋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과거의 노예사상, 사대주의 중독증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음이 우리 사회의 실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책은 버리게 하여 버리고 자유와 평등과 사랑으로 인화를 얻고 따라서 단결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남 같이 번영과 행복을 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웃에서 일을 벌리고 삼키기를 노리는 적에게 멸망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자유라면 오히려 말아야 하겠다. 흔히 무조건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오히려 쉽지만은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의 말과 같이 『자유라 함은 자기가 원함과 같은 남의 자유를 방해함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함을 이룸이다.』 또 평등이라 함도 오히려 어렵다. 자 사람의 능력(学力)이나 기술의(才力)를 다 같이 붙이 평등의 뜻이다. 인격의 끼치는 은택의 범위(範圍)로 본다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남에게 손해만 끼치는 『마이너스(-)』의 인격도 있고,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로 아무 유익도 손해도 끼치지 않는 『제로(0)』의 인격도 있고 자기 이웃으로부터 친 민족, 친구가 내지 친 인류에게 영원히 은택을 끼치는 『플러스(+)]의 인격, 곧 무한대의 인격도 있다. 이 점에서 본다면 인격은 천차 만별이라 할 것이다. 사랑도 세계 인류를 똑같이 사랑한다면 이는 참 이상적이라 하였으나 사람의 능력은 그렇게 널리 무제한으로 미쳐 가계할 수는 없다.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에 미쳐어 가계될 수밖에 없다. 예수의 교훈중에도 『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자는 사랑을 한다 함은 거짓말하는 자라』하였다. 가까운 부모와 처자를 굶어 죽게 내버려 두고 빈민이나 고아를 구제한다 함은 의식하는 자라 할 것이며 거짓 착한 제하는 자라 할 것이다. 이같이 적극적 사랑은 힘의 한도가 있으므로 최선의 힘을 다 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미쳐 가기를 힘써야 바애의 정신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소극적 사랑은 무한히 넓힐 수가 있겠다. 이는 곧 어떠한 사람에게나 해가 미쳐 잘 행동을 얻음하고 삼가는 것이 그것이다.

나라에 새남을 바치는 것의 대부분은 六·二五 공산군 침입으로 많은 생명과 재산을 빼앗겼음과 같은 의적을 막기 위하여 많은 군비로 바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적이 남을 아끼는 마음을 가졌다면 군비 때문에 생기는 손실은 안 당할 것이다. 또 교도소, 경찰서, 재판소들르 인한 모든 비용을 위한 전국민의 부담은 이러한 기관을 두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 범죄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범죄자들이 남에게 해를 안 입히겠다는 소극적 사랑이라도 한다면 전국민에게 그러한 손해는 안 끼친 것이다. 그러므로 소극적 사랑은 적극적 사랑보다 그 미처가는 범위가 더 넓고 크다고 하겠다. 남에게 해를 안 입히겠다는 소극적 사랑은 누구나 저마다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다. 인화는 이러한 적극적 소극적 사랑 곧 『아끼는 마음』으로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끓었을 때에 입고 감격이 컸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이 말을 끝맺으려 한다.

『하루는 손과 발, 눈, 귀, 코...들이 회의를 열었는데 손이 말하기를 나는 온갖 맛 있는 음식을 집어 오면 배만 좋게 하지 나머지는 아무 소독이 없다고 하였다. 이때 발이 말하기를 나는 맛 있는 음식을 얻으려 걸어 가느라 고 죽도록 애를 써야 역시 배만 좋게 만들어 주고 나머지는 아무 소독이 없다고 하였다. 이때 눈이 또 말하기를 나는 언젠가 맛 있는 음식을 먼저 발견하지 마는 배만 불리어 주지 나머지는 아무 소독이 없다고 하였다. 이때 귀가 또 말하기를 어디에 좋은 음식이 있다는 소식을 내가 제일 먼저 듣지 마는 배만 좋게 하였지 나머지는 아무 소독이 없다고 하였다. 이때 코가 또 말하기를 나는 언젠가 맛 있는 음식을 내가 먼저 판단하여 놓으면 배만 좋게 하였지 나머지는 아무 소독이 없다고 하였다. 이때 손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남만 위하여 일하고 우리 자신에게는 다 소독이 없으니 일제히 이제부터 동맹 파업하기를 동의하오 하며 일동은 다 일제히 재청이요 삼청이요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하여 곧 동맹 파업을 시작하였다. 하루가 지나고 이를 사흘이 되니까 배만 고파 죽게 될 뿐 아니라 손, 발은 움직일 기운이 없게 되고 눈은 볼 기운이 없어 앞이 캄캄하게 되고 귀는 망막하여 들을 수가 없게 되고 코는 냄새를 맡을 수가 없게 되었다. 다 함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야 일동은 동맹 파업을 중지하

고 다 같이 친처럼 자기의 말은 직분대로 일하기로 하여 죽기를 면하고 다 같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우리 사회도 서로 사랑하여 아끼는 마음으로 학자는 진리를 발견하기에, 경찰과 군인은 내란과 외적을 막기에, 실업가는 남의 물건을 쓰지 않고도 진 민족이 쓸 수 있을 물건을 만들어 내기에, 정치물 잡은 이는 진 민족이 번영하고 행복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행하기에, 이밖에 누구나 자기가 민족에게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대로 이바지하기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심 단결한다면 우리도 남이 부러워 할 행복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고 또 남의 나라까지도 도울 힘이 생기게 될 것을 확신하여 의심하지 않는다.

(一九六二·六·一五 자정이 넘어서 끝냄)

◇ 불결과 友誼

목펠터의 청년시대의 일이었다. 그는 어니를 가든지 결코 값비싼 고급 양복을 입지 않았다.

어느날 친구가 열회를 베풀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모두 눈부실 만큼 좋은 옷을 입고 의기 양양해서 참석 하였다.

그러나 목펠터만은 언젠가 입던 누추한 옷을 입고 참석 하였다. 친구들은 이것을 보자 모두들 예의가 아닐을 힐난하였다. 이 말을 들은 목펠터는 그다지 기를리지 않는 듯이

『내 부장 말인가? 그다지 나쁜 것도 아닌데 단지 자비들의 옷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아닌가?』

하고 대답 하였다.

『그러나 여보게, 다소는 장소도 생각하게. 초대한 주인층에 대해서 실례가 아닌가?』

그러자 목펠터는 무박스럽게 말하였다.

『아나, 내 친구에는 부장의 여하에 따라서 호의의 유무나 후박은 운운 할 자는 한사람도 없는 줄 아는데...』

이 한마디에 과연 친구들도 같이 부끄러움을 느껴 그우는 좋은 옷을 입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8.15
다시 맞아

올바른 민주주의의

特 輯

일찍이 그 스스로의 바람에서 민주주의의 기초를 확립하지 못했던 우리는 그 빛나는 전통과 역사적 유산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민주주의의 댓가」를 치루지 않으면 안되는 시련을 겪어야 했다. 이제 태극기와 함께 이땅에 민주주의 첫 기말이 울려지던 감격의 날, 8.15 해방 17주년을 맞으며 다시한번 민주주의로 향한 우리의 정신적 자세를 그 밑바닥으로부터 분석 검토함으로써 혁명과정의 지상 목표인 민주주의 건설을 위한 행동의 기준을 잡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바람을 기르자

主人 노릇 해야지.....

— 自主精神에 관하여 —

車 基 壁

△成大副教授▽

民主政治가 제대로 運用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前提條件을 필요로 하거나와 칼·백커는 그의 「現代民主政治論」에서 이를 必要한 條件과 充分한 條件으로 나누어서 檢討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交通의 發達이나 經濟的安定과 같은 物質的要因과 德性이나 能力과 같은 精神的要因은 다같이 民主政治成立을 위한 必須不可缺의 條件이나 그것만으로는 不充分하며 民主政治에 대한 철저한 信仰, 다시 말하면 民主政治야말로 우리 人類가 발견해낸 최선의 政治制度임을 굳게 믿는 철두철미한 信仰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은 그렇고, 우리네 民主政治가 陳腐을 거듭하고 있는 所以는 그러한 前提條件을 갖추지 못하고, 더구나 民主政治의 原理나 精神을 옹기 體得하지 못한데, 議會나 選舉나 하는 民主政治의 制度만을 「直輸入」한 데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길 때 民主政治의 기틀을 서두려 마련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人間改造」이나 「民族의自覺」이니 하는 精神的 要因이 크게 強調되고 있거니와 民主再建을 念願하는 우리는 民主政治成立의 必要條件의 하나인 精神的 要因이 클테면 自主精神이나 公共意識 二

고 愛國心이나 寬容등과 같은 民主的 品性全般에 걸쳐 일일히 검토해야 할 것이나 여기서는 편집자의 要請에 따라 그중에도 특히 自主精神에 置重해서 간단히 考察해 보기로 한다.
民主政治란 要컨대 國民이 國家의 主人 노릇을 하는, 즉 國民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政治制度이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一般國民이 普通平等的 參政權을 가지고 主體적으로 政治에 參與하여 多數의 意思로서 國事를 처리해 나가는 政治制度이다. 따라서 民主政治下에서는 國民이 公公然한 論爭과 批判을 통하여 順理로서 서로 說得하며 萬事를 公論으로 결정짓게 되므로, 國民各자는 正當한 意見과 그렇지 못한 意見과를 判別할 수 있고는 能力과 옳다고 믿는 바에 果敢히 辨論할 수 있는 勇氣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無自覺的, 無批判的으로 남의 意見에 盲從하거나 緣故나 情實에 따라 處身하는, 또는 世上風潮에 附和雷同하는가 無責任한 사람들과는 煽動하는 우매한 국민에게 民主政治의 健全한 運用을 기대하는 처음부터 무리한 것이다.

그러므로 民主政治는 知識과 道德을 물에 지니고 自尊心과 責任感을 가져는 自主의인 國民을 前提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自主의인 국민이란 다른 어떤 自我가 確立되어 主體의인立場에서 萬事를 判斷하는 국민을 말하거니와 사실 西歐의 民主政治는 自我의 發見을 계기로 해서 샤프트 시 작했다. 아닌게 아니라 西洋中世의 他律의인 教權萬能思想을 물리치고 새로 自我를 발견한 個人들이 文藝復興을 일으키고 宗教改革을 斷行했지만 文藝復興의 人文主義와 宗教改革의 프로테스탄티즘의 倫理는 좋은 西歐民主政治의 精神의 支柱로 되어 왔던 것이다.

이와는 달리 長久한 歲月에 걸친 專制政治와 특히 李朝以來로 우리 民族이 걸은 崎嶇한 歷程은 국민과 내가 自我로서 自覺하지 못하게 한 반면에 事大思想, 支配者에 대한 盲從, 阿附根性 등과 아울러 權威主義, 族閥主義, 情實主義 등과 같은 온갖 우리 民族性的 弊弊를 남게 하였는데 이러한 歷史의 및 社會의인 惡遺產은 여덟섯 清算되어 있지 못하다.

때문에 국민자자가 아직껏 自我를 確立해 있지 못하니 民族의 自主性이 形成될라 萬無하리 解放以後 우리 民族은 남의 것을 形式的으로 模倣하는 데 정신을 잃어 그만 제 것은 물 붙여 유가 없었다 해도 過言이 아니다. 이제 卑近한 例를 몇가지 들이 봐도 外來風이 이 땅을 휩쓸었기에 男子大學生이라던 예히紳士服에 넥타이를 매고 登校하는 걸

로 알았고 女子大學生은 또 그들대로 타이트 스키아트에 나이롱 스타킹 차림으로 겨울 한철 冷房裝置도 없는 教室에서 오물 오물 떨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한술 맞출법을 모르는 것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는 듯한 教授가 없지 않고 또 三綱五倫을 입버릇처럼 排擊하면서도 기실 三綱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大學生이 수두룩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自我가 確立되어 있지 못하니 民族共同體의 一員이라는 自覺이 없기 결국 우리 民族은 「不在者」로 構成되어 있는 셈이다. 가령 「엄친을 모라, 할수 없지」 할 때, 自己自身은 엄친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국민자자의 思考方式이 이러한지라 나라의 일은 對岸의 火災視하게 마련이어서 國民再建運動도 耐乏生活도 모두 풍자만 그려나 「나만은 빼놓고」이다. 이렇듯 國民으로서의 義務를 다하지 않거나 이른바 「양시비중이 국민자자의 가슴속에 속속들이 스며들어 있으니 말하자면 이 나라는는 주인이 없는 셈이다. 물론 이런 현상은 국민만의 責任은 아니다. 지난날의 政府가 스스로의 義務를 다하지 못하여 국민으로서 하여금 民族意識을 喪失케 하고 國民된 義務를 忘却케 한 점이 많기에 말이다.

사태가 이러한지라 政府는 철저한 啓蒙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施策을 강구하여 국민간에 公共意識을 昂揚시켜야 할 자별한 必要下에 놓여 있는 것이다. 원래 民主政治는 公共意識을 不可缺의 條件으로 한다. 民主政治는 自主性 있는 個人을 前提로 한다 함은 叙上한 바이나, 그러한 個

人이 社會共同生活에 참가하여 自發的으로 公共問題에 대한 責任感을 가져고 自治와 連帶와 協同위에 調和와 秩序 있는 民主生活를 實現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公共意識이 切實히 要請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지만 사실 私利와 私心은 말할 것도 없고, 獨善, 孤高, 傍觀, 逃避도 民主政治의 敵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것은 어찌든, 그러한 公共意識 위에서 비로소 진정한 愛國心이 생겨나게 되는데 진정한 愛國心이 없는 참된 民主政治는 행해질 수 없으며 만일 참된 民主政治 없이는 진정한 愛國心은 成立되지 못한다. 아닌게 아니라 民主政治가 없는 愛國心은 全體主義의 獨裁로 되고 愛國心이 없는 民主政治는 放縱과 無政府主義로 되고 마는 것이다.

또한 民主政治의 成功을 위해서는 寬容도 不可缺의 品性이다. 不寬容, 偏狹, 偏見, 支配慾, 黨派心 등은 民主政治와 兩立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前述한 公共意識, 愛國心 및 寬容 등은 결국 個人의 自主性을 確立시킴으로써 育成될 수 있는 줄로 안다. 왜냐하면 自己의 人格을 確히 하고 自己의 自由와 權利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란 남의 人格도 그리고 그 自由와 權利도 존중하게 되겠기 때문이다.

그런데 個人의 確立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啓蒙을 필요로 하지만 그와 동

시에 社會改革을 단행하여 封建的 내지 專制的인 社會構造를 清算하고 그리함으로써 그것에 의거하는 習俗을 一掃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社會構造속에 專制的, 封建的인 殘滓가 남아 있는 한 그로 인하여 培養된 習俗은 좀처럼 清算되지 않겠기 때문이다. 또한 權威主義의 傳統下에서 專制權力의 對象으로 되어온 國民은 이른바 「被治者」의 性格에서 벗어나 스스로 政治의 主體로서의 自覺을 갖기가 어려운데다가 主從的인 封建的身分關係가 남아 있는 곳에서는 眞實한 民族意識이 사로잡혀 地方感情과 卑屈한 隸從根性, 그리고 利己의 家族主義가 根絶되지 못하여 따라서 自主的이고 對等한 個人意識이 싹트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經濟的要因이 자별히 重大함을 強調하지 않을 수 없다. 「恒産이 없으면 恒心이 없다」는 孟子的 말을 빌릴 필요도 없다. 衣, 食, 住의 基礎的條件조차 갖추어지지 못하면 社會에서 어떻게 個人의 自主性을 말할 수 있으랴. 饑饉에 허덕이는 個人에게 제 아무리 人格의 尊嚴性을 力說하고 個人의 確立을 鼓吹한들 무슨 所用이 있는가? 經濟的인 安定과 餘裕가 없는 곳에서는 公共意識이나 寬容의 美德을 강조할들 무슨 效果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볼 때 個人의 確立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삶을 위하여 自身을 金力과 權力에 팔 필요가 없는 經濟的條件이 不可缺함을 알 수 있다.

원래 民主政治란 남의 立場과 權

利를 존중하면 남도 自己의 立場과 權利를 존중해 주리라는 安心과 信賴가 있는 사회에서만 비로소 順調하게 行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民主政治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生活의 餘裕를 가지고 自主의 生活를 享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大多數의 국민이 飢餓線上에서 헤매는 사회에서는 民主政治가 進전하게 行해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民主政治의 進전

責任과 制度와

—責任觀念에 대하여—



權 純 永

(서울地方法院 少年部支院長)

退勤하고 집에 돌아갔더니 마누라가 물이 잔뜩 나있었다. 오늘 通貨改革으로 새돈을 ○○銀行으로 바꾸러 갔다가 銀行員과 싸웠다는 것이다. 女子行員이 돈을 세는 동안에 男子行員이 말을 걸어서 네번이나 돈을 세다가 中止하고, 우리 돈을 만 그릇(은)은 담은 그릇에 넣고서 七百圓(수화)이 모자란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좀 잘 세어 보세요 하니까 女子行員 말아.」 「우리 銀行에서는 돈이 남으면 돌려드립니다. 손님이 돈을 빌 내신 것입니다.」

한 運用을 위해서는 단지 法律的形式的인 뿐 아니라 經濟的, 實質的으로 個人의 權利를 保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民主政治의 基礎를 서두려 마련하고 있는 오늘날 「人間革命」이나 「民族의 主體性의 立」이라는 精神的 要因을 力說할 뿐만 아니라 社會改革과 經濟建設에 拍車を加하고 있는 所以이다.

「그럼 당신의 銀行員만 正直하고, 돈 바꾸러 온 사람은 全部 不正直하던 말이지요?」 「백에서 돈을 일마를 가져왔는지가 압니까? 證據가 있습니까?」 「以上과 같은 對話가 오고 가는 동안에 세사람의 男子行員이 加勢가 되어 마누라는 돈을 못 바꾸고 집으로 돌아와서 울게 되어 왔다. 百圓차리 돈 중에서 食母와 딸들의 돈이 있었다. 證人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말들이 學校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려 證人을 데리고 銀行에를 가려고 하는 것이다.」 「女子들만 가야도 쟁피만 當할테니 나하고 같이 감시다」 하며 내가 따라나섰다.

銀行에를 가보니 우리 돈을 말았던 女子行員은 우리 一行을 보자마자 行方을 감추고 男子行員들이 나타나서 自己銀行에는 조금도 錯誤가 없다 하더 데리고 간 證人들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當時에 왜 解決을 못하고 저금 왔느냐 또는 당신이 일마의 돈을 썼는지를 일개 무엇이냐는 등 물어 대우하는 등 위급을 한다. 나의 수마음으로는 行員이 謝過를 하면 내가 모자라는 돈 六百圓을 포기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여러 行員과 憲兵, 警官을 앞에서 그것은 또 참을만한 일인데, 男便과 말을 앞에서 銀行員들에게 侮辱을 당하는 것을 보고는 일은 圓滿히 解決되기를 들렀다고 느끼었다.

그래서 銀行에 警備次 파견 나와 있는 警官에게 나의 身分을 밝히고 나의 여울한 事情과 銀行員의 행태를 이야기했다. 警官은 나의 말을 들은後 銀行員에게 가서 「이분은 그러실분이 아니시니까 다시 조사 좀 해보아 주시요」 그러니까 「이분만 민을만 하고 우리 銀行員은 못 민겠다」 말씀입니까? 「그런 意味가 아니고, 착오로 잘못 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른다 말입니다.」 이때 支店長代理가 나에게 와서 「무슨 말씀인지 저에게 하십시오」 「폐는 이미 늦었습니다. 警官에게 黑白을 가져달라고 行託하였읍니다.」 이 때까지 두 男子行員은 뒷대를 울며 가며 나의 아내를 侮辱함으로써 自己의 責任을 전가하는 餘念이 없다. 警官은 보기에 딱하였던지 銀行속으로 들어가서 責任者에게 귀속할

을 한다. 그 사람이 窓口로 나와서 떠들고 있는 行員에게 귀속말을 하니까 銀行內는 갑자기 「고요한 밤」이 되었다. 여대까지 그렇게 뒷대를 울리면 行員들이 왜 갑자기 조용해졌을까? 幹部級行員이 직접 窓口로 나와서 謝過를 하고 다시 조사해 보겠다고 하면서 돈을 바꾸어 주어가려고 돌아왔다.

민주주의는 다른 말로 말하면 法治主義라고도 말할 수 있다. 즉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뜻으로 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가장 실천되고 있는 미국도 이것이 실천하기가 곤란한지 美聯邦 大法院의 정면에서 라틴말로 「법 앞에 만민이 평등」이라고 써져 있다. 그러나 미국을 위시하여 영국, 불란서 등의 歐美각국에서는 「돈 앞에는 만민이 평등」한 것 같았다. 돈만 있으면, 혹은 도배인하고 배주에 팔짱을 끼고, 부로드웨이나, 상계리제 거리를 걸어도 다닐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이 전 돈을 세고 호텔이나 식당에 들어가면, 「세이」, 「말의 敎稱을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 앞의 만민이 평등은 고사하고 돈 앞에도 평등하지 않다. ○○銀行員들이 아침 十시에 가난한 사람을 수에 끼어 웃도 아니나 잘아입은 여자가 돈을 바꾸러 오니까 잘 보고 인간을 인간대우를 하지 않고 자기의 責任을 손님에게 전가하였다. 그러다가 그 여인의 男便이 判事라고 하니까 비로써 그 여인을 銀行의 손님 대우를 하고 人間대우를

한다. 돈을 바꾸려는 여인의 옷차림이 어떻던 또 그 여인의 男使의 職業이 무엇이었던 銀行員으로서의 알 필요도 없으며 그런 것 따위로 하여 손님에 대한 대우가 달라져서는 안된다.

銀行에 어떠한 非行이 있어도 돈을 속이는 非行이 있어서는 銀行의 存立價値는 없는 것이다. 銀行의 돈을 못 믿는다면 그 社會는 健全한 社會라고 할 수 없다.

八·一五解放前에 滿州國에서 滿州人 巡警을 모집하면 그 經費를이 四十倍나 되었다 한다. 당시의 日本人의 月給은 二百圓인데 滿州人은 十八圓이 있다. 單純한 日本人은 滿州人의 生活程度가 알아서 十八圓이라도 生活할 수 있으니 까 응모자가 그렇게 많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 滿州國은 民主主義 國家가 아니기 때문에 巡警이 그 地方에서 하나나오면 八十圓밖에 사는 사람까지 그의 德을 본다는 것이다. 그래서 巡警志願者가 그렇게 많다는 것이다.

非民主主義 社會일수록 權力이나 顏面이 있어야 살기가 便利하다.

그리고 이러한 制度는 責任制度가 아니다. 現銀行制度는 出納에서 돈을 세는 사람은 돈이 모자라면 자기가 변상하여야 하며 남으면 그것을 銀行에 바쳐야 한다. 이것은 비단 銀行뿐 아니라 모든 金錢을 取扱하는 會社나 官廳이 이러한 制度로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여서 外國과 같이 現金을 다루는 사람에게 特別한 手當을 주는 것도 아니다 人間

이란 錯誤가 있는 법이다. 어떤 出納係行員이 正直하다면 아마 月給은 받아 보지 못할 것이다. 또 銀行의 責任者는 돈의 計算이 안맞는 行員을 理解하려 하지 않고 無慈悲하게 人事措置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銀行制度 아래서는 어떤 行員이 金錢의 錯誤가 있어도 자신의 過誤를 是認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錯誤를 是認하면 자신의 목이 자가 달아나니까 生存本能을 爲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制度 아래서 銀行員에게 責任觀念을 가지라는 것은 生存을 포기하라는 것 밖에 안된다. 따라서 「백」이 없는 사람은 돈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는 결과 가 나온다. 銀行 손님이 平等하지 못하면 이는 民主社會가 아니다. 그러므로 아를 받을 많이 남아야 된다는 思想이 이 社會에서 없어야지 않는다. 아들 딸이 各官廳이나 銀行, 病院에 勤務하는 것이 社會生活에 便利하다는 것이다.

各職場에 勤務하는 사람에게 責任觀念이 없을 때 이에 特別關係가 생기며 부패와 社會惡이 생기게 되니까 人間이 平等해 지지 않는다. 銀行의 出納係員은 자신의 錯誤에서 不足되는 金錢을 補充하기 爲하여 自己에게 失禮하는 去來손님의 돈봉지에서 조금 失禮하지 않을 수 없으며 驛의 出札係員은 發車時間까지 急히 車票사려는 사람에게서 失禮하게 된다.

一九六〇년에 런던에서 들은 이야기이다. S 醫大의 R 博士가 飛行場에서 택시를 타고 호렐로 直行하였는데 房에 들어와 보니 自動車속에 카메라를 놓고 내려온 것을 發見하였다. 그때

서 없어버린 것으로 斷念하고 말았다. 그랬더니 그 이틀날 運轉手가 카메라를 가지고 호렐로 찾아 왔다는 것이다. 「어떻게 나를 찾았오?」하고 물었더니 호렐에 와서 어찌든 東洋人을 찾아서 알아냈다는 것이다.

나는 ○○銀行에서 六十圓을 잊어버린지 四일이 지나도 아무 連絡이 없다. ○○銀行員은 英國의 택시 運轉手만도 信用이 없으니 슬픈 일이다. 이는 돈 問題가 아니요 銀行員의 責任觀念을 가질 수 없는 現銀行의 組織과 制度이다.

英國의 貴族들이 다니는 옥스포드, 켈브릿지 大學의 大館에는 大理石에 그 學校出身으로서 戰死한 사람의 이름을 새겨져 있다. 그것이 千餘名씩이

누구나 通할 수 있다.....

— 理解하는 정신 —

金 在 俊

△前 韓國神學大學長▽

나 된다. 어떤 地方法院의 判事가 戰死하여 그의 초상화앞에 꽃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큰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戰爭이 나면 出征하는 것을 愛國心이 아니라 自己의 責任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責任觀念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까? 結局 그들의 國家가 우리나라보다도 國民의 安全, 自由, 福祉가 잘 保障되어 滿足할만한 狀態이니까 이러한 國家를 守護하여야겠다는 責任觀念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國家가 民主化 되고 氣分 좋게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되었을 때 奉仕의 精神과 責任觀念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서로 맘이 통한다. 생각이 맞는다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런 感覺로 그렇게 되는 것이 作心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들리진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일진대 「말」을 들릴 수도 있고 되잡을 수도 있어야 말이 될 것이다. 사람이란 아무 리 약해도 약마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무리 선해도 천사가 되지는

못하는 것이어서 피차 특 더 쳐 놓고 보면 인간이라 결국 비슷한 感覺를 이라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말이 통한다니 안통한다니, 생각이 맞는다니 안맞는다니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 맘을 특 터 놓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자체에 安ん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에 걸려있는 것이다. 「자기진실」이란 것은 결국 「자기개방」의 現상일 것이다. 그리고 「자기개방」은 「자기폐

舊바른 民主主義의 바람을 기르자

색을 가져온다. 「사람을 보거든도 적음으로 알라」는 속담이 있다지만 그래서야 사람이리 통할 수 있겠는가? 허진 그럴듯하게 조각을 해서 속여 버리고, 있는 표연형색(巧言令色)을 다 부리는 친구들을 종종 때면한다. 이 사람이 「의심스럽다」하는 첫인상을 기억하면서도, 「그리 대단 요청이 아닌 한, 들어준다. 알면서 속아주는 것이다. 불안하지만 그 사람을 믿어 주자는 의식적인 모험이기도 하다. 그 사람은 아마도 「이 쪽」이 고소하게 속는구나!」하고 오히려 잠보며 나갈지도 모른다. 다음 며칠 후에 또 만케 교를 꾸며 갖고 온다. 또 어느정도 유해하다. 세번째에는 만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엄청난 사기 계획을 그럴듯하게 벌여 놓는다. 물론 배트 센트 진실을 꾸미는 것이다.

「이 사람이, 내가 그동안에 자비 낫을 봐서 알면서 속아준거야! 사람이 밟았 그대 살아신 못쓰는 것이구도 그렇게 살수도 없는 것인데 인저 그런 밤 뽀새는 청산하게!」 하고 꼭 바루 눈동자를 드러다 보면 좀 당황해지면서 「그건 선생님 오해심니다」 하긴 해놓고서도 더 오래 앉아 있을 못하고 가버린다. 「이 해를 악용하는 사람이 하루 많기에 실제로는 개별 케이스로 다들 밖에 없을 것이다.

「형제란 남되는 첫 시작이지요」 하고 말았다. 허진 그럴잖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말해 놓고 보면, 벌써 「남」인 것 같이 느껴져서 더 빨리 남이 되고 만다. 차라리 「남도 형제에서 시작할 것이지요」 해 놓

고 보면 오히려 남도 형제같이 느껴져서 친근감이 생긴다. 말이란 서로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매직」(마술)을 부리는 것이다. 여럿이 집단할 때에도 화제를 잘못 택하면 공연히 사이가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평안도 분들과 경상도 분들이 한 방에 놓였다.

「내려 남도 강산을 다 도라 왔다든 우리 배양 모란장, 대동강, 능라도 같이 경치 도운엔 없었어! 거쳐 우리 폐양의 탄핵의일 강산이라니! 어디 있었어? 폐양 더러 가 봤어?」 하고 떠났다.

평안도 분들은 신이 나서 그 회화의 동침한다. 그러나 평양일 가지지도 못하고 대동강을 밀대를 상상도 할 수 없는 다른 분들은 마치 이상사람 같이 스스로를 그들로부터 분리시킨다. 그래서 소위 「지방근성」이 주장되는 수도 있다.

그게야, 이 쪽에서도, 「저분들이 비판생활에서 얼마나 고향이 그리우랴! 저것이 다 간절한 향수의 발자취! 이렇게 앞질러 생각하고 그들의 회화에 동정과 호기심으로 동참해 줄 수만 있다면 진실로 다행한 일이었지 만 어디 그만이요! 가진 사람이 우리 나라에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다 함께 얘기끼리 가릴 수 있는 공동화제를 택한다는 것도 P. R.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 사실이다.

민주주의가 성공한 나라중 하나라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음식점에 들어갈 때, 상심부름하는 여자(남자도 있지만)에게 반드시 「폴리이즈」 「넵쿠」를 말한다. 부실청화면서 「폴리이즈」

를 붙이지 않거나, 부실 갖다 준 때 「넵쿠」를 말하지 않으면 표양되는 무회한으로 치부된다. 개마단이 사업이 아닌 한, 모든 직업은 동등으로 인정한다는 민주주의적 직업관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직업인은 다 인정적으로 평등이다. 그러므로 서로 인격적 존경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다방이나 음식점엔 가면 심부름하는 분들이 대하여, 마치 그 사람이 자기의 「중」인양 천시하는 기색이 그분 위기를 채우고 있다. 가져오나 가져가나 간에 「넵쿠」는 케첩, 야야 떠보지도 안는다. 「해스 차장과의 경우에는 의례 「이애! 하!」 「해다!」다.

그리고 조금만 불편하면 의례 욕설이 나온다. 그리고 어떤 이는 욕음을 내고 트집을 부리기도 한다. 그러면 차장도 말아한다. 「차장은 사람 아닌 가 귀!」 하고 부에 겨워 문턱에서 온다. 그게 내 말이 라면, 하고 생각해보면, 가엽서서 울분이 치민다. 그것이 여대생이전, 고등학교이전, 회사원이전, 차장이전 그런 직장관계로 인장대우에 차별을 붙일 수는 없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이 수이다. 그런데 「차장」이 때의 의례 천대 받아서야 될 말인가? 봉진시대에는 지위로 인하여 차등을 붙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봉진시대」를 살고 있다.

시골분들이 서울구경을 온다. 물론 옷차림이 그 표적이고 간에 당장 티가 난다. 시골이든, 대개는 친절하게 서를 만나는 것 같았지만, 어떤 경우의는 민망한 일도 있었다. 해화동서 배스를 타고 정계천 사가까지 간다는 때

명분들에게서부터 조바심을 한다. 다들 키치 대고 웃는다. 하두 조바심을 하니까 차장도 민찬주 다실이 붙은 한 이주다. 목적지에 오자, 허동지 동침비 내린다. 그도 그럴 것이 십년 가야 말없는 山河를 벗살아 흠과 끼를 하면 분들이 그 행을 거리는 수다잡이 섞였으니 신경이 온전한 리를 믿을 것이다. 어떻게든 이런 이를 민음성 있게 도와 드릴까 하고 침착하게 진정으로 일러 주고 인도 해주고 하는 분들도 도상업은 것은 아니었으나, 대개는 「키」대는 조롱조였다. 그것이 사실이 아닌 가 싶다. 시장엔 가야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서로 신뢰를 못한다.

「이거 정말 마요?」 「삼천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삼천원 짜린지 이천원 짜린지 자신있게 감정해 낼 새간이 없다. 이 사람은 의례 나를 떠보는 걸까! 하고 맘부터 불안하다. 파는 사람은 또 어디 걸려들 「죽」일지도 모르지! 하고 온갖 감언이설로 공세를 취한다. 그러나 불안한 눈덕은 어디 만데 도라다니며 알아 봐야지! 하고 원 시장으로 조리 뒤진다. 결국 한나절 지나서야 이천원에 샀다. 그대도 또너워 쓸 수 있는 걸 펜시리 미준게 아닌 가 하고 여전히 불안하면서 「그리유쾌 하지도 못한 말걸음을 집으로 옮긴다. 이랬든 허술한 물건인 게 사려 해도 하루는 너근히 걸린다. 그러고도 불안하다. 어떤 「단골집」이라서 맘놓고 부르는데도 주고고 산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호의가 역용되는 수도 있다. 지리에서

의 매개가 서로 믿고 행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민주사회 상호의해의 기본조건인가를 아직도 잘 모르는 모양이 아닐까? 「정찰」제가 무슨 수로든지 강행 되어야 할 것이다. 상봉규격의 문제도 상호의해증진에 실패적인 중요파제다. 「팔」을 한 통, 그와는 사람의 말마따나, 「진짜」라고 해서 내뱉어는 큰 돈 쓰고 샀었는데 후에 알아보니 절반은 「가짜」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모든 「제품」이 일정한 규격을 갖게 가지고 나와야 할것인데 술까락, 저까락을 여기 저기서 사보면 열개가 다 다르다. 모양도 크기도, 색깔도 색이다. 그게 민주주의 개성인지는 몰라도, 통용이 안된다. 저까락 하나라도 옳으면, 그것에 대신해 낱알은 높지 없기 때문이다. 서로 통용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민주정신」인가? 나라가 급하면 학자가 총메고 출범으로 자원하기도 하고, 정치가가 공장 노동자로 자원하기도 한다. 불

바쁘면 돌아가라.....

—양모하프 정신의 관하여—



케닌그라드가 아직도 케트로그라드라고 불리우던 옛날 일기기는 합

문질서 문란을 가져올 정도여서 안 될 것이지만, 하나같이 죄인을 대신한다는 놀라운 통용성도 있는 터이므로 일용할 줄 서로 통용될 수 있게 규격을 통일시키고, 불은 빅테르 그대로 신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상호의해」정신에 원활을 기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청이 아닐 것이다.

서로 때워진 개인이나 단체가 많다. 서로 만나지도 않고, 이야기도 안하더라. 그대로 두면 옛날 봉천성주들처럼 자기 자기 성체 안에 도사리고 앉아서 끈임없는 복수전이나 꿈꾸는 이가 나서서 두편을 다 어떤「간담회」에 초청하여, 밤껏 자기 주장도 시키고, 좀 김이 빠진 때 자기 반성과 점 측면도 갖게끔 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서로 「이해」하려면, 직접 서로 만나 이야기해 보는 것이 상으로 효과적일 것은 없다. 구체적으로도 그러길래 「국제연합」이 존속하는 것이라 하겠다.

김 옥 길

〈梨花女大總長〉

나다마는 어떤 진장하게 생긴 부인 한 사람이 무엇인가 잔뜩 들어 있는 큰 바구니를 들고 신작로한 가운데를 활보하고 가는데, 위험하기도 하

였거니와 그것으로 인하여 교통이 상당한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 높은 부인에게 타 이르기를, 보행자를 위하여 인도(人道)가 마련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차도(車道)를 건너갈 필요가 없는 것이냐고 하였습니다. 「아무데를 무엇이냐 내 자유자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하며 오히려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보행자가 자유로이 차도를 갈 수 있다면 차(車)는 또한 맘대로 인도를 달라도 좋을 것이니, 그렇게 되면 혼란과 피해는 막대하리라고 누구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의 뺨을 때리면서 내 자유자」라고 하니 그때도 내 자유자라고 하였다. 그것처럼, 피차 그런식으로 자유를 해석하고 민주주의를 이해한다면 사회는 무질서를 면치 못하고 불가불 일종의 무정부상태가 되고 말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체 이념을 구체화한다는 것은 가장 쉽고도 또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자유에는 자기 상응하는 의무가 반드시 수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만 좋아하고 자기 따르는 의무는 이행할 생각조차 안하는 혼란없는, 부채질한 사람들에게서 민주주의의 구현을 기대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열심히 공부할 해야 하는 것이지만 공부하는 하지 않고 좋은 성적만 노리는 학생들 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한심스러 운 일입니다. 민주주의는 원하지만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절대로 필요로 필요한 기본도야(基本陶冶)는 도 의시한다면 언제 그것이 제대로 실현

되겠습니까? 여성에 관한 문제도 그렇지요. 민주사회 건설은 남녀의 평등을 기반으로 해야 하지만 여성을 업신여기고 그 지위의 향상을 위한 하등의 노력도 하지 않는 분들이 민주주의를 앞세우는 경우도 있으니 딱한 형편입니다.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할 일을 다 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경우가 아주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에,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도 못하면서, 덜어놓고 여자는 놀리야 위신이 선다고 생각하고, 피차의 호감정신으로 서로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민주사회 건설의 기본적 요소는 역시 피차에 양보하는 정신이라고 봅니다. 자기의 권리가 소중한 줄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리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지요, 자기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남을 무시할 수 없습니까? 자기 감정의 불쾌한 경험을 가져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러하리라는 것쯤은 알고 있어야지요.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평하여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데 작은 일에도 피차 잘 싸우는 까닭은 서로 양보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보 사람은 아주 모르는 사람끼리라도 무슨 기회에 눈이 마주치면 「할로」하고 서로 인사를 하는데, 한국사람은 눈이 마주치면 서로 노려보다가 급기야는 왜 자제히 보느냐 하며 싸움을 시작합니다. 혼잡한 출·퇴근시간의 버스 속에서 누가 실수로 발을 밟았기 로니

그렇게 화를 낼 것까지야 없지요. 그러나 용서 없읍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대관 차음이 벌여집니다. 생활에 조율되고 있단사에 여유가 없어서 그런 점도 있고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민주주의적 교양이 모자라는 탓입니다. 근차에는 학생들 가운데 빼어나 친구속에서 부러자나 노인의게 자리를 양보하는 의젓한 청년들이 더러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노수가 부족합니다. 노인이 들어와도 모른게 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 산다는 일이 괴롭게 생애가 되고, 신선하 일어나서 자리를 내주는 광경을 보면, 이전지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여 지는 것을 느낍니다. 자리 하나가 나면 거기가 앉겠다고 두서너 사람이 한꺼번에 덤벼드는 그 용악한 꼴! 지옥을 본 앞의 보는 것 같습니다! 적자생존(適者生存)이라는 말이 다윈의 진화론이 무현화인의 생활태도를 크게 지배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크로포토킨의 상호부조(相互扶助)라는 말이 보다 더 이상적이며 민주주의적이라고 믿읍니다.

자기도 남을 더 낫게 여긴다는 것이 이상보정의 밑바닥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진실한 마음자리가 없으면 허배와 허식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 식탁에서는 서로 음식을 띄어주고 권하다가 아무도 못먹고 마는 경우도 있고 문앞에서 서서 피차 먼저 들어가라고 걸손을 부리다가 아무도 못들어가고 한참씩 지체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참된 의미의

어서의 결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좀 맡아서 보아달라고 하면,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란 듯이 말할 수가 없다고 저절을 합니다. 두 번 세 번 간청을 해야 겨우 응을 하는데, 아무래도 말을 못했습니까? 그런 것은 쓸데 없는 헛된 양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양보속에서 엄정하게 큰 교양이 들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고 이렇고 참된 양보를 하기 위하여는 일체의 허영심을 포기해야 합니다. 막이 한 그릇 뿐인데 이것을 하도 못 먹는 것으로 생사가 갈라진다 할때에 그 밥 한 그릇을 양보할 수 있는 힘, 배는 만경창파에 파신되어 시간을 다 불태, 하나밖에 없는 구명대를 양보할 수 있는 용기 그러한 참된 양보가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쟁과 스피이트를 모토로 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양보의 도덕을 찬양하는 것은 뒤떨어진 생활태도 같지 않는, 민주주의는 아니까 지나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반면 자기 자신의 일정한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만치, 양보의 정신 없이는 실현 불가능의 정치 이념이기도 합니다. 결국 양보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위하여 틀스틀이라는 참으로 재미 있는 에화를 하나들의 설명하여 주실 일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의 외나무 다리 위에서만 앉읍니다. 둘이 다 바쁜 처지인데 서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A는 B를 향해 물러서라고 야단치고, B는 A를 향해 물러서라고 고향을 지킵니다.

두 사람은 다리 위에 마주 선 채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저회로운 사람이 지나 가다가 소리쳐 타일렀읍니다. 바쁜 물아 가는 것이라고요,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속에는 많은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고 믿읍니다. 양보라는 것이 의외로 유익한 것임을 알려 주는 좋은 교훈입니다. 끝으로, 민주사회는 후배가 선배를 공격하고, 선배가 후배를 공격하는 야들다운 관계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후배가 선배를 공격하면 후배가 선배가 후배를 공격하는 사회는 민주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계급적 의의에서 가 아니라, 진실도 동지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선후배(先後輩)관계의 가장 아름다운 예는 세례요한과 예수와의 관계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보다 앞서 광야에서 부음을 외침으로써 예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先知者)였는데, 예수는 요한이 사양하는 것도 무릅쓰고 그에게서 세례를 받음으로 요한에 대한 후배로서의 도리를 다 하였읍니다.

그 후 예수의 명성이 사방에 떨치므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찾아가, 사관들의 의수에 게로 많이 간다고 탄식하는 이대로 말하였을 때, 요한은 서슴치 않고, 『저가(의수)』(후(興)하여야 하겠고, 나가(유한)해(衰)하여야 한다』(The must increase, and I must decrease.)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하자 후배를 때리는 선배의 양보의 정신을 크게 들이켰읍니다. 선·후배 사이에서 뿐 아니라 동류간에도 이러한 호양(互養)의 정신 없이는 명량한 민주사회를 이루 할 길은 없습니다. 동류나 후배들의 잘 되는 것을 진실심으로 기뻐할 줄 알고, 또한 그러한 정신으로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국가가 위지는 것이라고 믿읍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이 아무리 이러한 이상에서 멀다 하더라도 다실하지 말고, 이 시간부터 서로 양보하는 정신을 가지고 배프크라시의 구원을 위해 분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信用貨幣

환스·세인스·폭스는 영국의 자유당원이며 유명한 웅변가였는데 어느 상인이로부터 증서를 쓰고 三十磅의 돈을 빌렸다. 기일이 되어 제 속을 만자, 돈은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하고 폭스는 열에 열이 높은 四,五十磅의 금화중에서 이자만을 지불하려고 하였다. 보고 있던 상인은 『그렇게 돈이 있으면서 왜 안빌려주지 않습니까? 부당하지 않습니까?』하고 힐난하였다. 『그러자 폭스는 『잠깐만! 이것은 친구 세리던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상인은 크게 감동하여 『실례했읍니다. 저도 신용으로 빌려드려지요.』 하고 말하였다. 『내쳐하군요.』 하고 폭스는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드릴 수 밖에 없군요. 세리던 보다 당신이 먼저니까요!』

먼저 깨우쳐야겠다.....

— 自覺하는 精神에 관하여 —

李 相 殷

△ 高大教授 △



「韓國은 아직 民主主義를 實行할 條件이 具體化되지 못했다.」
「韓國人은 民主主義를 實踐할 資 格이 없다.」

「韓國의 實情에는 民主主義보다 좀더 強力한 能率의 政治方式 必要하다.」
— 四·一九五·一六을 연거푸

고난 다음 우리 社會에는 이러한 民主主義에 對한 失望悲觀의 論調가 더러며 도는 것 같다. 過去의 失敗를 도라다보면 이러한 失望·悲觀도 一理는 없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우리는 民主主義를 拋棄할 수는 없다. 우리는 지금 共產獨裁와 싸우고 있다. 民主主義를 拋棄한다는 것은 共產獨裁와 싸우는 理由를 自己로서 否定하는 것이다.

民主主義에 對한 確固한 信念이 없이 우리는 共產黨과 싸울 수 없으며 民主主義의 成功이 없이 共產獨裁를 이길 수 없다.

民主主義는 自由와 平等을 實現하기 爲한 政治制度로서 人類의 長久한 經驗이 가르쳐준 지금까지의

最善의 方式이다. 初期에 있어서 民主主義는 政治의 自由와 政治의 平等을 強調하고 經濟의 自由와 經濟의 平等을 等閑히 하여 資本民主主義로 偏向한 弊端도 없지 않았으나 現代에 이르러 經濟의 自由와 平等까지 同時 實現하는 方向으로 指向하고 나아가

기 때문에 일찌기 無階級社會을 指向한다고 自稱하다가 도리어 勞動貴族, 獨裁階級の 社會를 造成한 共產主義에 比하여 民主主義는 理論面에 있어서나 實際面에 있어서나 人間本性的의 要求에 順應하는 面에 있어서는 確實히 優越한 政治方式임을 事實이 證明하고 있다. 그 事實이란 무엇인가? 소聯에 있어서 獨裁자인 스탈린格下 運動以來로 言論自由, 思想自由의 要求가 날로 增加하는 現象과 美國에 있어 勞動者의 投資資本이 날로 불어가는 現象이 그것이다.

우리가 指向하는 民主主義도 이러한 現代의 民主主義요 남은 政治的 民主主義만은 아니다. 우리 亦是 政治的 自由·平等과 同時에 經濟的 自由·平等을 同時에 實現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民主主義의 訓練과 經驗이 不足하였기 때문에 過去의 失敗와 蹉跌을 보았던 것이니 우

리는 오직 우리의 失敗經驗을 切實히 反省하여 過誤를 다시 犯하지 않도록 徹底한 覺醒을 가져야 民主大道를 向하여 勇往邁進할 뿐이요 遲鈍·躊躇하거나 懷疑·失望할 必要는 없다. 必要가 없을 뿐 아니라 懷疑·失望은 도리어 共產浸透의 틈새를 주는 것이 되어 思想的 混亂을 招來할 뿐이니 警戒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오며가 멀어 民政復歸도 될 此際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過去의 失敗經驗을 徹底히 反省함으로써 앞날의 단단한 決心과 覺悟를 수 깊이 간지해 두는 것이 急務이다. 이 決心과 覺悟는 軍·官·民을 勿論하고 國民은 누구나 다 가져야 할 것이지만 특히 社會에 影響力을 가지는 政治家·官吏· 및 各界 指導層에 있어서 먼저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先進國家에서 民主主義가 아래로 부터 위로 上昇하여 發展되었지만 後進國家에서는 위로 부터 아래로 下降하여 發展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四·一九가 왜 일어났는가? 그것은 李博士의 一人獨裁政治에 抗拒하여 自由의 不正·腐敗에 憤怒하여 일어났다. 먼저 李博士의 一人獨裁가 왜 생겼나를 생각해보자. 李博士를 一人獨裁者로 만든 것은 決코 李博士 個人的 性格과 그의 無制限한 權力慾 때문만이 아니다. 그를 업고 그의 비위를 맞춰서 權勢를 부리고 「富貴」를 누리려고 한 所謂 「至當大臣」들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도 보아야 할 것이다. 民主國家는 法治國家이지만 「至當大臣」들은 「法」보다 李大統領의 指示, 命令을 더 重히 여기고 더 무

서워 했다. 指示·命令이 「法」에 致된 때는 말한 것 없지만 「法」에 達되지거나 合致되지 않을 때는 當然히 이를 拒否해야 할 것임에도 不拘하고 이 「至當大臣」들은 拒否하지 않을 뿐 아니라 때로는 도리어 「先意承旨」하여 그런 違法的인 命令·指示 등을 造作해 나갔다. 「四捨五入」의 政憲이나, 「政治波動」이나 不正選舉의 指令 따위가 모두 이런 「先意承旨」의 封建殘滓의 思考方式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는가? 民主主義의 官吏는 背政을 심기는 官吏요 上官을 심기는 官吏는 아니다. 背政을 심진다는 것은 背政의 代表機關인 國會가 制定한 法을 遵守하는 것이요 上官을 심진다는 人事行政權을 가진 上官의 非위를 맞추고 그 上官個人的 命令에 服從하는 것이다. 李政權時代의 官吏들은 모두 上官을 심진 勳만 받았고 背政 심진들은 없었다. 不正選舉의 元兇인 崔仁圭는 死刑을 宣告받으면서까지 自己는 李博士에게 忠誠을 다했다고 自己를 「찌스티파이」 하였지만 이것은 그가 끝까지 民主主義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 그는 自白한 바에 의지 않았을 것이다. 君主時代이면 崔仁圭는 確實히 李博士의 「忠臣」이었다. 그러나 民主主義時代에는 그는 가장 不忠實한 官吏였음을 免치 못한다. 民主主義時代의 忠實한 官吏란 國民의 代表들이 判定한 法을 잘 지키어 國民의 利益을 最大限으로 圖謀해 주되 國民의 願하는 方向으로 國家政策을 立案·遂行하는 責任과 義務를 지는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大統

領은 就任式에서 國會에 對하여 憲法을 忠實히 遵守한 것을 宣誓하는 事이다. 大統領이 宣誓하는 것은 行政府의 總責任者로 宣誓하는 事이니 그것은 모는 官吏가 다 그 誓約을 지킨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런데 過去十餘年間 우리나라 官吏들은 위の大統領으로부터 아래의 末端公務員에 이르기까지 誓約을 履行하지 않았는가? 「吏道刷新」이니 「遵法精神昂揚」이니 하는 口號가 甦났고 되풀이되어왔지만 吏道는 舊態依然한 上 官심기는 吏道였고 遵法精神은 昂揚할 수로 「遵法精神」밖에 되지 않았다! 이리하여 우리의 固有한 官尊民卑思想은 좀처럼 終熄될 줄 모른다. 우리 社會 到處에서 發露되는 特權意識도 다름아닌 이 官尊民卑思想의 延長인 事이다. 特權意識은 權力과 法秩序와의 對比에 있어서 權力을 優位로 하는 意識을 基盤으로 하여 構成되는 事인 만큼 그것은 權力의 阿附과 同時에 權力의 恣意的使用, 및 그 獨占의 傾向性을 內包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官非民主의 要素를 包含意識이다. 特權意識이 사라져야 民主意識이 자라난다. 英國의 交通巡警이 交通規則을 違反하는 長官車를 스윽시켜 罰을 준다는 海外奇聞을 우리는 종종 듣거나 이와 것이 참말로 民主警察이며 眞正한 吏道이다. 이것은 自己職務의 完遂, 물론 特別法의 尊嚴性의 認識, 제재로 特權不認의 精神을 보려는 卑近한 一例이지만 民主國家의 官吏는 最少限度이 세가지 條件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 腐敗와 無能을 考慮해 보자. 自由黨이나 民主黨이나 腐敗·無能 때문에 부러졌다. 腐敗는 어떻게 發生되었는가? 腐敗가 들어나기는 官吏가 受賂하는 事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것은 腐敗의 結果의인 現象이요 原因은 아니다. 腐敗의 原因은 經濟的인 것과 政治的인 것 두가지가 있다고 본다. 經濟的인 原因으로는 一般軍官吏의 生活의 不安이 있다. 其問題는 國民經濟의 發展, 國民所得의 增高로서만 解決되는 事이니 이것은 客觀情勢의 變化를 기다리지 않고는 單純한 主觀의 精神, 道義만을 云謂해서 解決될 수 있는 事이 아니다. 참말 精神問題, 道義問題로서 論議되어야 할 것은 政治의 原因의 腐敗는 主로 選舉와 關聯된다. 選舉候補者가 格과 信望과 抱負로써 正堂堂하게 政敵과 싸우는 事이 民主選舉의 正道인데도不拘하고 우리나라 過去の 選舉는 차우면 치를수록 正道의 選舉競爭은 形式에 不過하고 背後에서 有權者를 金錢으로 買收하고 劣權者「감투」로 公公然하게 行되어 왔다. 그러하여 選舉結果는 人物本位나 政綱政策本位로서가 아니라 金錢使用의 多寡나 交換利權의 大小如何에 따라 左右되는 傾向이 濃厚하였다. 勿論 그렇다고 有能한 人物이 全然當選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地方으로 내려갈수록 金錢과 利權과 「감투」의 交換으로 選良아닌 選員이 當選되는 率이 높아져서 所謂「舉手機」 「방아다리」 議員도 나온다.

그 「投資한 미친」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國會議員의 地位를 百퍼센트로 利用하여 利權獲得, 中間取利, 간부買賈, 外援橫領, 國庫濫用, 密輸助長……等 種樣 謀利에 精神이 팔려 國事를 論議하고 問題를 研究하고 政策을 樹立하고 國際情勢를 分析하는 等類의 自己本務를 履行한 充分한 時間餘裕도 國會出席率은 不良하고 議案處理는 遲遲不振한다. 게다가 相互私의 利害와 關聯될 때는 派閥形成內紛, 葛藤이 생겨 議案處理에 故意的인 妨害工作까지 이르키는 수도 없지 않다. 國會의 無能, 政府의 無能도 大概 이러한 理由로서 생기는 事이다. 元來 政治家란 經濟國民의 抱負와 才能과 專門의 知識을 가지고 그것으로써 國家 國民에 奉仕할 覺悟를 가져는 사람이어야 하며 또 그렇게 할 것을 選舉에 國民에게 約束한 事들이니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賄賂去來로 當選되는 事자들은 出馬動機부터 不純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行跡을 살펴보면 이 세는 野黨, 오늘은 與黨으로 무런 政見도 志操도 없인 「利」의 所在로만 따라다니며 權力者와 結托하여 權術數를 弄奸하는 類가 殆半이다. 이리하여 「政商謀利輩」가 자취를 그칠 날이 없다. 先進國家라고 이런 政商謀利輩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問題는 그 數의 多寡에 있다. 한 國會, 한 政府機關內에 이러한 政商謀利輩가 半數만 되어도 正義의 勢力이 輿論의 力 반침을 얻어 勝利할 수 있지만 六〇퍼센트, 七〇퍼센트以上으로 多數를 차지하면 正義는 邪惡에 屈服하지 않을 수 없이 된다. 舊政治家,

官吏가운데 正義를 代表하는 良心의인 政治家, 公務員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數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失敗한 것이다. 한 政黨이 아무리 훌륭한 指導者를 가져다하더라도 그 政黨에 모여든 分子가 七八十퍼센트를 政商謀利輩로 차 있다면 그 政黨은 別道理없이 腐敗政黨이 되고 만다. 民主政治를 하려면 政黨政治를 아니 할 수 없고 政黨政治를 하려면 自由選舉를 아니 할 수 없고 自由選舉를 하려면 選舉競爭이 버려지지 않을 수 없고 選舉競爭이 버려지면 自然 腐敗가 생기게 마련이니 結局 政黨政治와 腐敗를 면할 수 없는 事이다. 腐敗를 除去하려면 政黨政治를 取消하는 道理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한 理論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因廢廢食」이 구걸 때문에 밥을 안먹는다는 論理이다. 選舉를 깨닫고 公正하게 하는 方法은 따로 講究할 수 있는 것이오 「選舉公營制」는 것으로 이것때문 政黨政治를 廢止한다. 民主主義를 抹殺하는 것이다. 設令 腐敗가一時盛行했다 하더라도 民主政治가 제대로 施行된다면 執權黨은 다음 選舉에 國民의 審判을 받아 自然 물러서게 될 것이오 새로 執權하는 政黨은 비록 完全無缺할 수는 없지만 前敵을 繼繼承하여 그 前政權보다 좀더 나은 實績을 내려고 努力함으로써 公明政治는 一步一步實現되어 가가 마땅한 것이다. 다만 國民의 政治的 自覺의 高下에 따라 그 步調에 遲速이 있을 뿐이다. 國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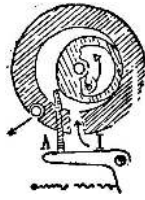
의 審判을 받는 公明選舉의 方法으로 政權交替가 스무스하게 되어가는 나라에서만 民主主義가 제대로 자라날 수 있다. 우리는 執權者들이 國民審判을 받아 스무스하게 政權을 交替할 것을 생각은 아니하고 언제까지나 執權延長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革命이란 非常手段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民主主

科學하는 마음

— 創意精神에 관하여 —

崔 台 鎬

△國立圖書館長▽



野談이나 民話를 보면 偉人이나 烈士가 超人間的인 奇蹟을 남기는 것이 일수다. 凡人이 일수도 못할 일을 취적 해치운다. 現代에 모서왔으면 심은 그런 羨望을 갖게끔 誇張된 事實에는 그들이 超人間이라는 니을로서 非合理性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忠武公은 누가 보아도 우리 民族의 英雄이요 師表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처음 忠武公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의 人間面보다 도가 더 부친(父)이라는 외한한 戰爭用具를發明한 사람이라는 것과 百戰百勝한 將帥라는 程度의 知識이었다. 그後 歷史에서 驚歎이나 閑山大捷의 史實

義는 傷處를 입었다. 五·一六은 마지막 革命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앞으로의 政權交替는 반드시 民主方式으로 實行해야 한다는 말이다. 獨裁 方法外에는 安全하고 確實한 政治向上의 道는 民主方式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銘心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을 일으키는 果然 神人이라 생각하는 反面에 誇張이 아닐까 一面 疑心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차를 살펴보면 그때의 勝戰은 奇蹟이 아니라 當然한 道理이었으니 하나는 忠武公의 人格으로 인한 人和와 士氣의 昂揚이요 또 하나는 實로 그분의 科學의 勝算이 아니었던가 싶다. 即地勢와 潮流氣象까지도 包含한 自然의 研究와 彼我의 軍力等 實로 細心한 檢討에 이루어진 戰鬪이고 보배 後人이 推測하는 觀念의 神人이 아니라 徹頭徹尾 合理性을 信奉하는 科學者란 느낌을 갖는 것이다.

念하는 것이다.

太平洋戰爭 以前 日本人은 獨한神國 日本이나 大和魂이니 하여 國民에게 그것을 믿도록 教育하여 왔었다. 傳聞하는 바에 의하면 그때의 某司令官은 「그러나 十六吋 大砲 앞에서 大和魂의 偉力이 나타날 것인가?」 하고 沈重한 告白을 했다. 그러나 그의 心中은 合理性을 無視하는 觀念論者들을 막하게 여긴 것이 아닌지 推測된다.

科學은 因果를 믿는 것이다. 사람은 에로부터 많은 꿈을 가졌고 또 그것을 많이 實現하였다. 예를 들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고 사람도 그와 같이 蒼空을 날을것을 꿈꾸다가 이제 새는 새는 커녕 地球위에 더는 못이든지 非常한 速度로 交通을 한다. 그러나 이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재미 있는 면이 많다. 單純의 날고 싶다는 마음은 觀念面에서 道術이라는 超人的인 假想을 세워서 孫悟空이 구름을 타고 다닌다거나 아라비안나이트의 담요를 타는 說話等을 만들어 내었고 現實面에서는 새의 날개 모양을 본따서 實驗을 해보는 등 가가이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設計圖 같은 것도 있었지만結局은 合理的인 플라이트라 카이트의 푸르펜라식 航空機에서 제트식 推進機로 發展되어 왔다. 요즘은 月世界旅行의 可能性이 濃厚해졌지만 이것도 날나라에 가고 싶다는 꿈은 人間의 亦是자 V의 경우 때부터 생겼었으나 八은 그 實現은 冷靜한 合理性에서 오늘날 치밀한 科學的 計算의 結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 人類의 發達은 어떠한 觀念의 思考方式에서 보다도 現實으로 꿈을 이룩해 보려는 意慾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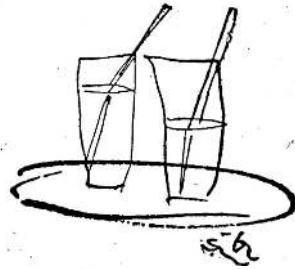
그것을 解決하는 合理性 追求에서 이루어졌었다고 볼 수 없을가?

이러한 意味에서 나는 革命公約을 뜻조게 생각한다. 지금까지 形式的이고 口號에만 그친 反共態勢를 再整備強化하고 이나라 社會의 모는 腐敗와 舊惡을 一掃하여 새로 國民道義와 民族正氣를 바로잡아 飢餓線上에서 허덕이는 民生苦를 時急히 解決하는 데 있어 일찌기 觀念의 으로 이를 근심하지 않았다 할 사람은 없건마는 現實面에서 公約에서 비로소 合理的인 試圖와 實踐이 있어 온것이다. 여기에 革命政策의 커다란 課題로 人間改造를 내세우는 眞意가 科學하는 사람을 만들자는 데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하는 것이다.

일찍부터 農村의 振興은 識者間의 끊임없는 念願이 되었고 또한 많은 論議가 되어왔다. 民生의 安定을 얻으려면 全人口의 六,七割을 占하는 農民生活를 安定시켜야 할 것은 勿論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칫하면 트러다를 使用하는 外國의 大陸式 營農이나 世界를 相對로 하는 丁抹의 協同組合 그리고 水洗式 便所와 冷凍機를 갖추고 사는 먼나라들의 農村만을 바라보고 호미와 쟁이를 使用하고 손으로 김을 매는 舊態依然한 生活樣式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現實한 打開이 온을 낸 사람은 極히 적었다. 實業者層을 重視한다 하면서 現代의 營農法을 教授해온지 이미 오래전만 그들의 손으로 農村이 振興되었다기

韓國 民主主義가 디디고 서야 할 것

—「民主主義의 韓國化」를 위한 精神的 姿勢—



申 一 激

△高大 文理大 講師▽

사람들은 이런 후진국의 民主主義失敗를 보고 「폐지복에 다이야론드 목거리」라고 할런지 모른다.

민주주의란 주머니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속에 돈이 들어가면 돈 주머니요 담배가 들어가면 담배쌈지요 쌀이 들어가면 쌀주머니다. 民主主義도 역시 내용은 여러가지로 다르나 形式은 동일한 것이다. 民主主義라는 말처럼 多義的인 개념도 없을것이다. 獨裁者도 共產主義者도 民主主義의 말을 한사코 쓰고 싶어 하는 건 보면 데모크라시아 말로 매력을 있는 물건인가? 너무 불려서 매력을 상실한 口號처럼 民主主義라는 用語는 배짜지고 진부한 말이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격이 되고 말았다.

이미 「훈베르」는 民主主義를 不信論을 내세우고 그것은 바로와 같은 민중을 지배자로 하는 愚衆政治라고 아우찬바 있다. 오늘날에 와서도 民主主義의 諸般 弱點을 지적하면서 파시즘을 내세운 反民主主義가 많았다. 現代는 확실히 民主主義의 危機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人類最高의 理想인 民主主義를 결코 포기할 수는 없다. 후진사회에서는 民主政治가 양왕 부패하고 부정한 집권자의 假面이 되기도 하고 無秩序와 貧困의 溫床이 되기도 한다. 英國과 같은 議會民主政治의 標本을 그대로 수입한 新生 파키스탄도 人口의 八十%의 文盲과 貧困을 가지고 國會를 만들고 작대기 친거보다 더 못한 그림으로 소말리 국민들을 그려 입후보자의 기호표로 삼으면서 소위 民主主義國家의 體面을 세워 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런 民主主義는 經濟成長은 커녕 貧困度만 증가시키고 國會議員들의 特權層의 橫暴만 증가시켰을 따름이다. 西歐 先進國

후진국들은 戰後에 西歐民主主義를 「直輸入」했다. 그것도 전혀 「關稅」도 부치지 않고 「救護物資의 條件」처럼 오판되어 왔다. 우리 후진국측에서 보면 西歐型 民主主義의 直接的 無反省的인 採用을 「強要」당한 셈이다. 현명치 못한 선생은 선생의 생각과 꼭 같은 답안을 쓰는 학생을 좋아하고 제 생각으로 쓰는 창의력을 가진 학생을 도리어 꺼린다. 美國은 好男型 시골 사람처럼 「스노우비쉬」해서 주고도 고맙다는 인사카녕은 욕을 먹는다. 民主主義輸出의 태도 역시 그렇다. 사람들은 고학년에게 高級비타민과 化粧品을 보내는 非賢明을 연상케 하는 것은 몹시 안타까운 노릇이다. 美國의 國務次官을 잠깐 지내고 물러선 「제스터 보울즈」氏는 캐네디 行政政府의 對後進國政策으로 「美國의 생각을 그대로 다른 나라에 강요하지 않겠다」고 성명했는데 이 가정은 당시 지탄이 있으나 아직도 美國知性的의 무늬 품으로 보면 慧眼이라야 하지 않을 수 없다.

後進社會는 一九六〇年을 계기로 해서 革命의 시대에 들어섰다. 넛셀의 에질트 七月革命, 파키스탄의 자유브. 칸장군이 영도한 十月革命, 土耳其將校들의 革命, 카스트로의 쿠바革命, 그리고 우리 한국의 四月學生 革命과 五·一六軍事革命이 그것이다. 후진지역 도처에서 일어난 軍事쿠데타는 二百年前的 獨立戰爭을 이미 망각하고 위크·엔드를 즐기기에 골몰한 美國人들을 몹시 놀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나라들에서는 民主主義를 성공시킬 수 없다고 곧 실망을 표현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民主主義—議會政治는

平和로운 政權交替에서 만이 가능한 것이요 民主主義란 國民의 支配요 主權者인 國民의 同意에 의해서 政權이 交替되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民主主義에의 진은 美國의 인 건 하나만이라 고집해서는 안된다. 民主主義의 진은 목표는 하나 일찌라도 方途는 여러 갈래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西歐世界가 數百年間에 걸친 內戰 鬭爭의 결과로 漸次하고 確立한 民主主義를 후진국들은 불과 一, 二十年이란 단기간에 달성하려는데 약간의 無理가 있음을 인정하는 데 일찍치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후진국의 發展이 一人體制에 의해서 더욱 발전한다 고 해서 民主政治는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정급하게 추론함도 역시 몹시 위험한 速斷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후진국은 후진국대로의 民主主義에의 진이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十七年間의 고된 試行錯誤를 겪은 韓國民主主義도 이제 民主主義의 韓國化라는 과제를 같이 인식하고 우리 體實에 알맞는 民主主義 韓國現實에서 일어나는 民主主義의 確立을 위한 노력을 기울려 해서 는 안될 것이다.

二

韓國은 民主主義를 재진하고 있다. 적은 民主政府대신에 소금에 절인 만년불패의 산 民主主義를 재진하는 그 첫 발자국을 다 걸었다. 과거 한국의 民主政治는 부패한 特權層—國會議員·長官들의 노리갯감이었으나 「不正當財의 自由—密輸의 自由—特權者의 無法不法의 自由」를 보호하고 부패한 寡頭支配에 불과했다. 과거 우리의 民主主義는 구체를 보우타이를 맨 시골 할아버지의 喜劇이요 그것은 곧 悲劇의 시작이기도 했다.

自由黨時代의 民主政治를 신랄하게 批判한 論報報告는 그 지음의 소식을 소상하게 전해준다. 同報告는 美國上院에 제출되었는데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에서는 民主主義의 外皮만도 남아 있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현재 不安定狀態에 놓여 있다. 약간의 進歩는 보여지나 지난 十年間 民主主義의 外皮만이라도 남아 있는 것이 奇蹟이다. 그러면서도 民主主義의 制度들은 최근 가장 큰 試驗에 직면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될까도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동 보고는 한국의 정치현실인 ① 保守主義에 입각하여 兩黨制度가 있으나 野黨은 곤란한 위치에 있다는 것, ② 政府는 絕對의 支配아래 있고 韓國의 政治制度는 中央集權制에 있다는 것, ③ 커다란 歷史의 重要性을 가지고 있던 한국정치와 地方主義(地方自治)가 弱화되었고, ④ 言論의 自由가 곤란한 처지에 있다는 것, ⑤ 與黨이 선지에서 우세하기 위해 中央政府의 權限이 크게 強化되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 보고의 집필자는 스카타피노教授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이 보고 후에

서 한국의 군사혁명을 예언했다고 하는 世評이 있다. 그러나 이 보고는 現象의 分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역시 西歐의 見地에서 단지 西歐의 民主政治와 的 差異點만을 보았고 후진국의 處地에서 그 歷史的 發展段階에 대한 고려가 적으며 本質把握에 정근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왜 韓國에서 民主主義가 失敗했는가 中央政府의 權限이 強化된 때문인가? 이는 現象이지 原因은 아니다. 言論自由는 民主主義의 必須品인 것은 사실이다. 이 역시 民主主義가 失敗한 결과로 言論도 強權에 탄압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皮相의 見地로 外在的인 見지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게 했다. 「한국에서는 仁慈한 專制政治가 보다 타당할런지 모른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바와 같은 內憂外患 見地에서는 민주주의가 불합당할런지 모른다. 최소한도로 그 초기 단계에서는 民主主義에 어느정도 制約이 필요하고 과도기에는 어느정도 指導가 필요할런지 모른다. 이점에서 한국은 그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문제는 後進社會와 共有하고 있다」이 文章에서 우리는 民主政治보다는 獨裁政治나 國民의 國民이라는 評價를 받았다. 그러나 결코 낙담할 필요는 없다. 西歐의 見地에서는 後進社會가 이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며 또한 西歐自由主義라는 내용의 民主主義를 直輸入해야 후진사회의 체질에는 때로 속크를 이르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보고가 失敗했다는 것은 우리측에서 보면 西歐自由主義 直輸入에 失敗했다는 말이지 민주주의의 失敗라고 까지 擴大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徐載弼氏가 영도한 獨立協會에 대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自由主義가 日帝侵略으로 인해 奇異的으로 명백을 이어 오다가 解放후에도 진전하게 開花하지 못하고 말았다.

민간 函數 思想은 그것이 뿌리를 내릴 現實과 그것을 담당할 指導勢力과 긴 關係 關係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民主黨과 같은 半封建의 土地貴族系列과 新興商工業者를 대표하는 自由主義의 階層의 기반이 무너졌다는 것은 곧 民主主義의 變質 내지는 變革을 그 根本面에서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미 既成世代的의 民主主義는 갔다. 앞으로 올것은 이와는 質的으로 다른 새로운 民主主義—世代的의 民主主義의 再建이 남아있다. 그와 아울러 民主主義를 아예 포기하고 싶다는 유희파의 가혹한 주장도 앞날의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四·一九와 五·一六을 계기로 해서 韓國民主主義가 디넬 礎石이 갈아드렸다는 말이다. A·A 불타에 속하는 내셔널리즘의 旋風은 一九六〇년에 韓半島에도 上陸하여 우리도 後進國型 民主主義의 진과 거의 같은 道程을 걸어가리라 고 展望된다. 西歐가 民主主義로 넘어가기 위해 絕對主義的의 專制政治의 時代를 克服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過渡期를 조속히 극복하고 道程을 단속시키는 일이 남아 있다. 이번에도 體實에 맞게 계단을 밟아져 못하고 皮相의 模倣에 그쳐서는 안된다. 또한 그것을 강요당해도 안된다. 우리는 民族史의 뿌리에 「接한 韓國的 民主主義를 再出發시켜야 한다.

그러면 「韓國化 된 民主主義」란 어떤 것인가? 남의 장단에 춤추다가 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자빠진 꼴을 十七年史의 서울에서 보았다. 그러나 民主主義가 健康하게 育成되지 못하고 지쳐든 한국 땅에서 병들고 만 그 病因을 바로 診斷한다는 것은 곧 治療라고 볼 수 있다. 外來思潮消化不良症에 걸려 자기의 分數와 傳統에 적합한 土壤을 구축하지 못하고 부차적 障礙에 보고 黃金夢만 꾸다가 끼니도 놓지는 우둔을 다서 되돌이 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모험한 후진국형 민주주의의 기초는 貧困과 無知를 하루속히 추방하는 일이다. A. A 불리의 내셔널리즘을 「위대한 覺醒」(Great Awakening)이라고 한 英國의 政治評論家 「스트레이크」는 다음과 같이 함축있는 말들을 했다.

「우리들의 地域, 즉 高度의 發達을 한 西歐資本主義諸國에서는 民主主義는 不景氣와 大量失業을 防止할 힘을 갖지 못한다. 그것을 防止하지 못하면 民主主義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資本主義를 社會主義의 方向으로 修正해 가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民主主義는 經濟的安定을 확보할 수가 없을 것이다」

「低開發世界에 있어서 民主主義는 그 國家를 前進의 方向으로 指導하는 능력, 그 나라를 工業化하고 一般的으로 發展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야 한다. 民主主義는 그 나라의 工業化의 任務를 다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共產主義獨裁政治처럼 급속하게 할 필요는 없으나 궁극적으로는 그들한테 뒤떨어지지 않고 훌륭하고 또한 철저하게 수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야 한다. 이점은 金本位로 보아 低開發世界에 있어서 民主主義가 生存할 수 있는 조건이다」

「싱가폴에서 당신들의 자량으로 하는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세계 각처에서 모인 배들을 보라. 당신들은 그 배들의 船腹에 그려진 항을 기 線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은 「載貨限水線」인데 이 線이 海水 아래 들어갈 만큼 많은 貨物을 積載한은 違法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나는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는 政治的 社會的인 「載貨限水線」이 그려져 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원시적인 극단의 貧困과 文盲—一般的인 低開發—의 重壓이 너무 무거운 나라들에서는 民主主義의 成立을 기대할 수는 도저히 없다」

이상에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을 스트레이크의 權威를 빌려 代行시켜 보았다. 한국 민주주의의 가 디엔 礎石은 바로 이 貧困과 無知를 추방할 수 있는 決意와 指導力에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經濟的 民主化가 韓國의 現實에 적합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에르하르트」가 西獨에서 라인강에 기적들이르킨 못도인 「백」과 물한 킵은 최적으로 보장한다」는 前例를 따라 한국 사람은 누구나 金本位와 資本主義를 최적으로 보장한다」는 經濟政策을 상징하여 「金本位와 資本主義」라고 불러본다.

◇ 約 束

원리암. 나의 일은 유명한 역사가였다. 어느날 산책하는 도중에 깨어진 도자기병의 조각들을 들고 돌아오는 소녀를 만났다. 돌이보니 깨어졌던 것은 아버지에게 드릴 유류물 사가지고 돌아오는 도중, 실족한 것 주인한테서 밀린 병을 떨어뜨려 깨뜨렸다는 이야기였다.

나의 일은 가엾게 생각하여 변상해 주려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았으나 불행히도 지갑을 안 가지고 나왔었다. 「내일 이따금 여기에 오너라. 내가 병 값을 치러 줄테니까」 이렇게 위로해 주고 헤어졌다. 이튿날 친구의 편지로서 나의 일은 친구를 보충해 주어도 좋다고 하던 귀족이 그곳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나의 일은 자기의 친구에 보조금이 만듯이 필요한 것이었으나 그 귀족을 만나러 가면 소녀와 만날 시간이 없으리라고 생각 하였고 기 때문에

「중요한 용건으로 만나지 않으면 안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갈 수 없다. 실례지만 다음 기회를 기다리게 해」 하고 친구에게 회답을 했다. 그 회답을 받은 귀족은 나의 일을 전방진 늬이라고 욕을 하였으나 후에 소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오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인격을 높이 존경하여 자진해서 후회하기에도 이르렀던 것이다.

그런데 金本位와 資本主義가 되면 살수 있는 사람들은 西歐의 基準에서 본 中産階級까지는 自由主義의 母體가 된 第三級을 階級(계급)은 아니다. 六〇%의 동민과 노동자, 사다리맨, 교육자, 도시세공민이 바로 한끼의 밥을 구하는 第三級이라는 西歐의 眼目으로 보아 가지고는 틀어 맞지 않는 韓國의 「民衆」이다. 이 원죄고 굶주린 民衆을 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階層의 기반으로 삼을 때 特權을 資本主義의 橫暴과 不平等을 克服하고 새로운 福祉國家를 建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누가 「金本位와 資本主義」의, 民衆을 위한, 民衆에 의한 民衆으로부터의 革命을 하고 그러한 政府을 세우는가에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의 成敗가 바로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獨立協會 이후의 남은 自由主義는 노쇠하여 死亡申告를 했다. 다음에 올 것은 무엇인가? 「獨裁政治」인가 아니면 共產獨裁政治(스트레이크의 同論文)인가? 이 兩者擇一을 버리고 진정한 民主主義의 韓國化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水準을 조속히 民衆이 民主體制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載貨限水線」 위에까지 꾸준히 올려 놓는 일만이 民主主義를 救濟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우리는 討論의 自由와 對立하는 政黨의 自由, 選舉制라는 고귀한 西歐의 價値를 韓國 땅에서 開花시키기 위한 民衆의 基盤을 구축하는데 있는 힘을 다해야 한다. 韓國의 民衆과 그들의 「金本位와 資本主義」를 위한 經濟的 自立的인 곧 우리 民主主義의 디디고 실 礎石인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프랑스 民主主義의 바람



金 鄉 岸

〈隨筆家〉

우연한 기회에 프랑스 여행을 하게 되었고 파리에서 몇해를 머무르게 되었다. 나는 내가 파리에 여행할 줄 알았더라면 날부터 다시 오르리 비행장을 뜨면 시카고까지 거리의 모든 제도와 시설과 사람들이 그렇게 또 다음에 들었던 것을 지금 기억한다.

낮 모트는 사람끼리 시선이 마주치면 서로 미소 짓고 십년의 지기처럼 이야기를 주고 받던 상냥스런 파리사람들 어떠한 경우라도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 확실하게 우가서면 정직한 파리 사람들을 생각한

유감스럽게도 오늘날은 앞저의 O.S.A가 불란서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지만 불란서 본도의 사람들은 O.A.S의 단행물 우리와 같이 분개하고 있을 것이다.

불란서에 가면 도시나 지방의 밝은 건물 정문 위에 자유, 평등, 박애라는 세 문구가 새겨져 있음을 본다. 이것은 불란서 혁명 때 혁명군이 절고 나섰던 스로장이었다. 밝은 왕족주의를 부시고 자유를 부르짖으며 평등을 주장하고 또 우애로서 동척서 공화국을 이루었던 것이다.

불란서는 구라파의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이며 오랜 카톨릭의 전통의 나라이었다. 여러개의 소왕국 위에 교황이 있어 최후의 심판을 내리고 있었다. 중세기에는 종교전쟁을 겪었고 루이 왕조가 絶頂으로 번영했다가 一七八九년에 저 유명한 대혁명이 일어나 왕정을 무너뜨렸다.

파리에 지금 있는 바스며유 광장은 혁명군의 의해서 지기 있던 감옥이 파괴된 기념의 광장이다. 광장 중앙에는 높은 탑이 세워져 있고 그 위에 자유의 여신상이 하늘 높이 날개를 펴고 있다. 불란서의 국경일이 七月一四일인 것은 一七八九년이 날에 바스며유 감옥이 민중의 손으로 파괴됨을 기념해서이다.

그 이후 제일 공화국이 탄생한 것은 一七九三年이었으며 그후 오늘날에 이르는 제오공화국의 탄생까지 그 기간 동안에 불란서의 민주주의는 자라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불란서인들은 거의가 카톨릭교도들이고 푸르테스란트는 극소수이다. 아기를 낳면 교회에 데리고 가서 세례를 받고 명명물 받고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교회에 가

서 한다. 동리마다 성당이 있는 것은 물론인데 이 성당들이 신자의 해서 그냥 세워진 것들이 아니고 반드시 거기 어느 聖者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남으로 해서 그 성자를 모신 성당이 라는 것이 특이하며 그 뛰어난 성당이 도시와 지방에 부지기수인 것을 볼 때 불라우더 강력한 종교의 힘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일상생활은 결코 어떠한 종교 형식의 것이지 않은 것이 마음에 들었다. 이를테면 그들은 반드시 일요일마다 성당의 가는 것이 아니었다. 성당은 언제나 문이 열려져 있어서 누구나 아무때나 신을 찾고 싶을 때 들어가기도 하고 신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일요일에도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이었다. 공휴일은 거의가 종교적인 축제일이었다. 부활제를 비롯해서 謝肉祭와 聖靈강림제와 성모승천제 등등, 또 지방으로 가면 이름 모를 聖靈의 제일들이 한층 더 빈번한 것에 놀란다.

또 파리가 심구면기 말엽에서 이 심세기에 이르면서 세계미술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예술은 종교와 같은 것이라고 했다. 오늘 미술적으로 가지 있는 건축물로서 남아 있는 옛 사원들은 그 당시의 종교의 힘으로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신앙의 힘과 정신으로서 성리 고했던 그 솜씨의 전통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드라코르와」 「피레」를 비롯해서 「세잔느」 「고갱」 「마티스」 「부라크」 「루오」 같은 화가들과 「로댕」 「부부넬」 같은 조각

가를 날게 하였다 고도 본다. 문헌적으로는 一八세기의 위대한 사상이 「루소」가 나왔고 「피도르 위고」 「바르차르」 「모팻상」 「보오드레르」 「지리드」 그리고 오늘날 역시 그 사상이 추대되고 있는 「차르프르」 「카뮈넬」이 나와서 불란서의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사상이 실천에 옮겨지는 과정에 박차를 가했다. 다시 말해서 이 심세기가 세계적으로 「인권」의 옹호를 천명한 밀반침의 사상이 이들에 의해서 여기 불란서에서 성장했던 것이다.

불란서를 여행하는 사람은 우선 파리를 도시에 애착을 느낀다. 그것은 파리가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해서 이고 파리사람들이 다정하게 여행을 대접함으로 해서 이고 인턴지 모르게 파리가 여행자의 마음을 편안하고 자유스럽게 해줌으로써 일거다. 파리의 거리에는 유모차 안내를 볼 때면서 순경들이 전 안내를 해주며 여행자의 기분을 유쾌하게 만들어 준다. 세에 느긋한 말없이 아름다운 예술의 미를 여행자를 자아내고 강가의 연인들은 언제나 정다울게 비친다. 행·미행 거리의 학생가가 아니라도 장롱이 현충이의 대조적인 피부색을 꺼리낌없이 노출시키며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누구의 마음에도 통하지 않는다. 거기에 여성들은 한층 더 아름다우며 상냥하다. 남성들은 여성을 존경하고 위해 주고 예의에 어긋남이 없으나 여성들은 남성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섬기는 풍속도 마음에 든다. 사회제도가 절대적인 우선권을 여

정해져 부여하고 있어 자녀를 갖는 모성을 우대하고 직장을 갖는 여성을 배려하고 또 소극민과 여성은 두가 버릴로서 보호하고 있다. 노인직업의 이상은 의무직업자와 실시되어 있는 것은 미충이었다.

아기와 노인이 진을 전할 때는 손경이 아니라도 옆에 지나면 누구나 그들을 보호해서 전내출의 무가 있는 것이다. 응용물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들은 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고 여성이 직을 들고가는 경우에는 지나가면 남성은 누구나 여성의 직을 물러준다. 이러한 습관은 여러서부터 철저히 교육되어야 하는 모양으로 벌써 국민교생이면 사내아 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엇이든지 여성에게 양보할 줄을 아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신기스럽고 기특했다.

또 불관서 사람들은 자기 자기의 신분술 확실히 인식하고 있어 절대로 무리와의 희석이 없었어서 좋았다. 흔히 후진국에서 보는 데 열의라 하는 게 없고 그 인상은 소박한 것으로서 친밀감을 느끼게 했다. 학교보육은 국가의 의무교육이요 대학은 자의로 하지만 국립대학의 등록금이 없다는 것은 무로에 가까운 법칙이다. 에도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교사 선과 학생이 있는 사람만이 가되 대학의 입학하면 실업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로서 생활하는 학생과 생활을 할 수 있는 대학의 학비가 누구도 부담이 아닌 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또 대학은 학교 교육이요 보육은 보육의 장이고 고졸업은 보육을 무제한이 되 따라서 학부학사학석학박의 연

의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므로 누구나 자기의 실력으로 한번 획득한 사회적 지위는 후를 때까지 확보되는 것이다.

한동안 정치적으로 변동이 심했을 때 또 내각이 조석으로 바뀌다 싶이 하는 때 국민이 일상생활에는 별 지장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것은 위의 책임자가 아무리 잘못도 그 아래 직선들이 변동없이 맡은 일을 해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딱히 몇몇 머무른 동안 보니까 그 저 특하면 딱히 사람들은 과업하기를 좋아했다. 정당할 이유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被고응우는 고응우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세이다. 地下鐵의 종업원이 용담을 울려달라고 화일을 할 때는 종업원이라도 간선의 메트로를 달려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시민들은 표만은 중업원이 없으니까 공짜로 메트로를 탈 수 있었다. 메트로의 경우는 거저 탈 수 있는 없지만 주요간선은 인제나 뒤지 않고 응직이던 것이 상례이였다. 우리의 화일을 하되 어디까지나 고응우— 즉 국영인 경우는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이지만 민에게 불편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 좋았다.


가끔마다 학생들의 곤란 화일을 하는 데 그것은 대개 학생수당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일 때가 많았다. 정부나 보육장이나 연구해서 되도록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었다. 그런데 한번은 어느 단과대학에서 보실일이름다운 이유의 세였는

태이 경우는 국가재정예산 문제가 따름으로 심사되어 해결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때 어떻게 하나 보았더니 귀찮으니까 학생들을 추려내 실어서 면교의 대나다 불어 버리는 것으로 그만 이었다. 그때 학생들은 교통비가 없다고 메를 쓰면 순경들이 교통비까지 대주어 돌려 보내기도 했다. (1962.6.19)

美國 民主主義의 바탕

任 永 信

〈中大理事長〉



「미합중국」하면 제일 먼저 민주주의 국가라는 관념과 인구가 공존하는 오늘날 (二) 세기의 가장 부유한 자유진영의 우방국가라는 것을 연상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蘇聯」을 제외해 장구이로서, 「조제국」의 (蘇聯國主義) 독립주의의 위력을 견제하고 있는 「미국」의 원력은, 1776년 독립선언을 거쳐 후

우토(沃土)로 만들고, 부지(福祉)를 창달하는 진취의 기상, 이상理想(理想)을 실현화 시킨다는 「미대륙」 최초의 선구자(先驅者)의 서슴, 피땀 흘린 노력이라는 피사를 반석으로 하여 융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호화로운 문명시대를 가져오코 一역八천五백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의 평판 (二) 명목이 명목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그 지착은 「四九二二」년 「월러스」가 「미」 「대륙」을 발견한 후, 여러한 정신으로 개척했다. 「하인」 「정도의」 신앙자유 의 정신, 인류박애의 정신, 인도주의(人道主義) 민주주의의 불인간 처상죄(至上至罪)의 이념으로, 이것을 마치 「응용경」이 자가 결혼점을 향하여, 다름없는 듯이, 차우고 싸워서 유성을 기하여 진취했던 것이다.

이 개척시야 말로, 이들은 그 무손 이룬보로 실천을 주로, 생활속에 진리를 찾코, 단순한 가운데 민주의의 승고한 정신을 세우었다. 이 진취정신을 세운 미국의 위인(偉人)들의 생활신조를 열거한다면 「조지 워싱턴」(G. Washington) 나 부하들이 「閣下」(Your excellency) 「關」 하코 부르니까, 「대륙」이 하는 말이 절대 「자라라」고 부르지 말고 「미스터」(Mr.)로 부른다. 또 시달렸던 것이다. 이것이 곧 인간의 평등을 확실히 부른다는 것이다. 그것을 관료주의나 계급주의 또는 「쿠라파」의 귀족사회의 편지(排僞)이요, 구시대들 박

中共의 對 파키스탄 挑發

西藏과 印度의 邊境紛糾解決의 大 목이 曙光을 보이지 않고 있을 때 中共은 繼續 印度의 背後나 「파키스탄」에 대해 領土問題를 제기하여 三者間의 葛藤을 增大시킬 뿐만 아니라 南亞細亞의 情勢에 새로운 緊張을 造作하고 있다. 中共의 이러한 舉措는 무엇을 意味하고 있는가. 이 事件을 어떻게 演出한 것인가의 初步的 觀測을 해보기로 한다.

이 「파키스탄」에 對한 中共의 領土要求는 一月九日 「라사」放送의 北京放送會 中繼한 것으로 「파키스탄」支配下의 「칸빈」西北 「진기트」地區一千平方哩을 引渡하라고 主張하고 있다. 同地區의 境界線은 目下 確然하지 않다. 印度와 「파키스탄」의 領土紛糾의 焦點이며 印度의 武力에 依한 「코아」進攻의 宿願을 達成한 後 곧 「칸빈」全域의 武力에 依한 收復 및 中共을 「히말라야」山脈地區에서 驅逐할 것을 聲明하고 있다. 이 때문에 中共이 이때를 機會삼아 「진기트」地區의 主權問題를 叩쳐내어 「칸빈」에 손을 벌여 印度와 「파키스탄」의 紛糾를 一層 複雜化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은 「파키스탄」을 威脅하며 間接的으로는 印度의 「칸빈」向 進擊을 沮止하려는 目標에서 라고 보겠다.

고 南亞細亞及 中東에 對한 大包圍圈을 形成하는 一方 南進의 新通路를 開拓할 수 있다. 이것은 蘇聯이 「인도네시아」의 軍事力強化에 注力하여 「인도네시아」의 軍事基地를 利用하여 南太平洋에 脅威를 줄려고 하는 目標과 同一하다. 따라서 中共의 企圖는 蘇聯의 南進態勢와 呼應한 戰略行動이다. 「진기트」는 西藏과 新溫間의 重要한 交通據點으로 더기를 中心하는 一千萬平方哩을 占領하면 兩地의 連接이 可能하고 中共과 印度間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의 地區는 共產黨의 內陸으로 되어 印度側의 地理的 論據가 消失된다. 이點으로도 中共의 新挑發은 偶然한 것이 아니다.

中共이 이 要求를 前後 어떠한 行動을 取할 것이며 또 強硬한 抵抗에 遭遇할 것인가 아닌가는 먼저 「파키스탄」의 民族性, 宗教性, 國防力 및 東南亞條約機構加盟國과의 關係를 理解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파키스탄」의 民族構成은 比較的 複雜하여 (主種族이 五個族) 五分之四以上의 人口는 回教信者로 信仰을 通한 同國의 獨立에 있어 一致된 強固한 意志를 表現하고 있으며 印度와 大規模 流血鬪爭을 展開했던 것이다. 「칸빈」의 住民은 八〇%가 回教徒이고 印度에 對한 反對運動이 激烈하며 이 때문에 同地區 住民投票實施에는 印度도 消極的이다. 印度가 同地區 四〇萬平方哩의 占領을 希望하지만 容易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中共의 企圖는 難關에 直面한 것이다. 「파키스탄」의 兵力은 크지도 弱하

中共의 內腫



中共은 最近 「파키스탄」을 비롯하여 東南亞에 대해 緊張을 造作하고 있다. 그들의 緊張造成은 무엇을 意味하고 있는가? 이 背後를 窺어 본다.

소聯인과 소聯말

言語學的으로 말해서 蘇聯語라는 것은 없으나 蘇聯의 公用語 卽 現代의 露西亞語를 革命前의 말과 區別하거나 蘇聯語라고 할 수도 있겠다. 여기서 蘇聯의 言語와 國民性 特別 內외의 情勢와 對應해서 빚겨지 意味 있는 것을 選擇해 보기로 한다.

① 卽時는 一時間을 意味 무슨 일이든지 付託을 하면 그야말로 卽答으로 「새이차스」(곧 빨리라는 뜻)라고 對答한다. 이것이 蘇聯인이 곧 해준다든지 하겠다고 對答했으니 그 結果를 기다리게 되는데 事實 이 말을 믿다가는 큰코 다친다. 이 말은 中國의 慢慢的와 通한다고 할가. 빨리 빨리 이렇게 督促을 하면 「세세」연신 對答하는 中國인이 있다면 蘇聯인은 「새이차스」 「새이차스」를 되풀이 할뿐 그들은 行動化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말의 正確한 새로운 解釋은 卽時가 아니라 적어도 一時間程度의 餘裕를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말로 알아야 한다. 이만치 蘇聯인은 다른 사람에 關係된 일에는 神經이 鈍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이런 程度로 悠長한 蘇聯인

지도 않다. 卽正規軍이 近三十萬陸軍의 步兵 六個師, 裝甲 一個師, 獨立六個旅團, 空軍 四〇〇餘機, 海軍은 艦艇 二十餘隻으로 充實한 防衛力이다. 또 美國과 共同防衛條約이 締結되어 있어 直接 美軍의 支援 및 東南亞條約機構諸國의 聲援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中共의 武力에 依한 威

虛僞의 藝術

나릿자 · 나루이포프

소聯作家 「나릿자 · 나루이포프」는 自身이 쓴 小説 「블리 지지 않느 노래」(내스페타야 · 페이스나)를 旅行者의 손을 通해서 巴黎의 露西亞新聞「그라나」紙에 引渡했기 때문에 作年 十月 十三日 「레닌그라드」博物館에서 逮捕된 事實은 이미 紙上을 通해 傳聞되었으나 外 그의 小説은 「라게리」(收容所)生活을 中心으로 社會의 暗黒面 自由抑壓의 非人間性을 그린 作品이다. 有名한 「醫師 지마고」의 作者 「파스레르나크」는 小聯의 彈壓을 받아 모치림의 「노벨」은 辭退하고 「모스크바」郊外 金에서 寂寂하게 죽어갔는데 「나릿자 · 나루이포프」는 그러한 消極의 人物이 아니었기 때문에 敢然히 「호루시호프」에 挑戰하여 自身의 小説이 確實히 巴黎의 「그라나」紙에 手交된 것을 알자 그는 그 小説의 寫本에다 便紙를 써서 小包郵便으로 「호루시호프」에게 보냈다. 그 便紙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니끼다 · 세루개이피치氏(호루시호프의 이름) 나는 레닌그라드博物館에서 國家秘密工作員에 依해서 拘留되었읍니다. 내가 쓴 小説 「블리 지지 않느 노래」는 佛蘭西人의 손을 通해서 잘 빠리의 「그라나」紙에 引渡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貴下는 나를 國家를 中傷하는 者로 起訴할 수는 없읍니다. 왜냐하면 나는 소聯의 實情을 제 品位있게 썼기 때문입니다. 나는 肉體의 苦惱보다 精神의 괴로움 魂의 悲劇

發은 實際 效果가 적다. 이 밖의 一般情勢로 보아 中共과 「파키스탄」間에 國交가 있는 以上 많은 複雜한 因素을 考慮해야 될 것이며 卽時決裂로 因한 戰爭狀態 陷入은 어러울 것이다. 그러나 大陸의 여러 種類的 難題에서 國內外에 視線을 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新事件을 造作할 可能性은 充分하다. 여기 數個月來 中共의 積極의 軍事代表團 派遣等 모두 國內外의 決意를 가법하게 하기 爲한 目的의 하나였다. 따라서 이 複雜한 紛糾에 對해 世人은 綿密한 注意를 할 必要가 있다. (香港時報資料에 依함)

食糧과 人口苦惱

香港은 中共의 暴政에 견디지 못하여 脫出하는 難民으로 騷亂하며 大陸의 近況을 아는데 不自由하지 않다. 最近 到着한 上海看護學校 學生들의 話題는 異色이 더 그들이다. 記者團에게 말한 事實은 다음과 같다. 住民의 大整理가 政行된 뒤의 上海市는 그때까지 미친듯 날뛰었던 「十二年」으로 英國을 追越하자 「都市公社化」를 徹底히 하자 등의 「스로오강」은 거의 消失되고 여기에 對해서 「節約運動」 「辛苦奮闘」 「災害救助」等 「스로오강」이 나돌고 그 中에는 「小享樂思想」의 徹底的消滅을 強力히 부르짖고 있다. 이것은 市民이 飽食하고 있는데 그 위에 한그릇의 죽이나 한개의 단두를 求해서 안된다는 主旨이나 實際는 飽食을 할 수 있는 者

도 自身에 關係된 일에는 그야말로 性急하기 比할데 없으며 또 誇張하는데는 불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에 따라서는 約十分 時分을 기다리고는 「사람은 한 時間以上 기다리게 했다고」 氣色이 變하여 손끝이 조금 아픈 程度로도 全身이 아파주겠다고 呼訴하는 針小棒大型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제스처는 그들이 外交舞臺에서도 常套의 으로 쓰는 것이며 中庸이라는 말과는 그야말로 無緣의 矛盾어리의 國民性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틀리지 않는다. 「세이차스」라는 말보다 조금 여유가 있는 말도 「스코오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英語의 SOON 程度라고 할까 이제 곧 程度의 뜻으로 解釋되는 세이말의 「이제 곧」이란 事實과 對應할 때 위의 「세이차스」가 一時間을 意味한다면 이것은 一年後 程度로 보면 틀림이 없다는 僣謬이 있다고 한다. 「언제 우리를 돌려보내 줄 것인가」고 哀願을 하면 蘇聯人은 「스코오로」라고 對答한다. 「스코오로」는 一年 程度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일에 있어서는 「스코오로」가 五年十年의 結果를 낫내고 있다나 蘇聯人의 눈공이 手工作과 말에는 呼吸이 통한다고 할까. ② 「니제보」와 「파와이」 위에 말한 一時間 一年을 卽時로 말하는 蘇聯人의 思考方式은 그 根源이 「니제보」精神에 있다고 본다. 「니제보」란 말은 中國의 沒語字(에

人類破滅시키는 卑劣한 짓을 쓰기로 했읍니다.

國家를 腐敗시키는 思想이나 世界를 無意味한 最終戰爭으로 떠밀어내는 利害關係의 虛無함을 例示했읍니다. 資本主義를 나는 腐敗된 體制라고 보고 있읍니다만 貴下가 主唱하는 社會主義도 길보기가 다를뿐이지 別것이 아님니다.

勿論 資本主義世界的인 「보스」들도 나의 이 小說에 對해서 기꺼이 頂버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느程度 知的活動의 自由가 있읍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藝術家는 自身이 思索하는 것을 許諾하지 않읍니다. 그냥 官製의 公式을 쓰는 것 밖에 다른 것이 없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막히는 單調로움 偽裝空言 表面的인 「루포타-주」 뿐입니다.

貴下는 저 有名한 作家가 쓴 「處女地」를 본 일이 있겠지요. 그 小說에는 한 사람의 知的 人物이나 한 사람의 自己 思想이 없고 그냥 싸구려 演劇의 어리석음으로 파차

가 없으니 이것은 한그릇의 죽을 먹었으면 다음 한그릇을 먹지 말라는 것이 이른다.
市當局에서는 食糧의 逼迫과 失業

있지 않읍니다.

貴下는 소聯을 自由의 나라라고 부르며 政黨을 現代的인 智者로 하고 良心이라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智者는 다른 智者와의 交際를 겁내지 않읍니다. 그냥 正直하고 胸襟을 털어놓고 論爭하며 다른 見解中에서 健全한 要素와 公開的인 相互協力이라는 雰圍氣안에서만 先進的인 思想이 發展하는 것입니다.

참 良心은 思想의 自由로운 相互協力을 武器나 恐喝로妨害하지는 않읍니다. 貴下가 진정한 自身을 智慧 있는 者이며 良心을 가진 者라고 自負한다면 같은 問題로서 公開的인 論爭과 다른 問題로 正直한 協力에 對해서 나의 挑戰을 받아 주십시오.

마라진네 나를 스파이나 秘密工作員으로 돌려까지 말고 자유로이 해 주십시오. 貴下가 그것을 할 수 없으면 쳐어도 나와 나의 家族을 어디든지 보내어 解放시켜 주십시오.

一九六一年 月 署名

者의 增大를 理由로 崇明島에 集團移住計畫을 세우고 第一段階로 市區人口의 十分의 一을 보내기로 하였다. 그런데 昨年 十二月初까지 三萬名을

移住시킨 後 計畫은 突然中斷되었다. 現地에서 脫出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崇明島는 解放後 不毛地로 化하여 住民의 氣가 罹病했거나 또는 榮養失調로 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全無로 傳해지자 後 移住希望者는 全無로 當局도 計畫을 中止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失敗한 當局에서는 다음 手段으로 全市民에게 農村의 水利建設을 擔當시키려고 하였다. 이것은 一應 志願制로 하여 約二十萬名을 近郊各縣에 보내어 堤防工事 浚深 水害를 破壞된 塹의 再建에 充當한 計畫이었다. 그러나 志願制라고 하여도 上海의 暗黑世界即 市外에서의 流亡者 農村公社가 생긴 後 都市로 흘러 들어온 農民(約 八萬名) 등은 強制的으로 이 計畫에 參加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니 곧 追放인 것이다. 當局도 이것을 認定하여 「上海의 人口는 急上昇하고 있다. 이것이 上海의 大陸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어떻게든지 살수 있는 樂園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市民은 각종 階層이 생겨 行政官도 束手無策인 것이다.」라고 辯明하고 있다.

闇市場 即 自由市場은 暗黑의 上海에 가깝게 活氣를 주고 있다. 人民路(舊 國民路)의 兩側에는 早朝부터 夕오리 海産物 肉類 野菜等 露店이 開業하는 데 豚肉은 一斤 七元 魚類는 斤當 四元 筍 同六元 오리 同 五元 小麥粉 同五元五角 쌀 同二元 落花生油 同 一四元 一斤五〇〇瓦 一元은 韓國의 五〇원(一六〇원程度)이니 이것은 公定價格의 二〇倍에 該當하는 高價이고 一般市民은 畫中之 餅格이다.

이와 스와 一脈相通한다고 할까. 그 것으로 그 뜻이 다 說明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그 適用範圍가 넓다. 「할 수 없다」 「別것 아니다」 「普通이다」 「폐」 「그런程度」 등 뜻을 가지고 있으니 蘇聯人은 괴로울 때도 「니 제보」로 諷刺하고 滿足스리울 때도 「니 제보」로 表現 그야말로 茫洋하여 眞감을 수가 없다.

그러나 「니 제보」精神이란 大陸의 인 것이라 할까 능글맞다고 할까 그러한 말의 代表的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재가 잘 알고 있는 「파와이」라는 말을 들어 보자.
「파와이」의 意味는 「자.....해보자」 「자아 그러면」 그것 그것 「式」으로 사람을 督促해서 한가지 行動化한다든지 또는 더 急하게 하려는 「말의 特色」이다. 그런데 韓國에서는 「파와이」는 슬쩍하는 것 즉 남의 것을 다루음치는 뜻으로 쓰이는 데 事實 韓國에서는 그러한 行動에 쓰이기도 했다.
이 말에 「부이스트로」란 말(발리의 뜻)이 붙으면 催促하는 데 쓰이는 말 이 된다.
「파와이 파와이 歐, 美를 追越하자」 이것은 蘇聯이 經濟計畫五個年 동안 뒤를 이 한 말인데 歐美를 凌駕하기爲해서 해보자고 하는 蘇聯人의 이 말은 歐美人보다 앞장 서야 되겠다는 뜻이다 오히려 남의 나라 특히 歐, 美諸國의 秘密을 많이 훔치고도 다른 나라를 侵略해서 앞장 서자고 하는 侵略性의 口號로 들리니 말이란 그 國民性과 많은 關聯이 있다고 하겠다.

또 많이 되던 舶來品이 나온다. 時計高級시크로 砂糖 菓子等 價格은 氣絶할 程度로 高價이며 手紙는 主로 藍色制服의 機關의 高級幹部들이다. 商品은 主로 香港 마카오를 經由하여 들어오는 것으로 庶民과는 因緣이 甚多 品들이다.

香港이나 마카오의 華僑로부터 外貨를 入手해서 常時 郵便小包를 받는 市民은 幸運兒다. 그들은 上海人으로 부터 「翻身階級」으로 불리우며 「新貴族」(新貴族의 뜻)보다 豊足한 生活을 하고 있다. 이것이 階級打破를 한 中共의 實態이다.

上海市의 一九六二年度의 配給證을 보면 物品配給量은 前年에 比해 激減되고 있다. 皮靴도 一戶當 一足이다. 그러나 다른 것은 不問可知但 新夫婦에게는 어느 程度 日用品과 食品의 特配가 認定되고 있다. 이 條例가 公布되자 急작스럽게 結婚하는 者가 續出하고 그 中에는 離婚과 再婚을 재빠르게 해서 當局의 눈을 속이고 있는 약마른 者까지 생기고 있다.



北京은 首都니만큼 行政上 冒險은 하지 않으나 上海는 常時 新運動이나 新計畫의 試驗地로 利用되고 있다.

近者에는 反美運動이 展開되고 班에서는 三日의 一回 美會合하여 反美感情을 煽動하여 큐바에 必要로 하지 않는 다든가 그 밖의 煽動的 言辭를 쓰고 있다. 한편 各學校에서도 學生의 軍人化를 企圖하여 陸·海·空의 各軍에 入隊시켜 嚴한 訓練을 하고 있으며 入隊學生은 十八歲에서 二十二歲로 地區別 割當制로 徵集되며 上海市는 昨年の 二倍로 五千名의 割當이 있었다. 그때문에 市民은 不安에 싸여 있다.

上海市近邊의 嘉興 武進 川沙 吳興 江北의 鹽城等 縣에서는 二年來 凶作으로 野生植物은 全絶이고 蟲(蠶)도 食糧化하고 있다. 그러므로 強盜·殺人 掠奪은 到處서 發生하고 있으며 멀리서 上海로 食糧을 가져고 無事히 到着한 例가 없다는 것이다.

上海와 그 近郊의 이러한 現狀은 上海에 局限된 事實이 아니고 그 밖의 香港에 몰려드는 難民의 말에 依하면 全國到處가 비슷한 實情인 것이다.

昨年度 反革命事件

大陸에서의 消息에 依하면 一月十四일부터 中共 「公安部」 主催 「公安成績展覽會」가 北京 地安門 公安展覽會에서 開催되어 開催期間 十四日間 十四萬名의 參觀인이 있었다고 한다. 여기 展示된 公安事件은 昨年一年間 發生 檢舉된 大陸全土를 貫한다.

여기 依하면 昨年の 所謂 「反革命事件」은 總計 二四萬八千件으로 그 主要한 것은 倉庫의 襲擊 一四萬六八五二件, 幹部刺殺 一三三三件, 武裝暴動 三七八三件, 放火 九萬四五三一件, 海岸地帶을 襲를 타고 逃亡시킨 事件 三九一件, 中共政權을 轉覆시키고 反共政府樹立을 企圖한 事件 二八件, 中華民國政府의 援助物資 空中投下에 呼應한 事件 二二三七件으로 되어 있다.

昨年內 中共正規軍 公安軍及 民兵이 反共계리라와 交戰한 事件은 二萬九六九七回이며 계리라兵 一九萬八四七五名이 戰死하고 六萬三三二二名이 捕虜가 되었다. 이 交戰에서 押收한 武器는 自動小銃 四二二二挺, 步兵銃 四萬三三六〇挺, 手榴彈 二萬四八五一發, 迫擊砲 六九門, 野砲 砲 一門, 軍旗 一三二面으로 그 밖의 偽造人民幣 一三九二萬元, 醫藥用品 一二〇箱이 發見되었다.

地區別 統計로 보면 東北地區 九省이 反共力이 最強이며 華北·華中·華南·西北을 次로 凌駕하고 있으며 押入 中共의 꾸우당部隊 世界赤化 野際에 弄이 어두어진 中共은 아직 철부지 현이 많은 어린 少女들까지 動員하여 銃士로 弄하여 弄하고 있다.

收된 武器는 大部分 東北 九省에서 使用된 것이다.

이 展覽會의 意圖는 勿論 中共 公安軍의 「威力」를 誇示하여 人民의 反抗을 未然에 防止한 뜻이겠지만 結果적으로 보면 中共을 勸으로 하는 事件이 얼마나 많은가를 單의으로 보여 주는 逆效果를 보여 주고 있으며 「아이로니」한 事實이다.

「公安展覽會」의 第三日에 各陳列場에는 反共의 빠라가 撤布되어 中共의 警備員들은 唐慌하여 그 犯人을 잡기 위해 會場의 出入口가 閉鎖되었다. 標語는 毛澤東等 中共의 首腦가 「眞正한 愛國者」를 殺害했다. 왜 公安部는 이것을 放任하고 있는가? 國家와 民族에 對한 犯罪의 元凶 毛澤東等을 逮捕해서 展覽시키라!! 等の 內容이었다.

그런데 이 一部分의 「빠라」의 發行者이 北京 「大學學生聯盟」 副主席 戚家堯라고 쓰여 있어 戚家堯이 展覽會를 參觀하는 그의 父親의 演說이 지그 자리에서 卒倒한 一幕이 演出되어 이 事實의 消息間에 全國에 宣傳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父親의 이야기에 依하면 戚家堯은 北京大學 工學院 電機系에 在學中이며 一年以前에 上海에서 「學生聯盟」 幹部 數名과 더불어 行方不明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學聯」의 擁護아래 反共活動에 奔走하고 있다고 傳해지고 있다. 中共當局은 事件을 處理한 後 「學聯」에 對한 大手術을 斷行했으나 아무런 證據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더우기 많은 警備員이 監視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同會場內에서 「빠라」를 撤布한 犯人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하며 이러한 事件은 每日 各地에서 일어나고 있어 共產獨裁者들을 非難하고 있다는 것이다. (金 史 泉)



軍縮을爲한現實的인 길

(上)

— 제네바會談의 軍事的 背景 —

P · M · S 블라켓트

目次

- 一、軍縮 교섭자의 본질
- 二、軍縮을 위한 미소의 군사적 중요소
 - 1 美國의 核備蓄量
 - 2 소련의 核備蓄量
- 三、소련의 核武器 成長過程
 - 1 미 核能力에 對한 소련의 군사적 반응
 - 2 『ROLL BACK』정책의 終末
- 四、核戰略의 本質的 性格
 - 1 最小限 沮止力의 理論
 - 2 소련의 最小限 沮止 政策
- 五、美소의 군사적 체제 및 정책 과정
 - 1 소련의 核實驗을 제한한 이유
 - 2 U-2형기의 중요성(以下次號)
 - 3 『아이크』가 지저한 美國內 事情
 - 4 五〇메가톤의 경고
 - 5 先制攻擊論者의 先制制壓
- 六、軍縮을爲한 길

一、軍縮 교섭자의 本質

군사지휘관들은 전투나 전략을 계획할 경우에 반드시 敵側에 存在할 제반 정보를 판단하려고 한다. 그것은 첫째로 敵의 군사적 전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탐지하는 것이고

高度로 발달된 군사과학은 오늘날에 있어서 로켓트 — 미사일 — 人工衛星에 過去에는 想像하기도 못하였던 눈부신發展을 가져왔다. 따라서 軍縮이라는 것 그 自體도 군사우기의 발전과 매를 같이하여 더욱 世界的인 主要問題로提起되고 있다. 一九五二年 軍縮委員會가 조직된 以來 美 소를 中心하여 斷續的으로 進行되어 오던 軍縮會談은 쌍방간의 의견대립으로 아무런 성과 없이 中斷되어 왔다. 그리던中 지난 三月十四일부터 제네바에서再開된 十八個國 軍縮會談은 『國際查察』을 둘러싸고 美 소兩國의 기본적인 입장의 대립으로 난관에 처하고 있다. 소련은 왜 自國領內의 出入查察을 拒否하는가? 소련 核戰略의 本質的 性格 그리고 軍縮을 達成하는 諸要件은 무엇인가 — 英國 週刊誌 뉴스스데즈엔 三月二日號에 게재된 P · M · S 『블라켓트』(英國의 著名한 物理學者 四八年 노벨 物理學賞 受賞) 教授의 論文 『軍縮을爲한 現實的인 길』은 客觀的 資料를 基礎로 하여 이러한 疑問點에 새로운 빛을 던져준 것으로 주목되는바 以下 同論文의 要約을 記載한다.

물체로는 敵이 作戰할 可能性있는 作戰 企圖를 推定하는 일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軍縮 교섭을 계획하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義務가 있다. 即 그 成功을 위해서는 軍縮 裏面에 어떠한 사실들이 숨어 있는지를 正確하게 推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軍縮이라는 복잡한 정치 군사적 諸樣相에 關한 正세 판단은 純軍事的인 戰鬪에 關해서 行하여서는 판단보다도 훨씬 어려운 장해

가 있다.作戰을 계획하는 者는 자신상 계획수립에 要求되는 敵의 軍事的 思考過程에 關하여 판단하면 되지만 政治家는 敵의 軍事적 思考過程과 同時에 政治的 思考過程에 對하여도 아울러 判斷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敵烈한 이데오로기 鬪爭이 展開되는 時期에 있어서 더욱 困難한 것이다. 그러나 雙方의 軍事 政治 指導者가 이러한 情勢를 判斷한다는 것은 꼭 必要한 것이다.

이제 소련의 군사정세 및 軍縮에 대한 태도를 西方側 군사정세와 比較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二、軍縮을 爲한 미·소의 軍事的 諸要素

1、美國의 核備蓄量

一九六一年 一月二日 『매니파라』美國防長官은 美國의 核打擊力의 中核은 大陸間 爆擊機 一、七〇〇臺 B-58, B-58 55, B-47 1,000 實戰用 ICBM 六〇〇七〇臺 原子力潜水艦用 ICBM(폴라리스)約 八〇〇臺, 메가톤級의 核爆彈을 貯藏한 核武裝 艦載機約 三〇〇臺 核武裝 超音速 陸上基地戰術機 一、〇〇〇臺를 保有하고 있다고 言明하였다. 또 一九六一年 一〇月二日 『가르파트리트』國防次官은 『우리들의 戰術戰略 核運搬手段의 總數는 數萬에 達하고 各運搬手段에 對하여 一個以上の 核彈頭를 保有하고 있다...』 우리는 소련이 初擊時에 發射할 같은 程度의 第二擊 能力을 保有하고 있으며 이런 能力으로 보아 소련이 大規模의 紛爭을 挑發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하였다.

美國의 核武器 總備蓄量은 三萬 메가톤 前後라고 推定되며 이것은 소련 全土의 男女 어린이에 一人當 TNT 換算 一五〇톤에 相當하다.

2、소련의 核備蓄量

소련의 軍事力에 關하여는 正確한 數字는 모르지만 六一年 一月二日과 今年 一月六日부 뉴욕 타임스紙는 미국側 推定이라는 보도에서 소련의 核軍事力은 ICBM—五〇臺, 大陸間 爆擊機—約 一五〇臺, ICBM—四〇臺 以內이라고 하였다. 워싱턴 當局의 동서 雙方의 核戰力에 關한 數字가 비호한 正確性을 띤 것이라고 假定하여도 소련이 서방측의 核備蓄量에 對하여 合理的인 計畫으로 奇襲 核攻擊을 加할 가능성은 현재나 또한 將來에 없을 것이다. 勿論 소련의 核戰略에 對한 미국의 이러한 評價는 너무 輕술한 것같이 보이나 미국방위성도 이 評價를 대체로 正確하게 믿고 있음은 確實視된다.

그러한 理由로서는 오늘날 美國 政界에서 만일 정부가 오산하여 소련의 核戰略을 낮게 評價한다면 그것은 政府로서는 政治的인 致命傷으로 되기 때문이다. 워싱턴 當局의 顯著한 全面的 核優位の 主張과 소련이 美國內 主要 산업 행정 정치상의 중심지 및 미국에 군사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제국을 겨

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 최근 『마리누스키』 소련 국방상 성명 가운데는 一見 矛盾이 있는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마리누스키』가 말한 정도의 破壞를 하려면 一、〇〇〇메가톤 이내로 충분하다. 예를들면 미국의 주요 목표 一〇〇개소에 각각 五메가톤 또는 西歐와 미해의 기지에 도합 五〇〇메가톤이면 가능하다. 一메가톤당 약 二〇〇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칩더라도 이 공적으로 도합 二억이라는 인명이 死殺될 것이다. 그러나 三만메가톤이라고 걸쳐 하는 미국의 핵비축량은 『마리누스키』가 말한 바와 같은 보복 공격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련이 필요로 하는 量보다 三〇배나 강한 것이다.

三、소련의 核武器 成長 過程

1、美核能力에 對한 소련의 軍事的 反應

소련 국방정책의 배후에 있는 동기들 이해하기 위하여 핵무기의 성장過程을 미국과 대비하여 檢討하여 보면 一九四七年부터 一九五四年까지의 기간은 미국으로서의 原爆獨占과 압도적인 數의 優位를 차지한 시기였다.

당시 미전략공군의 역할은 전쟁발생시 소련 도시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것이었다. 이 도시 優先 공격 정책은 전통적인 군사이론과 동일한 공격, 방어 의 양면성을 지닌 적극정책이었다. 이 七년간 소련은 대체로 미국이 소련으로 부터 상당한 보복을 받지 않고도 소련 도시에 대규모적인 파괴를 가할 수 있으리라는 불안과 공포속에서 지내 왔다. 그리하여 소련은 미국의 核能力에 대한 對策을 急速하게 講究하게 되었다. 즉 소련은 첫째로 자신으로서 核武器를 生産하기 爲한 突貫 計畫을 수립하고 總力을 集中시켰다.

소련의 실전용 전투기수는 一九五三年頃 第一시기에 있어서 약 萬臺에 達하였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소련은 서방측 핵부력의 成長에 수반하여 미국이 核攻擊을 한以後에도 歐洲을 侵襲할 수 있도록 그 地上軍을 徐徐히 증대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서방측 核打擊力에 對하는 소련의 唯一한 軍事的 反應이었다.

셋째로 미전략 공군에게 공격目標에 關한 情報을 누설하지 않도록 소련 全土에 엄중한 지리상의 비밀관제를 하였다.

네째로 소련은 정치면에 있어서 一九四八年 제국의 정치 구테타에 의하여 그 군사 第一線을 더욱 堅固히 하고 또한 다른 위성제국을 주위적 방위조직 내의 더욱 밀접하게 조직화 하였다. 그리고 당시 소련에 대한 주요한 위협을 로 되어 있는 유인 폭격기 때문에 소련은 방공망을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2、『ROLL BACK』政策의 終末

一九五〇년부터 一九五四年에 이르는 기간은 서방측의 사실상 핵무기 독점

기간이었다. 이 말기는 서방측 핵전력의 공격적—沮止力에 對處하는 것으로서의—價値는 더욱 현저하였다. 이 기간은 서방측의 『大量報復理論』의時代였고 美國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세—클렌에서 『ROLL BACK』—解放—決意의 해라고 한 政治構想이 있는 時代였다. 그構想에 의하면 決意의 해는 서방측이 구타파에 보복공격을 하려고 하는 소련을 격퇴하고도 남을 정도의 지상군을 확충하였을 때 이른다는 것이었다. 서방측은 이 적당하지 않은 報復력을 획득한 뒤에 그 핵전력을 이용하여 소련에 서방측의 조건을 수락하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폭격을 한다든지 강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서방측의 조건으로서 위상계구의 자유화와 서방측 군사조직 범주내에서의 독일의 재통일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인 해명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능성은 소련의 핵비축량이 점차로 증대해갈에 따라 그와 대응하게 현실성을 상실하였고 동서 상방 모두가 수복을 사용할 수 있게된 一九五四年 이후에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반대로 소련의 수복 개발과 이 수복을 운반하는 장거리 폭격기대의 건설에 의하여 미국은 오히려 지금까지의 구상이었던 도시에 대한 優先 攻擊 戰略을 實行에 옮겼을 境遇 소련의 核報復 攻擊에 被害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點에 머리를 쓰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恐怖의 均衡에 대한 어떤 種類의 核障害가 발생하였고 더우기 핵무기와 미사일관계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ICBM에 의한 수백마일급 수복운반이 가능하게된 一九五七年 경에는 심하여 졌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장거리 핵미사일의 출현으로 공포의 균형이 더욱 안정화된 셈이다. 그와 같은 理由로서는 이 장거리 미사일이 출현하므로서 유인 폭격기로 어느정도 가능하였던 비행중공기의 자유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핵침략자는 그 주요도시의 어느 하나라도 보복공격에 의하여 말살되지 않도록 피하기 위하여 敵 미사일을 하나 남김없이 격멸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四、核戰略의 本質의 性格

1、最小限 沮止力의 理論

최소한 저지력의 이론에 대응하는 두 가지의 대조적인 가설적 정책이 있는데 첫째는 비교적 안정된 군사적 균형 즉 동서 상방이 모두 자신의 확실한 파괴내지는 전략 핵전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군사적 균형이 달성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상방간에 실제 핵전력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균형은 상방 모두가 理性的으로 行動한다고 하면 比較的 安定되어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쓰여져 있는 專門語로 말하면 最小限 沮止力 政策 即 敵核運搬組織에 對하여 성공적인 공격을 가할 수 없지 만 敵의 諸都市에 보복공격을 가할 목적으로는 충분한 핵무력을 보유하는 政策이다.

政治的 입장에서 본다면 相對的 安定은 均衡의 구체적 조치를 교섭하려고

하는 진실한 試驗에 있어 유리한 것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恐怖의 균형은 오히려 責任있는 政府의 理性的인 行動을 대상으로 하여서만이 안정하다는 理由에서 보면 極히 有望한 것이나 個人 또는 의견을 달리하는 千들의 무책임한 行爲 또는 기술적 사고를 대상으로 한 경우 에 있어서는 決코 安定하지 않다.

適當한 位置에 있는 少數의 개인,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비행하고 있는 핵 폭격기의 승무원이나 미사일 요원은 자신의 『이니스아티프』로서 敵도시의 주민을 수백만명 死殺할 수 있다. 이러한 危險을 적게하는 가장 좋은 길은 雙方의 핵무기를 徹底하게 削減함에 있다.

두번째의 서로 다른 이론으로서 는 공포의 균형은 책임있는 정부의 이성적인 행동에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安定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核保有國이 일단 결의하면 敵의 핵운반 조직에 대하여 敵으로 하여금 報復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기습을 가한다는 견해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렇게 되면 침략자는 자신으로서 는 許容할 수 없는 程度의 犧牲을 치루지 않고도 敵의 死命을 制壓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 말한 두 가지 理論의 실제 結論은 핵무기수에 있어서 최소한도로 우월해야 하고 핵무기 운반 조직면에서는 최대한도로 파괴되지 않을 정도로 강화하며 敵의 핵조직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도로 수집하는 등등 계부분에 경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敵이 이러한 性格의 핵공격을 성공적으로 실시 하기 위하여는 敵의 핵미사일 및 항공기 지 전투에 관한 제 1급의 작전정보와 작목표에 적어도 한 개의 핵무기가 명중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작목표에 대하여 동시에 수개의 핵무기를 발사한 전략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군사부표 우선공격 전략에는 敵에 대하여 몇백 개당되는 중한적 핵우위성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격에서 성공하려면 敵에 대한 완전한 기습 공격이 적으로서 달성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은 最小限의 沮止態勢 또는 軍事目標 優先 제 1적 능력 등 各種의 異名으로 표현되는 때 명백히 말해서 핵침략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한편 理性的인 행위를 대상으로 한 균형이 안정된 정책으로서 는 스스로 핵전력을 일으키지 않고 다만 敵에 공격을 당했을 경우 적의 제도시에 보복 공격을 가하는 계획도 필요된다.

큰 도시에 대해 수복 하나를 부하하므로서 수백만명을 살상시키는 이상 최소한 저지를 위해서는 極히 작은 規模의 운반 조직으로서 충분한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 작은 규모의 핵운반 조직은 高度로 發展된 파괴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敵은 군사부표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최소한 저지 정책의 경우에는 位置가 明白해진 都市에 대한 報復을 對象으로 하고 核基地에 對한 기습 공격은 그 대상으로 되지 않음으로 이러한 基地가 어느 곳에 있는가 하는 것은 알 필요가 없고 역시 자

전정보도 필요 없는 것이다.

2. 소련의 最小限 沮止 政策

萬一 위상은 當局이 확실한 근거를 두고 소련의 核戰力을 평가하고 있다면 핵무기의 역할을 순수한 補償力으로 計畫하고 미국의 核운반 조직에 대한 기습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련은 一九五六年 當時에 月當 二五臺의 장거리 폭격기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確信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들은 一五〇臺 밖에 保有하고 있지 않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소련은 非軍事 宇宙計畫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發展상대로 미루어 보아 ICBM을 현재 가지고 있다고 추측될 五〇基前後보다 훨씬 많이 生産 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련은 傳해진 수량 以上の 量은 可能한 限 所在을 省略한 비밀 基地에 두고 있을 것이며 安全保障의 基礎를 이러한 省略基地로부터 發射하는 少數의 長距離 미사일과 航空機에 두고 있는 것이다.

소련은 의식적으로 시작되는 전면전쟁의 위험이 水爆의 출현으로 감소되었다고 믿고 있다. 그 징조로는 소련이 총병력을 五五—五六六의 五八〇萬名으로부터 五九九年에는 三六〇萬名으로 삭감한 사실 또 一九六〇年 一月 병력삭감의 제 一 단계로 六一年 말까지에 二四〇萬名으로 삭감한다고 성명한 사실이 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한편 소련이 五五年에 包括的 全面軍縮이라는 철저한 조치를 강력하게 지지한 理由의 하나는 豫想하건대 소련이 事故 무책임 또는 局地戰으로부터 발전하는 대전발생의 위험을 저정하였기 때문이다.

一九六一年에 이르러 소련의 군사정책에 어떤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다.

즉 六一年으로 계획된 二四〇萬으로의 병력 삭감은 중지되고 군사 예산은 현저하게 증가되었다. 또한 伯林의 地位를 변동시켰고 독일의 분할상태를 인정시키기 위하여 西方側에 압력을 가하였다. 그리고 核實驗을再開하는 最初國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푸르시초프』의 六〇年 一月의 公約에 反하여 核實驗을再開하였다.

소련의 이와같은 근본적 변화의 背後에는 정치적인 동기가 잠재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 잠재력이란 서방측과의 평화공존 정책에 처음부터 反對하고 있던 中共과 그리고 소련 국내의 반대파들이 『푸르시초프』에게 평화공존 政策을 放棄하라고 要求한 事實을 지적할 수도 있다. 이러한 中共 및 國內反對派의 反對를 度外視하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敢行한 『푸르시초프』는 強力한 군사적 이유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그 唐突한 정책 전환의 군사적 이유의 가장 妥當性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水爆이 出現한 五四年부터 六一年에 이르는 東西 兩블록의 군사체제 및 정책에 서 찾아 볼 수 있다.

五、美·소의 軍事的 體制 및 政策 過程

1. 소련이 核實驗을再開한 理由爲先 最初로 注目할만한 事實은 소련 국방장 『마리누스키』의 六二年初 言明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바 그는 自己의 言明에서 소련은 미사일 戰力을 증대할 必要는 없고 오늘날 過程는 核備蓄이 아니라 核武器의 생산 및 완성이고 소련이 保有하고 있는 核備蓄量은 敵을 擊破할에 充分하다고 하였다.

소련의 군비확장 계획이 着着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上述한 『마리누스키』의 言明이 정확하다고 한다면—소련의 핵군비 계획은 순수한 補償적 역할을 무기로 하고 있는 것같이 보이며 이것은 또 순수한 도시 우선 補償 공격 전략에 合致하는 것이다. 군사목표 우선 공격 戰略은 이와 대조적으로 미사일 기술 진보의 결과로서 敵의 핵무기 運搬手段의 脆弱性이 漸次 克服되어 감에 對抗하여 끊임없이 핵전력을 증강해야 하며 그것은 꼭 必要하다.

耐破壞性을 가진다면지 또는 純粹한 補償용 전력을 同一하게 계속의 것으로 必要하게 되는 事態는 敵이 효과적인 미사일 濫擊用 미사일을 개발했거나 또는 敵의 제도시가 適切하게 防禦可能 態勢로 갖추게 된 경우에 限定될 것이다. 現在로서 이것은 技術的으로 不可能하며 머지않은 將來에도 亦是 不可能할 것으로 豫想된다.

萬一 그것이 可能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現狀을 回復하기 위해서는 報復力을若干 增加할 必要로 充足될 것이다.

이 期間中 美國防 政策의 經過를 살펴 본다면 美國의 戰力은 五五年의 二九〇萬名으로부터 六〇年의 二六〇萬名까지 완만하게 감소되어 왔다. 改良된 핵무기, 미사일, 항공기의 개발은 계속되었는데 그것은 五七年 소련이 처음 『스프루트니크』를 발사한 후 미사일 능력을 상당히 誇示한 당시에 있어서도 그다지 지적되지 않았다.

『아이젠하워』대통령은 소위 미사일 GAP를 메꾸기 위하여 突貫計畫에 착수하라는 若干의 사회적 압력을 받았으나 그 자신은 現행 계획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적절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수년간의 폭격기 GAP는 전혀 虛構였다고 말하고 미사일 GAP도 역시 그것과 동일하다는 모든 징조를 시사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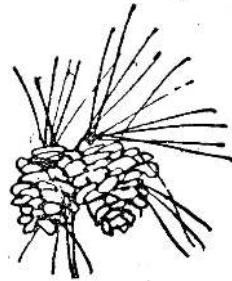
인생은 서어비스이다. 뛰어난 자는 더 많이 더 좋은 서어비스를 주는 자이다.

— E. M 스타트러 —

韓國의 復興과

農村의 役割

— 特別 農村復興 問題를 中心으로 —



現下 우리나라에서 가장 切實한 問題中의 하나로 되어있는 復興問題는 正常的으로 經濟的 發展을 成就하는데에서만 비로소 解決될 수 있을 것이다.

洪 基 昶

< 高 大 農 大 學 長 >

韓國經濟의 窮極의 目標는 近代의 工業化를 이룩하는데 있을 것이라고 하는 데 이러한 意味에서 方今 推進中에 있는 五個年計畫은 工業化過程을 爲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主로 아래와 같은 事項에 重點을 두고 있는 것 같다. 即ち 鐵로 工業化의 基幹이 될 電力을 爲始해서 石灰 其他 動力 資源開發, 土地 農業生産力을 增強함으로써 農家收入의 增大과 國民經濟의 組織의 均衡을 期하고, 世제로 基幹産業의 施設擴張과 社會間接資本의 充足을 圖謀하고, 世제로 遊休資源을 利用하여 보다 높은 雇傭水準을 보장토록하며 또한 國土 自然資源의 保存과 開發에 萬全을 期한다. 上述各事 輸出增加에 依한 國際收支의 改善을 圖謀하고, 世제로 技術의 發展을 期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基本施策에 따라 經濟發展의 支柱를 農業生産力의 增強과 農業所得의 增進에서 오는 農村復興에다 두고 여기에서 이룩되는 消費市場과 資本蓄積에 依해서 經濟의 自立의 成長과 工業化를 促求할 수 있을 것이다. 即ち 우리나라와 같은 農業國에서는 産業構造面으로나 人口構成面으로 보아서 農村이 차지하고 있는 比重은 至大하므로 經濟復興의 問題는 元來 工業部門을 비거는 前者는 後者보다 資本의 限界効率이 훨씬 아니라 이의 回轉速度가 2배 더 資本의 活動이 보다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一般的으로 經濟開發을 論議함에 있어서도 工業化에다 重點을 두는 傾向이 많은 것도 理解가 가는 事實이다. 그러나 急速한 經濟發展을 成就하기 爲해서 工業發展에 重點의 資本投資가 集中되어 이른바 第二次産業의 比重이 增大한다고 해서 第一次産業인 農業部門에 對한 重要性이 秋毫라도 輕減된다거나 또는 輕視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農業國에서 農業發展이라는 背景이 없이 工業發展이 單獨의 進行될 수는 없겠기 때문으로 萬一 工業에만 偏重의 重點을 둔다고 하면 經濟 全般에 걸쳐서 不均衡現象을 招來케 될 것이고, 이것이 國家復興에 對해서 좋지 못한 影響을 줄것은 勿論이고, 또한 農業生産物의 不足 特別 食糧의 不足은 이를 輸入에 依해서 充當해야 하므로 國際收支面에 있어서도 逆調을 免하기 어렵을 것이다. 如何한 經濟復興을 이룩하기 爲해서 工業을 主로한 第二次産業에 對해 重點을 두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全人口의 六割以上을 차지하고 있는 農村의 復興되어, 工業生産品의 購買力이 向上되고, 이른바 消費市場으로서의 條件이 갖추어지지 않고서는 正常的인 工業發展을 期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點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나라의 經濟的 發展과 工業의 發達을 爲해서는 이의 先行條件으로서 特別히 農村의 復興이 必須의 인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銘心해야 할 줄로 안다. 따라서 今般의 第一次 經濟開發計畫에 있어서 爲政當局이 農業部門에 높은 比重을 두고서 多岐로운 重農政策을 對立하여 實踐을 強行하게 된

(1)

政府가 樹立한 農業政策의 重要方針은 食糧의 自給自足을 爲한 主穀增産을 爲해서 多角의 農業經營의 獎勵 副業의 勸獎, 農業의 有富化, 農地改良 事業의 推進, 造林과 山林保護等 效率的 山林事業의 遂行, 農村啓蒙事業의 展開 農業協同組合의 發展等 實로 多面的인 것인을 認할 수 있는 것이다.

政府가 五·一六直後 農村의 實情을 打破하여 이의 復興을 爲하고 農業發展과 生産工業의 振興을 目的으로 해서 斷行한 農漁村高利債整理는 劃期的인 것이었으며, 뒤이어서 重農政策의 一環으로 뒷가지 主要한 農林政策을 樹立하고 이의 實踐을 勵行中에 있거니와 그의 內容面에 있어서도 革新的인 맛을 感得할 수 있는 것이다. 即 첫째로 農産物價格維持法은 從來 低調一路를 걸어온 農民의 生産意慾을 仰拂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이로써 農業生産에 對한 最低限의 生産費保障을 해주게 되었다. 今年度부터는 大麥을 爲始한 벼, 고구마, 薄荷, 葛麻子, 亞麻等 重要農作物에 對해서 豫示價格을 提示해 줌으로써 農業增産意慾을 鼓舞하고 生産物의 販路를 保障해 주게 되었다. 한편 昨年 十月下旬부터 實施을 보게된 米穀擔保融資는 政府 買上高 二〇萬石과 더불어 一〇萬石으로 策定하여 米穀價格을 大幅引上케해서 實質적으로 農家利益에 寄與하는 한편 米價의 年中 平準化와 더불어 穀價安定을 期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商品價格의 安定과 農業市場의 擴張等도 農民에게 좋은 刺戟을 줄 것이 期待되는 바이다.

둘째로 農業經營面으로나, 收入面으로나 深刻한 問題를 提起하고 있는 零細性의 打散을 爲해 安定農家造成에 拍車를 加하게 되었다. 생각컨대 將次, 農村高利債에 依한 農村의 窮乏을 完全히 拂拭하기 爲해서 當面한 政策으로 營農資金을 增額放出한다는지 農家의 消費節約 및 貯蓄을 勵行한다는지 그리고 農家副業을 獎勵하므로써 農村收入을 올리는 여러가지 일을 遂行할 수 있는 바이지만 恒久策으로서는 무엇보다도 農業經營의 零細性을 打破하지 않고서는 農村으로부터 貧困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前記한 安定農家造成問題는 우리나라 農村의 復興을 圖謀하는데 있어서 가장 根本的인 解決策이라고 할 수 있다. 安定農家란 農業經營의 適正規模를 期하므로써 零細農家を 없애자는 것인데 于先 五段步未滿의 耕地面積을 가지고 있는 農家를 對象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年間總所得에 비해서 支出過多로 인한 赤字가 大略平均 一,三〇〇圓(舊貨) 一三,〇〇〇圓(新貨) 정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를 約百萬戶에 該當하는 零細農家를 中農程度의 水準까지 끌어올려서 適正規模를 期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기 爲해서는 收益性에 重중한 營農方式의 改良指導 地社會開發의 促進, 耕地面積擴張을 爲한 개간이나 干拓事業의 活潑한 展開, 農村過剩人口問題를 解決하기 爲한 農家人口의 第二次産業으로의 轉入及 單位面積當 生産高를 올리기 爲한 農業經營의 集約化와 副業의 獎勵等 여러 가지 調節方法이 講究되어야 마땅할 줄로 안다.

세째로는 耕作地面積을 擴張하는 意味에서 林野地나 荒蕪地를 개간한다는지 干拓事業을 積極推進하는 것이 進行되고 있다. 元來 우리나라 國土總面積의 不過 二四%만이 耕作地로 되어 있고 그外는 大部分 林野地로 되어 있어 墾闢하면 林野를 가장 合理的으로 利用할 수 있는 바에 매우 重大한 問題를 提起하고 있으며 또 南海岸과 西海岸은 리아스式海岸이 發達하여 將次 干拓地로 轉入을 수 있는 面積이 數十萬町步에 達할 것이므로 額額의 耕作地와 農家人口를 가지고 있는 現狀으로서 이 方面에 힘을 기울여서 活潑한 開拓하는 것도 重大한 意義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이다. 따라서 이러한 耕地面積擴張事業을 推進하는 한편 立地條件에 隨伴해서 새로운 栽培體系를 樹立하고 適地適作原則에 따라 農家經濟를 向上시킬 수 있는 換金作物의 栽培를 促進獎勵하려 하고 있다.

네째로는 多角의 農業經營의 實踐을 指導獎勵하고 이의 重要한 方策으로서 一方으로는 特用作物의 增産, 有蓄農業의 獎勵 養蠶業의 發達等을 圖謀하고 있으며 또한 他方으로는 品種分化의 高度化를 爲한 育種事業의 擴張을 爲해 合理的인 施肥法, 農地改良, 深耕, 密植에서 오는 單位面積當 生産高의 增加, 育苗技術向上이 그의 一環으로 되고 있는 省力農法의 研究와 이의 實踐等 實로 各方面을 通한 營農栽培技術의 改良을 積極적으로 普及시키므로 劃期的인 增産을 期하여 하고 있다.

다섯째로는 農業協同組合의 育成問題를 들을 수 있는데 昨年 八月十五日을 期해서 斷行한 農業銀行과 農協과의 合同은 果斷的인 處事로써 協同組合 金融體制의 出現을 보게된 셈인데 이것은 곧 從來小農을 爲主로 삼아왔던 우리나라 農村의 固有한 信用機關으로서 組合金融體制가 必要한데 對한 實現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協同組合體制는 小農이 支配的인 存在로 되어 있는 社會經濟的 條件下에서는 多數를 차지하고 있는 農民들이 바라마지 않은 信用機關으로서의 協同組合金融이 必要한데서 맺어지게 된 當然한 結果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果敢히 營農資金放出을 해서 農家의 利益과 農業生産에 寄與를 해온 農協은 向次 農業經濟의 "선진"의 役割을 할 리카나 生産과 消費兩面을 두 고서 이를 爲한 活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같이 協同組合은 有蓄農業의 多比重을 두는 方向을 취하고 있다. 한편 農協에서는 合理的인 肥料政策의 一環으로서 이의 適期配給을 期하는 同時에 農民이 適正價格으로 肥料를 入手할 수 있도록 하기 爲해서 官需肥料體制가 具現되었고, 또한 各種副業의 獎勵와 農村保險制度로서의 火災保險制度等을 確立시키게 되었다는 것은 農村復興을 爲해서 多幸한 일이라고 하겠으며 앞으로는 協同組合運動의 自主的인 發展, 生産增進의 實績을 올릴 수 있는 그리고 各個組合으로서 信任을 받고 또한 組合自體는 各組合員들에게 充分한 奉仕를 할 수 있는 이른바 眞正으로 農民을 爲한 協同組合으로 發展되어 간 것이 期待되는 바이다. 여섯째로는 造林과 育林을 爲主로한 山林政策에 있어서 이를 積極推進하여 治山治水의 萬全을 期하고 이로써 國土保存 및 地力保存, 水利資源의 確

保林產開發等の實効를發揮하도록 되어있고 이에 隨伴하여 燃料林造成을 積極勸行함으로써 地方保存에 寄與하며 하고 있다.

일곱째로는 前述한 바와같이 各種副業을 獎勵하고 地域社會開發運動의 하나로서 그 地方에 特産物 生産을 增進케 하므로써 農村勞動의 資本化와 農村勞動의 均等한 分配를 期하고 나아가서는 亦是 農村經濟의 向上을 圖謀하고 있다.

여덟번째로는 政權機構로서 農村振興廳을 새로 設立해서 農業經營과 技術에 對한 指導體系를 一元化하고 따라서 綜合의 이면에서도 集中的인 指導를 하게 되었으니 이로써 아직도 後進性에서 脫皮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農業과 民衆가 알은 多數農民들에게 보다 効率的인 指導的 效果를 期待할 수 있게 되었다.

(三)

이제야말로 우리나라의 農業이 敢然 轉換해야 할 때는 到來하였다. 위에서 말한 重農政策이 強하게 그리고 持續的으로 實踐되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歷史적으로 累積되어 온 우리나라 農業의 劣惡한 特質인 零細性이라는 農村의 貧困性이라는가 農業生産의 低位生産性等을 打破하고 全般的인 改善을 할 때가 到來하였다는 말이다. 卽이제 바야흐로 後進性的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從來의 經驗農業으로부터 科學農業으로 單一農業法으로부터 多角農業法으로 低位生産農業으로부터 高位生産農業으로 轉換해야 할 우리나라 農業은 多岐로운 農業政策이 提示한 바에 依해서 急速한 發展을 해야 하겠는데 要는 이것이 어느程度 實踐에 옮겨져 드르세 얼마만한 成果를 얻을 수 있겠느냐가 今後에 남아있는 重要한 宿題거리라고 생각되는 바이다. 따라서 앞으로 爲政當局에서 平均의 零細小農을 適宜, 保護育成하여 農村經濟를 向上시키는데 主力을 傾注해야 할 것은 勿論이며 이의 農民各自由 스스로 覺醒해서 不斷한 生産意欲과 創意力의 發見으로써 自律의 으로 스스로의 前途를 開拓해 나가려는 氣風을 振作해서 마땅할 줄로 안다.

이제 우리나라의 國力을 기르고 經濟水準을 向上시켜 復興을 이루하는 일 은 切實한 當面問題이거나 이의 萬全을 期하기 爲한 先行條件으로서는 必然의 으로 農村이 復興되어야 한다는 것을 再三 強調해도 過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點으로부터 國家復興에 對한 農村의 位置는 絶對的인 것이라고 해도 誇張은 아닐 것이며 이에 對한 關係點을 뒤고 있다는 것을 모든 國民이 強하게 認識해야 할 줄로 안다.

八 끝

(17 P에서 계속)

보다는 離農을 促進하고 農村을 經濟적으로 疲弊시켰다는 야릇한 結果가 더 많은 것 같다.

이러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理想이 곧 天國을 가져온다는 迷信과 學問과 知識이 곧 生活을 改善할 수 있다는 觀念이 非合理的인 思考方式을 낳아서 原始時代에 自然을 相對로 開拓한 生活은 現實的으로 차근차근 開拓한 것은 創意를 죽여 버린 結果이다. 卽 先人의 무엇 을 이룩해 놓았는가 하는 糟粕에만 注意이 돌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또 어떻게 보다 늦게 發展 시킬 것인가 하는 科學의 精神과 態度의 缺如에 因한 것이다.

溫故而知新이란 말이 있다. 옛을 더듬어서 새로운 것을 안다는 뜻인데 이야말로 學問의 態度요 科學의 態度가 아닐 수 없다. 科學이 因果를 믿는다는 것도 그 必然性을 찾아서 있어야 할 것을 探求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사시 科學이라고 하면 곧 物質主義를 意味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그것은 機械文明이 急速도로 發達하는 途상에 있는만큼 科學의 價値가 物質으로 나타나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機械와 物質은 사람이 個人과 社會와 國家의 問題를 解決하는 道具에 지나지 않으며 또 그것은 그 사람이나 그 社會나 그 國家의 必然的인 要求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와 <우리>의 生活에서 그것을 檢討하는 것이 참된 科學의 精神이요 <나>와 <우리>에서 새로운 무

엇을 追求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볼 때 重要한 것은 科學의 所産보다도 科學하는 마음에 더욱 注重할 必要가 있다.

言必稱 落後된 우리 文化라거나 後進國家라는 말을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거의 外國의 物質文化를 指稱하는 것인데 나는 차라리 落後된 것이 있다면 <科學하는 마음>을 基準으로 하여 새로이 出發하고 再建하는 意欲에서라면 善意에서 그러한 發言을 容許할 수 있을지언정 物質文化—卽 結果만 보고 對比하는 態度에는 反撥조차 느끼는 것이다.

事實 우리는 落後된 面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이것은 外部에 나타난 것을 追從하여서는 같은 水準에 오를 수 는 없다.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意欲과 이것을 解決하려는 創造만이 捷徑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個人의 問題가 아니고 實로 우리의 問題인 것이다.

우리의 問題라 하면 우리 生活에 있어서 먼저 가져야 할 것은 協同이라는 마음가짐이다. 協同으로 이루어진 集團의 能力이 個個의 總和보다 높다는 것은 科學의 原則이다. 이러한 原則이 民主主義를 志向하는 建國의 理念이기도 할진대 나는 科學精神은 먼저 여기서부터 發露되어야 할 것을 믿는다.

近者 無事安逸主義의 타파가 公務員生活의 한 指標로 되어 있음에 즈음하여 무엇보다도 <科學하는 마음>이 아닐고도 忠武公과 같은 民族의 師表의 故事도 생자되기 에 所感의 一端을 피는 것이다.

(끝)



런던의 韓國觀

伯林의 人情

김 대 수

△한국일보 記者

「런던」의 커리언선 날씨가 더운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사귀는 흥분한 동기가 될 수 있다.

천연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날씨가 더운군요」하는 인사로부터 여러가지 이야기가 시작되곤 한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술집같은 데선 실내장치가 술맛에 대해서 「그것 참 좋군요」하는 말 한마디로 교제가 시작된다.

보통 술집을 「퍼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피블릭 하우스」를 줄인 말이다.

「퍼브」엔 여러가지 제종이 있다. 하층 시민들이 많이 가는 곳도 있고 중류 시민들이 가는 곳도 있고 또 어떤 「퍼브」는 칸이 막혀서 이칸저칸에서 술마시는 사람들의 신분이다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곳에 특정한 사람들만 들어 갈 수 있다는 표시는 없지만 시민들 스스로가 알아서 들어간다. 대개의 경우 때를 선택하지만 때로

는 친지한 분위기를 갖춘 品位있는 장소도 있다. 이런 곳에서 사람들은 이만나서 하는 이야기는 다양과색이지만 때로는 강의실에서 듣기 어려운 토론도 벌여지곤 한다.

잔을 들고 마시다가 우연히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약간 숙이든지 가벼운 미소를 교환하거나 보통이고 그로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서 로이를 달리고 사귈다. 記者도 「퍼브」에서 여러사람들을 만나 사귀었고 그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그러나 늘 귀찮았던 일은 國籍이 야기와 거기에 따른 國民性의 이야기였다.

흔히 「日本人이요?」 또는 「中國人이요?」하고 묻지만 「韓國人이요?」하고 대답하면 곧이어 전작 귀찮은 질문이 나오나

「韓國人사람들은殘忍하다지요?」 대개 이런 질문을 하는사람들은 二次大戰當時 東南亞에서 日本軍과 戰鬪한 經驗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 친척들로서 日本軍에게 상당한 고통을 당했고 그때 日本人보다 韓國人이 더 지독했다고 흔히 주장한다.

처음 몇번은 韓國人이 결코 그렇게 잔인하지 않다고 기를 쓰며說得시키곤 했다.

그러나 보는 사람마다 거의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중엔 화가 치밀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퍼브」에서 한 영국인이 술을 달아왔다.

「日本人이요?」

「아니 韓國人이요」

잠시후 그는 이것저것 이야기하

다가 記者에게 정중하게 물었다.

「저...이런걸 여우어 봐서 失禮인지 모르지만 韓國人사람들은殘忍하다고 들었는데요, ...事實인가요?」

記者는 對答해야 했다.

「네, 우리 韓國人사람들은 대단히殘忍합니다. 단, 戰爭때만 그럴 것입니다」

이달아 記者는 反問했다.

「戰場에서 敵軍에게殘忍하지 않은 사람도 있나요?」

一九六一年 八月 十三일은 東獨의 「울브리히트」가 東, 西「베를린」을 막는 城壁을 쌓은 날이다.

世界는 긴장되었고 歐洲북판에는 戰雲이 낮게 깔리고 있었다.

八月末 어느날 갑자기 本社로부터 至急電報가 날아 들었다.

「런던」을 떠나 「베를린」으로

가라는 指示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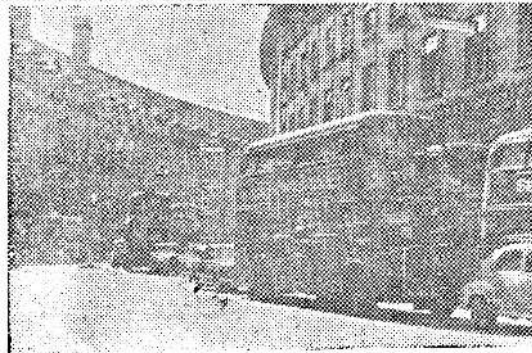
記者는 即時「택」을 꾸려 가져고 「런던」을 떠났다.

西獨의 「본」에서 잠시 내려 우리 大使館에 들러 좀더 새로운 일이 있는지 그리고 參考로 해야 할 點等을 알아본 다음 하루를 그곳에서 쉬었다.

우리가 學校에서 배운 바로는 독일사람들은 근면하다고 많이 들었다. 多感한 국민이라곤 생각될 수 없었지만 막상 「라인」강가에는五色의 꽃밭이 가지런히 가꾸어져 있었다. 生氣도는 꽃밭속에서 「비취, 임브렐라」밑에 앉아 배우로 가슴을 식히면서 記者는 상상해 보았다.

「이렇게 소나비가 한바탕 쏟아지면 얼마나 壯快할까?」

바로 그순간 記者는 스스로 놀라 뭉서리쳤다. 바로 이 一帶에 戰機가 걸려지고 있는데 소나비생각은



(上) 런던의 住宅街 (下) 옥스포드 거리



(上) 東伯林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지만 이렇게 閑寂하다

(下) 울브리히트 壁을 넘어다보는 西伯林市民



美國을 바르게 알자

梁 潤 世

<經濟企劃院 企劃局 第一課長>

너무도 不吉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西部「베를린」에 이르렀을때 그곳은 「런던」에서 미리 짐작했던 것과는 判然으로 긴장된 表情을 感得하기 어려웠다.

「西」베를린과 東「베를린」이 截然 對峙「베르나우어·슈트라스」(베르나우어街)가 있고 남마다 저녁때면 이 곳에 「西」베를린 시민들이 몰려들어 「울브리히트」城壁너머로 東「베를린」을 건너보며 손수건을 흔들며 친척을 부르는 광경이 벌어진다. 八月十二日까진 서로 왔다갔다하면서 놀만하던 친척 친구들이 이젠 서로 불려도 들리지 않으니 비탄할 정도로 멀리 가물대는 조그마한 일꾼들에게 向해 손짓만 할 뿐이었다. 한 할머니는 무어라고 이름을 입속으로 부르며 손수건을 흔들었다. 담 너머 저쪽에서 이쪽을 보며 물러 있는 사람들과 같은 한 젊은 女人이 곧이어 이쪽에 대고 손짓을 했다. 노파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말을 보고 그러는 걸까? 손녀일 까? 記者는 차마 할머니에게 물을 수 없었다.

城壁의 저쪽 바로 밑엔 共產側 鐵帽골이 약간씩 보일 뿐이었다. 城壁을 사이에 두고 생이 변된 「베를린」 시민들이 서로 손짓의 물결을 이루는 가운데 어느 青年은 자전차를 타고 와서 그 위에 올라서서 망원경을 펴서 담 너머 저쪽을 열심히 바라보기도 하였다.

거기엔 누가 있는가? 누이일까? 동생일까? 소리쳐 불려도 들리지 않는 저쪽 사람들이나 얼굴이나 마칠 것 보자는 이 젊은이의 마음이 어쩔지름 상상해본 記者의 마음은 괴로웠다. 양쪽 시민들이 서로 발돋움을 하고 비웃으며 손짓을 하는 이 廣場에서 共產主義가 무어고 어떻게 說明이 必要치 않다. 共產主義者들의 罪惡에 對한 證人들만이 모여 있는 것이다.



七年만에 故國을 確實히 變換했고 서울의 市民들의 모습도 分明히 달라졌다. 뿐이라, 우리는 지금 史上 처음으로 最大限의 進을 거리에다 加速度까지 加하여 後進性을 克服코자 變化해 가고 있다. 早速한 變化를 일으키는 社會속에서 무엇이 變化의 方向이며, 어떻게 하면 個人은 呼吸을 맞추어 올바른 方向의 變化에 適應하고, 나아가서는 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이는 恒常 가장 어려운 社會問題이기도 하다.

歸國二個月만에 느끼는 가지가지 印象의 하나로서 나는 無條件美國을 天國視하고, 或者가 渡美라도 하면 또는 韓國이 美國化라고 하는 말에는 은동 萬人이 天使化하는 듯한 思考方式이 舊態依然하게 支配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勿論美國은 先進國으로서 教育, 經濟, 政治 各分野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許多함은 事實이다. 美國인들은 우리네의 가난한 處境에 비해 말할 수 없는 豪奢스러운 生活營을 하는 데는 苦難이란 없는 것일까? 美國인들은 아무런 努力도 없이 이러한 豪奢스런 現實만을 영위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보고 體驗한 바를 讀者들에게 紹介하려고 皮相의인 美國이란 觀念에 對應코자 붓을 들었다. 이는 또한 美國社會의 苦惱相의 一片이기도 하다.

于先흔히들 美國은 高大雄壯한 建物으로써 이루어지고 美國人들의 生活程度, 樣式, 規模等은 말할 수 없이 豪華廣大한 것이라 해서 韓國인들은 부위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외形的이고 皮相의인 事實의 裏面이란 없는 것일까? 첫째 一例를 들어 가장 큰 建物들이 羅列하고 있는 곳이 「뉴욕」이다. 그러나 이 事實이惹起시키는 副作用은 가장 피로운 함의原因이 되고 있다. 恒常 크고 높은 建物를 바퀴 속에 사는 人間들은 저도 모르게 一種의 環境의 制壓을 느끼게 된다. 人間體가 그렇게도 無價値하고 작게 보이는 데서 生애 對한 悲觀論도 나오고 심지어는 厭世症 같은 것을 이르키기도 쉽다. 即人間은 自己의 環境을 制壓 및 征服해 나가는 데서 生의 刺戟을 받으며 價値를 느껴 痛快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幸福된 要素란 보기도

은것 美國 社會生活의 各分野는 實한 수 없이 規模가 크다. 이들의 效果의 運轉을 爲해 分業은 纖細 明確하게 發展되어 있다. 따라서 廣大한 組織體 밑에서 일하는 各個人은 大部分이 極히 限定된 分野에서 日常機械의 役割 만을 하게 되는 것이니 自己自體의 業績이란 볼 수도 느낄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即 大部分의 美國人들은 實狀 自己努力의 價値를 發見키 어렵다는 것이다. 勿論 勿論 月給봉투가 努力의 代價라 할 수도 있었으나 亦是 이것 만으로서는 어딘가 納得이 안가고 滿足이 안간다는 것이 人間이 아니다. 그들은 日常自己의 質의 位置가 어디 있는가 찾으려 하며, 이 位置가 稀微하고 曖昧할 때 느끼는 一種의 幻滅感은 배고파 허리는 허기증 보다 낫다고 斷定키는 困難한 것이다.

美國의 物資는 豊富하다. 또 生活의 發展 向上되고 있음에 따라 日常必需品는 各方面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니 남에게 못지않은 삶을營爲하려면 恒常 허덕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美國人들이 일이나 부지런하게 그리고 힘들어 그 社會가 合當하다고 認定할만한 生活水準에 自己自身을 이끌어 나가는가 하는 점은 別로 알려지지 않는 듯하다. 即 質적으로나 量的인 面的 向上意欲이 強한 美國人들은 晝출 모르고 時間을 아끼고 보니 그만 不休息이란 그들의 體質이 되어버린 듯하다. 이것이 좀 甚해지면 安眠불절을 못하게 되고 神經質이 나고 不眠症, 神經衰弱, 神經麻痺, 神經痛

等등의 各種 神經病을 惹起시키게 된다. 이렇게 되면 實狀 이들은 不滿과 悲哀에 찬 生活을 繼續하게 된다. 都市에서는 心理學者, 分析治醫等 精神關係者들의 需要와 그들의 收入이 늘라올 程度임은 이러한 社會苦를 如實히 立證하고 있는 것이다.

美國의 一部 女性들과 한 時間만 앉아 있으면 하루 지겨워 골치가 아프다는 不平은 恒常 들리고 있으며, 이러한 現象은 男子들 間에도 많이 보인다. 이것 亦是 마음이 安定되어 있지 못하거나 또는 上記한 神經病의 증세를 말하는 것이다. 卽 이라 美國의 人當飲酒量이 世界第一이라고 있으니 이는 다만 돈이 있기에 마시는 것이라고 速斷한 해버릴 수도 없는 것이다. 勿論 술이 마시는 술도 많지만 술마시고 萬事 걱정거리를 잊고 폭독한 世上에서 찾을 수 없는 興奮, 痛快感, 유모아 등을 醉中에서 찾으려는 意識도 強한 것이다.

조용히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밥을 맛있게 먹고 아늑하고 단란한 周圍에서 自己를 찾고 理想하며 살아가는 것은 美國人들 자신 보기도 문 것이다. 무엇이든 自己周圍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으면 크나큰 不安과 恐怖感을 자아내는 것이어서 아무도 없으면 하다못해 요란스런히 音樂이라도 틀어놓아야 마음이 가라앉는 듯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美國사람들이다. 심지어는 「락엔들」을 틀어 놓고서야 이러한 數學問題를 풀 수 있다는 同窓生들도 있었다. 換言하자면 美國人들은 實狀 千

구보다도 孤獨하기에는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孤獨한 狀態를 더욱 두려워하는 것이다. 孤獨이란 사람에 굴주된 것을 말하기도 한다. 勿論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問題는 境遇와 角度에 따라 區區해져는 것이니 實로 確定的인 定義를 내릴 수 없는 좀 曖昧한 觀念이라 하겠다.

하지만 이 글의 趣旨을 爲主로 于先 이렇게 생각하자. 사람이 아늑한 周圍環境 속에서 安定된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그를 사람에게 굴주된 人間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美國人들처럼 不安에 싸이고 不平에 充滿한 사람들도 보기도 드물다 하겠다. 저렇게 좋은 집을 가지고 저렇게 잘 살며 저렇게 미끈한 家族들이 一見 幸福스러워 보이는 것은

亦是 우리의 判斷基點이 韓國人이라는 데서 오는 速斷일 것이다. 이는 우리가 日常 듣고 있는 産業化, 工業化, 現代化等 經濟秩序의 變革에 따르는 社會의 變화를 考察해야만이 理解가 가는 것이다. 생각된다.

土地와 家族이 爲主로 된 封建的인 社會에서의 삶이 最大限度의 사랑을 주고받는 삶이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서로 保護 依支하고 산다는 것만은 事實이다. 이것이 産業이 發達하고 工場이 繁盛함에 따라 都市가 擴張되면 自然 人生의機會는 都市로 集中하게 되는 것이며, 젊은이들은 成功의 길을 찾아 父母와 故鄉의 울타리를 벗어나 都心地로 進出하게 된다. 個人을 爲主로 한 아파르트 單位の 生活이 家族親戚生活를 代置한다. 이들은 自己의 欲望을 充足시키고자 힘써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 무엇보다 時間과 勞動力이 아가워지는 것이다. 또 있는 時間과 勞動力을 最大限度로 利用해도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保障은 없는 것이다.

父母와 兄弟, 故鄉의 사랑, 保護, 壓制等 等情과 規程이 混含된 社會인들이에게는 別로 介意할 것이 있는 것이니 이를 확 벗어났다. 「나」 하나가 爲主로 되는 生活을 한다. 더욱 機動力이 發達한 美國社會 같은 곳에서는 別로 介意할 것이 없이 機會를 捕捉하기 爲해서는 필 필요거나 할 수 있는 것이니 愛着, 未練, 等은 실상 그들의 發展向上

↑ 뉴욕의 出街街



에 一大障礙物이라고 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던 중 더具體的으로 美國 現社會에서는 어떠한 副作이 招來되었는가?

美國社會의 最少單位는 夫婦이다. 옛날 같이 社會組織이 이미 負擔해 주던 養育, 保護, 依存等을 막치고 나온 이들은 獨立, 獨自意識이 強하다. 하지만 홀로 살지 못하는 것이 人間이라 할진대, 父母兄弟 親戚 故鄉에서의 保護 乃至는 干涉을 막치고 나오는 젊은이들은 相互配遇者間에 이 모든것을 찾고자 한다. 一例로서 美國의 아내들은 부엌에서 밥이나 짓고 애기나 키르고 男便치 닦거나 하는 存在로서는 到底 充分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男便의 同僚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누나가 되는 것이니 홀로한 美 中流社會의 男便의 所有의 全部는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이다. 이는 一見 理想的인 듯하나 이에 따르는 「아내」의 責任과 努力이란 韓國의 中流社會 婦人들은 想像도 못할 정도이다. 흔히 女子에게 親切하고 女子를 爲하는 外國人들을 憤慨하는 風에 젖은 女子들을 볼 때, 그들은 그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責任과 努力을 똑바로 보라고 외치고 싶은 것이다. 남에게 뒤떨어진 生活를 양고저도 많은 機會가 있는 關係로 많은 家庭主婦는 男便에 못지 않는 職場生活를 營爲하고, 고단한 몸을 끌고 歸家하면 또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서 무거운 짐을 지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내를 위하고 애기는 男便의 態度란 너무도 當然하고 自然스러운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時間의 餘裕와 思索의 餘裕를 모르고 지내는 그들의 表現方式은 單純하고도 낮은 것이 되는 것은 또한 至當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一便이라는 生活의 普通化되었기에 일어나는 裏面相을 보자. 主婦가 職業女性이란 것은 主婦의 經濟力이 強하다는 것을 말한다. 자칫하면 胃腸을 脾胃에 들지 않는 男便이나 理想에 符合되지 않는 男便이라면 反抗하기 쉬운 것이며, 심지어는 男便을 잘보게 되고 男便에서 찾지 못하는 理想은 男便에서 찾으며 들게 되는 것이니, 一見 美취가 세보인다던가 女性이 지나치게 支配의 이어서 家庭不和를 일으키고 甚해지면 離婚도 不辭한다. 境遇가 빈번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가 보기엔 第一 불쌍한 것이 罪없는 子息들이라 할 것이다. 또한 面으로 考察해보자!

主婦가 職場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어머니가 子息에게 매어 일일히 시중을 거 못한다는 것이다. 母子의 接觸이 規律化되어 버리는 데서 어머니의 情이 子息에게 아낌없이 浸透되기는 힘들 것이다. 더욱 나아가서는 子息의 學動에 일일히 關心을 두고 指導한다는 것도 힘들게 되는 것이니 자칫하면 不良性을 띤 行動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다. 「유니버날 필립스인세」 少年犯罪가 크나큰 頭痛거리가 되어 있는 것도 또한 이러한 美國의 現實이 빚어내는 苦悶의 하나라 할 수 있는 것이다. 美國人의 獨立獨自意識이 強하다는 것을 말한다. 또 一意識이 強하기 에 남의 獨立獨自意識을 尊重

한다는 것도 事實이다. 或者들은 이를 極口 讚美하여 美國家庭에서는 어린이의 意見이라도 尊重하고 또 獨立精神을 길러주고 애들을 自由롭고 자연스럽게 키우려 한다고 있다. 그러나 이 곳에도 裏面에 있는 것이니 尊敬하는 父母의 確固한 敎導와 따뜻한 사랑을 맞보지 못하면서 獨立意識만 길러내는 것은 애들을 버릇없이 만들어 놓던가 심지어는 方向과 같아질 못잡아 苦悶反撥하는 現象도 자아내게 하는 것이다.

大部分의 美國家庭에 가면 애들이 너무나도 부양되는 바람에 神經質이 될 지경이며, 이를 참고 견디며 접이라도 받고 오면 消化不良症에 걸리게 되는 例가 한두번이 아니다. 나는 不幸인지 多幸인지 美國의 不良靑少年 心理病에 苦悶하는 靑少年들을 再養成하는 몇몇 慈善事業機關에서 社會事業官으로 일해보았다. 이러한 社會事業들이 나오는 原因은 中大別해서 美國社會 家族制度가 이러한 不幸한 犧牲者를 내는 境遇가 壓倒的인 것임을 나는 이들의 家庭訪問 및 腹歷調書를 통하여 認識할 수 있었다. 即 父母가 無責任하다던가 時間의 制限을 받아 손을 댈 수 없었던가 또는 父母가 너무나도 無力無能했기에 이러한 結果를 나타내서 온갖 不幸을 초래하는 境遇가 한두번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個人的 尊重, 獨立等等的 좋은 習慣이 自身の 責任, 能力에 對한 正確한 認識과 並行하지 못할 때 일어난다는 苦悶相은 거의 苛酷하다 할만하며 차라리 嚴한 아버지나 嚴格한 敎育으로 子女들의

의 生活態度 乃至는 禮節을 가르쳐야 하지만 이들의 不幸은 견져질 수도 있었겠는데 하고 느끼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人間의 自主性을 培養하는 데서 오는 또한 便을 考察하자. 父母가 子息을 키우는 데 우려는 日常아들을 願한다. 即 아들은 將次 背았을 때 이에 依支할 수 있다는 暗暗裡의 打算에서 오는 觀念이다. 機動力이 發達되고 自主性이 強한 社會 속에서 늦게까지 父母에게 依存한다는 것도 생가지 않거나 또 한은 父母는 子息의 德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年金, 社會保障制度等이 높은 이들의 物質的 生活를 保護한다고는 하나 삶의 樂이란 좀처럼 맛보지 드물다. 재물되는 어린 孫子들을 日常의 樂으로 삼고 잘 되어가는 아들들의 運命에 거기에 餘生을 依賴할 수 있는 韓國의 높은 이들을 物質이 豐富하고 經濟力이 豐富하거나 活潑한 世上에서 고요히 總退한 높은 이들과 견주어 볼 때 果然 높은 父母의 樂이 무엇을 意味하는가 생각케 한다. 더구나 높은 夫婦 中の 한 쪽이 死亡하였을 때 홀로 남은 한은 寡婦나 홀아비의 樂은 무엇이라 日常生活에 없애며 허덕이며 活動하는 子息들에 沒頭되어 무슨 名節이나 生日以外에는 別로 찾아가고 찾아오는 일도 힘이 드는 것이다. 많은 老人들은 子息이 있으면서도 홀로 아파-르나 養老院에서 餘生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몇몇 養老院을 訪問하였을 때의 나의 氣分은 참으로 추운 것이었다. 勿論 이들은 衣食住가 깨끗이 保障되어 있

는 것이나 어떤가 모르게 결정한 즉
음의 그림자가 養老院의 周圍를 휘
몰아 싸고 있었다. 우리와 正反對
로 美國人들은 말을 좋아한다. 불
으면 將次 子息의 依存이란 생각
치도 없는 美國人들은 그래도 말들
이 늙은이에 더 잘 찾아준다고 말
한다.

民主主義社會에서 個人的 權利를
尊重한다는 것은 個人的 能力과 義
務를 強要한다는 것과 並行하여 생
각하지 않는 限 意義가 없는 것이
다. 따라서 能力과 義務에 있어는 堂
堂히 自己의 앞을 치루지 못하는 사
람들의 悲哀란 것이다. 어렵다
고 同情을 求한 자가 불쌍하를 보아
줄 사람도 없는 것이요 能力이 없
어 判斷 및 行動의 拘束을 느꼈
자 代身 物보아줄 사람도 없을 뿐
더러 자칫하면 이는 他人의 領域을
侵犯한다는 結果 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自信없이 사는 사
람들은 恒常 苦悶하게 되는 것이니
一 例를 들어 說明해보자. 예를 들
아 家庭에 배워 있는 一 主婦의 例
를 들자. 男便이 벌어진다는 돈을
가장 効果의 으로 使用하는 것이 이
主婦의 責任의 하나다. 앞서 말한
바 生活水準이 높을수록 生活必需
品의 數가 增加한다고 했다. 또 美
國의 物質은 豊富하다는 것은 既定

◇ 장군의 인사

미국의 로버트·리 장군의 어니
달,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였다.
기차는 대 만원으로 그가 운다는 말
은 병사들이 타고 있었다.
바로 그곳에 한 젊은 부인이 울

事實이다. 主婦는 日常生活에 必要
한 많은 物品을 購入해야 한다. 于
先 洗濯用 비누 한 장만 해도 數十
가지가 廣告宣傳되고 있으니 各各
그것들의 特徵과 長點을 科學의 으
로 늘어 놓는다. 이 主婦는 무슨 비
누를 살까 하는 問題를 둘러싸고 지
나친 神經을 쓰게 되는 것이다. 實
상 그 비누들의 差異란 그다지 甚
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程度의 것을
노상 多角度로 神經을 써야 하는 주
婦들은 이 責任이 너무도 귀찮아져
는 것이니 우리가 보기엔 簡單하고
도 些少 輕便 問題를 에워싸고 절절대
고 神經이 過敏해지는 사람들도許
多한 것이다.

個人的 尊嚴性을 中心으로 된 社
會의 競争心은 強하다. 이 競争에
서 모두가 勝利하지는 못하는 것이
나 落伍자가 되어버리는 날에는 참
으로 寒心한 悲哀를 느끼게 되는 것
도 美國人들이나 마찬가지이다. 美
國人 自體를 怨望하는 厭世家, 不
平分子들이 公僕 一 에는 가득하
다는 것도 잊어버려서는 안될 教訓
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生活裏面
을 知覺 豫期치 못하고 父母가 親
知들의 後援으로 渡美한 後 自己의
無能無力함이 痛切히 느껴질 때 留

◇ 장군의 인사

미국의 로버트·리 장군의 어니
달,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였다.
기차는 대 만원으로 그가 운다는 말
은 병사들이 타고 있었다.
바로 그곳에 한 젊은 부인이 울

學生의 心的 苦悶이란 큰 것이다.
우리가 이곳에서 흔히 듣는 不美
韓國留學生들의 뉴스는 大部分이
이런데서 오는 것이라 할 것이다.
歸國할 때야 體面도 서지 않고 또한
歸國할 때야 報속한 수도 없는 것이
니 虛無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무미한 夢에는 虛榮과 虛脫, 自己
誇張과 粉飾等과 아울러 排他性이
強해져 제 자랑과 남의 辱을 茶飯
事로 해나가는 것이다. 또 社會의
表面에 나타나는 人物들이란 大部
분이 이러한 무리들이니 마치 全留
學生이 工夫는 아니하고 國家民族
에게 망신이나 시키는 存在와 같은
認識을 주는 것이다. 참담게 工夫
하는 學生이라면 남의 눈에 띄고 話
題에 오를 時間과 精神의 餘裕가 없
음에 美國의 學生生活임을 斷言할
과 同時에 이런 슬픈 人材들이許
多하다는 것도 알리고 싶다.

要는 努力없는 報償이 드문 것이
美國이라면 이 努力과 報償이 크게
나에 드이지 않는 것도 美國이란 것
이다.
韓國엔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을
바른 精神으로 開拓해 나가면 값있
게 살아가 수 있는 與件을 내건고
保障해 주려고 애쓰는 것이 革命政
府라면 卓越한 個人的 能力을 培養

◇ 장군의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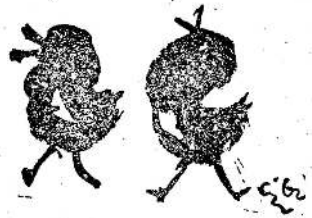
미국의 로버트·리 장군의 어니
달,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였다.
기차는 대 만원으로 그가 운다는 말
은 병사들이 타고 있었다.
바로 그곳에 한 젊은 부인이 울

活用함으로써 그 차이가 比較的 早
速하게 그리고 顯著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韓國이라고 본다. 이러
한 것을 潛在의 으로나마 느끼기에
韓國人들은 一攫千金의 꿈에 사로
잡힌 사람같이 많을지도 모른다.
過去 6 年간의 留美生活, 八個月
間的 歐洲旅行等을 通해서, 韓國
人의 기기에 當한 不便과 苦衷도 없
었다고는 아니 하였으나 한 번 韓國
人이 있기에 外國人들로 부터 分
내지는 待遇와 尊敬을 받은 境遇도
한許多하였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
다. 나는 次後 機會가 있으면 이 點
을 또 紹介코자 하나 이 世上 어느
곳에도 天國은 없으며 또 天國이 무
엇인지조차 모르고 그저 韓國을 怨
望한다면 이는 自己 嫌惡 및 排斥의
結果 밖엔 아무것도 없는 것이며 各
個人들이 地上 天國을 이루는 意欲
과 熱意만 있다면 어느 곳 보다 문
戶가 활짝 열려 있는 곳이 우리 韓
國이란 것을 나의 經驗이 말하여 준
다고 斷言코자 한다.

기에는 苦難과 試驗이 가득 차 있
고 또 努力해야만 이 苦難과 試驗
을 克服하여 나가기에 自己의 質的
價値를 認識하는데서 참다운 幸福
을 맛보는 天國을各自이루을 수
있다는 것을 確言하는 바이다.

◇ 장군의 인사

미국의 로버트·리 장군의 어니
달,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였다.
기차는 대 만원으로 그가 운다는 말
은 병사들이 타고 있었다.
바로 그곳에 한 젊은 부인이 울



教

育

—우리나라의—

現實을 中心으로—

王學洙

〈高大教授〉

교육은 오로지 인간만에게 이르기를 위하여 세심하게 계획되고, 교육은 인류가 이 세상에서 삶을 영위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지조인 「의단」과 「이부」에게 낙원에서 천사들과 같이 살게 하되 『생명의 나무를 두어 그 열매를 따지라』는 계명(戒命)을 내리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인류의 조상의 대한 최초의 인류학 교훈(敎訓)이요 계명의 으뜸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탄(魂鬼)은 그들을 보코 이 교훈과 계명을 거역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죄를 범

現代의 方向

오늘날 우리는 歷史의 어느 時點에서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現代는 어디로 指向하고 있는가?

③

- ◇ 教育.....
- ◇ 映畫.....

하게 하였다. 이것 역시 나쁜 의미에서 그릇된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류의 사의 최초의 발단이며 아울러 인간교육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 후 인류는 교육을 해야 할 의무와 교육을 받아야 할 운명을 지니게 되었다. 임신한 여인은 모체속에서 자라는 태아(胎兒)를 위하여 자신의 몸과 짐을 조심히 하며 마음을 정결 공명하게 하여야 함은 옛 성현이 말한 태교(胎敎)에 잘 나타나 있다. 뿐만 아니라 산모(産母)는 아이를 낳은 후에도 끊임없이 갖난 아이에게 사랑을 주며 자리를 마련 곳으로 잘아 돌히며 위태로움과 인격을 피하게 하며, 성장함에 따라 말(言語)을 가르치며, 자기 육신, 자기 복위를 삼가고 타인의 계진(進)과 동정과 협조를 하도록 계우(戒) 준다.

이렇듯 교육은 인간이 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야 할 수평적인 과제(課題)가 되어 있다. 아무리 그 이상이다. 인간은 죽음을 준비하는 교육을 받는다. 인간이 죽음에 다달

은거나, 인생으로서 종지부(終止符)를 찍게 될 때에는 내세(來世)에 가서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을 열원하는 나머지 영생(永生)할 도리를 배우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교육을 받으며 또한 하는 것이다. 이점에 종교와 신앙의 불멸의 진리가 있다. 여하튼 인간은 교육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교육을 받기 위하여 인간이 된가보다.

「인간은 교육을 통하여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는 철학자 칸트(Kant)의 교육의 의의가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즉 대성대현(大聖大賢)에서 대우범부(大愚凡夫)에 이르기까지 연령이 높고 이성이 발달되고 문화 문명의 수준이 높고 기술이 발달되어 그 사람의 영향이 타인에게 미칠 때에는 모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한 사람의 교육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연령이 낮고 생장하는 때가 미숙하고 문화 문명의 정도가 낮고 기술이 뒤떨어져 타인으로 부터 영향을 받게 되면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피교육자(被

教育者)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같이 인간은 완성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완성될 가능성 즉 자도성(可陶性)의 소유자로서 태어난 것이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며 무한한 희망과 무한한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서고금의 철학자들이 교육에 대하여 관심과 정열을 기울였던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며, 고명한 위인 정세가 정치가들이 교육의 발전과 문화의 융흥을 위하여 교육에 대해서 심심한 관심과 열의를 보인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아테네의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두배(毒酒)도 사양치 않은 소크라테스, 아케메노스의 그 후한 순수에 아카메미아를 창설하여 이상국가 건설을 위하여 인재를 양성한 플라톤, 중원 땅 천리진을 두루 다니며 삼천의 제자를 교육한 공자(孔子), 왕도주의(王道主義)를 설파한 맹자(孟子), 불란서의 교육제도론을 확립한 나폴레옹, 문자개척을 통하여 현대국가

를 건설한 토이기의 개발·파사, 보성전문, 고과대학을 건설한 인촌 김성수(仁村 金性洙) 선생들이 그 좋은 예라 하겠다.

「나에게 교육을 말하라. 반세기 내의 전체제를 바꾸어 놓으리라」고 말한 철학자 타이프노스트를 정중히 호인한 장민의 사나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은 비록 패전은 했지만 제 1차 세계 대전에서 불과 두 二년 만에 제 2차 대전 중일 때 전체제를 상대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한 정소년 교육운동가일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의 인간됨이 교육을 잘 받고 못 받음의 달라고, 한 가지의 잘되고 못되는 것도 그 사람들의 교육을 잘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의 달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 민족 한 국가의 흥망도 그들의 문화와 교육의 정체의 선불선의 달라고 있으며, 그 사회 그 시대가 될수록 더 행여 되기 위해서라도 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하고 교육자의 존엄성을 널리 인정하고 진리와 정의의 외로운 정열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보통전쟁(普佛戰爭)의 저 패배하고 절망과 아와 부패의 해박이난 두 인국민에게 건설한 피피티는 「전구의 장래의 유망이 그 때를 보우자의 유명과 정열의 그리고 실력의 달렸다」 했지만 우리들의 철명으로 과잉일성이다」 우리 라 교육계의 유명과 정열과 융합한 실천의 달라고 있다.

인식과 작오가 없아는 도저히 구출될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시민적정체의 기반이서 해방된 지 十七년 정적지 부식과 부패, 경제적 부로와 궁핍은 사회적 생활의 혼란을 불가피하게 하였고 나아가 국민도의는 수습 못할 지경으로 부패의 극도에 달했다.

일부 시민적정체는 한국사회의 역사적 발전을 제해한 거의 원시적인 수탈(收奪)에 시종해졌으니 가난한 백성이 더욱 가난해졌으며, 가난한 백성(民政策)의 타르는 국민의식수준의 저락은 이르 말할 수 없는 지경의 도달했다. 제나라 일들을 마치 남의 나라 일도 양 부도 없고 창피한 생각이 없이 다루려 하는 것이다.

의세의 외한 다음세인 남의 힘의 의 한 八·一五해방은 자연적으로 국도의 양단과 국민의 마음의 양단 즉 우의 분열의 생성으로 드디어 동족상쟁의 극적인 저비침한 六·二五의 동란을 발생케 했다. 서로 죽이고 불살르고 파괴하고 모략하고 약탈을 했다. 자주(自主)의 힘은 없는, 자각의 힘이 없는, 자존의 준비가 없는 수탈된 국가는 이렇듯 정체상의 뚜렷한 지표도 없이 좌왕우왕했었으며, 국민은 만이 갈수록 심해져서 생활난 때문에 방종과 자도자기수의 방황하였다. 필패로 되라. 망연타면 속의 방황라. 이 러한 심정의 사회대중의 마음속의 흐르도 있는 자유연연이 것이다.

이 나라의 일관한 패배와 정신상치주(支柱)가 일관한 지도도 없었고 이 국민의 장래의 희망 생활의 희망을 저버린 전망도 없었다. 지도자 애국가, 정치가, 심지어 교육가들 자

치하는 인물들은 거개가 다 개인의 영달과 후세의 영일이 없었으며, 조석 을 불안속에 해박이난 국민도의 심리상 태는 전망과 원한으로 충만되어 있었 도중의 원심이 무표이였다. 국민도의 정계상부층의 무표이였다. 국민의 기본인권이냐 대중의 희생생활타위는 그들의 안중에 있을 리가 없었다. 부정과 부패는 날로 심해졌으며 오묘과 복 리가 철하의 회색화였다.

이와 같은 국면에서 이 사회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진정한 국민윤리와 생활실사를 재건하자는 데에 五·一六군사혁명(五·一六軍事革命)의 역사적 의의가 있다. 五·一六군사혁명은 四·一九학생혁명의 연장이고, 주류이다. 四·一九 학생혁명의 시발에서 五·一六군사혁 명으로 진전되는 일국의 혁명의 역사는 무라틴한 국민의 정적, 경제적, 문화 혁신하의 굶주림과 인종함과 비 부리질이다. 없는 부지민주국가(彌社民主國家)를 건설하라는 일대 국민혁명(國民革命)인 것이다. 즉 우리들 자신들, 올바른 우리들의 자체(姿勢)를 도로 찾고 우리를 자신들 건설하고 튼튼 하게 키우자는 정신이고, 주류다들 가를 건설하라는 터울이요, 주류다들 이요, 진정애국이요, 진정애국이요, 을 타리 할음이요, 살림사리함이다. 우리들의 기와, 우리들의 정욕은 다른 의 드오구의 것보다도 같으며 또한 다른 투쟁과 투쟁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의의는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과 희생의 아름다운 것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사회 체도나 정치이념으로 서 추구하는 자유, 민주주의는 단 인적

의 절대적인 존엄성과 자유평등의 원리에 입각한 인간과 인간의 결합관계 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이다. 그러 나 자유, 민주주의 라는 보편타당성(普遍妥當性)을 지니는 가치판은 역사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형태와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역사상의 전개되었거나 다른 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그 태로 는 형식일 뿐이다. 한국인의 숨겨 심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문화의 전통이나 한국국민의 정신적인 기반을 무시하고 일나라의 패 문물과 풍속습관의 추구에만 오면 시간과 정열을 낭비했다는 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재론할 여지가 없다.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본질과 우리의 정신적 체도적 전통을 자주적으로 굳게 결합시켜 한국의 특수성을 살피는 길이나 아가서는 세계문화의 질적인 다양성(多樣性)을 풍부하게 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이것은 요컨대 한국인과 한국 이 자기의 역사적 위치를 자각하고 그 발전방향을 찾으려는 절실한 노력의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이 에 국민도의(國民道義)에 있어서 자 유민주주의의 본질도 보아지나, 한국 인의 문화적 전통으로부터 보아도 저하 타협할 수 없는 공산주의를 내외의 과 음과 우리들의 강도에서 볼 때 우의와 다. 그리하여 자율정신(自律精神)의 함양의 타르는 자유와 책임(責任)의 관계를 타르고 행동적 기동성을 타르고 감각주어나 저나 친 분서주의적인 의 의를 벗어나고 과하고도 건설한 생활 이념을 확립시키거나 노력의 민주민적(汎國民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국민도의 재건(國民道義

위에 露呈되어 있었던 것이다. 깊은 悲歎속에서 抗拒하고 民族의 姿勢가 崑崙 조각마다 鮮明하게 投影되고 있었다.

映畫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왜 만들었느냐」하는 作者의 마음이 뚜렷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는 限, 過去の 韓國映畫는 몇몇하게 映畫藝術이라는 타이틀을 머리에 붙일 수가 있었다.

그러면 오늘의 韓國映畫는? 솔직히 말해 나는 성음 映畫藝術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躊躇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韓國映畫는 主題를 喪失하고 있다. 왜 그것을 만들었는지 무엇때문에 만들었어야 했는지 到底히 解하기 困難한 作品들이 映畫館에 氾濫하고 있다. 娛樂雜誌의 表紙보다도 幼稚하고 賤俗한 內容을 가진 映畫들이 億面없이 全國의 스크린에 비쳐지고 있다.

前時代의 遺物인 人情이야기를 平 平하는 멜로드라마가 아니면 無意味하게 銃彈을 쏟아대는 멜로드라마 그렇지 않으면, 過去の 定着된 世界에 定着된 現代의 生活意識과는 영동 떨어진 코스츠크움·푸레이(時代劇)가 年産 百餘篇의 映畫의 總體인 것이다. 勿論 그中에는 極히 少數의 映畫가 現實에 立脚한 主題를 내걸고 誠實한 人間追求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數字는 全體의 몇분의 일도 못된다.

그러면 文化的 價値를 喪失한 韓國映畫는 무엇때문에 年間百餘篇이라는 엄청난 數字를 算하고 있을까? 映畫의 또 하나의 重要한 性格인 産 業性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考慮

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韓國映畫는 最近에 와서 分明히 産業的인 面이 重要視되어 왔다. 至極히 多 幸한 일이다.

年産百篇이라는 數字는 世界的으로 보아도 第二流製作國에 屬한다. 그러나 이 數字만으로는 現象이 決코 正常的인 映畫産業의 發展過程에서 이룩된 것은 아니다. 實로 偶發的인 原因에서 생긴 畸形的 所産인 것이다.

八·一五解放後 混亂과 無秩序를 거듭하고 있는 國內經濟狀態에서 派生된 奇現象인 것에 불과하다.

아무데나, 아무나라에서 잇듯이 經濟의 混亂期에 나타나서 投機를 노리는 遊休資金이 暫定的으로 無秩序하게 映畫製作에 流入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證據로는 지금 國內에는 製作會社가 六十餘商社나 된다. 하나의 製作會社가 年間 一五篇의 平均指數 밖에 안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도 數倍한 수 없는 事實은 百餘篇의 映畫가 打算上으로 成算이 맞는 境遇는 五分之一도 못된다는 점이다. 産業의 盛衰를 갖추고 있는 外國의 例를 보면, 저어도 數十年의 歷史를 가지고 巨大한 資本을 背景으로 하는 製作會社가 몇개 있어 年間數十篇製作을 企劃하고, 科學的 檢討를 가진 綿密한 企劃 밑에 實際製作이 運營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비하면 韓國의 映畫産業은 아무런 발달도 없다. 地方劇場이나 興 行業者들을 說得하여 釀출시킨 돈에 依據하는 資金事情도 事情이 아니라 現在 國內에 保有하고 있는 機材施設은

到底히 産業으로서의 映畫를 뒷받침 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다. 映畫에서 말한바와 같이 韓國映畫는 映畫産業으로서도 存立할 수는 없다.

그러면 韓國映畫의 現在性은? 이 命題를 이제 다시 한번 分析하지 않을 수 없다. 冒頭에서 말한바와 같이 第九回아세아映畫祭에서 얻은 榮光은 어디서招來된 것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 斷定 하고 싶다. 受賞이 된 映畫人들 個人的인 功勞에 지나지 않는다고!

나는 이제까지 너무도 否定的인 面 面을 들추어 왔다. 韓國映畫의 後進性은 正명 救濟할 수 없는 것인가? 지난 十五年間에 飛躍的인 前進을 한 것도 事實이다.

年間十篇內外밖에 產出하지 못하던 七·八年前에 비하면 十倍로 上昇하고 있고 技術的 面에서의 作品水準도 手工業의 平로 세스를 벗어나 오르메이 合理化 施設 밑에 놀랄만한 發展相을 보여주고 있다.

攝影所만 하어도 安養, 三星, 貞陵 合同, 東星等 年産 百餘篇의 數字를 充分히 消化할 수 있는 態勢를 마련하였고, 其外의 現象, 錄音만을 專擔하는 레코라토리도 數個所가 設置되었다. 專用스튜디오 하나없이 빈倉庫를 臨時로 빌려 海上에서 使用하던 것이 취라이트를 照明機로 製作하던 七·八年前에 비하면 實로 天壤之差別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各職別團體에 登錄되어 있는 數字로만 도 五百餘名을 超過하고 있다. 그러나 韓國映畫는 淸정한 發展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二律背反的인 解答을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表面上으로는 分明히 發展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點産業의 面에 있어서는 二原則이 되어야 할 確立된 資本위 에 선 오가리 세이시움을 말한다. 이것이 藝術的 面에서는 主題를 追求하는 作家精神이 어떻게 露呈되었느냐 하는 點을 指摘하고 있는 것이다.

多幸히 五·一六革命後 政府는 特別히 映畫部에 特別한 關心을 集注하고 있다. 六十餘個로 亂立된 製作會社를 十六個社로 統合시키는 指導案을 내놓아 製作者들은 이에 應하여 于先 便宜上의 統合을 하였다. 그러나 이 統合은 現在의 狀態로는 形式上의 統合밖에 안된다. 資金을 紐帶로 한 即一元化된 資金 밑에의 統合이 아니라 언더까지 形式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도 明白하다.

現在의 形式上的 統合을 止揚하고 資金을 根柢로 한 實質具備된 統合이 이루어졌음에 韓國映畫의 産業性은 于先 基礎的인 地盤을 가지게 될 所이다.

이 問題는 製作者自身들의 意欲보다도 映畫自身이 지닌 市場性이 그것을 促求한 것으로 보고 今年 來年中에는 希望의 結果를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

◇ 金日成獨裁強化與肅清

金日成은 그의 獨裁權力을 確立하기 위하여 그 첫段階로 國內派를 去勢시켰는데 그것은 소聯派와 延安派와의 合作으로서 이루어졌다. 一九五三年 八月 金日成은 國內派를 去勢하는 口實으로서 六·二五 敗戰의 責任을 國內派에 뒤집어 씌우고 南勞黨系의 幹部를 다음과 같이 肅清하였다.

朴憲永 (內閣副首相) 死刑 (一九五四·十二)

李承燁 (勞動黨 中央委員會 秘書) 死刑 (一九五三·八)

趙一明 (文化 宣傳省 副相) 死刑 (一九五三·八)

林和 (朝本文協 中委副委員長) 死刑 (一九五三·八)

朴勝源 (勞動黨 中央委 連絡副部長) 死刑 (一九五三·八)

李康國 (貿易相) 死刑 (一九五三·八)

裴哲 (勞動黨 中委 連絡部長) 死刑 (一九五三·八)

白亨福 (內務省) 死刑 (一九五三·八)

孟鍾鎬 (?) 死刑 (一九五三·八)

趙鍾福 (人民檢閱委員會委員) 死刑 (一九五三·八)

薛貞植 (人民軍 最高司令部 政治局) 死刑 (一九五三·八)

李源朝 (勞動黨 煽動部 副部長) 十五年 (一九五三·八)

以上과 같이 國內派 肅清이 成功되자 소聯派와 延安派가 反目하기 시작

드디어는 그相爭이 表面化함에 이르러 「스타린」 格下運動을 契機로 守勢에 놓여 있던 延安派는 集團指揮制를 내세워 金日成一派를 制壓하려 하였다. 이 氣味를 알자 金日成은 延安派를 反黨分子란 烙印을 찍어 다음人物을 肅清하되 一人一黨 獨裁體制를 確立하게 되었다.

金料奉 (最高人民會議議長)

韓斌 (金日成大學總長)

崔昌圭 (副首相)

徐輝 (職總委員長)

李弼圭 (?)

肅清 · 煽動 · 榨取

6.25以後 北傀가 걸어온 길

朴一禹 (內務相)
朴昌玉 (中央黨 副委員長)
朴義琬 (副首相)

◇ 宣傳과 煽動

北傀는 休戰이 후 특히 五·一六革命 후 大韓民國의 反共態勢가 強力해짐에 따라 그 樣相을 달리하고 있다. 즉 六·二五 以前... 間諜의 大量南派와 在韓 赤色分子를 煽動直接破壞과 反亂을 造成하는 한편 不和統一을 假裝
自由黨 時代... 腐敗不正을 例舉政府權威 墜落을企圖

民主黨 時代... 自由를 逆利用 國內의 左翼分子를 煽動하고 無能을 들어 民心離脫을 劃策 五·一六以後... 革命課業 遂行에 있어 약간의 自由制限이 있음을 誇張宣傳하며 특히 政府 非難과 反美宣傳에 重點을 두고 있다. 그리고 經濟計畵에 대한 欺瞞과 歪曲宣傳이 集中하고 있다.
이밖에도 다음과 같은 內容에서 그 方法을 달리하고 있다.
가, 前方 擴聲機放送을 通한 心

가, 放送網의 擴大

◇ 勞動力的 榨取와 住民生活

六·二五南侵을 앞두고 올트기 시작한 北傀의 勞動力榨取는 休戰後 北韓의 경제體制를 完全히 單一企業體로 묶어 놓고 自身들이 저질은 戰爭被害를 復舊하는 同時에 再南侵의 準備을 이루기 위하고 沉國民의 인 榨取形態로 바꾸어가고 있다.
「千里馬」에 依한 榨取—軍隊式 奴隸勞動 「千里馬」運動은 工業, 農業, 運輸, 建設, 教育, 文化, 保健, 등 各分野에서 二百萬以上이 動員되고 있다.
「千里馬」의 強要—「千里馬」는 作業班으로 부러의 값싼 榮譽昇進에 그치지 않고 「二重千里馬」로 強要되고 「二重千里馬」는 또 「三重千里馬」로 酷使된 것을 기다리고 있다.
쏟아지는 勞動競爭運動—組織의 이고 廣範圍한 「千里馬」에 依한 榨取以外에도 戰場別 職業別에 依한 部分的 勞動榨取方法으로 北韓 全域에 걸쳐 各種 運動을 벌이고 있다.
例를 들면 六個高地 占領運動 「길독치」運動 創作基地運動 工作機械 새끼지기 運動 등이다.
北傀의 勞動者들은 北傀의 心算의 경제成長率과는 對照的으로 悲慘한 生活環境속에서 代價없는 勞動時間만이 增加되고 있다. 一九六一年十月 現在의 勞動榨取的 範圍는 다음과 같다.
作業班總數 五三、八九〇個 千里馬稱號作業班 六、六八五個 作業班總人員 一八八、六九三名 北韓의 就業人口 一、六一〇、〇〇〇名 勞動婦女子數 五〇〇、〇〇〇名

理戰의 擴大

나, 氣球을 利用한 破壞的 傳單 撒布
다, 自由世界 刑行物의 變造利用 在日僑胞에 대한 洗腦工作 間諜浸透方法에 依한 朝總聯을 仲介로 南派 休戰條項의 違反을 自由大韓에 轉嫁하는 行爲
라, 勞動榨取를 合理化하기 위한 北韓 勞動者들에 대한 愚弄宣傳의 強化
아, 國際的地位 確保를 위한 欺瞞宣傳

俗談春秋

〈終回〉



孤客子

◇ 말 한마디로 千兩 값이다.

값 들잖는 말 한마디! 정말이 말 한마디야말로 「같은 값이면」 듣기 좋고 쓰기 좋은 말을 쓸 일이지만... 무엇 때문에 듣기 하찮고 쓰기 거북한 말을 쓰는지? 「아다가도」 「모름 일」이다. 나쁜 말씨를 써서 돈이라도 생긴다면 도 모르겠는데!

돈 생긴 일도 아니고 욕이나 얻어 먹는 수밖에 없는데도 남의 비위를 저울지게 하고 감정을 동구게 하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뜻밖에도 많다. 무식해서일까? 잘나서일까? 대개는 말버릇이 그러한 사람이 많은 것 같으나 그 가운데에는 실토타기할 이유에서 나쁜 말을 쓰는 사람이 있다.

상대방이 무식한 사람일 경우에 곧 잘 꾸말이나 친한 말을 쓰는 사람이 있다. 또 상대방의 지위가 낮다고 보았을 때 그러한 말투를 쓰는 사람이 있다. 가령 지깨문이나 풀밭이도 동자에게는 덮어놓고 말을 놓아하는 사람이라던가 지위나 계급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는 경언어를 쓰지 않는 사람이 있다. 軍隊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상대방을 변사하기 때문에 쓰게 되는 말버릇이다. 그렇다면 무식하고 직언이 친하고 지위나 계급이 낮다고 해서 그 사람을 蔑視하는 사람의 사람됨, 人間性 人間的 價値야말로 蔑視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종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는意外에도 많이 눈에 띈다. 말씨는 바로 그 사람의 敎養의 저울이라 할 수 있다. 「이삭은 인을수

특고개를 속인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사람도 인을수록 고개를 속이지 않는다. 理由는 지극히 간단하다. 가별기 때문이다. 좋은 知識, 眞된 敎養은 무개를 가진다. 선의는 知識, 眞지 敎養은 그것이 眞의므로 아무리 많이 버리 속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부개가 없기 때문에 그놈의 데가리는 수일 줄을 모른다. 當然한 理致!

말 속에서 가장不快한 말씨는 상대방을 얕잡아 여기어 半말도 아니고 은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빠져하는 것도 아닌 해괴망측한 말을 쓰는 경우다. 이를테면 「先生」呼稱은 해주기 싫고 그렇다고 「兄」하기에는 그럴할 처지까지는 못되고 그래서 난데 없는 「미스티」라는 呼稱으로 代用하는가 하면 「아십니까?」 또는 「안니까?」라는 敎語를 써 주기도는 「自發心(?)」의 허락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오(?)」하는 식의 半말을 쓰자니 상대방이 기분상할 것 같고 그래서 슬쩍 농조로 方言을 利用해서 「아는 기요?」(慶尙道)하고는 쟁쟁웃이 보이는 경우! 이런 사람의 상대방은 정말 침울할 만하고 심은 衝擊을 느낀다. 상대방이 못났던 어쩔면 그 사람에게 말을 전한다는 것은 적어도 그만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인데 그 사람을 그만치 없애고 버린다면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깨끗하지나 않을까. 그렇게 그 사람을 없애고 버리고도 그 사람이 자기들 위해서 좋은 말, 좋은 말 필요한 말을 해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내 맘같이 남의 맘 안다」는 속담이

있다. 필경, 사람의 마음은 다 같다는 뜻이다. 이 세상에는 불리한 말, 내가 단지 職業의므로나 차림새로나 地位의 탓으로 半말을 듣고 蔑視의인 말을 들으면서도 진실으로는 모든 것을 고으려 고개를 속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도리어 그러한 사람을 蔑視할 것이니 그 사람을 위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니 따라서 陰으로 陽으로 損害를 보는 셈이다. 「은 들잡고!」같은 값이면! 무엇보다도 상대방을不快하게 해서 損을 보겠다는가? 「목욕한 바보」라는 우리 俗談은 이런 말버릇이 나쁜 친구를 가르켜 하는 말인상 같다. 왜냐하면 제 단언 제가 잘나서 그러더니 하지만 損害는 자기가 보기 때문에!

「값 들잖는 말 한마디!」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平生을 그르치는 경우가 말에 조심 할 일이다. 세치의 혀가 六尺의 몸을 말치는 셈이다. 銃도 사람을 죽이고 칼도 사람을 죽이지만 보다 사람을 많이 殺傷하는 것이 무엇인가? 銃이나 칼은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는 말은 自己自身을 害치는 경우가 銃이나 칼에 비할바 아니다. 西歐人들이 The longer wounds more than a lance 라고 하던 혀는 槍보다 몸을 많이 다친다. 俗談을 가지고 있다. 「말」의 대한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말」은 사람의 失言이 많고 「말」은 사람, 손이 잘다 (Long tongues sort hand).

우리 俗談의 「말 한마디로 千兩 값」을 가된다」라는 말이 있다. 甘言利說로 생각하면 誤解다. 「千兩」은 화늘이 안다. 「화」의 千兩이라면 莫大한 돈

안타 한마디의 말이 千兩어치의 價値가 있다는 뜻이다. 한마디의 말이 그만큼 사람을 感動시킬 수 있는 것이다. 「寸鐵刺身」 폭히 靑龍이나 長槍만 사람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바를로서 오히려 아프게 사람을 찌를 수가 있는 것이다. 많은 말, 길다면 말이라도 要領을 얻지 못하면 要領있는 한마디 말보다 오히려 가치가 없다. 千兩을 한마디로 가릴 수 있는 말의 要領, 말의 무게, 그 眞實性을 우리는 배워야겠다.

「男兒一言重千金!」
自己의 人格을 自己 스스로가 所重히 여긴다면 상대방의 사람에 따라서 自己가 하는 말에 變質이 있을 수 없지 않겠는가.

◇ 내론 七분만 알고 남의론 百兩 모른다

누구나 가지기 쉬운 人間의 弱點, 내것만 알고 남의것 所重한 줄 모르는 것.
가장 圓滿한 共同生活의 方法이 民主主義라면 「내론 七분만 所重이여기고 남의론이란 百兩도 아까운 줄 모른다」 思考方式은 民主主義의 敵인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내主張만 옳다고 固執하고 남의 意見에는 「理由 認定하지 않는 사람이다. 獨善→獨尊 ↓ 獨裁. 民主主義란 다른 사람이 가진 七분도 내가 가진 七분과 同一하다고 認定하는 데서부터 出發한다. 바꿔 말하면 「나 意見 外에 意見이 있다」는 것이 「民主主義요」 다른 意見이 이 곧 民主主義의 基礎인 것이다. 이것은 그 다른 意見을 認定한다는 것이 多數決 原理란 少數의 意見을 無

내가 잇을 수 없는 군인



安壽吉

△小説家▽

六년전의 일이었다.
나는 D 일보에 신문소식을 얻게 하다가 별로 들어놓지 않은 주일신문이다. 소설은 중단이 되고 신문사에 대해 이렇게 미안하게 없었다.

S 병원의 내과 과장 S 박사가 친구(親友)여서 내가 알아 알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뛰어들어 그 병원박사와 독자와 신문사에 대한 미안한 생각에 누어 있는 나의 마음을 잘로 에이는 듯했다.

저기에 파로운 것은 수입이 끊긴 일이었다. 심병이나 되는 가족의 생계가 막연했다.
친척을 위시해, 친구들도 그렇게 자주 찾아 주지도 않았다. 원제 안정을 요하는 병이기도 했고 친척이나 친구들이 찾아와 준다기로, 친척이면 친척에겐 직책을 끼칠 것 뿐이요, 친구는 또 친구대로 그들의 가슴을 문질러게 만드느라 철과 박에 출성이 없으므로 차라리 호젓하게 침상에 누어 있는 편이 요양에는 이로운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했다.

그러나, 너무도 고독해, 때로는 내 심호소에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이처럼 박정하게 대했던가, 반성해가며 이제는 몸도 지나고 여름철에 들어선 무더운 나날을 서늘함으로 보내고 있는 어느 날 아침이었다.

그 무렵엔 물을 거닐 수는 있었고, 개운사(開運寺)까지의 오백미타 내외의 산보길을 친척이 걸어 오르내릴 수도 있으리만큼 전장이 회복되어가고 있을 때였다.

일찍 눈이 떠운 나는 그때의 오직 하나의 벗이었던 「모토로라」라디오를 틀어 놓고 고요히 아침음악을 듣고 있는데,
『제심니까?』
대문을 요란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아내가 일든 대문게로 나가보고 돌아서,
『동차라는 분인데, 이근방에 이사왔는 거예요. 아침 산보를 가다가 문패를 보니 우리 집이어서 들렀다고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문패를 보고 들렀다고?』

침대에 누어 마음을 가다 앉혀주는 음악에 도취되고 있던 나는 별대일이 없다. 나도 모르게 마당에 나가니 벌써 대문안에 들어선 사람은 내 낮세가 되어 보이고, 한눈에 호인(好人)일이 짐작되는 모습이였다.

어깨에 타올름 걸쳐놓고 한 손에 비누갑과 치분부브와 치솔통을 쥐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운사 골짜기의 개울에 세수를 하러가는 길임에 틀림이 없었다.

『어허 안생생. 나 Y 대령입니다. 왔으신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댁이 이웃인 줄은 몰랐습니다.』
호탕한 웃음을 웃으면서 말소리도 절절하니 내 여원손을 덤석 잡는 것이었다.

『이렇게 찾아주시니 고맙습니다.』 그의 소탈한 태도가 심원지기(十年知己)를 만난 것 같아 나는 진실로 반가웠다. 머지나 친구가 그리워 절릴 수 없는 내가 아닌가?
그 무렵, 늦게 옮겨다 심은 출장미가 처음엔 마르더니 차츰 싹이 트고, 잎이 피나면서, 다른 것보다 한달 이상 뒤늦게 꽃을 피워주고 있었다.

『꽃이 핀 장미』라는 수필도 쓰면서 그 「늦어 핀 장미」가 나의 재기(再起)를 암시해 주는 것이라 생각하오 몸과 마음에 함께 기운이 불어 가던 때였다.

이런때이기도 했으므로 Y 대령의 내방(來訪)이 또 반갑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다시
『고맙습니다.』를 보이면서 방에 들어오라고 했더니 그는 말했다.

『세수하러 갑시다. 산보 길로 꼭 알맞는 지리일것입니다. 자수전을 가지고 나오시오.』

『그럼 격언을 하나 만들 수 있다면 이러한 精神은 어떤가.』 돈에 인색한 사람은 精神도 인색하다. 그리고 구두쇠는 돈에만 구두쇠가 아니고 대개는 모든 것에 인색하다. 우리 俗談에 『사랑과 金錢은 돌고 도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구두쇠는 사랑을 나눠가질 줄도 모른다. 구두쇠는 대개가 財物은 確保하고 있지만 精神의으로는 『가난뱅이』다. 그래서 이 精神의 가난뱅이는 民主主義의 人間型이 못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民主主義는 마음을 나누어 가지므로서 비로소 이룩되는 社會이기 때문이다. 가령 民主主義의 先進國家, 이를테면 美國이나 英國의 富者들과 韓國의 富者들의 生活方式를 比較해 보면 우리 韓國의 돈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어 가질 줄 모른다는 點을 알 수 있다. 英國이나 美國의 富者를 치고 社會事業이나 慈善事業을 아니하는 사람이 없지나 韓國의 富者들은 그 財物을 지키는데만 그 貴重한 生涯를 바치고 있다. 이것은 英, 美의 사람들이 그만큼 마음이 厚하다는 것으로 옳지는 것이 아니고 그 底流에 民主主義의 精神이 깔려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 나라에는 구두쇠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우리 韓國 社會와 다른 點은 우리에서는 구두쇠라 하여라도 돈만 있으면 社會人으로서 公式의 人 待遇를 받는데 支障이 없을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세수하러 갑시다. 산보 길로 꼭 알맞는 지리일것입니다. 자수전을 가지고 나오시오.』

나는 얼른 방에서 세수 도구를 들고 나와 그와 함께 대문 밖으로 나갔다. 대문밖길에는 그의 어린아들들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와의 함께 세수하러 가면 길이었으면 모양이다. 흥명하게 생긴 아이들이었다. 큰놈이 오라면, 작은놈이 이

학년쯤 되었을까. 집에서 개운사팔자까지 가는 동안 Y대령은 쉬지 않고 이야기 하였다. 추이 씨 원한 내용에 추이 씨 원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품이 과연 또(德)대령이었다. 개운사위의 개운은 물이 탐고 공기가 상쾌하다. 우리는 거기서 친척히 세수를 하고 그리고 반석위에 앉아 5월을 모르는 이야기를 했다. 물론 나는 듣는 편이었으나... 며칠 휴가로 집에와 있는 때 이번의 우리 집에서 실외 집앞인 사회부위에 들었다는 것이었다. 그 후 Y는 날마다 아침이면 우리집 대문을 두드렸다. 『에나 갑시다.』

대원암 언덕밭이에는 칠성암(七星庵)이 있다. 대원암도 고요한 분위기가 지나는 칠성암은 더욱 그윽하다. 석불(石佛)이 부조(浮彫)된 암석(岩石) 밑에 약수(藥水)가 풍류하고 솟아 나온다.

우리는 그 약수를 아침 저녁 함께 먹으려 다녔다. 약수가 풍류 솟아나 듯 Y대령의 이야기도 끊임 없었다.

어쩌면 그렇게도 화제가 풍부하고 내용이 충실한가? 석에 다리를 길게 펴고 앉았다. 그해는 신이화선생이 돌아가시고 이승만대통령의 우의(牛意)의(馬意)까지 발동시켜 삼선에 성공(?)한 때이다. 이야기는 정치, 문화, 군대, 자방에 걸쳐 무궁무진했다.



한번은 밤이었다. 역시 래디오를 통해서 심포니를 듣고 있는라니 그 절절한 (안선생애)이 대문밖에서 들리었다.

『저녁시오.』 『좋지요.』

『나를 뛰어 나갔다.』 『잠시오.』 『좋지요.』 밤이면 될 수 있으면 일찍 자기로 하고 있는 나는, 밤공기를 마시면서 개운사 골짜기를 걸어본 일이 별로 없었다. 무슨 시적인 잔화가 갑자기 가슴속에서 싹틔임을 깨달으면서 나는 때때로 그와 어깨를 나란히 저녁이었다. 『대원암으로 갑시다.』 대원암은 그윽할 수리가 되지 않은채 열매를 받고 있을 때였다. 열매가 지났을 때였으므로 사람의 기척이 없었다. 불빛도 없는 대원암 마루에 들은 걸터앉았다. 전들바람이 불어온다. 그리고 그 마당에 있는 보리수(菩提樹) 두 구루가 어쩌면 그렇게도 의젓하고 자룩하게 보일까? 백년풍악에도 쓰덕 없이 자룩한 열매를 맺어 내려온 두 구루의 고풍은 나에게 풀없는 의미(意味)를 암시해주었다. 『나부처럼 땅에 뿌리를 박고 삽시다.』

서 소정찬을 하니까 소주인이 웃을 때서 「이 소는 어디에도 흠, 흠을 곳 이 없읍니다. 털을 훑가다 벗겨도 흠 하나 없지요」라고 자랑을 하니 그 말끝에 소를 사는 사람이 생각없이 털을 한번 불어보니 마침 큰 흠이 있어서 살려던 소를 사지 않았다는 얘기가. 정말 「禍는 인에서 부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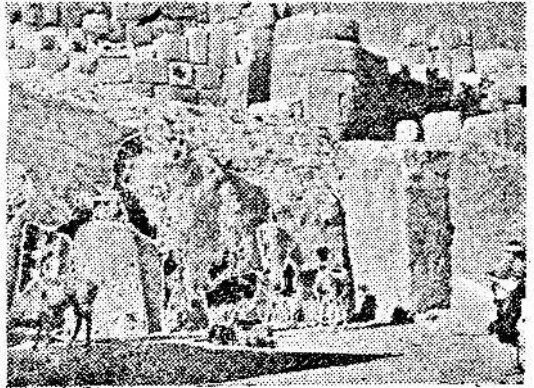
어느 작가가 「말의 메카니즘」이라는 新術語를 썼다. 허무맹랑한 것을 事實 以上の 事實인양 말로서 構成시킨다. 知能的인 사기꾼들이 곧 「말의 메카니즘」을 應用한다. 말의 말(甘)아서 口味가 당진다. 그래서 잘 걸려든다. 너무 쉬운 말이 빈을 많이 못된다면 너무 말쑥한 말도 빈을 많이 못된다. 단(甘)술에 잘 취하는 것과 같이 단 말에도 사람들은 잘 취한다. 知能的인 사기꾼에 잘 속아 넘어가는 것은 그 말이 잘 취하기 때문이다. 「藥은 쓰나」藥이 되는 말도 쓰다. 그래서 「苦言」이다.

「장(糖) 단(甘)잡에는 가도 말만 접하는 가지 말라」는 俗談이 있다. 너무 단 말에는 우선 警戒할 필요가 있다. 「단 꼬장에 몸방이 된다」기 때문이다.

假名을 벗고

柳 起 英

「좋은 말도 한번, 칭찬도 한번」이라는 俗談이 있다. 「俗談春秋」가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는 알 수 없으나 듣기 싫어질 무렵이 되었다. 「구르다도」 「피리다」길면 밟힌다. 「그래서 이번 號에서 篇을 내릴까 한다.



→主人— 잉카족의 子孫 이 라마 볼 데리고 잉카의 城跡에서 있다. 잉카는 南美에 있는 酪駝와 같은 動物).

내가 이제까지 들어온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珍奇하게 느낀 것은 지금으로부터 四百年前 南아메리카에서 일어난 事件이다. 우리들이 멕시코를 訪問하였을 때 아스벳크라면가 마야族과 같은 非常히 文化水準이 높은 種族이 살고 있어서 콜럼브스가 新大陸을 발견하였을 무렵에는 그 最盛期였었다는 것이 이미 앞에서 말한바 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南美 페루에도 잉카族이라는 原住民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아스벳크國에 못지 않은 훌륭한 文化를 지니고 있었다.

<世界驚異巡禮> 잉카族의 首都

— 마츄 · 피츄 —
리차드 · 하리바론

페루에 宗教的 禮物에는 2번씩 2번 빛나는 金을 아낌없이 使用하였고 특히 寺院의 壁이나 祭壇에는 太陽神을 象徴하기 위하여 黃金으로 빛나 있었다. 구스코의 寺院은 모두가 黃金으로 되어 있었다. 黃金은 그 황홀한 빛갈로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한다. 잉카族들은 그 以上の 價値를 黃金에서 추구하려 하지 않았다.

이페스케인들은 이같은 所聞을 듣고 必로 黃金을 손에 넣을려고 생각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黃金이 야말로 所願의 全部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財寶가 異教徒인 인간 손에 있다는 것은 실로 天地에 對한 罪惡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와같은 所信을 貫徹하기 위해서 스페인의 將軍 후란시스코·피자로는 一五三一年一月 三隻의 배에 百六十五名의 騎士와 二十七頭의 말을 싣고 파나마를 南下하여 가리야附近에 上陸해서 리마近處에 이르러 七萬倍나 되는 잉카族을 攻擊하였다. 머구나 이 攻擊이 成功하였다는 것은 戰史上一大奇跡으로서 고무테스의 裴시코 征服과 더불어 驚嘆할만한 事실이 아닐 수 없다.

피자로는 우선 計略을 써서 잉카國王 아타우아라를 生擒하고 물고스로 金銀寶貨를 한방에 3백 개 모으게 한다음 一五三三年 八月에 國王을 죽여 버렸다. 잉카族들은 國王을 現人神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國王이 스페인사람 잡에 죽은 것은 神이 侵入者를 앞에서 죽임카族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와같이 해서 首都 구스코의 進路는 쉽사리 열려 스페인의 騎士들은

이 「俗談春秋」는 自由黨時代에 某新聞紙에 「俗談漫義」라는 題目 아래서 허우 二千字 原稿紙 三枚에 漫筆을 넘어서 連載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敎養의 內容이 아니고 主로 政治的인 것이었다. 李承晚政治를 諷刺하다가 警告를 받은 것도 있었고 編輯者에 依해서 表現이 修正되기도 하고 아주 變態를 보지 못하고 후지동 신세가 된 것도 있었다. 그중 후지동 身勢가 된 것도 있었다. 여기에 詳論만 보여 보기로 한다.

朝鮮令廢改 아침에 令監官을 만나면 저녁에 令監官을 쓰고 八字를 고친다는 뜻. 뭘? 그런 뜻이 아니라구요? 아침의 法令이 저녁이면 바뀌는 뜻이라구요? 그건 어느 나라 얘기입니까. 우리 韓國에서는 「朝鮮總督府令」이 아직도 完전히 살아 있는 데...
☆ 俗談은 國寶의 價値를 상실하였다. 十萬名이 한놈의 도둑을 못지키는 세상. 그것은 스타트는 國民의 가장 貴重하고 단 하나밖에 없는 그것. 그로부터 흠지고 나중에는 財物을 털어간단니까.

☆ 모로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암그렇지. 모로도 감부만 쓰면 장맛이 지요. 워라구, 우리나라에도 바로 쓰는 감부가 있겠지요?
서울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열 길이나 밭질을 사마사마 가십시오. 無事安着 絕對保障.
☆ 修正 때 修正 修正 修正 不可避! 두고 봅시다. 몇 살까지 가는지를 斷定하기는 時期尙早.
☆ 修正 때 修正 修正 修正 不可避! 두고 봅시다. 몇 살까지 가는지

이 길을 앞을 닦아서 들렸는데 首都에 도착하기 전에 우선 太陽神을 모시는 僧院을 승거할 것을 計策하였다. 이 僧院에는 그 나라에서 가장 淸純하고 아름다운 上流出身の 處女 百名이 살고 있어 一生을 太陽神의 祭事에 奉仕하고 있었다. 그래서 侵略者들은 이들 아름다운 僧女들을 生捕해서 奴隷로 삼으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피자」가 왔다. 그는 기병을 들고 와서 이들 僧女들은 荒谷의 僧院에서 몸을 피하여 구르고 北方에 숨어있는 암대서 山峯을 넘어 우루방바江 溪谷으로 내려갔다. 이 峽谷은 암대서 山脈의 東쪽 비탈을 타고 부라질에 連結되는 熱帶性 峽谷의 하나였던 것이다.

그로부터 四百年 동안 이들 避難者들의 運命은 완전히 神秘속에 쌓인 채 거의 忘却되어 있었다. 그러던 것이 一九一二年 우연한 事件으로 해서 이 神秘스러운 수수께끼가 풀려 내게 이 세가지 들어온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奇妙한 이야기로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約 千二百年前인 西紀 八百年頃 歐羅巴는 아직 暗黑時代 속에서 잠자고 있었다. 잉카족은 少數民族이었지만 암대서 山脈의 北쪽 끝에 살면서 意欲的인 生活氣風으로 壯大한 石造建築物의 都市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 都市는 우루방바江의 六百미터 되는 峽谷에 둘러싸인 層岩위에 세워져서 六千미터나 하는 높이의 山들이 巒峰처럼 둘러쳐서 보이지 않았다. 世界의 都市 가운데서 이만큼 壯觀의 建築物는 달리 없었을 것이다.

나는 이 驚異의 都市가 이미 없었고 그와 같은 建築物도 벌써 過去의 것이라고 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아직 그곳에 있으며 우리들은 지금부터 그곳을 찾아가 볼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날 그 附近에 사는 原住民들은 옛날 잉카의 首都를 「마슈·피츄」라고 불렀고 있다. 城壁 안에는 四百年餘 疎空 되는 石造된 집이 있으며 寺院이나 宮殿이나 廣場 같은 것도 그것으로 만들어지고 특히 大寺院의 祭壇 같은 것은 百톤이나 되는 한 장의 돌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 돌의 組立에는 불탈을 一切 使用하지 않고 돌과 돌과의 사이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巧妙하게 짜올려서 千年 이상 지난 오늘날까지 조금도 變形 없이 完全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더욱이 신기한 것은 이들 많은 돌을 퍼냈다고 생각되는 採石場은 그곳에서 六百미터나 밑에 있는 峽谷 바닥에 오직 한군데가 있을 뿐이다. 더구나 이들 무거운 돌을 두수리질 같은 斷崖 꼭대기까지 어떻게 운반하였을까 하는 문제는 近代建築家들도 解明할 수 없는 수수께끼인 것이다.

그런데 이 지방에 살고 있는 原住民들은 古代인 카인들이 天使 建築家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건축가들은 魔法와 같은 技術을 가지고 있어 峽谷을 가로질러 巨大한 돌을 斷崖 頂上의 寺院 壁 있는 데까지 운반한 것이다. 하는 데 우리들도 이 말을 믿을 수 밖에 없는 데 우리 가 없다. 실로 잉카인들이 原始的인 道具와 粗雜한 機械만으로 어떻게 이와 같은 건물들을 세웠을까 하는 것은 에 질트의 피라미트 以上으로 理解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잉카인들은 二世紀 동안 마슈·피츄에 살고 있었는데 西紀 一〇〇〇年頃에는 이곳의 食糧 供給力以上으로 人口가 불었기 때문에 다시 餘裕 있는 土地를 찾아 四十六키로 떨어진 암대서를 넘어 山 西쪽에 있는 高原地帶인 구스고로 移住하였던 것이다.

잉카족들은 多方面의 藝術에 정장히 뛰어났었는데 文字를 使用하는 것만은 하지 않았다. 그들의 文字는 키1푸라고 하며 七十선 지름 되는 여러 가지 빛깔을 한 끈에 수많은 매듭을 만들어 그 형태를 가지고 말이나 數字를 나타냈던 것이다. 그래서 잉카어에는 다른 民族과 같이 繪畫나 象形文字로 된 記錄이 거의 없어서 마슈·피츄에 관한 記錄을 남기고 있지 않다.

기 때문에 歲月의 推移함에 따라 그들의 前의 首都는 世人的 記憶에서 忘却되어 갔다. 그러나 아주 忘却된 것은 아니고 日神을 모시는 一部 僧侶들은 만약 太陽神에 무슨 큰 變化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곳에 필요한 것을 傳言으로 남겨둔 것이다.

一五三五年 피자르가 구스고에 侵入하였을 때 이와 같은 避難處가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옛날부터 傳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信奉하는 僧侶의 案內로 太陽神에 奉仕하고 있던 百名의 꽃다운 處女들은 두려워 떨던 僧侶들身하러 거기서 다시 荒廢한 舊都로 빠져서는 길을 따라 마슈·피츄에 이르러 殘酷한 侵略者의 魔手에서 피겨나올 수가 있었다. 이 사실은 피자르뿐 아니라 구스고에 살던 다른 잉카인들도 알지 못하

는 말, 불라지 마시오. 우리 나라에는 하지 않는 말까지 들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불렀습니다. 세도 쥐도 못 듣는 말을 듣는 자가 있지요. 그것을 가리켜 民心이 天心. 뒤라구, 民心이 아니라 民意가 아닌가?
☆이름이 타마야 아미노미야타
「上水濁流지어도下水淸하라」의 誤發. 上濁下淸은 上下의 不可侵條約.

☆그대의 이웃을 사랑하라 오! 르리스도여! 나의 이웃은 共產오랑캐와 日本입니다.

☆원보도 비록 쓰라. 세 보다는 을 쓰라. 돈보다 權力을 쓰라. 아니다 德을 쓰라. 情을 쓰라. 원은 높고 피는 적지마는 德과 情은 높음과 적음이 없나니라.

☆男兒一言重「金」 무는 소리! 男兒一言커피 한잔. 커피 한잔은 그대도 百圓짜리다. 男兒一言廢履乎.

☆어두운 밤에 홀로계. 예년의 작패기, 이 작패기는 宣者방랑이. 술나오라면 술이 나오고 돈 나오라면 돈이 나오고... 이 작패기 많이만 모으면 神技를發揮하여 四通五達 二十世紀의 道通者가 된다. 그러나 失敗하면 廢家亡身.

☆황피리니들의 모여본다. 大統領 命 第○號 다음 俗談을 仁邦의 내는 者는 嚴罰에 處한다. 「동파리는 똥의 모여본다」附則, 本令은 空布日로부터 發効한다.

☆하루 잡자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렇지만 「白頭山호랑이」는 무서워 할 담니다. 장아지구 큰 개구 다치는 때 또다구 잡아 잡수시니까요.

었다. 그래서 聖處女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없어진 것은 이상한 事件이라 하여 「太陽神이 그녀들을 곧바로 하늘로 데려갔다」라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一九一一年 미국의 俄國大學教授로서 考古學者였던 하이람. 빙감博士가 우루방바地方的 인가족의 遺蹟을 探險하였을 때 인의 인가족의 遺蹟로 마쭈. 피슈를 발견한 자가 있어 眞相을 알게 되었다. 이때 案內人은 특히 「어느 옛날 高臺를 보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禁斷의 斷崖頂上으로 博士를 데리고 갔는데 그곳이所謂 天使가 세운 都市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 보기에는 이것이 天使가 세운 都市라고 볼 수는 없었다. 四世紀 동안 제멋대로 자란 蕪蕪樹는 모든 것을 뒤덮고 나무뿌리, 돌, 이끼 등으로 덮인 돌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이들 나무나 돌을 除去하자 눈부시게 빛나던 石道나 저승이 없어진 것을 보고는 全部 옛모습 그대로의. 四百餘棟의 石造建築物가 再現되었다.

그리고 中央寺院 근처에 있는 神聖한 墓地에는 九十九個의 墓가 발견되었다. 왜루인들은 이들 墓는 모두 스웨인들의 魔手에서 벗어난 聖處女들의 墓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어찌서 九十九밖에 없을까? 그것은 맨 마지막 사람이 죽었을 때 아무도 그 사람의 墓를 만들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잉카의 秘境 마쭈. 피슈에 案內하려고 한다. 그곳에 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나 그만큼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이다. 내가 그곳을 방문하였을 때처럼 여러분도 진지한 관심과 열성이 있을 바라는 바이다.

우리들이 탄 배는 남아메리카의 西海岸을 페루의 모리엔드港을 向해서南下하여 거기서 다시 기차를 타고 四千二百키로나 되는 구스고로 향한다. 구스고는 오늘날 人口 三萬을 헤아리는 現代都市로서 인가족의 後孫들이 많이 살고 있다. 우리들은 옛날 僧侶들이 스웨인들의 魔手를 벗어나기 위하여 避難하였던 길을 따라 徒歩로 올라가야 한다. 그 길은 五불교 불한 길로서 뒤쪽에 사루칸타이(높이 六千二百미터) 오른쪽에 페로니카(五千二百미터)의 白蟻를 바라다 보며 멀리 아야마江 上流로 흘러 들어가는 우루방바江邊의 峽谷을 지나갈 무렵부터 뉴유라고 불리는 빨간꽃 칸토우타라고 하는 노란꽃이 들 꽃은 잉카의 陶器圖案에 나타나 있다(들이 滿發하여 실로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마쭈. 피슈가 가까워짐에 따라 密林이 땅을 뒤덮고 나무뿌리에 채이고 덩굴풀에 몸이 걸려 땅을 뒤흔들리게 된다. 원한 斷崖 같은 곳을 기어 올라가면 수많은 이름들이 날아들며 또한 활주어라는 별명을 가진 무서운 毒蛇가 길을 질러갈 때가 있다. 이 毒蛇는 마쭈. 피슈 山頂에서는 많이 볼 수가 있다.

마쭈. 피슈로 三百미터쯤 앞쪽에 한두개의 石造建築物의 보기가 시작한다. 頂上은 열마 안 남았다. 一行은 갑자기 용기가 나서 石段을 한단 한단을 타간다. 여기에 잉카의 建築物가 있다. 바른쪽에 도원쭈에도 한두페기 한

두페기 土臺石이라면가 볼담. 그리고 수많은 집들이 廢墟라고는 생각할 수 없으리만큼 정돈된 형태로 山頂을 향해서 들어서 있어 햇빛에 빛나고 있다. 눈부신 迷路를 지나 神聖한 宮殿 廣場을 건너질러 寺院터를 지나 다시 빙글빙글 바퀴처럼 된 階段을 올라 가면 돌로 된 時計가 놓여 있는 頂上에 이른다. 헤시계가 있는 곳은 六百미터의 斷崖로서 이 현기증나는 자리에서는 赤銅色の 배양이 저 멀리 구름 間 水河世界의 一角으로 치는 것이 보이며 우루방바江의 물소리가 斷崖 밑에서 울려온다.

黃昏이 깃들기 전에 우리들은 헤시계가 있는 곳을 떠나 壯大한 街路를 정지없이 헤매면서 마음속으로 百名의 最後의 住民이 변함없는 光景 속에서 一生을 마친 處女들이 그들의 모습을 그려본다. 우리들만이 이 山頂에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누구도 우리들이 있는 것을 모른다. 다만 太陽神을 모시던 聖處女들의 亡靈만이 그 근처를 헤매고 있다. 그중의 어떤 사람은 老人, 모든 사람이 굉장한 孤獨 속에서 지냈기 구스고의 寺院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다.

이 一團의 亡靈은 不幸한 一生을 보냈을 것이다. 그녀들은 자기들의 屍身處가 피자로의 軍隊의 귀에 들어가 지 않도록 外部世界와의 交涉을 一切 끊고 절대로 높은 屍身處에서 내려가지 않고 그 아름다운 聖處女들은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자기들을 지켜주는 한 사람의 男子도 없이 쓸쓸히 그 生涯를 마쳤을 것이다.

이 一團의 亡靈은 不幸한 一生을 보냈을 것이다. 그녀들은 자기들의 屍身處가 피자로의 軍隊의 귀에 들어가 지 않도록 外部世界와의 交涉을 一切 끊고 절대로 높은 屍身處에서 내려가지 않고 그 아름다운 聖處女들은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자기들을 지켜주는 한 사람의 男子도 없이 쓸쓸히 그 生涯를 마쳤을 것이다.

정치와 經濟에 미치는

매스·컴의 影響

金 基 漸

〈空軍中領 空本公報課長〉



現代人의 社會生活을 營爲하는데 있어서 「매스·컴유니케이션」(Mass-Communication)과는 密接한 關係에 놓여 있다. 世人在 周知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現代社會의 社會體制를 이룩하고 있는 政治와 經濟活動의 體系는 全體 社會의 基本的인 性格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看過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러한 分野에서 「매스·컴유니케이션」과 社會體制의 關係라는 것이 생기게 되기 마련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의 反對로 「매스·컴유니케이션」이 어떠한 社會體制下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또한 「매스·컴유니케이션」自體의 性格도 이룩되는 것이다. 오늘날 自由民主主義 資本主義 社會에 있어서는 「유럽」이나 美國 그리고 가까운 日本에서도 共通의인 現象을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高度로 發達된 資本主義의 段階에서 볼 수 있는 「大衆化」(Mass)의 現象인 것이며, 「매스·컴유니케이션」은 이 大衆化의 커다란 推進力에 結繫되어 있는 하나의 現象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해서 現代人으로서 社會體制 制속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매스·컴유니케이션」이 政治와 經濟活動에 주는 影象이란 默過할 수 없으며 이러한 大衆化의 現象을 매놓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今日의 社會科學에서는 유난히 大衆社會라는 語句가 많이 使用되고 있다.

그러나 大衆社會는 그 大衆이라는 語句의 使用方法이 大衆文學이나 大衆團體等의 事例로서도 謹考할 수 있고 實로 多様多義로운 意味를 갖고 있기 때문에 誤解가 가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現代社會의 大衆現象의 內容과 그 속에서 「매스·컴유니케이션」이 차지하는 位置와 役

割을 分明히 하기爲해 大衆現象을 이루는 社會行動의 體系가 이룩되는 事情을 考察하련다.

그러면 먼저 大衆現象이 經濟活動의 體系로서 成立되는 것을 본다면 資本主義의 高度로 發達에 依한 大量生産, 大量分配, 大量消費가 그 前提로 되는 것이다.

또한 人口가 增加하고 都市가 膨脹하여 새로운 中間層(화이트·칼라)이 생기고 이에 副應하여 서비스 産業이 急進적으로 發展하고 交通, 通信의 「매스·컴유니케이션」과 「리크리에이션」(Recreation) 飲食과 娛樂의 機關이 增加하게 된다.

大量生産은 製品の 品質管理의 技術이 漸次 發達함에 따라 規格化와 標準化를 促成하여 品質의 均一化가 具現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勿論 우리 韓國의 生産 實情으로는 至今까지는 舊態을 脫皮 못한 것이었으나, 近來에 이르러서는 標準化가 試圖되고 있다는 事實은 經濟 五個年計劃의 展望을 期待속에 말해 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製品の 規格化와 標準化로서 各種 製造會社에서 만들어지는 同種의 製品이 모두 均一화된 商品이 되고 品質面에서 보드라도 別다른 差가 없게 되려면,

大量分配에 있어서 各己 自己 會社의 製품을 他社의 그것과 別差 없는 製품을 販賣하기 爲해서는 品質以外에 特點의 인점으로 購買者 即 需要者에게 Appeal(Appeal)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商品名, 디자인, 包裝等 品質以外的 長點을 만들것과 大量販賣

의 技術인 廣義의 「셀스맨·쇼」(Salesman-Shop)의 發揮가 要求되게 마련이다.

그리고 「매스·컴유니케이션」을 통한 廣告나 「퍼블리시티」(Publicity)에 局限되지 않고 販賣員이나 外交員의 面接 그리고 街頭展示等 「퍼서넬·컴유니케이션」에 依한 販賣技術도 發達하여 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매스·컴유니케이션」自體의 企業도 大量生産과 大量分配의 原則에 따라 發達되고 企業의 立體化로서 出現한다.

即, 新聞, 레디오, 텔레비, 映畫等의 企業體는 相互 結付되고, 資本經營人事의 交流도 생기게 되어, 여기에 「매스·컴」企業의 系列化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레디오, 텔레비와 같이 「키스태이션」(Key-Station)을 中心한 全國의인 「네트·워크」(Net Work)가 大企業의 手中에서 左右되게끔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大量生産에 依한 製品の 大量販賣에 即應하여 大量消費도 漸次로 그 規模를 擴大해 가는 것이다.

大量消費에 있어서는 消費財의 分量이 增加함과 同時에 消費者的 消費活動의 範圍가 空間의 要素나 時間의 要素로 擴大되는 것이라 하겠다.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없지만 歐美나 日本같은 나라에서 볼 수 있는 都會地의 都心이나 「리미널」에는 커다란 百貨店舖가 생기고 저기의 「슈퍼·마켓」(Super-Market) 地下商街, 「푸드·센터」까지 무더져 消費活動의 場所가 地上과 地下에까지

伸張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農村에서도 交通便이 發達함에 따라 近接都市까지 購買行爲를 일으키게 되고 旅行者의 消費機會를 提供하는 場所도 생기기 때문이다.

消費活動은 또한 時間的 制限을 면하게 되어, 商店의 夜間營業時間延長이나 徹夜營業等, 이밖에도 많은 消費者의 活動範圍가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더구나 大量消費는 購買組合이나 消費者團體의 發達과 大아파트, 共同住宅等의 出現으로 集團消費의 形態로 變遷해 가고 있는 事實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매스·컴유니케이션」을 통한 輿論의 壓力을 빌려 消費者의 集團의 意志에 依支된 大量消費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大量消費는 많은 消費者를 集團의 購買行動의 範圍로 묶어 버림으로써 始作되기 마련이다.

大集團의 購買活動은 또한 多數의 小集團의 購買行爲가 交錯複合한 總體인 것이며, 이러한 小集團購買의 經濟活動에는 세가지 特徵이 있다고 보겠다.

그 하나는 購買者集團의 規模인 것이며 集團成員의 經濟條件과 範圍에는 日常生活의 交際範圍와 近一致한 點과,

둘째로는 購買行爲의 主導者와 同調者關係에 있어서, 成員相互間의 理解와 說得의 效果的 役割인 것이며,

셋째로는 위와 같은 大集團과 小集團의 購買者로서의 成員 相互間에 생기는 「컴유니케이션」關係에 있어서, 主導者의 意見에 順應하거나, 主導

者의 助言으로 全體意見이 調整된 購買活動이 이루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購買集團 成員 相互間 個個人의 意見交換과 知識을 바탕으로 하는 水平型의 「컴유니케이션」도 亦是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여 商店選擇이나 商店去來도 集團의 生活上的 考慮뿐만 아니라 個個人의 生活上的 考慮가 包含되어, 全體社會에서의 經濟的 體系들이 이루는 役割에 對한 考慮를 가져오는 習慣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購買集團이 橫으로 連結되어 個個人의 「퍼서널·컴유니케이션」이 漸次로 「매스·컴유니케이션」으로 옮겨 감으로써, 購買者, 消費者의 壓力集團으로서 效果的인 役割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으로 購買集團의 成員間에는 連帶感이 생기는 同時에 各自의 自信도 깊어지고 보다 큰 大集團活動에도 參加하려는 새로운 意欲이 부풀어 오르게 되고 社會意識도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集團生活을 하는 자들에게 도리어 虛榮에 사로잡히는 購買나 消費를 하려는 競争心理가 誘發되기에 尤도 있었다는 것을 잊을 수는 없다.

例를 든다면, 近間 우리 나라에서도 갑자기 「텔레비전」을 이루어서 自身의 經濟的環境과 條件을 考慮치 않고 열심에서 텔레비를 購買하니, 自己도 무척 내다간다는 現象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는 現代社會의 政治活動에 미치는 「매스·컴유니케이션」의 影響을 살펴 보자.

影響을 살펴 보자 한다.

大衆現象은 政治活動의 體系에서는 「大衆레모크라시」(Mass Democracy)라는 形態로 나타나는 것이다.

原則적으로 「大衆레모크라시」에서는 上層의 小數者에 依한 政治의 支配에서 벗어나고, 成人男女는 平等한 選舉權을 가지고 政治에 參與할 수 있는 機會가 賦與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原則을 벗어난다는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即 「매스·레모크라시」의 成立에 對하여 國家權力을 作用하여 政治에 參與하려는 一般民衆을 操縱하는 事例을 現代政治 社會에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膨大한 組織體로서의 官僚機構, 그리고 이와 利害의 關係로서 大資本과의 結付로 政府, 與黨, 資本의 三者間에 經濟와 政治의 密接한 關係가 이루어져 「매스·레모크라시」라는 名目 아래 政治參與의 不平等한 權利를 가진 民衆은 事實上으로 政治의 自由를 빼앗기는 事例을 일파는 지 볼 수 있다는 것이다.

大資本과 合體하는 國家權力은 民衆에게 政策을 追究하여 服從을 強要하는 마취 「위에서」 形으로 「매스·컴유니케이션」의 利用하여, 可能하다면 民衆의 意見을 反映하고 있다는 듯한 印象을 주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表面上은 輿論을 尊重한다는 듯이 꾸며 가며, 政府의 調査機關의 質問形式으로 權力者의 口味에 맞도록 輿論調査가 行해지기도 한다.

이러므로서 政治적으로 弄弄되는 大衆(Mass)이 생기기 되는 것이다. 가가은 例로서 現今의 日本의 政治現象을 들 수 있는 것이다. 또한 韓國에서도 舊政權下에서는 언마든지 찾아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므로서 政治적으로 弄弄되는 大衆(Mass)이 생기기 되는 것이다.

가가은 例로서 現今의 日本의 政治現象을 들 수 있는 것이다. 또한 韓國에서도 舊政權下에서는 언마든지 찾아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即, 權力은 「매스·컴유니케이션」의 企業體를 直接間接으로 支配하려는 傾向을 露出하고 權力側에 有利한 條件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統制하려 하는 것이다.

여기에 「매스·컴유니케이션」에 依한 政治의 自由의 陰性的인 壓力이 加해 지는 것이라 하겠다.

「매스·레모크라시」의 發達에 隨伴하여 民衆의 個個人은 政治적으로 原子化되어 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選舉民에 있어서는 選舉權의 行使가 個人에게 許容된 것은 最少限의 政治行爲인 것이며, 投票時에는 各個個人이 嚴格히 秘密를 지키는 것이 良心的인 行爲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의 政治活動은 集團行動으로서가 아니고, 도리어 孤立된 個人의 「私的인」 行爲로서 理解되어 選舉民은 自身이 各己個個人의 孤立된 政治的인 原子로서 自覺하게 되는 것이다.

곧 이것은 政治의 良心과 個個人의 私的範圍와 問題로서의 宗教上的의 良心과 個個人의 私的 領域으로 다루어진다.

이와같이 選舉民 自體의 投票權行使에는 어떠한 他人의 干渉도 許容하지 않을 것이며 「매스·컴유니케이션」을 통한 政治의 宣傳에도 움직이지 않는 「私」를 決定하는 政治의 信念은 도리

한 解剖學의 研究 *Exercitatio Anatomica de Motu Cordis et Sanguinis in Animalibus*였다. 그는 현상에서 진리는 그 根源여하를 막론하고 받아들여져야하며, 冊으로부터가 아니라 解剖로부터 배우고 가르쳐야한다고 했다. 序論과 짝막한 十七章은 심장의 작용과 體內的 혈액순환운동과의 관련을 명료히 설명하고 있다. 하아비는 急速해서 알기 힘든 심장의 운동을 두꺼비, 개구리, 뱀, 작은 물고기, 개, 작은 새우, 달팽이, 조개와 같은 冷血動物에서와 죽어가는 溫血動物에 있어서 捕捉했다. 實驗을 기초로 하여 하아비는 심장의 收縮이 血液을 밀어 낸다는 것, 그리하여 動脈을 통해 나간 血液이 靜脈을 통해서 되돌아오고 그리하여 完全한 循環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다만 그는 오늘날은 명확히 된 毛細管을 찾지 못했으므로 動脈에서 靜脈으로의 血液의 移動에 대해서는 확신은 하면서도 說明하지는 못했다. 회의론자에게 대한 증거로서 定量法을 썼다. 심장이 한시간에 약 四千回의 鼓動으로 體內的 血液의 總量보다도 더 많은 血液을 내보낸다는 것을 立證했던 것이다. 卽 하루에 내보낸 血液의 總량은 하루에 섭취되고 消化된 食物의 全量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또 한가지는 毒藥의 效果에서도 循環을 附隨의으로 證明하였다. 하아비는 醫學에 實驗的方法 또는 實驗室的方法의 導入으로 革命的이었을 뿐만 아니라 動物을 使用한 點은 아주 새로운 것이다. 勿論 人類의 광범위한 知識은 心臟, 血管, 臟腑에 關해 生理學을 다루고 集大成하여 왔으나, 하아비의 血液循環의 發見에 더 할만한 基本的 現象은 거의 없었다. 킬커는 다음과같이 말했다. 『內科와

外科에 대한 하아비의 직접적인 공헌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 그것은 파피르되거나 또는 病은 血管의 치료, 고혈압이나 冠狀疾患의 外科의 치료, 有名한 「藍靑丸」手術等 모든 種類의 치료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보다 더 영향받은 것은 一般生理學이다. 왜냐하면 순환하는 혈액에 대한 概念은 自己를 安定시키는 身體의 內의 환경에 關하여 우리가 現在 이해하고 있는 것의 基礎가 되는 것이다. 人體組織의 力學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役割은 血液에 의해서 행하여지며, 그 循環을 하아비는 偉大한 洞察力으로 發見하게 되었다.』라고, 또 써서 ·윌리엄·오슬러는 『……그것은 낡은 傳統에 대하여, 現代精神의 勇명을 특징짓는 것이다.……용용하게 이루어진 理論이나 꿈에 人類가 만족해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러한 일은 「無知하다는 口實」로써 쓰일 뿐이다.』 그러나 여기에 처음으로 現代의 科學精神을 가진 한 사람이 實驗의인 面으로부터 生理學의 大問題에 접근하였다. 그는 증거를 重要視하고, 그것을 넘어서지는 않았다. 그는 관찰에서 自然속에서 확고한 결론을 끌어내는 機智를 가져고 있었다. 귀로 듣고, 또한 들을 뿐이었던 聽者의 時代에 뒤이어, 눈의 時代가 계속되었다. 이 時代에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오직 보아야만 만족하였다. 그러나 드디어 손-一思索하고 窮理하고 計算하는 손-의 時代가 왔다. 精神의 道具로서의 손은,七十二페이지의 手수한 小論文이 되어 이 世上에 다시 導入되었다. 우리들은 實驗醫學의 始初를 이 論文에 두는 것이다.』라고 했다. (오 병 수)

어 個人을 政治的인 集團行動에서부터 孤立化시키는 結果까지 자아내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個人이 政治는 「私」의 問題로서만 생각한다는 傾向은 한便 權力이 「메스·컴유니케이션」을 통하여 大衆을 조종하기 위한 有利한 條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特記한 것은 官僚機構와 그 背後에서 指導하는 政府, 與黨은 孤立化되고 原子化된 選舉民 個人을 左右할 수 있으며, 어떠한 政治集團이 直接의 行動으로 誘引한다면 차라리라도 不應하다. 다만 「私」個人의 政治意識에 있어서는 浮動票로도 간주키 固難한 存在인 것이다. 그러나 社會들에게 對하여는 政府나 與黨으로서의 間接으로 「메스·컴유니케이션」을 통하여 「公」이며 「法」이며 하고 마지 全體 輿論인양 꾸며가며, 選手만이 大衆에게 政策을 내세우고 가장 公平한 것같이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이를 支持·토록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그것을 支持하는 사람들은 政治에 參與하는 것은 自己自身의 故少한 政治의식으로서 사로잡어 두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現實의 政治는 다만 專門家인 政治家나 官僚에게만 委任하라는 態度를 취하기 쉬운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메스·컴유니케이션」으로서 取扱되는 政治·經濟에 對해서도 政治家들의 個人에 關한 人間의 問題를 疎忽히 하려고 하는 많은 關心과 注意는 勿論의 點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 말한바와 같이 權力에 依한 政治的인 操作에 對抗하는 組織은 말할 것도 없이 一般 民衆의 利益을 代表

하는 政黨이나 壓力集團인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行해지는 「퍼셔널·컴유니케이션」과 「메스·컴유니케이션」을 통하여 權力을 批判하고 民衆의 立場을 主張하는 政治的 宣傳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既成의 大集團만이 權力에 對한 抵抗을 試圖하는 것은 아니 고 작은 婦人團體, 青年團體, 文化團體等의 小集團에 依한 直接間接의 政治活動이 쌓이고 쌓여 土臺 위에 이 독립으로서 비로소 大集團의 政治活動도 有効適切히 마련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結局에 있어 政治活動인 경우에도 經濟活動인 경우와 마찬가지로多數의 小集團의 機能이 「퍼셔널·컴유니케이션」과 「메스·컴유니케이션」의 交互作用을 통해서 統合되어, 大集團의 機能을 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權力에의 抵抗을 組織化하는 民衆은 個人이 分明한 政治意識을 가진 政治的 民衆인 것이며 이는 곧 自覺한 個人인 것이다. 大衆現象은 亦是 暫定的이고 過渡期的인 現象인 것이니 大衆社會라는 特殊한 社會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메스·컴유니케이션」과 政治의 關係는 것도 恒常 流動하는 歷史속에서 捕捉하여야 할 것이다. 現代 資本主義 社會의 共通的 現象인 「大衆」의 現象은 「메스·컴유니케이션」과 不可分離의 關係에 놓여 있음은 多言을 要치 않으며, 또한 現代 社會體制를 特徵하고 있는 全體社會의 基本的인 性格은 經濟活動과 政治活動의 體系化를 들 수 있고 보면, 「메스·컴유니케이션」이 이에 미치는 影響을 過少評價 할 수 없는 現實인 것이다.

<세계를 움직인 책들> ⑧

十七世紀初에 있어서의 生物科學과 그 研究는 코 케르닉스以前의 天文學의 研究만큼도 進歩되어 있지 않았다. 醫師나 醫學校에 있어서는 如前히 二世紀의 東方 그리스의 醫學者 가렌으로부터 解剖學的 理論과 生理學的 理論을 실제로 옮겨 치료하거나 가르치고 있었다. 一千年以上이나 되는 동안 血液의 循環과 심장 的 機能에 관한 人類의 知識에는 本質의 由로 더해진 것이 없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肝臟에서 만들어진 血液이 심장으로 간 다음에 體內를 通過하여 靜脈에 到達한다고 가르쳤다. 그는 또한 心臟은 體溫의 源泉이고, 알렉산드리아學派의 에라시스트라투스는 動脈은 一種의 形言할 수 없는 空氣, 또는 精神을 운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생각은 가렌이 修正하였는데, 動脈은 空氣를 운반하지 않고 血液을 운반한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 후 몇 세기 동안 醫學者들은 어떤 種類의 精氣가 血液系統과 어떠한 아아 심장을 활발하게 하는 일에 一關係가 있다고 確信하고 있었다. 또 가렌에 의하면 간장은 血液系統의 中心이며, 消化된 食物은 간장으로 운반

되어 거기에서 自然의 精氣가 부가되어 血液으로 변한다. 血液은 밀물과 썰물모양으로 靜脈과 動脈의 兩者를 通하여 往來한다. 심장 的 한쪽으로부터 나오는 動脈血은 다른 한쪽에서 나오는 靜脈血과 細孔을 통해서 混合된다. 이런 理論에 血液은 身體 어느 部分보다도 神聖하다고 봄으로써 감히 再考하는 者도 없었다. 一六〇〇년에 이르러 르네쌍스의 여명을 타고 現代 解剖學의 開祖인 안드레아스·베살리우스가 가렌이 말하는 細孔이란 存在하지 않으며 心臟의 二室간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關係가 없음을 증명하였다. 이와 거의 동시에 세루베루스는 血液은 肺를 통하여 순환한다는 所信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는 心臟이 펌프와 같은 기관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또 파부리쿠스가 靜脈에 瓣이 있음을 발견했으나 血液의 흐름을 늦추기위해 있는 것으로 推測했을 뿐이었다. 當時 的 醫學의 中心地 이태리의 파두아에서 파부리쿠스의 指導下에서 解剖와 實驗을 배운 英國 케임브릿지 大學出身의 하아비는 一六〇二년에 歸英후 오랜 동안의 實驗과 관찰을 통해 確信을 얻고서 오랜 持論인 血液의 순환에 관한 論文을 出版하였다. 그게 바로 一六二八年 독일의 프랑크프르트에서 나온 七二페이지의 小冊子인 <動物에 있어서의 心臟과 血液의 運動에 關

윌리엄·하아비 著

血液循環의 原理

William Harvey

De Motu Cordis

는 것으로 推測했을 뿐이었다. 當時 的 醫學의 中心地 이태리의 파두아에서 파부리쿠스의 指導下에서 解剖와 實驗을 배운 英國 케임브릿지 大學出身의 하아비는 一六〇二년에 歸英후 오랜 동안의 實驗과 관찰을 통해 確信을 얻고서 오랜 持論인 血液의 순환에 관한 論文을 出版하였다. 그게 바로 一六二八年 독일의 프랑크프르트에서 나온 七二페이지의 小冊子인 <動物에 있어서의 心臟과 血液의 運動에 關

◇ 富 貴 無 時 禍

서를 볼때에 사는 두 대장이 서로 만나기만 하면 장기를 두지만 그 실풀 이 형편 없었다. 그러나 옆에서 혼수를 하게 되면 재미가 없어 하루는 골방에 가서 장기를 두면서 아무도 못 들어 오게 하였다. 그런데 두 대장과 무관한 손님이 찾아와서 정치기에게 대감을 만나겠다 요청하였으나 정치기는 「장기 혼수를 하실까 봐서 못들어 오게 합니다.」 하고 거절하였다. 손님은 「나는 장기판 도무저 들을 모르니 들어가도 괜찮다.」 하고 골방에 들어갔다. 손님은 비록 장기는 볼줄 모르지만 장기판을 들여다보니 한쪽 편이 궁이 없으므로 「대장, 궁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면서 여전히 장기를 두는 것이었다.

◇ 死亡 禍 禍 出生 禍

어떤 노인이 조간 신문사 망난에 자기 이름이 실려있는 것을 발견 하였다. 노발대발한 노인은 즉시 신문사 편집국장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당신이 편집국장이오. 그때 이렇게 내가 명정할때 어찌자고 사망난에 내느냐 말이오.」

이 말에 당황한 편집국장은 오기(誤記)한 모양이라고 정중히 사과 하였다. 그러나 노인은 더욱 화를 내면서, 「내가 입은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아시오?」 하고 떠들어 대었다. 국장은 비웃은 듯한 태도로서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취소하는 뜻으로 내일 조간 출생난에 신생년의 성명을 제재하면 어떨까요.....」

◇ 蝨 蟲 의 罪

주로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훔치는 도적이 있었다. 한번은 돈을 훔쳐가지고 이제 막 도망치고 타고 온 자동차에 올라타려 했으나 마침 옆좌가 잠져 있었다. 그는 은행에 돈을 훔치려 했다가 자기 자동차를 도적맞을까봐 잠겼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동차의 열쇠를 찾아여유가 없어서 옆에 있는 차에 올랐다. 그러나 그 차는 고장이었다. 그 다음 또 하나 열에 있는 차에 올랐다. 그런데 이 세번째 올라탄 차는 은행으로부터 연락받고 달려온 포지없는 경찰차였다. 형사는 시체미를 딱 베고, 「어디로 가지세요?」 「우선 원천으로 빠져주세요.」 「네 알았읍니다.」

이 자동차가 경찰서로 들어간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軍內懸賞論文入選 <佳作>

經濟開發 五個年計畫 첫 돌맞이



文官金星七

<空軍大學 學術研究部>

目次

- 一、序論
- 二、自立經濟成長에의 道程
 - (一) 經濟革命
 - (二) 農業革命
 - (三) 人口調節
- 三、結論

一、序論

「經濟」라는 語彙가 자지는 本來의 뜻은 經國濟民 즉 國事를 經論하고 百姓을 救濟함을 意味한다. 이 「經濟」는 東西古今을 莫論하고 太平聖代에 있어서나 亂世에 있어서나 國事之大業으로 指目되어 爲政者로 하여금 그 成果의 極大化가 恒常 要望되어 왔었다.

그러나 옛날의 李朝時代, 日帝強占時代는 勿論 八·一五解放後 最近의 自由黨, 民主黨 政權까지도 經國濟民은 커녕 도리어 虐政과 放縱, 腐敗와 不正으로 一貫한 恥辱의 歷史만을 後世에 남겨 놓았다.

實로 新世代로부터 舊世代가 不信任을 宣告받고 交替되어야 할 當爲性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인제 革命政府가 樹立된지 於焉 十一個月, 之間 오랜 歲月을 두고 祖國을 증미던 亡國의 毒素는 一掃되고 諸般 社會秩序도 바로 잡혀 祖國은 危機의 直前에서 起死回生되었으나 그것은 革命初期에서 歷歷히 눈여겨 볼 수 있었던 外科의 手術에 의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革命三階에 突入한 지금에는 그 成果를 測量키 어려운 經國濟民의 重大課業이 岩石처럼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革命當初公約한 絕望과 鐵線線上에서 헤메는 民生苦를 時急히 解決하고 國家自主經濟再建에 總力を 傾注할 것이 바로 그 基本課題이다.

무릇 經濟의인 革命은 政治的, 社會的, 文化的 革命은 成就할 수 없다. 果然 革命政府에서는 새해를 맞아 이를 具現하기 爲하여 計畫期間中 四〇, 八%의 國民總生産의 增加를 目標로 한 第一次 經濟開發 五個年計畫을 發表하고 그 實施에 肅뜻은 歷史에 記錄할 만한 劃期的 事實이며 이 意味에서 民族의 運命과 더불어 政府가 生命을 진 一大事業이라고 斷定아니 할 수 없다. 舊政治人들이 鴿善과 欺瞞의 防牌로서 휘둘렀던 그런마위 公約, 計畫과는 根本의 相異한 것이다. 우리 民族도 이제야 비로소 진 惡夢에서 깨어나 來日에의 飛躍을 期約하면서 明示된 里程碑를 좇아 前進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成功에의 道程은 미려 화려한 大路만은 아니다. 여기 우리나라는 未開發國家로서 共通의 問題로 지니야 할 悲哀 즉 生産技術 및 企業經營技術의 貧困, 資本蓄積의 不足, 物의 再生産構造의 貧弱, 有効需要의 不足 등 經濟的 再建을 妨害하는 惡條件들이 其他 여러가지 障害와 交錯되어 우리앞에 柳比하게 놓여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逆境을 물리치고 目的을 達成한다는 것은 難中之難이며 나치 曠漠한 發展을 限없이 걸어가는 고달픈 克己와 落望의 起伏일 것이나 他國이 成就한 示範의인 先例와 鼓舞의인 그 記錄을 살펴볼때 全國民이 一致團結하여 勳勉과 儉素 그리고 旺盛한 責任感을

로서 不撓不屈의 努力을 傾注하면 能히 우리도 貧困을 追放하고 健全한 自立 經濟를 이룩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國土統一을 達成할 수 있는 直正한 自由民主主義의 物質的 土產을 마련하게 될 것을 確信하는 바이다.

여기서 外國의 再建相을 暫時 살펴 보자. 一八一四年에는 拿破崙을 喪失했고 다시 一八六四年에는 豐饒한 穀倉地帶마저 奪取당함으로써 完全히 不毛地와 砂丘만을 차지한 敗戰國 丁抹이 國家再建의 悲願을 達成코저 父子二代에 亘한 死闘로서 一九二〇年頃에는 丁抹이 自國을 沃土로 開墾해낸 同時 數 많은 工場을 建設하여 富裕한 地土의 樂國으로 再建한 驚異의 事實을 우리 는 알고 있다. 現在 丁抹 農産物의 年間輸出貨은 牛乳 四百五萬八千噸, 麥아 十二萬噸, 콩이즈 五萬七千噸, 牛肉 一百六十六萬噸, 豚肉 十七萬噸, 鷄卵 八千餘蛋等이며 國際收支上 莫大한 利得을 齎來하고 있다 한다. 丁抹 뿐만 아니라 世界 二次大戰으로 荒廢化되었던 敗戰國 日本, 西獨 亦是 奇蹟的인 産業 復興을 達成하여 現在는 美國 다음가는 屈指의 富裕國으로 君臨하여 있는 것도 우리 는 알고 있다. 이와 같은 實踐과 再建은 全國民이 바친 勤勉과 儉素 나아가서는 政府와의 一致團結로 된 不撓不屈의 努力으로서 達成된 것임을銘心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우리도 지난날 新羅時代에 祖上들이 이룬 燦爛하였던 繁榮의 歷史를 가지고 있다. 經濟開發 五個年計畫 첫발을 踏은 오늘날 새로운 覺悟와 實踐의 道에서 다시 한번 그대의 榮光을 되 찾아 보자.

二、自立經濟成長에의 道程

第一次 經濟開發 五個年計畫을 成功의 으로 完遂하기 爲하여는 먼저 畸形的인 韓國經濟의 構造再編을 斷行하여야 한다. 이것을 都市를 中心으로 한 經濟革命과 農村을 中心으로 한 農業革命으로 區分하여 質的으로 綜合究明하여 보기로 한다.

(一) 經濟革命

最近 政府에서 報告받은 바에 의하면 韓國全域에 存在하는 八千二百餘企業體中 一千一百餘의 企業이 休業狀態에 놓여 있다고 한다. 遊休工場이 많다는 것은 곧 景氣가 惡化되고 有効需要가 不足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서 韓國 經濟를 極度의 沈滯狀態로 몰아넣은 重大한 根源으로서는 一言以蔽之해서 不正, 腐敗가 恣行되었던 舊政權이 들쓰듯한 外接浪費에 由來한다. 六·二五事變後만 해도 二十二億弗이라는 龐大한 經濟援助가 아무런 計畫性을 特定經濟人에게 特惠措置되어 주로 製粉工場, 乾粉工場等과 같은 當場에 利潤을 올릴 수 있는 輕工業部門에만 投資使用되었고 特히 많은 實業家들이 暴利과 投機目的으로 割當받은 貴重한 援助弗을 二重換率(公定換率과 市中換率)을 利用하여 莫大한 奢侈性 消費物資輸入에 使用해 버렸던 것이다. 이와 같이 貴重한 外國經濟援助가 韓國經濟建設에 根本的으로 必要로 하는 如何한 方向에

도 投資되지 않고 浪費되었기 때문에 結局 많은 工場들이 休業乃至 機業을 短縮시켜야 할 運命을 스스로 決定한 것이다.

極度의 沈滯로 몰아넣은 다른 또 하나의 重大한 根源으로서는 電力, 石炭等 工業化에의 原動力이 되는 「에너지」 産業, 鐵鋼 機械等 基礎産業, 農業部門의 重點의인 開發 등을 無視한 極端의인 産業構成의 跛行性에도 있는 것이다. 現在 韓國의 毛織, 나일론, 合成樹脂加工工場 등의 設備은 外國의 그것에 비해 損色이 없을 정도로 優秀하다. 反面 近代의인 鐵工業으로서 는 仁川大鐵重工業뿐이고 그 이외의 基礎産業은 原始的인 그대로 放置되어 있다. 이와 같은 外接의 浪費, 重工業과 輕工業의 畸形的인 發達은 丁抹이 韓國 經濟를 重病患者의 狀態로 몰아넣게한 直接的인 動機가 아닐 수 없다. 그 端의인 表現은 最近年의 經濟成長率이 五七年의 八·七%를 轉換點으로 하여 五八年에는 七·〇%, 五九年에는 五·三%, 六〇년에는 二·一% 그리고 六一년에는 二·八%로 鈍化를 거듭하고 있는 形便이라는 데에 찾아볼 수가 있다.

革命政府가 着手한 今般의 第一次 經濟開發 五個年計畫의 基本的인 目標은 外接 및 國內資本의 効率的인 投資로 이러한 畸形的인 産業構成의 再編成換言해서 産業構成의 比率의 適正化를 期하여 正常的인 經濟發展을 이루 할 수 있는 基礎를 造成하자는데 그 重要骨子가 있다는 것을 確信하는 바이다. 이미 報導된 바로서 五個年計畫 目標年度인 六六년에는 年產 四〇萬噸의 銹鐵을 產出할 수 있는 製鐵工場과 石油精製工場, 二五萬噸의 硫酸을 製造할 수 있는 化學肥料工場, 六萬KW를 出力할 수 있는 火力發電所, 其他 觀光施設과 重要한 生産工場을 二〇餘個나 完成하여 놓으리라는 「蔚山工業센터」의 建設着工은 그 象徵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듯 生産構造의 再編뿐만 아니라 消費構造에도 亦是 再調整이 要請된다. 外國으로부터의 無償援助는 每年 減縮되어가고 더우기 그네들의 民間投資나 借款도 現在 크게 期待할 수 없는 形便이므로 所期한 經濟成長을 達成시킨 投資資本을 마련하는 데는 앞으로 漸次 國內民族資本形成에 依支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爲해서는 國民各自가 現在의 消費水準을 最大限 抑制하여 貯蓄과 投資가 充分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大低 低開墾難한 方面은 一般的으로 低所得이기에 때문에 投資原因이 될 貯蓄의 增加가 困難한 뿐만 아니라 貯蓄能力이 있는 富裕層도 「體面消費」 또는 先進國의 生活 消費樣式을 模倣한 奢侈性의인 消費性向 즉 「誇示效果」 때문에 別로 貯蓄을 못 하는 實情에 있다. 말하자면 冠婚喪祭 때문에 더욱 膨脹한 農村高利債 楡比하게 늘어난 工場이던 都市의 華麗한 高層建物 等을 들 수가 있다.

革命政府에서는 이러한 痼疾의인 弊習을 打破하고 勤儉과 儉素, 節約과 貯蓄獎勵를 汎國民運動化하고 있는 便民間資本 蓄積促進과 企業의 健全 投資 및 그의 育成發展을 擁護하기 위하여 이미 稅制改革 및 金融機關改編,

證券去來法 施行 등을 斷行한 바 있음은 매우 기꺼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經濟開發計畫을 成功的으로 達成하기 위하여는 于先 生産構造 및 消費構造 改編을 通한 全般的인 經濟革命이 必然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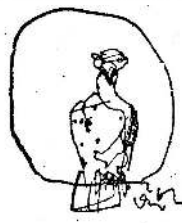
여기 經濟革命을 돕는 重大한 要因으로서 外國經濟協力에 의한 外資의 調達과 技術系 人的 資源確保가 하루 速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附言하여 둔다.

우르 經濟革命過渡期에는 一時的인이나 經濟的 諸要因의 機能麻痺 乃至 喪失로서 尙層의 甚한 景氣의 沈滯을 促進한다. 그것은 急激한 有効需要의 不足으로 強制되는 生産水準의 低下, 그에 隨伴하여 招來되는 過少雇用이라는 形態로서 나타난다. 近間 巷間에서 흔히 듣는 마로서 누누나가 「물통에서 煙氣가 나지 않는 工場이 많다」든가 「失業者가 무척 많았다」 또는 「通貨量은 늘었다고 하는데 돈이 잘 돌지가 않는다」든가 「물건이 나가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다. 景氣가 좋다는 것은 完全雇備狀態가 되어 勞動力의 失業은 勿論 資本設備의 遊休마저 解消되고, 購買力이 旺盛하여 生産이 活潑해지고, 國民의 所得水準이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前述한 바도 있거니와 韓國 經濟에는 分明한 層의 甚한 景氣의 沈滯期가 到來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來日의 飛躍을 爲한 經濟革命過渡期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一時的인 現象은 不可避한 것으로서 經濟開發 五箇年計畫의 順調로이 進行되어 그 絶頂에 達한 때에는 投資誘因의 增大로 投資에 의한 有效需要의 增大로 非自發的으로 因하여 不遠間 經濟混亂의 諸般 要因을 물리치고 明朗한 景氣回復 時期를 맞이하게 될 것을 믿어 疑心치 않는다. 革命政府에서는 이 時期를 打開하기 爲한 緊急經濟救濟政策으로 都市土木事業, 國土開發事業과 같은 國家投資를 通한 雇用的 增大와 한便 營農資金, 中小企業資金과 같은 資金放出에 의한 生産의 正常化를 돕는 등 빈틈 없는 計畫을 實施하고 있다. 그러나 要는 國民全體가 一致團結하여 忍耐과 克己로서 이 時期를 이겨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二) 農業革命

總人口의 六二%를 占據하고 國民總生産의 四〇%以上을 農業生産에 依存하고 있는 韓國은 名實共히 農業國이란 수 밖에 없으며, 그러기 때문에 經濟革命은 農業革命을 이룬 바당에서 비로소 可能한 것이라고 흔히 말들을 한다. 이것을 敷衍하기에 앞서 먼저 韓國農業의 姿勢부터 살펴보자.

韓國農業을 一言으로 表現한다면 無南米麥中心의 主穀農業을 爲主로 하는 原始的 過小零細農이라고 斷定할 수가 있다. 이 構造의 過程의 歷史의 背景은 封建의 土地所有形態로부터 近代의 土地所有形態로 轉換하는 過程에서 人口重疊을 반立 過渡의 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더욱이 特資을 一般化시킨 몇가



英 語 外 水 泳

서투른 水泳은 물에 빠져죽기 쉽다. 서투른 英語는.....

閱 哲 雄

이 땅에서 英語熱이 高潮되기 시작할 것은 只今으로부터 十七年前, 우리 나라에서 日本人들이 물려가고 自由民主主義의 宗主國인 美國의 軍隊가 이 땅에 진주하면서 부터였다. 美軍의 진주를 계기로 이 땅에 말만듯 들어온 서구인 주주의의 물결은 높고, 그것들을 비관할 겨를도 없이 이 땅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 全般에 걸쳐 받아들여 드려졌고 이에 따라 各級學校의 教科目中에는 그 매개물인 英語가 莫重한 比重을 차지하게 되었다. 學校를 졸업한 學生들이 社會에 첫발을 디디는就職試驗에 있어서도 英語는 필수과목일 뿐 아니라 英語의 知識이 合不合格 여부를 決定的으로 左右하는 實情이며 英語를 모르는 사람은 도시

行勢조차 힘들게 가지 되었다. 오늘날 英語는 全人類의 十分之一인 三億이 母語로서 常用하고 또 다른 三億이 어느程度 理解하고 있는 것이며 機械文明의 高度한 發達로 人類의 住居處인 地球表面이 좁아진 오늘날 세 계무대에서 뒤져지 않기 위해서는 웅던 청년간에 英語를 배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英語를 배우기 위해 學生들이 지나치게 많은 精力을 소비하는 나머지 다른 면에서의 努力을 게을리하므로서 정서적, 윤리의 결여로 危險한 人間性이 形成된다면 學生自身뿐 아니라 民族文化의 將來를 위해서 지금이 불행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最少의 精力과 時間으로서 最

지要因으로서經濟的收奪을主目的으로한歪曲된國際獨占資本의侵略과農民의土地所有의健全確立을爲한事後管理가缺如한八·一五直後의綱維의인土地改革과第二次産業發展의後進性그리고農民의犧牲을主土臺로한自由黨,民主黨政權의稅政들을들수가있다.그結果로서天然的으로狹小한農地에의미인農民은 더욱萎縮되어갔으며奈終에는尙大한負債를질머지게되어營農意欲마저喪失하게되었고따라서農業經營의近代化는커녕도리에서生産의非合理化를招來하여農業生産은永年營利性을追求할수없는것이되어버리고豊年이들면穀價는大幅下落하여生計赤字를免치 못하는것,凶年이들면生産量의減少로서依例로麥嶺期에는饑餓絶糧에呻吟하여야하는것으로諦念하여立穩先實가아니면해마다累增하여가는高利債나더고살아왔던것이다.

革命政府에서는 이와 같은 農村的 慘狀을 救濟함과 아울러 그의 體質改善의 바탕을 造成하기 위한 初步의 段階로서 農漁村의 高利債整理, 農產物價格維持法의 制定公布, 營農資金의 果敢한 放出, 肥料配給의 改善, 農業協同組合의 改編育成, 農業教導事業의 強化 등 一連의 農業政策을 果敢하게 實施한바 있다. 이 施策은 若干의 效果를 나타내어 昨年度 國民消費生活水準에 關한 韓國銀行調査에 依하면 都市의 消費水準이 實質上 一·七% 低下한데 反하여 農村的 그것은 一·九%나 向上하였다. 勿論 解放後 처음 맞은 大豊作의 德分도 있었지만 如實히 農村에는 瑞兆의 빛이 깃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現象은 單字 그대로 瑞兆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總人口의 六二%를 占據하고 있으면서도 農民은 尙今 全國民의 食糧需要量을 産出하지 못하고 年年 그 不足分을 補充하기 爲하여 約五百萬石以上의 外穀을 導入하지 않으면 안될 形便에 있으면서 農家生活이 向上되었다고는 하지만 서울市民의 一個月間 一家族當 平均消費量支出이 九萬八千圓인데 比하여 農村的 그것은 그의 折半도 못되는 四萬六千圓에 不過한 것으로 미루어 여기에 基本的인 農村的 體質改善이 要望되는 바이다. 그에 加해서 經濟開發五箇年計畫이 要求하는 經濟革命의 見地에서 볼때에도 序頭에서 論한바 있거 만 그 根本 바탕이 될 巨大한 購買力을 包容하고 있는 農村的 體質改善 換言해서 農業革命은 實로 至急을 要하는 重大事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農業革命』이라는 經濟革命을 이룩 할 수가 없고 그와 反對로 農事革命도 亦是 經濟革命 없이는 經濟革命을 이룩 할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들은 들이면서 하나이다 라고 斷定을 내린다.

요즘은 革命政府가 最大의 힘을 傾注하여 農業革命의 Model case로서 『새마을建設』 또는 『模範部落建設』에 沒頭하고 있는 所以로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다.

이 『模範部落建設』에 있어서의 主要着眼點을 살펴보면 農協 및 四日俱樂部를 主動으로 하여 無畜米麥中心의 主穀農業으로부터 脫皮하기 爲한 養蜂, 비석栽培, 鷄, 兎, 豚, 乳牛, 農耕用 畜牛의 飼養을 有畜化와 多角經營 및 農

大의 效果를 거둘수 있는 英語學習方法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오늘날 學生들은 다른 어느 冊보다도 英語參考書를 많이 끼고 다니며 名·無名의 出版社가 내어놓는 헤아릴수 없는 많은 종류의 英語參考書는 書店의 서가를 그 어느 冊보다도 넓게 장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參考書들 중에는 著名하고 良心的인 教授의 勞作이 있는가 하면 外國에서 使用하는 참고서를 實情에 適, 不適合에 相關없이 그대로 번역한것(外國語는 우리말과의 특징의 차이를 비교하며 배우는 것이 능률적이다)이 있으며 심지어는 數十年前 日人들이 使用하던것을 그대로 번역한것(英語는 發展하여 왔고 또 發展하고 있다)까지 도서가에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英語參考書의 대문짝만 한 廣告가 新聞紙面을 아니 차지하는 날이 거의 없으며 그러한 廣告에는 의외히 韓國教育界 元老級 學者들의 추천사가 藥方처럼 掲載되거나 또는 그러한 추천사가 冊에 붙어있을 수 意味하는 ழு지막한 금은 꼬치체活字가 박혀있게 마련이며 그러한 冊들의 지개가 文法을 爲主로 하는 參考書들이다. 事實上 많은 英語教師들은 大部分의 英語時間을 文法을 가르치기에 充當하고 나서 校門을 나서면 學生들을 대견스럽게 바라보며 越等한 英語實力이냐 질러준듯이 만족한다. 그리고 學生들은 學生들대로 少數를 除外하고는 社會에 나와서는 社會의 人 要請에 따라 英語를 처음부터 다시 배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 도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英語를 배웠던 質을 받아 英語를 배웠기 때문

이다.

英語뿐만 아니라 무릇 모든 言語가 記述과 口述의 두가지 言語로 구성되어 있다. 勿論 羅典語와 같이 記述語로서만 存在하는 死語도 있으며 이와는 反對로 未開地城의 여러 민족이 使用하는 것중에는 口述言語로서만 存在하는 言語도 있기는 하지만 文化民族이 使用하는 모든 言語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記述과 口述의 두가지 言語로서 構成되어 있는 것이며 또 이러한 記述과 口述의 두가지 言語는 라 이팅과 리이팅 및 스피킹과 리이팅으로 區分되는 것이다. 이러한 言語를 教育함에 있어서 라 이팅과 리이팅만을 가르친다는 것은 좀생각하여 볼일이며 하나의 言語를 學習하는 능률면에서 보더라도 가능한 한 많은 감각기관(눈으로 읽고 입으로 말하며 귀로 듣고 손으로 쓰는 등)을 집중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더구나 外國語를 처음으로 배우는 學生들에게 딱딱한 文法을 위주로 外國語를 가르친다는 것은 學生들의 흥미를 잃게할 뿐 아니라 時間과 精力의 낭비인 것이다. 일찍이 구라파의 有名한 英語學者인 「아스피스」도 말한 것처럼 무릇 文法은 하나의 言語를 마스터하고 나서 자신이 使用하는 言語를 올바르게 교정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다. 事實上 英語學者가 되고자 하는 極少數를 除外하고는 흔히 우리네들이 實用을 위해 배우는 英語는 學問이 아니라 하나의 습관인 것이며, 자동차가 어떻게 타동사가 어떠하며 주어가 어떻게 보어가 어떠한다는 식으로 文法을 理論적으로 따져서 습득되는 것이

地鐵鐵를緩和하기爲한土地擴大事業 그리고 原始農業을打破하기爲한農業生産技術의向上과 農民生活의合理化 등을導入함으로써 結果의 全體의인生産力の增大과 農業所得의增進을自招해 보자는데 두었다고 볼수있다. 즉 韓國農業의構造的 特質을 根本의으로 改編할수 있는 素地를 마련해 보자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農村的近代化를 全國의으로 普通化시키려면 그와 같은 局部的乃至 近視眼的인方法만으로는到底의 不可能하며 漸次的의으로 農業의協同化 및 農業生産의共同化의 移行이切實히 要請되는 바이다. 勿論 個人의土地所有權을否定하는 聯邦式集團農場의 移行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고 嚴然히 私有財產制度의 認定을 前提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極度로 經營規模가 零細한 所有農土가 이곳 저곳 相當한 距離를 두고 散在해 있고, 原始的인生産手段과 營農技術밖에 갖추지 못한 無畜零細農家로서는 힘안드리고 農土의 交換, 分舍, 整理가 簡單히 이루어지며, 勞動能率의 向上으로 多角經營도 容易하게 할수 있는 捷徑이 되기 때문이다.

例示하면 生産性を 높이기爲하여서는 마땅히 「트랙터」或은 耕松機 등을導入하여 機械化하는 것이 上策이겠으나 現 所有農地分布狀態 및 零細의인現農地經營規模로서는 그 例用이 不適當한 뿐만 아니라 그 仕入價格 亦是 너무 비싸기 때문에 個人의로서는到底의 힘도 들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問題는 共同化가 손쉽게 解決하여 준다. 要는 根本的의으로 徹底한 構造上的의再編이 있어야만 農業革命은 達成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農業革命을 通해서 이루어지는 經濟革命으로 燦爛한 앞날이 期約될 것이다.

(三) 人口調節

第一次 經濟開發 五個年計畫의 基本目標達成을 間接的의으로 促進하여주는 要素로서 近間 二實施을 汎國民運動化하고 있는 家族計畫을 無視할 수는 없다. 大抵 低開發國家에 있어서는 例外없이 無慈悲하리만큼 激甚히 膨脹하는 人口의 加速度의 自然增加때문에 貧困의 惡循環을 層層히 加重시키고 있다.

現在 우리나라의 平均 國民所得은 不過 六四圓, 農家戶當 平均耕地面積도 〇.八町步에 지나지 않는 小規模인 反面의 人口의 自然增加만은 每年七〇萬名으로서 仁川만한 都市가 해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實情이며 約二〇年後에는 現在の 倍인 五千萬名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自然增加가 尤甚한 實情에서 姑息의인 農地擴大事業 或은 收穫遞減의 原則이 作用되는 土地生産力, 質, 되어야 一年에 몇 백名, 몇千名밖에 實現이 안 될 移民計畫 같은 政策에만 依存한다면 그 結果야말로 實로 形容하기조차 힘든 甚한 國民食糧의 不足과 國民所得의 相對的 減少 및 土地鐵鐵 등을 自招할 것이다. 이때문에 經濟開發 五個年計畫에 있어서의 人口調節은 絕對的의으로 必要한 것이다. 現在 家族計畫을 汎國民運動化하여 그 實施을 勸奨하고 있음은 嘉尚할 바

아니라 하나의 睿眼을 불일때 하는 것 처럼 반복 연습하므로서 비로소 습득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운동에 있어서와 같다. 물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수영이 어찌하고 背泳이 어찌하다는 것을 누가 아프도록 물려주고 또 學生이 平泳이 어찌하고 背泳이 어찌하는 것을 영새처럼 나가라는 것을 확신하고 물아선 水泳教師가 있을가? 初步者를 위한 水泳讀本만을 읽고 강물에 뛰어들자가 있다면 웃을 것이 더 더구나 그런 자가 물속으로 가라

앞으며 「水泳은 배웠는데 몸이 뜨지 않는다」고 한탄한다면 서글픔을 금할 수 없으리라.

하루속히 韓國에도 現代的이고 合理的인 言語教育施設과 補助教材가 確保되어 最高學府를 나오고도 外國人을 對하면 英語만을 불르는 일이 없게 되기 바라며 더우기 英語는 尙장하게 지경이 는지 아니라며 그 어떠한 間과 精力을 기울이나 하며 그 어떠한 尙장한 英語를 매개체로 外國人에게 傳達되는 內容이 民族의 이름으로 일갈을 불리게 하는 경우가 없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筆者·軍人)

이나. 그 目的의 重大性에 비추어 行할을 더 나아가 嚴格하고 細密한 法(産兒制限法) 制定實施가 要請되는 바이다. 或者는 自然의 攝理에 發行하는 것으로 또는 性道德을紊亂케 하는 것으로 甚至於는 一九二九年 世界恐慌後 歐美諸國에서 實施한 지나친 産兒制限과 같은 種類의 것이 되어 그 出生率은 將次極端的인 人口減少의 危險을 招來할 것이라는 念慮일에 反對하는 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前述한바와 같은 重大事態가 現實化함으로써 일게 될 被害의 程度와 저울질해 볼때 그 比重은 너무나 輕하다고 斷定아니 할 수 없다. 多産과 窮乏의 惡循環으로부터 脫皮하고 生活을 改善하여 健全한 近代의 生活를 享有할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하는 데 오직 現代人은 果敢하여야 할 것이다. 人口의 重壓때문에 苦惱하는 印度와 日本은 벌써부터 産兒制限을 徹底히 實施하고 있으며 印度에서는 一九五六年부터 始作한 第一次 産兒制限 五個年計畫에서 一,〇五〇萬弗의 豫算을 消費하고 있으며, 한편 日本에서는 一九四七年에 日本産兒調節聯盟이 組織되고 五四年에는 日本家族計畫聯盟이 結成되었으므로 世界最初로 政府가 産兒制限法을 採擇하여 年間 日貨 四,〇〇〇萬圓, 五,〇〇〇萬圓 (韓貨로 約二億)의 國庫金을 支出하여 많은 成果를 올리고 있다 한다.

바야흐로 産兒制限法 制定의 必要性을 외치는 메아리 소리는 世界到處에 번져 가고 있으며 버지 않은 將來에 이 趨勢는 반드시 世界人類史의 潮流로 變해갈 것을 疑心치 않는 바이다. 은 國民은 이 潮流에서 밀려나 다서는 後進하는 일이 없도록 개개인이 姑息과 偏見을 버리고 果敢하게 그 實施에 앞서 나아가야만 하겠다.

三 結 論

우리는如上에서 第一次經濟開發 五個年計畫의 歷史的 意義와 基本目標 및 그 것을 達成할 수 있는 몇가지 問題를 考察해 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計畫과 組織을 通해 그 道程을 明示하고 實施를 說得시키려 하여도 結局 이것을 實踐에 옮겨 推進해 나가야 할 主體인 國民이 이 施策을 正確하게 目的한대로 施行하지 못하거나 또는 旺盛한 道德的 責任感에 의한 自律的인 呼應을 하지 않으면 運營의 妙算 期할 수는 없으니 따라서 虛妄한 것으로 되고 만다.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要求를 即應할 수 있으며 窮極의 國家自立經濟成就를 成功的으로 이끌기 위한 國民의 基本的인 要請로서 現在 國家에서는 「國民再建」 또는 「人間改造」을 먼저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再建이나 改造를 通해서 이루어진 人間型이란 自主性과 創造性을 가진 自律的인 生活態度 乃至 國家利益을 爲하여는 小我를 버리고 大義에 獻身할 수 있는 民主國家의 主人다운 崇高한 姿勢의 所有者를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오직 우리가 過去에 지녔던 亡國의 思想의 姿勢 다시 말해서 自由民主主義를 僞裝한 放縱과 無責任, 虛張聲勢와 獨善, 依他心과 卑屈, 懶怠, 謀略, 狹隘, 行慘, 浪費 등을 모조리 一掃해 버림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진다.

現在 咫尺之間에서 오직 祖國의 經濟秩序 破壞는 勿論 祖國의 獨立마저 蹂躪하려고 날뛰는 北韓共產獨裁의 狂亂, 나아가서는 經濟, 社會, 文化 등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몇十年 앞서가는 先進文明國家들의 高階의인 姿勢를 想起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國家再建의 任務는 重大大하고 至急을 要하는 것이다. 즉 남의 잠잠해 일이나 일을 하여야 하고 남의 절언가면 뛰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遲滯함이 없이 하루속히 徹底한 自己批判과 改造遷善으로 「人間改造」을 斷行하고, 經濟的 國家再建의 始發點인 經濟開發 五個年計畫을 最善을 다하여 밀고 가야만 하겠다.

熟考컨대 이 經濟開發 五個年計畫은 이번 第一次안으로서 아주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繼續해서 第二次, 第三次 計畫을 韓國經濟가 自立할 수 있고 나아가서 共產侵略을 물리치고 國土統一을 이루할 수 있는 經濟的 土臺가 마련될 때까지 繼續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더욱 完成된 人間型이 要求된다. 그러나 人間은 人間이기 때문에 오랜 星霜을 지나는 동안 倦怠와 逆情을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國民各自은 單 한 사람의 落伍者도 내지 않도록 戰友로서의 信賴와 激勵로서 서로 도와 終着點에 到達할 때까지 굳게 붙여나가야 한다.

특히 革命隊列에 앞장 서서 그 隊列을 이끌고 왔던 軍人은 앞으로라도 이 革命隊列을 繼續해서 오직 最後의 勝利를 거둘 때까지 이끌어 나아가야만 한다. 모를지 모는 軍人은 國民이 信賴하여 따라갈 수 있는, 換言해서 國民으로 하

여급自發的으로 革命隊列에 參加하게끔 할 수 있는 指導力을 兼備한 참다운 軍人의 姿勢를 恒常 保持하도록 徹底한 「人間改造」가 亦是 이루어져야만 하겠다.

過去에 흔히 그러했듯이 國民과 部下를 虐待蔑視하고 無差別 號令하는 上典의 態度, 上官에게 阿附追從하는 奴隸의 根性, 公과 私를 區別할 줄 모르는 姿勢의 行使는 이제는 容納이 되지 않는다. 오직 自己의 몸을 死生間에 두어 外敵의 侵略으로 國土를 防衛하고, 民族의 宿願인 國土統一을 成就하기 위하여 必勝의 信念으로 訓練과 戰鬪力의 愛用, 責任完遂와 軍紀確立, 禮儀嚴守等 一致團結, 清白한 品性陶冶와 物資의 愛用, 軍民一致 自由友邦과 友誼救駕等 軍人으로서의 眞을 徹底히 銘心履行해 나가야만 하는 同時 軍門을 떠나 一般社會에 復歸했을 때에 必要로 하는 새로운 經濟, 社會 및 文化建設에 이바지할 수 있는 知識涵養까지도 기울여 하지 않아야 하며 그러한 가운데 人間改造는 스스로 이루어지며 늘어난 참다운 軍人의 姿勢가 비로소 確立이 되는 것이다. 여
(完)

◇ 屬 體 的 密 使

제 2차 세계 대전이 무르익어가던 一九四三년 四월말, 미영 연합군이 북 아프리카의 사막에서 힘을 다하여 밀고 올라갈 때 스페인 해안에 「영국 육군대 소령」의 시체가 포착하였다.

그 이름은 윌리엄·마이틴. 독일 첩보기관이 이것을 조사한 결과 런던의 영주 최고사령부로부터 아프리카 전선의 군사령관에게 보내는 비밀문서를 가져고 있었다.

「연합군은 먼저 알아 시시리에 공격을 개시하겠지만, 이것은 저를 기만하려는 양동작전(陽動作戰)으로써 미·영의 주력부대는 회담에 대하여 대대적인 상륙작전을 전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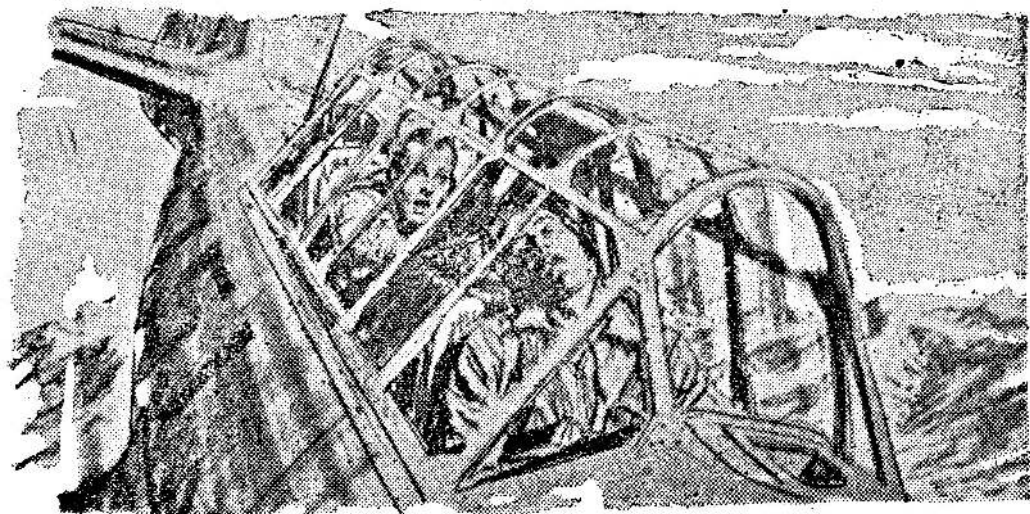
이 문서를 보게된 히틀러와 그의 막

료들은 세밀히 검토한 결과 틀림없는 진짜로 판단하고 남측 프랑스의 수비를 맡고 있는 제 1기갑사단을 위시해서 독일군의 주력이 구라파의 산과 들을 횡단하여 회담으로 급행하였다.

이것을 본 미·영 연합군의 주력은 시시리를 공격하여 이탈리아 본토상륙작전에 성공하였다. 유전대 소령이라는 정체는 런던의 명령에서 페염으로 죽은 청년이다.

이것을 믿지 않던 꾸미놓은 영 해군 정보장교 몬타규니소령이 지난번 「허수아비 남자」라는 책을 내어 처음으로 진상을 밝힌 것이다.

오밤중에 시체의 밀사를 잠수함에 싣어 해변으로 띄웠던 것이다. 물론 윌리엄·마이틴이라는 것은 허위명이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항공기의 조종석에 앉았다. 앞좌석의 조종사는 적탄에 맞아 부상을 입고 기절했으며 항공기는 機首를 中共으로 向한채 敵地上空을 전속도로 날고 있는 것이다.

By Maj. Joseph Patrick Rene Tremblay, M.C.

北韓偵察飛行

一 九五一年七月一日的 韓半島의 日氣는 快晴하였으나 나는 아무런 두려움없이 平澤基地에서 비행기에 올랐다.

나의 함께 비행기에 오른 조종사는 美國의 사스주 출신의 空軍大尉였다. 우리가 탄 비행기는 複座의 T-6, 「하마드」偵察機였으며 비무장의 同機는 雙筒의 煙幕로케트와 함께 補助燃料탱크를 달고 있었다.

그날 우리의 飛行目的은 캐나다陸軍의 步兵連絡將校였던 나의 空中偵察實習을 하는 것이었다. 그날까지 나는 美軍 조종사들과 함께 五日間の 地上課程을 끝마치고 戰線을 飛行하는 마지막 課題가 남아있을 뿐이었다.

「윌트」는 나를 뒷좌석에 앉도록 했다. 「윌트」는 百餘回 以上을 出擊한 하늘의 勇士였다. 몸집이 크고 긴장하며 好男型의 「윌트」는 야구모를 쓰고 있었고 내가 상상하던 전형적인 美사스인이었다. 우리는 비행기에 오르기 三十分前에 人事를 나누었지만 어느새 서로 「윌트」와 「윌트」라고 愛稱으로 부를 정도로 親熱해져서 그와는 이디라도 함께 날고 싶은 心情이었다.

나는 그전에도 輸送機를 타고 낙하산 강하를 한 적은 있었지만 航空機 조종석에 앉아 보기는 처음이었다. 조종

석에 틀어박힌 나의 앞은 위황한計器板이 가로막고 두다리 사이에는 골을 시켜면 고무로 씌운, 빗자루대 같은 것이 솟아오르며 「윌트」는 그것을 「二重조종간」이라고 說明해주는 동안에 나는 잘듣는척 했으나 事實은 說明을 한쪽귀로는 들으면서 다른쪽이로 울려버렸으며 앉아서 不意에 누웠 이런 건드리지 않도록 換心했다. 나는 후에 望遠鏡을 걸치고 지도를 겨드랑에 끼고 있었으며, 레몬주스가 든 물통을 가져고 있었다.

나 와 「윌트」의 조종석은 六피트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내자리에서는 다만 「윌트」가 쓰고있는 야구모와 그의 숨은 무늬미가 보일 뿐이었다. 나는 「윌트」가 指揮塔과 連絡하는 것을 內部通話裝置를 통해 들었으며 몇분후 우리는 一〇〇〇피트의 高度에서 戰線을 向하여 北으로 날고 있었다.

처음 얼마동안은 韓國의 地形은 다르지만 나의 고향인 캐나다의 「해바」처럼 平和스럽게 보였다. 앞은 산들의 남쪽으로 베풀렸으며 그사이로 UN軍의 主補給路들이 있었다. 西쪽으로는 끝없는 黃海바다가 하늘과 맞닿아 있었으며 主補給路를 따라 戰線을 向하여

비행하는 것은 별로 힘들지 않는지
했다.

한시간 가량 비행했을 때 「윌트」가
다른 손들을 이끌고 갔다. 「저것이
이 손들이고 金浦飛行場인데」 나는 당
원경을 통해서 파파된 韓國의 首都 서
을을 내려다 볼 수 있었다.

서울을 내려다 볼 수 있었다. 처음
원래치고 砲擊의 흔적이 사방에 보였
다. 얼마 후 우리편의 손, 임진강이 보
였다. 이 강을 사이에 두고 我軍과 共
産軍이 대적하고 있었으며 인적이 없
는 敵地에 있는 유적이 한 곳이라고 아무
것도 안 보았다.

「윌트」가 멀리 북쪽 산등성이를 가
르키며 「윌트! 저기서 무엇들을 하나
가 보세!」라고 말하는 그의 音聲은 마치
自己故郷인 텍사스의 산이나 가르키
듯이 침착했다.

그 당시 나는 十年이나 軍隊生活을
하느라 잊었던 二개의機關의 秘密을
로 마음을 알리면서 대낮의 적선에 뒤
오드는데 이르러서 「전투를 하오!」로
기어 치우었다. 우리는 그 아발로 앞
맞은 射擊目標이었다. 나는 우리의 비
행기를 노리는 銃口가 몇개나 될까 하
고想像하고 보았다.

이런 雜念은 앞의 얇은 피사시鏡
구때문에 나는 곧 잊고 말았다. 우리
는 산등성의 돌무더기 밑에 숨어 두 수
리처럼 비행했으며 그러는 동안에도
내눈의 눈 보기도 알지 못했었다. 「윌
트」는 용케도 살살이 말걸었다. 「윌
트」가 「다이크를 통해 指示하는 대로 나
는 필요한 사항들을 地圖위의 表示하

實戰記

나갔다.

그것은 상당히 흥미있는 일이었으
며 차차 나는 超人間같은 감이 들기
까지 했다. 「이제 그만 돌아가자!」하
고 「윌트」가 말했을 때는 돌아가지가
서 못할 정도였다.

바로 그때 갑자기 비행기가 심한 충
격을 받았다. 변칙 하고는 굉장한 폭
우와 함께 유리와 금속 파편이 튀었
다.

순정하던 비행기는 그 순간부터 미
친 말뚝뚝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나는 「윌트」의
머리가 뒤로 쳐져지고 팔이 조종석 양
쪽으로 늘어진 것을 보고 놀라지 않
을 수 없었다. 나중의 안일하지만 그
때 밑에서부터 補助燃料탱크의 파로
트를 뚫고 기체의 물이 온 五〇리리 기
관포탄이 前方座席 바로 뒤에서 폭발하
며 機體에 致命的인 破損을 입혔던 것
이다.

비행기가 음방 조각이 날 것만 같
아서 나는 「윌트! 괜찮은?」 할
아 들었어? 뭐야 내릴까?」하며 마구
물었다.

어떻게 말하든 안 조바심 했을 때 「윌
트」가 「윌트! 비행기를! 조종하라!」
보게!」하며 힘없이 노카미는 소리를 들
고 나는 잊어버렸다.

나는 잊지도 않았고 이리저리 훑찰
수밖의 없었다. 도대체 나는 조종이
라고는 조종간을 앞으로 당기면 비행
기가 상승하고 밑에 계기판 하강한다
는 것밖의 몰랐다. 그러나 피이상 생
각할 수도 없었다. 산등성이 눈앞
에 다쳐왔던 것이다. 나는 눈을 감고
눈보이려고 조종간을 잡아안으로 당
겼다.

우리는 배풍을 만난 고래처럼 위로
추구했다. 비행기가 마구 흔들리기는
했지만 어차피 이제 는 地上에서 상당
히 올라갔다.

이번에는 조종간을 앞으로 약간 당
기자 이편엔 내기가 바른쪽 날개가 울
타가고 왼쪽 날개가 내려앉았다. 나는
비행기가 뒤집히는 줄만 알았다. 나는
당황한 나는 조종간을 다시 제자리
로 당기며 「윌트! 정신차려! 어떻게
하든 가야!」하며 소리쳤다.

「윌트」는 여전히 꼼짝 않는다. 그
러자 나는 나의 발밑을 흐르는 물을
보고는 더욱 당황했다. 「윌트」가 추
웠을런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몸
이 오싹해졌다.

그러나 나는 다행히도 차츰 차츰 정
신을 차릴 수 있었다. 조종간이 前後
로만 조작되는 것이 아니라 左右로도
조작된다는 것을 알았다. 조종간을 우
측으로 움직이면 우측날개가 내려가고
좌측으로 움직이면 좌측날개가 내려갔
다.

일마후 우리는 다시 수평 비행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넘실거리는 바다가 좌측에 있었으며
우리는 中共을 向하여 직선으로 날고
있었던 것이다.

비행기를 어떻게 신뢰시키나?計
器板을 보면 도움이 되리니 생각하되
나는 고개를 돌려 보았다. 計器板은
산산조각이 나고 計器는 하나도 볼 수
가 없게 되어 있었다.

하는 수 없이 밑을 내려다 보니 두
개의 폐탈이 을개의 그것처럼 나란히
있었다. 시립산이 왼쪽 폐탈을 밝힌
이니까 비행기가 급작스럽게 스키링을
했다. 얼마동안의 관공의 비행기를 다

시수평으로 하고는 수평선을 들리로
았다. 착각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잠시
동안의 스키링으로서 비행기가 中共
으로 행하면 기수를 약간 돌린듯 하
기도 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는 또한번 스키
링을 하고는 비행기를 다시 수평으로
했다. 그러자 나는 나의 착각이 아니
었음을 알았다. 實際로 비행기는 약간
反時計方向으로 機首를 돌렸던 것이
다. 조종간을 왼쪽으로 제껴서 비행
기를 기울게 조작하는 것을 알았으면
금방 시회를 할 수 있었으련만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기수를 돌리는 데 무리
심을 없이 나뉘었다. 스키링과 원상부
귀를 수없이 되풀이 하여 드디어는 機
首를 中共과 反對方向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다.

「윌트, 이거봐!」하고 부르코는 「우
리는 남쪽으로 날고 있어!」하고 소리
쳤다.

어쩔 수 없이 대답이 없고 꼼짝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如前의 敵地인 수리 날고 있
었으며 이 단계 도 포적당할 지 몰랐다.

「윌트」는 살았을까? 그가 만약 죽었
다면 我軍陣地에 닿는 대로 뛰어내려
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윌트」
가 죽었을 것이라고는 도무지 믿어지
지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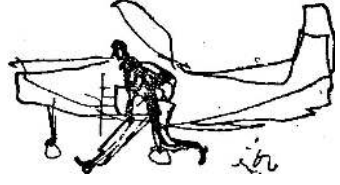
그 순간 포착되고 불어치면 「윌트」
의 왼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받
졌다. 그는 손목을 아래위로 흔들
었다.

「말할 수 없어요. 어때? 말씀해봐!」
하고 나는 소리쳤다.

어쩔 수 없이 대답이 없을까? 그때

하늘을 누비는 오빠들께

劉 敏 伊
(淑明女大 國文科生)



승려구들이 펼쳐진 하늘도 여덟대의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炸熱하는 八月의 太陽을 꿰뚫으며 날으는 비행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통쾌해 집니다.

○ ○ ○
저는 어렸을 때 비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하늘의 神秘를 캐내고 싶은 慾望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종일 검은 눈망울을 수없이 울며가며 하늘을 쳐다보는 걸 부끄러워 하였읍니다.

아직도 비행사의 꿈을 간직하고 있지만 비행기술과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꿈만 꾸는 지금은 비행사는 나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 그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푸른 유니폼에 멋진 몸매를 한 분들을 뵈올 때마다 가슴 속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하늘에의 동경은 억누를 수 없습니다. 쉰——또 비행기의 비행기가 하늘에 치솟고 있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비행기가 하늘을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더운 마음이 가득할 뿐입니다. 하늘을 나는 용사들이요——

나는 우리 비행기가 작포탄에 파괴되었던 당시의 나의 불탄 행동으로 인하여 內部통화장치의 연결이 끊어진 것을 모르고 있었다.

「윌트」가 맞은 무發의 彈丸中 하나 가 그의 최후를 마비시키고 또 하나는 위를 관통하여 「윌트」가 심한 출혈을 한 것도 물론 몰랐던 것이다. 그 당시의 「윌트」로서는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 것조차도 필경히 힘은 노릇이었던 것이다.

나는 왜 그가 바른손으로 나마신 호를 하지 않는지 궁금하게 생각했다. 그는 조종간을 다시 조작할 수 없을 까? 때때로 우리가 타고있는 비행기가 나도 모르게 조작되기도 했으며 내가 조종간에서 손을 떼어도 얼마동안 안 비행기는 그대로 수평 비행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내가 조종간에서 손을 떼기가 무섭게 비행기가 곧장 바다로 물진했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그럴 때면 「윌트」가 주저없이 無意識의 상태에 빠졌던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동안 악몽같은 순간들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얼마후 임진장이 눈앞에 전개되었을 때 이제 나는 저어도 敵地에 추락하지는 않게 되었다.

戰

續을 지나면서 나는 이제 평택을 찾아가는 것이 그리 힘들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평택을 찾아가면 무엇보다도

출혈과 추격으로 온수상태에 빠진 「윌트」가 기적이라도 생겨서 좌륙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수도조차도 어떻게 조절하는지 모르는 나로서는 이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방

도가 없었다. 물론 동체착륙을 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동체의 연료가 가득 차있는 보조연료 탱크를 달고 몇개의 로켓까지 장착한 채 속도를 늦추지 않고 전속력으로 날으며 그대로 동체착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자 나는 「윌트」가 머리를 움직이고 손목들의 왼쪽으로 동체게웠는 것을 보고 감쪽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機首를 돌리라는 것일까? 평택까지는 아직 百餘哩이나 남았는했 원천으로 機首를 돌리라는 것일까?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몸을 약간 일으키고 박을 내다 보았다.

박을 내다본 나는 우리 밑에 펼쳐져 있는 서늘을 發見하고 놀랐다. 그것의는 金浦비행장도 보였다. 그때까지 나는 金浦비행장이 있다는 사실을 감하지도 있었었던 것이다. 나는 곧 항공기가 스키딩을 하도록 조작하여 힘에 겨운 신뢰를 다시 시작했다. 그러자 나는 갑자기 엔진소리가 이상하여 것을 느꼈고 이어서 「윌트」가 조종간을 조작하고 있음을 알았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는 것을 지켜보아 나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바로 몇야 일 앞의 평택한공트라트 판투르가 쓴 살갑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편찮아?」라고 나는 소리쳤다. 「燃料탱크와 로켓은 어찌했어?」

「윌트」가 나의 이러한 말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는 이미 연료탱크와 로켓을 떨어트려 버렸던 것이다. 우리는 평위를 낮게 순살같이 날고 있었다. 그때 나는 속도 계대로 못쓰고 진장하고 있었으며 선제 공격에 방의

당신의 祖國과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차한 이웃들에게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당신들을 向하여 뜨거운 기도를 언제까지나 잃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을 아끼는 少女들이 당신을爲해서 수직은 祈禱를 올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親切한 얼굴과 긴장한 체구로 해서 마음 놓는 우리네 부모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끝없이 높고 푸른 하늘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저 하늘을 生命처럼, 당신의 戀人같이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젊은이 하늘위에 있고 情熱과 浪漫이 그곳에서 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 뒤에 있는 우리들 역시 당신들 못지않게 祖國의 再建을爲해서 팔을 걷고 나서고 있습니다.

당신과 또 우리들의 피어린 努力위에 대한민국의 영원한 평화가 다가올 것입니다.

하늘의 용사들이여!

대한민국을 위해서 당신들의 훌륭한 기술과 지성과 교양으로 세계에 가장 뛰어난 空軍이라는 自負心을 가져 주십시오.

우리가라든 다너가는 外國人들은 韓國의 하늘을 얼마나 갖고 싶어합니까?

푸른 빛을 잃지 않는 하늘위에 당신이 사랑하는 비행기로 당신의 飛行을 우리에게 더 많이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늙은한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겨레의 가슴엔 기쁨이 충만합니다.

당신들의 飛行雲위에 은제나 당신들을 존경하고 아끼는 우리들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밤을 첫인저 도무지 알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러자 또 다시 「윌트」의 머리가 처졌다. 그는 다시 정신을 잃는 것일까, 처음 피쳐되었을 때처럼 되고 말았다. 나는 어찌할바를 몰라 당황한 수 밖에 없었다. 「윌트」가 다시 정신차리기를 바라면서 다시 비행을 상상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윌트」가 여전히 조차하고 있으려나 믿으먼서 그대로 있을까?

나는 조종간을 다시 잡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비행기는 땅에 닿았다. 역시 「윌트」는 비행을 조차하고 있었으며 비행을 활주로 중간에 대었던 것이다. 다시 땅에 돌아오게 된 즐거움을 하느님께 감사했다.

우리가 탄 비행기는 제대로 활주로를 계속했으나 「윌트」의 두발은 마비가 되어 피더와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없었으며 비행기는 활주로를 쓸살같이 벗어나서 지친은 들판을 돌덩이처럼 내달았고 얼마후 바퀴가 돌에 걸리면서 부러져 구름같은 먼지를 피우며 동체가 땅위를 미끄러지후이 엉고 말았다.

엔진에서는 구름같은 연기나 오르고 순간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날개위로 몸을 댔다. 「윌트」를 꺼집어 내면서 그의 바지가 피에 젖어 있음을 발견했다. 나는 두팔을 그의 겨드랑이에 걸쳐로 함께 날개위에서 끌려 떨어졌다. 그곳에서 「윌트」를 끌고 벗어나드 벗어나드 못했을때 나의 무릎이 땅을 들쳐앉았다. 그의 옆에 누웠던 나의 귀에 「마실것 좀 줘!」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실것...그 당시 얼마나 있던나의 피의는 왜든 유스름한 눈썹을 생

짜이났다. 나는 비행기에 다시 뛰어가서 물통과 망원경 그리고 지도를 가져고 돌아왔다. 돌아와 「윌트」의 무릎 유스로서 마져져 주었을때 消防車가 도착하였고 同時에 비행기에 불이 붙었다.

내가 만약 이글을 一九五一年에 썼던들이같은 하나의 비극으로서 끝냈을것이다. 나는 所屬聯隊에 돌아갔을때 「윌트」가 基地病院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傳해 들었으며 그 후 十年間 주었으려나 생각했다.

그러면 응어는난 이글을 쓰기위해 그의 出生地인 피사스의 람파사스 마을의 유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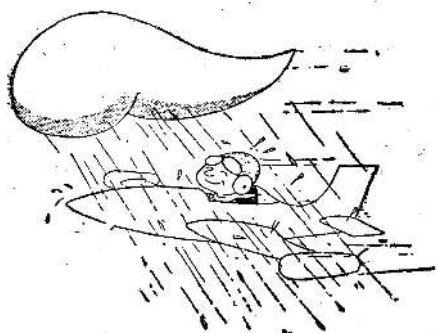
「죽다니요, 천만에요 그는 살아있읍니다. 다리를 못쓰게 되기는 했지만 그는 結婚해서 아들나운아내와 함께 살고 있으며 딸도 둘이나 되지요. 람파사스의 사람들은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답니다.」

百餘回의 戰鬪出擊勇士는 결코 五〇 미리기관포만 몇發 정도에 지지않는다는 것을 나는 그때 비로서 깨달았다. 나는 존경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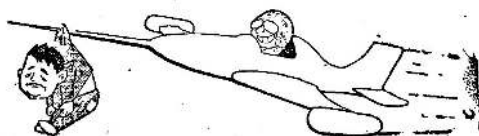
(리더스 다이제스트 六月號에서 민철웅)



한여름밤의 꿈
 관 나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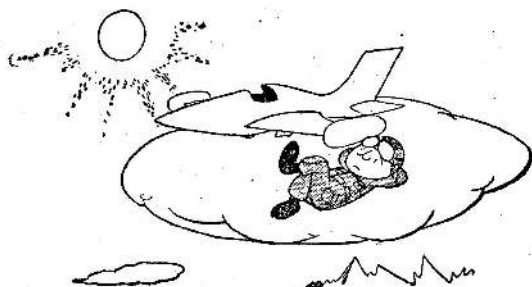
으하! 시원하다



뭐? 김일성 요놈!



「올드·미스」는 아니에요!



날씨도 좋은데 한잠 자고 가자

미사일 인생 案肉

愚問漫答

★李相昊★



問 사진만 보고 약혼을 한후 만나보니 한쪽 다리가 좀 짧아요?
 答 결혼후 같이 외출하자고 조르지않을테니 우회려 마음 편할것입니다

問 취침전에 점호만 있는날엔 꼭 자리에 오름을 싸요?

答 휴가가서 어릴때 쓰던 기저귀를 갖어다 차고 자도록 하시오



問 이발소에서 면도를 할때 여자가 해주면 마음이 이상해서요?

答 당신이 남자라는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혈압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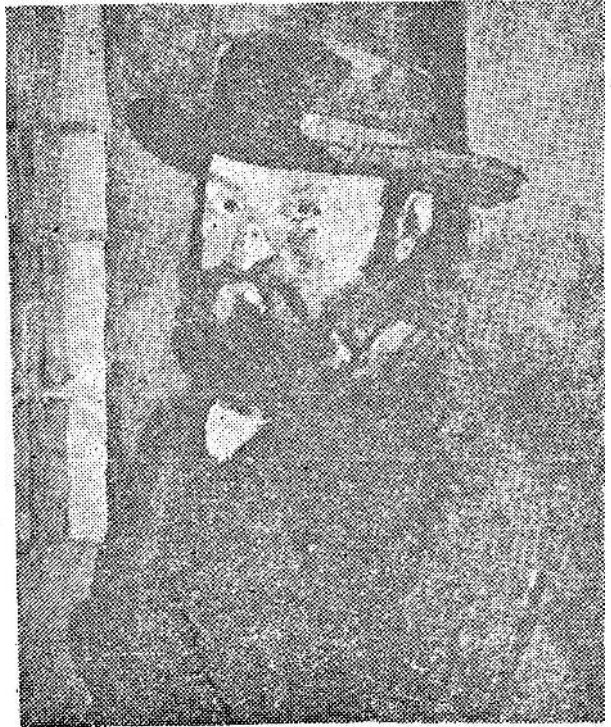
問 아침밥을 먹고 점심시간만 되면 배기또 고프져요?
 答 어머니 젓을 떨어질때 밥을먹는 나쁜(?) 습관 때문이요

宋 秉 敦

〈서울대 大教授〉

繪

畫



(自畫像 「세잔」)

오늘에 있어서 現代繪畫의 位置는 相當한 價値와 優位의 評價를 보 내고 있다. 現代繪畫이라고 하면 二十世紀以後의 모든 潮流의 思索과 行動을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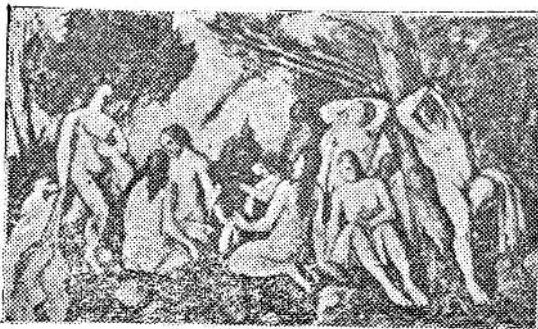
이하는 繪畫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數世紀前의 美術은 美術이 아니었다. 藝術의 美의 根本價値는 變함이 없을 것이다. 表現의 理念과 形式이 달랐고 生活의 體具와 行動이 現實로 옮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現代繪畫의 性格이다. 그래서 요즘 그림이라는 것은 예전과 다름 理致의 現代繪畫이라고 하는데 現代人이 現代繪畫을 鑑賞하고 解得한다는 것은 現代人의 矜持일 것이다. 現代繪畫으로서의 실마디를 풀어 준 것이 「세잔」이라고 하였는데 그가

發見하고 主張하는 骨子를 再言하던 畫面을 꾸며 나아갈 때에는 即 繪畫의 要素라는 것 構成·色彩·筆觸·調和等 이것들이 役割을 한다. 그리하여 이것을 自體를 잘 살리고 못 살리는데 成果의 如何가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것들 중에서 空間을 構成한 때에 物體의 量感覺은 것을 어떻게 하든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이나 筆觸에서 어떻게 하든 그 「리듬」을 韻致있게 짓을 부릴 것인가 筆觸이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말한다면 허다하다 繪畫의 재미를 맛볼 수 있는 것이다. 十九世紀의 安定된 藝術이 統一을 열 때를 뺀 것은 圓熟한 藝術이 統一을 이루고 秩序가 잡힌 中心으로 集結해서 形式을 完成하는 方向으로 나아가는데 대하여 『모던 아트』는 제 때의 傳統을 打破하고 視覺構造의 分解 形式崩壞의 길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그特徵은 銳敏한 感覺性과 造形的 構成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詩的인 幻想이라는 것도 包含시키는 傾向을 보여 주게 되어 왔다. 그리고 線·面·色彩은 그것을 自身으로서의 重要한 擔當을 해서 斷片的인 幻想과 想念이나 記憶같은 것도 새로운 內容으로 변해 가지고 나아온다. 여기에서 二十世紀가 저나고 있는 複雜한 人間感動의 表白이 있고 社會的背景에 通하는 微妙한 精神不安과 懷疑와 否定的인 混然한 表現도 잊 볼 수 있는 것이다. 現代繪畫의 創始者 「세잔」은 現代의 여러 流派를 낳게 한 根源을 마련하여 주었는데 그의 根本의 論 「自然은 圓筒·球·圓錐로 還元

해서 '그린다'라고 하는 觀察方法이 다른지 『自然은 表面보다도 自然的 深奧한 곳에서 藝術性이 成立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한 것은 自然的 對象을 基本的인 形體로 集約해서 畫面에다가 새로운 純粹繪畫性을 構築해 나아가는 態度를 밝히고 따라서 空氣의 遠近感을 色調의 變化에서 오는 意象으로 表現함으로써 여기에 追從하는 印象派에 滿足하지 못하였던 젊은 世代的 畫家들은 『세잔』의 畫業의 새로운 意義를 徹히로 理解하기 始作하였다. 그러나 『세잔』의 畫業이 眞正로 現代繪畫의 重要한 出發點이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立體派라는 運動이 일어난 그 뒤의 일이었다. 立體主義는 물론 『세잔』의 畫論을 바탕으로 하여 생긴 것은 확실한 것이다. 이리하여 그 뒤를 잇달아서 몇몇가지 流派라는지 또는 가장 現實의 世界性을 의우고 있는 抽象繪畫는 여기에서 暗示를 받았고 根源을 두었다고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뒤따라 일어난 立體主義 『큐비즘』이라는 것의 발전에 대해서는 대개 이것을 三段階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다. 第一期는 『세잔』의 影響을 직접 받아가지고 나아가는 早期 『큐비즘』의 時代인데 이時期에는 순전히 『뒤를』의 幾何學的인 單純化를 指向하여 『세잔』이 自然이 가지고 있는 모든 形體는 球의 圓筒과 圓錐形에로還元할 수 있다는 말 그대로 直線의 大膽한 導入으로 畫面의 構成을 해서 주로 對象의 要約의 表現으로 이끌고 나아가 있다. 이러한 것이 當時 青年

(上) 水浴……세잔 (下) 風景……고흐



畫家들에게 대단한 충격을 준 것은 이때의 前提를 이루 하였던 既成의 이면서 形式과 內容이 沈滯하고 거기에다가 野獸主義라는 激越한 主情主義와 二無節制한 逸脫에 대한 反動과 批判이 그들을 원기하게 하여 새롭다고 하는 主知的 傾向에로 誘導한 것인데 처음에는 오히려 세잔 『이즘』의 이름 아래에서 包括的인 『뒤를』과 構成에 대한 再認識이라는 形態로 나타났던 것이다. 『큐비즘』의 第二期는 차차로 그 성격이 뚜렷하게 되어서 一九〇九年부터 評論家들은 이때를 『思辨의 큐비즘』 혹은 科學的인 『큐비즘』의 時代라고 불렀다. 이러한 이름을 붙이고는 다음에 오는 第三期의 『寫

實的 큐비즘』과 對稱되는 말인데 이時期에는 『큐비즘』은 極히 思辨的 論理的인 傾向을 띠들어서 繪畫의 直感的인 乃至 視覺의 特質을 거반은 極限까지 抑制해 버리는 運動을 보여 주었다. 먼저 視覺의 인 表現을 어떻게 抑制하였나 要約해서 말하면 畫家가 遠近法에 따라서 物體를 透視的으로 表現하여 왔던 것을 反對하면서 즉 視覺의 印象으로서 網膜에 비치어지는 物體의 映像은 實在의 眞實한 姿態를 傳하여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床위에 놓여 있는 하나의 『컵』의 주둥이를 예로 들어 생 각할 때에 이것이 實在는 完全한 圓形인 것이지 畫家가 이것을 透視

的으로 보고서 楕圓形으로 그린다 는 것은 대단한 虛構가 아니냐 라는 說이다. 이에 따라서 『큐비즘』은 繪畫의 空間의 時間의 관계에도 根本的인 變革을 보여 주었으며 『큐비즘』의 基本的인 骨格을 明白하게 提示하는 機運을 만들어 놓았다. 이時期의 움직임의 성격적은 『큐비즘』樣式的 현저한 특징의 또 하나는 畫面의 徹底的인 平面化다. 말하면 距離感의 抹殺인 것이다. 이것은 遠近法과의 絶緣으로 하여 對象을 視覺的으로 보지 않게된 結果인데 空間의 깊이나 遠近은 自然히 不必要하게 되고 지금까지 距離의 表現에 重要한 任務를 맡았던 空氣와 光線과 明暗等의 要素가 어느 것

이나 그意義를喪失하여 모두가畫面上에서 그姿態를 감추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主要한 革新은 時間的인 關係의 變化에서 말하는 物體의 同時同存으로 表現한다는 것 다음에는 表現의 基礎를 視覺에서 觸覺으로 轉向시킨다는 새로운主張도 重要한 것이다.

後期印象派와 잇달아 나온 立體派「쿠비즘」이 그러한 立場에서 世間과 가장 對照的인 立場에서 現代繪畫으로 發展하여 높은 偉大한 畫家의 한 사람으로서 「판·고흐」가 있다. 「세잔」의 조용하고도堂堂한 藝術과는 엄청나게 동떨어진 動的인, 奔放하고 情熱的인 繪畫의 하나의 極致가 「고흐」를 통해서 보여 주었다. 銳利하고 깊은 理智的인

人間이었던 「고흐」의 作品에는 色彩에 있어서나 線에 있어서나 情熱的인 力이 「筆觸」은 畫面을 鑑賞하는 사람을 恍惚케 하는 透徹하고 밝으며 그 構圖나 畫面의 骨格이 굉장히 날카로운 神經으로 파 깨이게 그리었다는 것이다. 古典派의 深奧하고 沈靜한 藝術에 比할 때에 「고흐」의 作品은 그 날카롭고 強烈한 神經이 神經 二重이었다.

그는 항상 모진 情熱을 다하여 自由로운 理想想을 찾으려는데에 巨大한 勇무림을 한 痕蹟이 畫面의 線의 筆觸을 보아서 대강 짐작이 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勇무림이라는 述語는 現今의 抽象繪畫의 理論과 解說을 할 때에 重要한 役割을 하는 말이다. 짧은 生

涯의 最後에 이르러서 爆發한 그의 情熱은 畫面에서 불타는 火焰의 色彩와 線으로 되어서 勇武를 發했다. 「세잔」의 藝術의 主調가 堅固한 安定에 있었다고 말한다면 「고흐」의 繪畫은 그것을 거창한 流動이 넘 차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여 「고흐」의 情熱的인 色彩와 筆觸의 뒤에 숨어 있는 것은 眞實과 嚴格한 美의 結晶體와 構成이다. 前記한 「세잔」과 「고흐」의 繪畫의 要素가 그 후 모든 流派를 거쳐서 現代繪畫에 끼친 影響은 큰 것이다. 立體主義가 亦是 그러하였다는 것도 主體가 지이다. 理 解와 鑑賞하기 困難하다는 現代美術에 있어서의 特別 抽象繪畫에 對 是 繪畫鑑賞法이라는 것이 있다.

音 樂

李 成 三

〈音樂評論家〉

기초樂式(Fundamental form)

音樂을 鑑賞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은 樂式인 것이다. 樂式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樂曲의 구미진 形式을 뜻하는 것이다. 이 樂式에 關係 初步者에게 있어서 는 미구나 제한된 紙面으로서 는 說明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대략 기본적 인 몇 가지만 추려서 樂式이 어떻게 는 것만을 적어 보기로 한다. 基礎的인 樂式은 음악형식에서 單獨으로 이루어진 한개의 獨立된 形式이다.

그밖에도 應用形式(Applied form)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獨立된 樂曲을 몇 개 모아서 만든 형식이다.

이 應用形式이야말로 樂曲중의 서 가장 복잡한 것이며 水準이 높 은데 그 代表的인 作品이다. 그것은 소나타(Sonata)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동기(Motive 動機)

음악의 구조에 있어서 가장 적은

獨立된 單位가 △동기△이다. 그런 데 이 두개의 동기가 모여서 작은 마디(小節)가 成立된다. 말하자면 四小節의 길이 인데 이것을 앞 작은 樂節이라 부른다.

이 작은 樂節二개가 연결하여 八小節을 이루는데 규모가 작은 樂曲은 이것으로서도 獨立할 수 있다.

비리듬(Period 段落)

비리듬은 八小節로 된 樂曲인 데 큰 樂節을 말한다. 여기에 그 위치로 十六小節로 된 樂節은 二개의 △비리듬△로 되어 있다.

樂曲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樂句를 테마(Theme 主題)라고 한다. 그런 때로 樂曲의 처음에 前奏

映 畫

金 奎 一 東

〈映畫評論家〉

※ 영화도 땅위에 사는 사람이 만든다. 다만 불리우기론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 뿐.....

A. 허미올트의 美人映畫

영화에 있어서의 「네오·리얼리즘」은 사실상 「리얼리즘」의 「메스」로 본 「스토리의」 구성 구성을 과학적이고 여기 비쳐주던 따뜻한 빛을 아

면적 말한 바와 같이 그저 보고 친하여 주는 것이 第一이라고 하였는데 구미어 理論을 한다며는 後期印象主義의 「세잔」과 「고흐」以外的의 여러 作家의 主張을 비롯하여 立體主義에서 主張하였던 것을 밀바탕으로 해서 現代에 우리 나라에서 盛行하고 있는 여러 流派의 作品이 展 示되고 있는 것까지도 살펴 보는 것이 鑑賞이 쉬울게 되는 것이다. 紙面關係로 抽象繪畫에 對해서 는 여기에 따르 말할 수는 없고 이것도 時代의 潮流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時間은 흘러서 이것도 이미 새로운 모습을 가추고 나타나고 있으며 모든 造形藝術의 形態는 앞으로 어떠한 姿態로 나타날 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의해 作曲하여 풍부한 幻想을 지닌 曲이다.

八. 八인 形式의 樂典
소나타(Sonata)

앞서 소나타 形式의 大하고 言及 한바 있거니와 소나타와 소나타 형 식은 다르다.

소나타는 器樂曲중에 주로 獨奏 曲으로 지어진 形式이다. 소나타 形 式은 대개 四樂章으로 되어 있는데 例를 들면 <피아노 소나타> <바이 올린 소나타>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 소나타의 제 一樂章에 는 <소나타 形式>을 쓰는 것이 필수 조건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二개 의 段마를 가진 형식인데 大하고 의 段마를 <엘마누엘 파하>의 4개의 의 해 지어졌으며 <하이든>의 나 타 나이를 완성시켰다.

하이든은 이를 四樂章으로 확립 시켜 현악을 위하의 交響曲을 만 들었다.

또한 <현악 四중주>와 <피아노 三 중주> 曲등을 작곡 하여 室內樂曲을 지었다.

소나타(Sonata)

- 제 一樂章 快活안장 <소나타 형식>
- 제 二樂章 느린안장 <자유스런 三 부형식>
- 제 三樂章 <미뉴엣> 혹은 <스칼로 > 모서 제 三부 (Trio) 형식
- 제 四樂章 프레스토 라보 (Rondeo) 형식

위에서 말한 樂曲의 외에도 자 제 로운 曲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을 추려서 설명한다.



콘서트(Concerto 協奏曲)

흔히 <바이올린 콘서트> <피아노 콘서트> 이렇게 말하는 데 이 曲은 하 나 혹은 둘 셋의 獨奏樂器와 管絃樂 을 위해 作曲한 樂曲인데 獨奏者의 演奏技巧을 나타내기 위해 작곡되어 있다. 그 形式에 있어서는 소나타 形式인데 三樂章으로 된 것이 많다.

그런데 소나타 형식이 再現部의 앞에서나 <코나 結尾>의 앞에서 <피마>에 기초를 둔 自由스런 기교 적인 獨奏者만이 연주하는 카덴자 (Cadenza)가 있다.

교향악(Symphonic poem 交響詩)

이 曲은 標題音樂의 중요한 종류 의 하나인데 交響의 또는 詩的인 의



「史上 最大의 作戦」(노루만디 上陸 作戰) ↑

을을 교향관악에 의하여 나타내 려고 한 것이다.

이 교향시는 十九세기의 낭만파 음악 이후에 생긴 音樂이다.

희곡(Swite 組曲)

이 曲은 한개의 獨立된 빛가지의 曲을 모아 놓은 曲이다. 그런데 이 모음곡은 大樂章의 기악 형식으로 서 <고전 모음곡>과 <근대 모음곡> 등 두개의 종류로 구별할 수 있다. 古典組曲은 빛가지의 舞曲을 같은 調에 통일시켜 모아 놓은 것이 고전 代組曲인 自由스런 形式에 다 嚴格한 규칙이 있다.

본문 標題樂으로 作曲되어 있는 曲은 수 많은 것은 <무용 모음곡> <무 도 모음곡> 등이 있다.

춤(Dance Music)

이 곡은 춤을 위해 지어진 樂曲인데 오늘날에 와서는 반드시 무도만을 위해서 지어진 曲은 아니다.

나와 있기는 하나 작품이 노르만 「플로트」가 천연 빛이나 있다.

물론 「메·사르스」는 「베오·리 얼리스트」중에서도 옛날부터 일종의 「페로·트라마」파였다.

<황야의 포옹>에서나 <애정의 환>에서나 간에 그는 맹영화나 황극재 인 연극에서의 효과에 몹시 머리를 쓴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그를 가리켜 「메·시이 카」나 「뭇세리나」와 같은 의미에서 「베오·리얼리스트」라고 부를 수는 없다.

특히 그의 <연애시대>라는 작품 에 있어서는 「마리나·부라디」들의 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작이 드러 나고 있어 시기에는 「스타아·씨스 텐」에 불복한 이바리 영화의 손 든 자취가 명백히 엿보인다.

비평가들은 말하기를 「이바리」의 농민 속에는 「마리나·부라디」나 「마스트로안니」와 같은 스타트한 미 남미녀가 아파 적지는 않았지만 그 령다 하더라도 그들을 전형적인 농 민 타입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이라고 말한다.

전년도 「베오·리얼리즘」시파의 「이바리」 영화라고 한다면 「타 입」의 더 후내음새 나는 배우를 썼 을 것이 임의 분별하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견해다.

우리나라에도 들이안자가 이피수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가말(하녀) (河 女)의 처녀 작품에도 「베오·리얼 리즘」과 「스타아·씨스텐」의 기교 한 결합인 것이라는 것을 그 영화

물론 사람이란 다 알게 될 것 이다.

가보티(Gavotte)

이것은 17세기의 프랑스의 舞曲인데 보통 4박자이다. 이것은 4박자의 시작부터 시작하게 된다.

사라반드(Saraband)

스페인인의 옛 춤곡인데 5박자 속도가 느린 슬픈 舞曲이다.

지그(Gigue)

이 곡은 6박자 혹은 8박자의 옛 춤곡인데 古典의 組曲의 마지막樂章의 쓰인다.

두일에서는 바이올린을 가이게(Gigue)라고 부르는데 이 악기로 연주하면 效果의 이라고 하는데서 이 곡의 이름을 붙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탱고(Tango)

탱고는 본시 스페인에서 시작하였던 2박자의 춤인데 <하바네라>와 같은 계통의 음악이다.

이 곡이 남아메리카 식민지의 여러 나라에 두루 퍼졌던바 <알젠틴 탱고>가 하나의 큰 스타일을 만들었다.

한편 이것이 남아메리카로부터 獨逸의 진디가 <콘스탄타르 탱고>라는 독특한 아름다운 스타일을 만들었다.

폴카(Polka)

16세기의 <폴란드>의 궁정의 의식과 행렬 때의 사용하여 발전한 민속적인 무곡이다. 3박자인데 좀 느린 속도이다. 소량은 이를 예술적으로 인형식으로 발전시켰다.

폴카(Polka)

1830년경에 보헤미아(오늘날의 체코) 지방에서 발달하여 급속도로 전 유럽에 퍼진 2박자의 무도무곡이다.

여기에는 빠른 것과 느린 것, 그리고 아르카의 리듬을 가진 형태 등 세가지로 크게 나뉜다. 모두 3부본형식이 보통이다.

볼레로(Bolero)

스페인인의 대표적인 민중무용인데 1780년경 무용가 <세레스>라는 이가 시작 했다고 한다. 3/4박자의 <카스타넷트>의 반주가 붙은 무곡이다. 이를 연주용으로 작곡한 이로서 라벨(Ravel 1875-1945)이 있다.

마주리카(Mazurka)

폴란드의 농민의 춤과 노래인 것이다. 16세기에 이르러 舞曲이 되었다. 3/4박자 혹은 3/8박자의 곡인데 탱고가 좀 빠르며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런데 <프로페스>는 귀족적

인 舞曲인데 反하여 <마주리카>는 농민의 춤이며 그 벨로디나 리듬은 단순하며 소박한 맛이 있다. 소량은 5/4박의 예술적인 마주리카의 피아노곡을 작곡하였는데 그것은 都會地적인 기분에 차 있으며 <사롱>을이라 할 것이다. 이 곡의 속도는 보통인데 제 1박의 부정 단음과 제 3박의 악센트가 있다. 그런데 이 춤은 본래 손뼉을 치고 뛰면서 하는 舞曲이다.

미뉴레트(Minuet)

16세기의 프랑스에서 시작한 3/4박자의 무곡이다. 古典派 음악에서 누워된 곡이며 또는 한 인장이 된 것이었다. 여러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8조절의 반복으로 되어 있으며 중간부가 Trio의 三部分형식인데 <하이든>은 이를 교향부에 사용하였다.

그밖에도 여러 종류의 樂曲과 舞論이 많이 있지만 紙面關係로 이만 그친다.



「暴力街」의 한 場面↑

여기서는 농촌이 아니라 미꾸라지 통조림 공장에서 일하는 부인 노동자가 주역(主役)을 맡아 보고 있다.

그 공장 안에서 여인네들이 모기 기류에 물려서 일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우리들의 코에 그 내음새가 풍겨 올 정도를 그려 그려 적었다.

그러나 주역의 <쓰러져> 로오엔은 인제나 어느 장면에서도 아를 담게 그려 적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그녀가 마지막에 개천에서 갈매를 배는 장면도 결코 생활의 쫓겨남을 의미 없이 그려 적었다. 동주부로서가 아니라 <씨나리오>라 이터나 잡목이나 카메라멘들은 될 수 있는대로 그녀의 멧들어진 유체를 관개에게 노출시켜 가는 데는 불모고 있다.

진장화(長靴)를 신고 밧줄의 진수건을 마리의 휘갈게 하여 그 두 본장의 많은 관개의 눈울 끝 도둑함의 전력을 기증했다.

아무리 적실한 가난이나 노동이라 해도 좀처럼 그녀를 놓지 않고 락제하지는 못하는 본장(扮裝) <하디>에 나오는 <소피>·<로오렌>은 인제나 <활터의> 화장선의 서나오는 여자처럼 후렛수하고 아를 다와서 남자의 마음을 끌고 있다.

<수전지대(水田地帶)>의 관해서 도둑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애정의 황>과 마찬가지로 <지르부>이며 <미자지대(米作地帶)>의 풀밭이 노동할 그리고 있지만 그 노리는 것은 주로 <에르차>·<마르티네리>의 비명을 팔아 떠난다.

이 작품은 <애정의 황>과 마찬가지로 <지르부>이며 <미자지대(米作地帶)>의 풀밭이 노동할 그리고 있지만 그 노리는 것은 주로 <에르차>·<마르티네리>의 비명을 팔아 떠난다.

대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 미완 영화는 한때의 비오·리 일리만큼 없었지만 장면 생자도 못했 을 것이므로 그 묘사에 있어 배경 이나 환경은 아울러 그로써는 기법 은 미미한 완성도 못 얻었을 것이다.

이 미완의 「메모·드라마·필름」의 까지도 그림자를 남기고 있다고 보 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그 중심이라고 일컫을 만 한 「수전지대」의 사회적 「테마」의 관해서는 슬머시 「키」를 볼 때 비 어 달아둔 채로 작품세계의 도어를 잠겨진 채로라는 것이 아마도 불쾌 인가 한다.

이들의 면 「아메리카」 영화의 경 우와도 같이 「메모·드라마」와 성 (性)을 밝아 버리려는 데 볼트트를 겪어 기울여 버리고 있다. 여우(女優)들에게 풍부한 살가슴 이나 아름다운 다리를 노출케 하기 위해서 누누드 사진적인 포즈를 취하게 하는 선전부의 상투 수단을 「아메리카」에서는 치이즈 파자라고 부르는데 모양이다. 필자는 「하녀(河女)」와 같은 작품 을 볼 때마다 그러한 치이즈 파자, 다시 말하면 「피오·리얼리즘」이 치이즈 파자 속의 아치도 그 일진술 뿐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B 「스타아」 「피터」의 미완성

한 「스타아」가 얼마 안 가 될 하지 않아도 화면의 나타나자 관객들의 게 이션(인상과 예감을 느끼게 하는 것) 은 「타인」이 시사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대에서서는 어느 정도 「타인」의 끝이 「메리」들의 분장이나 기타의 기술로써 속의 필연 수가 있지만 영 화에서는 그것의 잘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메리」라는 것은 「타 인」에 따라 「스트림」에서 할 때 영의 대개 좌우되어 결정케 되는 것은 거 의 상식이다.

예를 들면 「에드워드·G·로 빈스」은 흥악한 인상을 가졌기 때문 에 옛날부터 언제나 경영화에만 출 연하였다. 그러나 그는 배우 인기를 참하르 르 그만한 타인관으로써의 배우의 정저에 머무르지 않고 선량한 사람 이나 역사상의 이름 높은 위인으로 써 분장하고 나와도 어김없이 성양 했던 것이다. 그러나 실연을 하루 갈이 약한 여만 도 말아 하는 배우도 결코 적지 않은 수에 오르기도 있다.

또한 신진 여우 속에는 연기력은 별개로 하고 다만 아디라일이 무척 가 있어 보이는 타인의 인성도 의 팔 라기 시작할 「로오렌·바클」과 같 은 스타아가 있고 또 비천한 하루 계급의 아가씨다운 친근감을 자아내 는 타인으로써 인기를 끈 「할·에리 슨」과도 같은 여우도 우리나라 관객들 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무저음 느꼈을 수는 여우 가가 남편 아가씨의 달콤한 느꼈을 없지않은 아가씨여울한다거나 하면 저기의 무리가 생겨나는 법이다. 그러므로 하루계급 아가씨 타인의 여우가 하루 아침에 갑자기 부호 의 미망인(未亡人)의 여울 받게 되면 잘 해 낼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와같이 일반적으로 스타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타인」이다. 그러나 「타인」에만 머무를 쓰르린 고 있다면 말아를 배역의 범위도 좁 아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무손(無) 이든지 손쉽게 해 치우 수 있는 연 기에 도달되어 있잖으면 안 된다. 여기의 배우가 명심해야 할 지점 (地點)이 있다.

「에드워드·버너드」는 「허리 움」에 오기 전에 이미 「스웨덴」 영화 제의 스타아로서 이름이 있었지만 카 탸으로 불려만 연기력을 자랑하고 있었다. 아메리카로 옮겨온 뒤의 작품은 처음부터 작품의 출연할 때마다 다 다른 성질의 배역을 떠맡아 했 전 것이다. 대개 최초의 하나의 타 임으로서 인상과 인기를 얻으면 후 히 그것의 그 스타아의 생명이 되어 당분간은 거의 비슷비슷한 배역을 맡아 하게 되는 것이 상례이기도 하 다.

이것은 본인이 배우의 눈이 어두 운 제작사의 책임만은 아니다. 우리가 영화를 감상할 때 「스타 아」의 타인을 규정해 보는 것은 영 화의 대한 안식을 높이는 데 크게 도 유효하다.

C 「스트림」의 감독과 영화

말할 것도 없이 영화감독은 영화 를 「필름」의 위나 타라고 그러려는 직접적인 인의 전체적인 윤곽을 잡 고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스트 오 디의」 「이퍼저」를 관리하고 표현해 내는 사람을 가리켜하는 호칭이다. 영어로 「디렉터」 「디렉터」(Director)라고 것

이 이 감독이다. 「스토오리」 「극적(劇的)」이라 하 여져야 하고 자색본(자본)(Scenario) 아메리카에서 극(Screen play)과 촬영(撮影)의 두개가 된다.

이 자본에서 다시 촬영할 장면의 로 촬영이 나누어 지고 하나하나의 표현 대상(이메이지)에 대한 카메 라의 각도(角度)와 위치 같은 것을 평택하게 잡아주고 이들의 움직임 을 발전하여 정한 촬영의 각 「관 티구르」(Continuity 또는 Shooting-Script)가 만들어진다. 촬영의 관 은 「스크린」에 그려져서 영화는 그 대로 글자로서의 불규칙이라고 생 각해도 좋다.

이 자본을 한 손에 들고 감독은 촬영 현장에서 여러가지 부분을 지휘 하고 제작자의 장면을 찍어서 하나 의 줄거리의 일맞고 효과적인 이야 기로 서는 다. 배우의 연기에 대한 지도 「선」의 취급, 광선의 사용, 이 밖의 모든 효과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나타 내기 위해서 촬영자와 기타의 전문 가들과는 하고 명명한다.

이러자니 엄밀한 의미에서 감독 은 어떤 구성의 대한 회화적(繪畫的)인 감정이다 그 기법(技法)을 알아 야 하고 음악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하고 또 시적(詩的)인 「에모오션」의 세계에 대해서도 문맹이어서는 안 된다.

콘티뉴티(대본)뿐만 손에 들고 대본 그대로 만든다고 하나 감독은 자기의 연출개성(演出個性)에 아무 래도 좌우되지 마련인 것이며 그 때 본을 붙이고 써서 쓰기도 하는 것

이므로 결국 그의 의지에 따라서 화
면이 처리되는 것도 사실이다.

대개 영화가 처음 정한 대로의 스
토티카 그대로 영화가 되어나타나
지 않는 수가 없다. 「스토리」
가 자신의 모양을 갖추기까지는 투
히「아메리카」같은 데서는 의해서
사람의 손을 거치게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처음 생각했던 착상과는 아주
다른 것이 되는 수가 종종 있다.

처음의 「스토리」에서는 젊은이
였던 주인공이 자본에서 한 학년이
로 바뀌어지고 남성이었던 인물이
여성으로 바뀌어지는 수도 흔히 있
다.

말하자면 「스토리」란 자본을 꾸미
기 위한 계기가 되는 것이 그치는
것이므로 힌트가 되면 그만큼 이야기는

映畫用語解説

구도(構圖) (Composition) 영

화의 화면에 있어서 구도라고 불
리는 것은 한 샷트의 화면의 구성
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한계 안의
서는 다른 조형예술(造形藝術)
예를 들면 회화(繪畵)와 같은 미
학적 원칙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
이지만 현재의 영화의 본질에서
말한다면 샷트의 구도는 그것의

정도가 고작인 것 같다.

유명한 소설을 영화화하는 경우
에 있어서는 그 소설의 줄거리를
으로 보며 주자는 것이 중요한 무
죄인 것이므로 전연 그 소설과는 판
관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
도 사실이고 소위 내리선 자본, 주
영화를 위해서 처음부터 자본으로
써 그 속의 「스토리」에 있어서도
변경은 채택되는 수가 있다.

그리하여 이런 과정을 밟아 이후
의 진 것이 「문티뉴티」이다.
그러나 이 촬영 때 본마져 다시 감
두의 손에서 지워지고 또 침부(添
附)되어 채수정되는 「케이」 「도」 일
마든지 있다.

그런데 무성영화(無聲映畵) 시대
에는 대본도 없이 그냥 현장, 현장
편집되는 영화의 목적의 종류와
는 것이다.

한 샷트 자신의 화면 구성은 특
자적인 목적을 가질 수 없다. 그
리므로 어떠한 샷트의 화면은 영
화 전체의 목적과 유기적인 연관
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어떤 실명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
는 것이다.
조형미만 추구하는 화면이란 있
을 수 없다.

의 「인스피레이션」에 따라 찍은 때
도 있기는 하다. 오늘날의 와셔도
〈전화(戰火)의 저쪽〉이나 〈무방비
도시(無防備 도시)를 만드〉 로렌트·루셀리나 같은
사람은 대본을 안쓰는 것으로 퍼
들서 하도 말성이 되는 수가 많다
는 이야기다.

그것은 돈만 사람이 그만 의심
스피릿(스피릿)의 자이에 일
어나는 말실연(말실연).....
〈조오·파스타나크〉라고 하는 게
작자가 있다.

이 사람의 영화는 소녀를 주인공
으로 한 부드러운 분위기의 것이 많
다.

〈피어나·다아빈〉의 〈천사의 동
산〉이나 일마전에도 유리나라에서
상연된 바 있는 〈오케스트라의 소녀〉
나 〈마아가레트·오브라이엔〉의 〈백
만인의 음악〉 같은 것이 〈조오·파스
타나크〉가 만든 작품들이다.

이와같은 영화를 본 사람들은 영
화 전체의 흐름에 있어 어디가 서로
비슷한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파스타나크〉의 경우는 언제
든지 그의 휘미에 어울리는 〈헬리
코스타〉라고 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부게하고 있다.

그래서 표면만 스쳐본다면 어느
영화도 〈헬리·코스타〉라고 하는 것
은 감독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같은 부드러운 기분이 넘
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이지
만 사실은 〈파스타나크〉와 〈코스타〉
의 공작에서 비롯되는 것이 사실인

모양이다.

이것은 일례(一例)에 지나지 않
지만 〈부르주아〉 속에는 저부활구를
전문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대규모적인 영화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 실정이다.

또 〈법죄〉를 주제로 삼은 작품만
노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희극만 기
회하는 사람도 있다.

〈아아서〉 원제 무대 음악극의 가
곡작자로서 유명했던 판제로 영화
음악에만 열중해서 만드는 것들을
나타내어 이별이 높다.

〈프린트〉가 만든 작품들은 우
리나라에서도 수입되어 호평을 받
은 것으로서 〈파리의 아메리카인〉
이 있고 이 밖의 〈벤트·해군〉과 같
은 작품이 그가 또한 만든 것이므로서
유명하다.

〈드아티·샤리〉라는 「부르주아」
는 작은 돈으로 또한 명판이 자
자하고 〈스탈리·크레이어〉라는
제작자도 〈스탈리〉와 같은 작품을
위시르 이른바 문예작품을 기획하
는 것으로써 이미 이름을 떨쳐내려
왔다.

그가 만든 유명한 작품 〈케인호
의 반란〉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나라
에서도 상연된 바 있지만 이것만 하
더라도 다른 제작자들은 감히 손도
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열두의 두지
도 못할 것이었다. (끝)

渡洋航空時代來到

<航空發達史> ⑤

K · 나 이 트



美空軍의 아버지 및總將官

一九一八年大戰終結과 더불어 미국항공은 특이한轉換을 하였다. 승리에貢獻하고 새로운 항공시대 到來에 활약한 많은 조종사들이 軍用船艇으로 돌아왔다. 이들 청년들의 대부분은 歸國하자마자 軍服을 벗고 그들이 새로習得한 非凡한 기술을 살릴수 있는 일차리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은 아직도 새로운 항공시대가 일어나 日常生活에 영향을 줄수 있는 가를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였다.

비행기가 전쟁에서 중요한 役割을 담당하는 것은 증명되었으나 일반 시민들은 이것이 평화를 위해서 利用될수 있다는 것은 거의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勝利와 더불어 정부는 공군 부대를 바로平時規模로 축소할 것을 결정하고 陸海軍은 定員制 때문에 조종사를 少數人 밖에는 收容할餘地가 없었다. 多數의 正規 특히 시대에 뒤늦은 騎兵部隊의 陸軍將校들은 비행기 부대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 인식하였기 때문에 비행부대로 轉向해 가는 사람이

많았다. 一生을 軍務에 바치고 있는 몸으로서 그들의 身分이나 階級을 維持함에 어떠한 移動을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다른 軍務에서 轉勤해 온 이들 將校들은 그들의 비행 교관이었던 少數의 大戰時 조종사들 보다 훨씬 上位의 계급을 차지하였다. 이들 實戰經驗도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음 二十年간의 軍航空政策이 말려지게 된 것이다.

陸海軍을 합하여 이제 는 保有機一萬架를 넘고 다시 增産態勢의 戰時生産方式이 採擇되고 있었기 때문에 引渡가 끝날때까지 많은 비행기가 생산되었다. 政府所有機 가운데서 練習機의 供給過剩이 일어나 주로 「카티스 제니機」가 剩餘分으로서 일반에게 賣되었다. 戰時中の 조종사였던 사람들은 다시금 하늘에의 강렬한 鄉愁을 느끼고 또한 平和를 요구하였던 비행을 맛보고 싶은 欲求에 사로잡혔으며 혹은 戰後生活에 불안정을 느낀 사람들은 이 贖買 비행기를 사들였다. 그러나 그것이 生計手段으로 利用하기에는 不安定한 것임을 얼마후에 깨달았지만 시골의 無牧牧場에서 떠서 旅客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都市에서는 날개 위를 걸어 다닌다던지 落下傘降下等 曲藝師業을 하는 비행사도 있었다.

항공기 제조업자들도 아주 一變하 새로운 事態에 서게 되었다. 市場이 좁아졌을 뿐 아니라 전에 해결을 보지 못하였던 많은 設計上의 문제에도 直面하고 있었다. 그들이 비행기에 관해서 未開拓의 많은 가능성을 공표하는 것은 당연하다치고 우선 속도를 비롯해서 航線距離, 高度, 安全性 등을 增

大하도록 자꾸자꾸 改良하여 進進하게 되었으면 안되지였다. 航空勤務는 아직도 시험적인 先導者의 段階였다. 一九一九年二月 토마스·모스陸軍 追擊機는 時速一六四마일의 속도로 미국 신기록을 수립하여 四月末에는 F-51-L 型機를 조종한 해군 조종사가 二〇시간十九분의 滯空世界記錄을 세웠다. 그리고 九月까지에는 로만트·루우스가 카티스·와스푸機로 高度記錄을三四,九〇〇피트까지 올렸다. 航空郵便을 나르는 試圖도 各地에서 일어났다. 자기가 설계한 水上機로 일리암·보잉은 방쿠버에서 씨아틀까지 最初의 미국·캐나다간의 輸送으로서 第一種郵便 六十袋을 空輸하였고 미국 郵政省은 一九一九年五月十五日에 시카고와 크리보랜드 사이에 항공우편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大陸橫斷 航空郵便業務는 一九二〇年末에 겨우 개시되었던 것이다. 항공우편의 수송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戰時中の 비행사는 겨우 직장을 얻을수가 있었는데 대다수의 사람은 비행사가 되는 것을 斷念하고 다른 직업을 찾았다. 엠티·윅켄박카大尉는 자동차 제조를 시작하였으며 다른 사람도 항공보다는 보다 보편적인 일차리를 찾아 갔다.

大洋橫斷의 開幕

海軍은 飛行艇에 큰관심을 가지고 信賴하고 있었기 때문에 一九一七年末에는 大洋橫斷飛行을 할수 있는 四發飛行艇을 제작하여 海上輸送에 심각한 威脅을 주는 潛水艇을 驅逐한 목적으로 발전 시킬려고 생각하였다.

이 비행정은 完成이 늦어서 본래의 임무를 수행할 수는 없었으나 海軍省은 性能을 立證하기 위하여 大西洋橫斷의 시험비행을 결정하였다.

그의 같은데 「런던·테일리·메일」紙는 미국本土에서 영국까지 최초의 無着陸飛行에 대하여 만물있던 賞金制度를 다시 設置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四組로 編成된 영국인들은 벌써 非公式으로 뉴파운드랜드 島 峯트·손에 모여서 이 광대한 峯山 두 성이인 海岸線에서 離陸에 가장 적당한 지점에서 宿營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해군은 이 多大한 위험을 수반할뿐 아니라 주로 人氣를 끌기 위한 이와 같은 企圖에 찬가할려는 意思는 전혀 갖지 않고 있었으며 본격적인 준비를 개시하여 大西洋橫斷을 決行하려고 하였다. 즉 六十八隻의 驅逐艦이 大西洋을 五十마일 間隔으로 哨

戒에 당도 五隻의 戰艦이 橫斷飛行으로 계속된 N.C.型 飛行艇 三臺 N.C. 1, N.C. 3 및 N.C. 4에 無線으로 天氣豫報를 보내기 좋은 位置에 배치되었다.

존·타우워즈 海軍中領 指揮下에 各機마다 六名의 搭乘員을 태우고 一九一九年五月十六日 뉴욕의 록웨이·비치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十日後에 이들 三臺는 비행정이기 때문에 陸上滑走路는 不必要하여 뉴파운드랜드의 트레파시灣에서 바다쪽으로 띄웠다.

단번에 영국까지 비행할 생각은 하지도 못하였다. 먼저 아조레스 群島까지 날고 물류장의 리스본에서 仲繼한다음 마지막 비행으로 잉그랜드의 푸리마스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었다. 폭풍우를 아치는 暗夜를 그대로 高度千피트를 유지하면서 비행하고 있던 三

臺는 얼마후에 相互연락이 끊어졌는데 약十五分후에 굉장한 惡天候와 싸우던 N.C. 4號機는 아조레스 群島의 울타灣內에 着水하였다. 僚機인 나머지 두臺는 不運하게도 N.C. 1號機는 大破하여 海上에 不時着하여 搭乘員들은 貨物船에 救助되고 한편 타우워즈少領의 N.C. 3號機도 破損되어 울타灣內에 激浪수에 不時着하여 폭풍우의 바다와 싸우면서 五十時間이나 절려 아조레스 群島 폰타·델가다灣에 겨우 다달았다.

그런 가운데 영국인으로 구성된 參加組의 하나인 하리·호카와 마켄저 구리브의 一團은 設備을 갖추자 미국인패들을 이끌고 뉴파운드랜드 島에서 스페인製 陸上機로서 출발하였다. 그들은 얼마안가서 소식이 끊어지고 행방불명이 전해졌으나 五月二十六일에 비로소 和蘭船 메리號로 부터 엔진고장으로 추락된 비행기 破片을 타고 漂流中인 두사람을 救助하였다고 알려 왔다.

무시무시한 大西洋 惡天候에 시달렸지만 이해 여름의 橫斷飛行 試圖에서는 人命의 손실은 없었다. 미국 해군이나 영국군은 비행기를 잃었지만 조종사들은 무사하였다.

미국 해군이 三臺中 유일의 生還機였던 N.C. 4號機는 약 천후 때문에 지연된 끝에 리스본으로 날라 이어서 五月三十一日 三, 九三六마일의 비행을 끝내고 푸리마스에 도착하였다. 現代水準에서 볼때는 이 기록은 빈약한 것이지만 大洋橫斷飛行을 遂行한 최초의 飛行艇이었다.

전에 王立飛行團에 복무한 바 있는 두 사람의 영국인 존·올콕크 대尉

와 英國國軍에 복무하였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放棄한 아더·윌트슨·부라운中尉는 고심 끝에 윌트스·윌머爆擊機에 다완전한 준비를 갖춘 改造型으로 센트·손을 출발하였다. 北大西洋의 典型의 惡天候와 十六時間이나 싸우면서 아일랜드에 다달아 陸上着陸場을 發見하고 가스가스로 착륙하였다. 그런데 착륙한 곳은 濕地였기 때문에 乘務員은 무사하였지만 機體는 大破되었다. 이 두사람의 비행사는 최초로 大西洋을 無着陸 비행하여 메일리·메일紙의 賞金一萬鎊의 受賞者가 되었다.

이 해에 이밖에 大西洋橫斷飛行을 企圖한 사람은 없었는데 一九二〇年一月에 뉴욕의 유명한 料理店 라파이엇 및 부레보이트의 주인으로 불린 사사람인 레이몬·윌터는 뉴욕과 바리 사이의 無着陸飛行에 처음으로 성공한 사람에게 二五,〇〇〇鎊의 상금을 주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와같은 賞金提供도 그 당시로서는 그 따위의 驚게획은 미친 수작이나 다름없다고 해서 거의 주목을 끌지 못하였다. 당시 제작되고 있던 비행기의 航續距離를 考慮에 넣고 또한 設計中에 있는 것을 생각해보더라도 前年の 참가자가 경험한 大西洋의 거주는 天候狀態를 생각한다면 이와같은 상금은 장래에 보더라도 장비가 훌륭한 모험자들을 위하여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들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 무렵 다른 事件이 일반의 주의를 끌고 있었다. 戰後 미국에 돌아온 비리·밋첼大將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이번 전쟁의 결과 모든 전쟁의 영원히 끝났다고 믿고 있는 것에 찬성하

航空欄에 依戀 軍艦擊破의 可能性이 實證되어 成功이 立證되었다.



저라고 오히려 전쟁의 쓰라린 경험에 서 인은 교훈 특히 可恐한 航空兵器 와 그防禦對策의 중요성을 일반 사 람들이忘却한라고 하고 이면적의 상 당히 傷心하였다. 그는 陸軍參謀本部 안에서까지도 반대가 많았음에도 불 구하고 공군을 강화할려는 운동들을 발 발히 전개하였다. 그러나 反對派들은 강력한 航空界以外的 사람들과의 支持 를 받아 당시 議會에서 지배적이었던豫算削減 動向에 酬應해서 완전히 세 력을 잃고 있었다. 그리고 이 論爭은 몇몇大將이 海上의 如何한 戰艦도 공 중에서 겨침할수 있다고 言明함으로써 海軍에 挑戰狀을 提示하여 항공전 력의 偉力을 誇示하였을때 드디어 頂 點에 이르렀다. 이 결정적인 論爭點 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해군에서射擊訓練으로 취했을것은 예정이었던舊 獨逸海군의 驅逐艦 巡洋艦 戰艦各一隻가운데 그 어느것을 목적기 標 的으로 제공해 출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다시 공군을 陸海軍에서 완전히 分離하여 對等한 組織으로 할것을 주 장하여 오랜 歷史를 지닌 陸海軍의 軍 人들을 激怒케 하였는데 이 論爭에 인 제나 기를노릇을 하던 신문이 그의持 論을 支持하였다. 해군은 그의 主張 하고도 지나친 聲위를 몰려주기 위하 여 드디어 목적기 標의 同意하였다. 數週間의 激烈 목적기 標의 論戰에 一九二一年七月三十一日 미첼이 손수 저 취하는 新마틴型機를 포함한 비행기 열대는 버지니아州 당그레이 필드의 基地에서 標的艦이 碇泊하고 있는七 十五마일 海上을 항해서 날라갔다. 최초로 공격을 받은 독일구축함은十 九分만에 擊破되어 물속으로 沈沒되

었다. 數日後 巡洋艦 후랑크홀터는 발 침의 輕爆擊에 依한 集中攻擊에는 어 렵게 견디어 냈으나 뒤에 六百파운드 爆彈十五發의 直擊彈을 맞고 大破하 여 三十五分만에 침몰하였다. 三十一 日에는 죽트렌트 海戰에서 영구 함대 의 輕便한 포격에도 견디어 낸 二二, 八〇톤의 戰艦 오스트쿠리스텐드號 의 巨體도 二千파운드 폭탄 六發로艦 體가 擊破되어 얼마후에 침몰되어 버 렸던 것이다. 甲板에 直擊彈을 맞지 않았는데도 擊破된 것은 空中攻擊의 偉力을 誇示한 것이었다. 이것은二 十年後에 일어난 공군의 공격으로 擊沈 된 영구해군 전함 푸린스·오브·웨 스투와 레파루스號의 悲劇의 前兆이 기도 하였다.

미첼은 그의 주장이 正當하였다는 것을 극히 명쾌하게 증명하였던 것이 데 공군력을 近代化할 것을 議會에 요 구하여 國防軍을 陸海空의 三軍制度 로 만들어야 된것이라고 강조하였기 때문에 많은 古參 現役將校의 反感을 자아 낼 뿐이었다. 한편 자기의 信念이 옳다는 것을 확 신하면 미첼은 어떠한 반대에도 屈한 사람이 아니며 實情히 자기의 不利한 立場에서도 그 信念을 꺾지 아니 하였 다. 一九二五年 그는 眞珠灣內에 碇 泊하고 있는 艦隊는 空中攻擊의 絶 好의 目標가 된다고 豫言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많은 豫言은 드디어 現實로 된것이다. 너무나 세게 비판을 계속 하였기 때문에 陸海軍의 高級將星들 은 그에 대하여 軍律不服從의 罪判決 로 軍法會議에 넘겨 드디어 有罪判決 을 내렸다. 一九二六年初에 「비행하는 장군」의

아명을 가진 미첼은 공군을 퇴역 하였 는데 그후에도 모든 방면과 기회를 만 들어 그의 意見を 일반대중에 침투 시킬려고 노력을 계속하였던 것이다. 그는 그와같은 信念을 一九三六年 二月에 죽을때까지 굽히지않고 固執 해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질러낸 조종사들은 비 행을 계속하였고 또한 항공기의 意義 를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첼 의 意志를 실현하기에 노력하였다. 一九二〇年 소피·시케이다는 三八, 一八〇피트의 高度記錄을 수립 하였으 며 또한 샌트·R·스트리트大尉가 지 휘하는 四機編隊는 뉴욕과 아라스카 의 노우먼을 經상국은 極地의 天候 외 싸우면서 도중의 빈약한 비행장설 비도 문제삼지 않고 往來飛行에 성공 하였다. 또한 미첼 자신은 카티스機 로 時速二二二·九마일의 속도를 내 어 世界速度記錄을 만들었다. 그후 一九二三年에 알워드·윌리엄스가 만든 時速二六六·六마일의 기록이 있다. 一九二四年에 이르러 陸軍航空隊는 世界一周飛行을 敢行한 존비를 끝내 고 이 비행을 목표로 도날드·다그라스 는 이제까지와 같은 車輪使用의 降 着裝置 以外에 후로트(浮舟)를 달 수 있도록 한 大型 複葉機를 數臺製作하 고 있었다. 三月十七日 케리포니아州 산타·모니카로부터의 出發을 앞무 고 몇번이고 계획이 검토되고 있었던 데 이 비행을 위해서 二十二個있이나 되는 나라의 上空通過 허가를 받지않 으면 안되었다. 드디어 西쪽으로 도 는一周飛行이 개시되어 마틴少領이 탄 새에올號는 눈보라속을 비행하고 있었는데 아라스카에서 山腹에 激突

하고 말았다. 그와 그의 동료 두사람 은 다행하게도 무사하였으나 機體는 大破되어 버렸다. 다른 三臺는 로웰 스미스와 매스터. 아놀드가 조종하는 시카고號, 웨이·웨이드와 헨리·오 구먼이 조종하는 보스톤號, 에딩우· 벨슨과 존·하딩이 搭乘한 뉴·오르 레안號였다. 三臺가 다 日本에 安着하 여 그후 南太平洋을 南下해서 인도에 到達하였다. 그곳에서 水上着陸裝置 를 車輪과 교환하기 위하여 停留하였 는데 그때 AP 通信社의 린튼·웰즈 記者는 볼래이 世界一周機에 승이타 고 인도, 케루샤, 티기를 거쳐 인파 리, 런던으로 비행을 계속하였다. 아 이스랜드, 그린랜드 및 라브라돌을 經由하여 北大西洋을 故國을 향해 비 행하는 도중 보스톤號는 海上에 不時 着하여 침몰되었으나 搭乘員인 웨이 드와 오구먼은 구출함에 救助되었다. 다른 二臺는 미국 본토에서 新보스톤 號와 더불어 各都市를 하늘로부터 방 문하여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이 세계일주 비행은 항공사상 보람에커 다만 役割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三臺는 一九二四年九月二十八日 出發 地인 산타모니카에 歸着하여 세계일 주를 끝냈다. 이러한 성공까지에 한 해여름을 다 소비하고 二臺의 機體 을 썼으며 몇번이나 엔진의 교환을 필 요로 하였으나 육군의 비행사들은 이 와같은 장거리 비행이 가능함을 立 證한 셈이었다. 그후에도 보다 새로운 설 계의 비행기가 만들어져 一九二六年 에서 一九二七年에 걸쳐 發動機를 많 이 積載하는 多發機의 시대가 찾아왔

다. (계속)

經濟的 自由와 平等

— 民主主義 原理 세미나 —

김 나 봉

혹자는 말하기를 민주주의 사회나 아니냐의 구별을 단적으로 말한데 그사회가 사회주의 국가나 자본주의 국가나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제법 자신있게 말하고 있다. 이것은 실로 폭론(暴論)이 아닐 수 없으며 잘 생각해 보면 공산주의자나 그동조자(同調者)들이 즐겨 쓰는 언설(言說)인것 같다. 이와같은 허구적(虛構的) 언설에 속지 않기 위해서 먼저 다음과 같은 점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그나라의 경제조직이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하는 것은 전혀 제2의적(第二義的) 문제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무래도 좋은 지역발전(枝葉末節)의 문제인 것이다. 한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가 아닌가는 한마디로 그 사회의 자기정원(各構成員)에게 정치적 자유를 포함하는 기본적인 자유권이 확보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사회는 그 사회의 다수가 자본주의의 체도를 싫어하고 사회주의체도를 바란다면 언제라도 자유롭게 그 의지

(意志)를 실현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단 그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로서 머물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할저라도 기본적인 자유권의 침해(侵害)는 허용(許容)될 수 없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바와 같다. 우리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민주주의사회가 자유사회로서 유지되기 위한 절대요건(絕對要件)은 자본주의라던가 사회주의라던가 그런것이 아니고 정치적 자유를 포함하는 기본적인 자유권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서언(序言)으로 한마디 하자거나 오늘날의 세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 대립은 공산주의자들이 실로(設敎)하는 것처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의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사회와 비자유사회(非自由社會) 사이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관용(寬容)과 불관용과의 사이에, 인간주의와 비인간주의(혹은 인종차별주의)의 사이에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위가 또는 반사회주의(半社會主義義圖)로 볼 수 있는 영국과 자본주의의 나라인 미국

과의 상호 신뢰의 관계가 그와같은 사실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자와 공산주의자와의 상위(相違)도 정치이치 결코 경제는 아니다. 양자(兩者)가 다 산업의 자유화(國有化)를 요구한다. 서로 물리는 점은 사회민주주의자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자유의 수단으로 이것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반해서 공산주의자들은 정치적 자유 따위는 전혀 문제에 삼지 않는 것이다. 전자(前者)에 있어서 는 수단(정치적 자유)이 절대이지만 후자(後者)에 있어서는 목적(산업의 공유화(公有化))이 절대여서 이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는 폭력혁명을 포함한 일체의 수단을 시인(是認)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자는 민주주의라 한 수 있지만 공산주의는 어느 점으로도 민주주의자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목적보다는 수단이 절대적이며 그리고 수단 가운데 항상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상의 소론(所論)에서 도 명백한 것처럼 민주주의 사회에서 는 누구에 있어서 국민(國民)의 다수가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한 것이 경제적 자유이며 경제적 평등이라고 생각한 것이 경제적 평등인 것이다. 그것들은 정치적 자유의 수단을 통해서 유지되는 영구(永久)의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영국, 미국 등 선진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무엇이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되었는지 무엇이 경제적 평등이라고 생각되었는지 가 하 는 것을 나타낼 수는 있다. 이와 같

은 의미에서 경제적 자유의 개념은 실은 구회(舊會)이며 경제적 평등의 개념에 이르러서는 더욱 애타하다. 따라서 여기서 논술(論述)하는 것도 어떤지 막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경제분야에 있어서 현재(顯著)한 것은 자유와 평등이 오래동안 반대개념처럼 생각되어 왔다는 것이다. 먼저 이 점부터 말하고자 한다.

근세사상(近世史上) 양심의 자유의식이 비로소 강해진 16·7세기에는 사람들은 아지도 중세적(中世的) 봉건적 유제(遺制)라고도 할지 급격(급격) 투쟁, 투쟁, 제한적(制限的) 유적(遺蹟) 단주(專制君主)의 전단적(專斷的) 지배같은 중압(重壓)에 신음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유는 먼저 이와같은 중압에서의 해방의 있다고 생각하였다. 경제적 자유의 중심점도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 또는 단체의 간섭이나 통제(統制)의 배제(排除)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같은 견해는 드디어 자유방임설(自由放任說)로서 발전한 것이다. 이 설(說)에 의해서 변호된 개개의 경제적 자유는 사적기업(私的企業)의 자유, 무역의 자유, 시장(市場)의 자유, 계약(契約)의 자유, 직업 또는 상업신념의 자유, 사유재산(私所有財產)의 취득(取得) 및 처분의 자유, 고용(雇傭)의 자유등 소위 자본주의적 자유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양심의 자유의 해방에 의해서 인간의 지적(知的), 발명적 능력이 자극되고 그 결과로서 산업혁

평이나 불리우는 생산방법의 혁명이 일어나 여기에 있어서 자본주의는 고도(高度)의 발전을 보였다. 자본의 집중, 자본가의 의한 산업의 독점, 빈부(貧富)의 커다란 현저(懸隔) 따위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자 자본이 일만 민중의 생활이나 정치를 지배하는 전형적 부르주아사회가 출현(出現)하였다. 이같은 사회에서는 자유방임설(自由放任說) 밑에서 주장된 개개의 자유는 실형(設合) 법률상 권리로서 확보되어도 실질적으로는 많이 행사(行使)할 수 없게 되었다. 가령 계약의 자유는 대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사이 에 있어서만 그 의의를 갖는 것인 데 내어선 그 의의를 갖지 않으면 안되는 노동자에 있어서는 고용조건(雇傭條件)에 이유를 달거나 이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여유 없이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자본가의 일방적 지령으로 되어 버렸던 것이나 이와 같이 계약의 자유는 노동자에게 있어 자유라고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방임주의적(放任主義的) 무책임한 자유에 대항해서 19세기에 새로운 생활의 물적조건(物的條件)의 평등화를 요구하는 경제적 평등의 주장이 활발해짐과 동시에 경제적 자유의 개념에도 새로운 해석이 가해지게 되었다.

경제적 평등의 주장은 그 내용에 있어서 특이점이 없기 때문에 이 개념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다. 사회주의자들은 흔히 경제적 평등의 근본 원인을 사유재산제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사유

제(私有制) 특히 생산수단의 사유제가 있기 때문에 노동하지 않고 소득(所得)을 얻거나 노동의 비례(比例)되지 않는 과도한 소득을 얻는 착취(搾取)의 부정적(不正義)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취위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토지, 광산, 공장같은 주요한 생산수단에 한해서 사유제도를 철폐하고 이것을 공유화(公有化)함과 동시에 일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일산업을 보다 엄중하게 통제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정치적 자유의 수단에 의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민주주의이다. 이와같은 사회민주주의의 장이 요구하는 한때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어 노동당이 정권을 잡은 바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 전하지는 것을 보면 산업영역(產業經營)의 판로주의화(官僚主義化)와 생산능률의 저하(低下傾向)은 면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미국인은 산업의 증진적(增進的) 목적은 민야도 산업의 국유화에는 전혀 신의를 두고 있지 않은 모양이다. 왜하면 첫째로는 그들이 사회적기업(私的企業)의 자유의 이익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나 자가 가정 육구하는 방법의 의해서 산업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소이(所以)이며 따라서 사회진척도 그것으로서 가장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이 확신하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이른바 착취라는 것은 산업의 통제, 노동자

의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의 승인과 세(課稅) 그밖에 보통 입법정책(立法政策)에 의해서 이것을 자유로이 억제 배제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경제적 평등에 전차로 접근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때 우선 첫째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는 그 구성원(構成員)의 다수가 진정한(眞正)한 그들이 어떠한 부정이나 착취지나 이것을 배제할 능력이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산업 공유화(公有化)의 형식 가운데는 사회정의(社會正義)를 보장할 하등의 실질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회주의는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方法論)으로 생겨난 것이나 그들이 말하는 경제적 평등이란 반드시 모든 사람의 대한 재산이나 수입의 동일을 의미하지 않는 모양이다. 이것은 이른바 경제적 평등의 실현을 명목상으로는 지상명령(至上命令)이라고 해서 생겨난 소련 공산주의 사회에 있어서조차 사팔다리의 임금(賃金)의 수입차(收入差)는 대표적 자본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그것보다도 더 명징히 크다고 하는 사실 만 보더라도 명백하다. 또한 민주주의의 이론(理論)에 있어서도 모든 인간이 목적가치(目的價値)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전제(前提) 밑에 수단가치(手段價値)의 상위(相違)를

아주 물자(沒却)해서 완전히 동일한 보수(報酬)를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前提)에서 사람들은 인간적인 도덕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적조건(物的條件)에의 최소한도의 요구권(要求權)을 갖는다고는 해석될 수 있다. 사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이와같이 해석되어 온 것이다.

앞에서 말한 최소한도의 요구권(要求權)이라는 것은 전장을 유지하고 문명생활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도의 안정생활을 위한 평등의 권리이다. 이것을 사회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는 일한 의지 있는 모든 사람의 일차리를 보장함과 더불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당한 휴양과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노동시간,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위생적 노동조건, 안정되고 양조전(雇傭條件) 밑에서 안정되고 합리적인 생활인생(生活資金)을 얻 때 보장(保障)하는 공동체책임이라고 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생활인생이란 단자가 정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적당한 휴양(休養)이나 문화시설을 향수(享受)하는 데 촉발할 수(失業) 질병(疾病) 그밖에 사고(老老年期)에 대한 보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요구되고 있다. 나라에 따라서 생산력(生産力)이나 자원(資源)이 서로 다르며 따라서 생활조건이나 생활정도도 틀린다. 또한 같은

의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의 승인과 세(課稅) 그밖에 보통 입법정책(立法政策)에 의해서 이것을 자유로이 억제 배제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경제적 평등에 전차로 접근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때 우선 첫째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는 그 구성원(構成員)의 다수가 진정한(眞正)한 그들이 어떠한 부정이나 착취지나 이것을 배제할 능력이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산업 공유화(公有化)의 형식 가운데는 사회정의(社會正義)를 보장할 하등의 실질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회주의는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方法論)으로 생겨난 것이나 그들이 말하는 경제적 평등이란 반드시 모든 사람의 대한 재산이나 수입의 동일을 의미하지 않는 모양이다. 이것은 이른바 경제적 평등의 실현을 명목상으로는 지상명령(至上命令)이라고 해서 생겨난 소련 공산주의 사회에 있어서조차 사팔다리의 임금(賃金)의 수입차(收入差)는 대표적 자본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그것보다도 더 명징히 크다고 하는 사실 만 보더라도 명백하다. 또한 민주주의의 이론(理論)에 있어서도 모든 인간이 목적가치(目的價値)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전제(前提) 밑에 수단가치(手段價値)의 상위(相違)를

한 사회에 있어서도 산업에 따라서 부담능력(負擔能力)도 틀린다. 그러므로 적정(適正)한 표준적 생활 임금을 구체적으로 설정(設定)한다. 이것은 용이한 일이다. 그러나 최저임금(最低賃金) 그밖의 최저의 표준적 노동조건을 규정하고 나아가서 질병 및 노후(老後)에 대한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의 사회가 부담할 수 있을 정도로서 일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이며, 사회적 이인임과 동시에 국가의 당연한 의무로 생각되어 온 것이다. 경제적 평등이란 오늘날의 의미에서 최소한도 이와 같이 생각되어야 하는 것이다.

최저노동조건은 법(法)적으로 보장된다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좋은 생활조건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흔히 노동자 자신의 노력과 발안(發案)에 맡겨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노동자가 강력한 자본을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자본가나 고용주(雇傭主)인 공동단체(公共團體)에서 유리한 조건을 추출(抽出)한다는 것은 불가능의 가장다. 그래서 자본에 대한 노동의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본가들이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에 대해서도 단결권(團結權), 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 그밖의 단체행동권과 자유로운 학하는 등의 기본적 권리로써 인정하는 등의 노동자의 경제적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의企業의 자유와 더불어 오늘날의 와 같은 노동자의 권리도 주요한 경제적 자유의 하나로 생각하기의 이

르른 것이다.

노동자는 단결권(團結權)이나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을 인정받은 결과로서 어떠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많이 조직되어 조직노동자는 다른 금융가(金融家)나 산업가(產業家)의 단체와 같이 거대한 독립적 이익집단(利益集團)을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생활의 증가하고 미우기 파업(罷業)이라는 가장적인 투수(투수)를 독점함으로써 가장 유력한 압력집단으로서 나타난 것이다. 파업권은 그 본질에 있어서 폭력적 강압의 권리가기 때문에 이러한 면으로서는 만다면 민주주의의 윤리적 사상이나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적 폭력(資本적) 사람의 생활을 구속하고 지배하는 것은 폭력으로서 사람을 지배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 존재할 수 있는 한 윤리적으로는 이것에 대항하는 부득이한 수단으로서만 시인(是認)되는 것이다. 그리고 고도하게 조직화되고 사회화된 오늘날의 경제제도하에서는 만약 이 파업권이 남용(濫用)된다 하더라도 원자본가보다도 오히려 적은 일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는다. 물론 이와같은 말은 '자본의 횡포'에 있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소비자(이용자) 일반대중은 그 성질상 조직화되기 가장 곤란하다. 그들은 기밀이나 조직노동자와 같이 자기들의 이익을 대표하고 또한 지킬만한 행동의 직접적 수단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지기다 소비자

적 이인인 전유민적 이인인 것이다. 이거야말로 참된 의미의 공공복지(公共福祉)이다. 어떤 사람이라도 살아가는 한 소비자의 위치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투수(투수)의 집단(特殊利益集團)이 압력집단으로서 강대화하면 강대화할수록 소비자의 일반이익은 그만큼 많이 그들로부터 경제적 자유의 종전(終)된 산업에 대한 국가권력의 한한 간섭(排除)과 단가(斷價)로써 노동의 해방이라는 단체를 지나서 노동조합을 포함한 일체의 독립적(獨立) 압력단체의 비민주화(非民主化)와 과도(過度)의 강대화, 그 권력의 남용(濫用)과 제하의 그들의 강압에서 소비자의 일반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투수(투수) 시작해온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의 경제적 자유의 확보는 공공적(公共) 이익의 대표자로서의 국가권력의 간섭(依存)할 밖에는 도리가 없다. 오늘날 미국에서도 실업(失業), 노동 및 농업(農業)의 (利益群)의 압력집단으로서 조직되어 강대해짐에 따라 국민은 대동(大同)이나 정부를 의무(義務) 일반적 이익의 수호자(守護者)로서 신뢰(信賴)하기의 이르렀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종 투수(투수)의 뒷바라지 사회의 결합과 동일한 이익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증대된 권한을 일법(立法措施)으로서 투수(賦與)하고 있다. 조직된 투수(투수)의 강대화(強大化)는 투수(투수) 투수(투수)의 대항해서 이길만한 정부권력(政府)

신의 강대화를 조배하는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중요함을 도하나의 일부는 공공복지(公共福祉)의 최종(適從)하도록 상생(相爭)하는 투수(투수)의 상호간의 활동이나 이익을 조정(調整)지배하는 데 있다고 생각되어 온 것이다.

앞에서 정치적 자유는 이기적(利己)의 이익(追求)로서가 아니고 이성(理性)의 지배의 복종(服從)으로서만 확보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경제적 자유나 평등에 있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여러 투수(투수)의 이익집단(利益集團)이 단결(團結)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이기적(利己)의 이유로 추구하는 태도로 나온다면 민주주의 사회는 이러한 파괴적(破滅) 이기주의를 용인(容認)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투수(투수)의 단체의 경제적 자유도 이것을 필연적으로 구속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경영(經營)이 기계의 조종(操縱)이나 그 밖의 전전한 노동의 의존(依存)하여 노동의 기술, 자본의 흡수 및 조직화의 관해서 전전(轉轉) 경영의 의존하고 독립(獨立) 노자(勞資)의 병행(병行)하는 것을 저마다 인식하고 모두가 소비자의 이익을 추종(追從)하여 서로가 도리(道理)의 지배의 부속하는 자유를 더디 더디로 정신으로서 협조한 다면 민주주의 사회가 경제적 자유나 평등을 어떻게 해석하는 간에 그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보다 잘 확보될 것이다.

共産主義와帝國主義

— 共産主義 原理 세미나 —

李 東 賢

共産主義의 충실한 실천자 레닌은 그의 著書 『帝國主義論』에서 資本主義國家는 원료의 공급원과 상품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제국주의국가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각 자본주의국가는 그 식민지들 사이의 투고 相爭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드디어는 이 전쟁으로 인하여 모두가 멸망한다고 하면서 共產社會의 불가피한 도래를 예언하였다. 그러나 그의 저서가 세상에 나온지 반세기가 가까워 오는 오늘날이 분석은 과연 얼마만큼 정당한 것이었는가?

자본주의가 최고조에 달하면 스스로 蕭條을 판다는 공산주의 이론과는 반대로 자본주의는 그 경제기구의 장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번영을 거듭해 왔다.

부상조건이 상대적으로 자유스러운 限 식민지 配분의 상대적기능은 커녕 오히려 分類와 협력의 의해 경제력을 증진시켰고, 자본가들이 100배 분한 구대력(力)을 노동자들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아니 된다. 이 요인 생산

물관대시장에 대한 적성도 이후 생산고에 따르는 인공의 상승과 구대력증가가 현실적인 경제정황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또한 한 국가의 實力이 반드시 타 국가의 그것을 탈취할 수 없게 되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북미 合衆국의 비약적 발전과 전후 서독의 기적으로 그 이론적 오류를 지적할 필요조차 없게 되었다.

그러하여 역사적 현실은 오히려 그가 예견한 파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공산주의 국가야말로 제국주의의 충실한 실천자임을 증명하고 말았다. 소련이나 만몽고 보자. 소위 식민주의 또는 제국주의를 말할 때 다 屬國하는 그들은 그들의 계층성을 다하는 위정자들이를 좌회성 그들의 경제를 파탄케 하고 자기나라의 이익만을 추구해 오고 있다.

북한과 중공의 서 폴란드·동독의 이른바 經濟配分의 파견되는 소위 경제사절단은 그들이 내세우는 통상의 經濟와 상충의 이익을 위하여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소련경제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원료 기계 기술을 착취하기 위하여 분주한 것이다.

동독과 체코슬로바키아는 기계, 燃料, 광물자원을 빼앗겼고, 폴란드는 식탄과 식량, 그리고 中共和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등은 식량을 강탈당했다.

정치적으로 소련은 主權을 운운하며 각 위성국의 독립을 존중한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진정한 주권국가인 공산권내에 아직 나타난 일이 없는 것이다.

소련이 요구하는 경제적 취취를 거부하거나 소련의 정치경제스투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또는 비공산 국가들에게 호의를 베풀면 인제나 소련으로부터 반동적이니 반혁명적이니 하며 비판을 받고 강제노동 수용소로 가거나 處刑을 당해야 한다. 재수가 좋아야 추방으로 겨우 생명만을 부지랄수 있다. 다른 나라를 제국주의자라고 하는 소련과 중공의 제국주의적 만행을 몇가지만 나열해보자.

- 1, 에스도니아, 리트아니아, 라트비아 등 발트 3국의 강제병합.
- 2, 북부 핀란드 및 카렐리아 반도의 탈취.
- 3, 이차대전후 폴란드 동독 및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의 공산권 편입.
- 4, 일본으로부터 千島열도, 화북의 남부부 탈취.
- 5, 소련의 배후조공에 의한 북한 공산권의 대규모 남침.
- 6, 헝가리의 저의 강제 편입.

7, 월남동란의 대한 무장지원. 8, 쿠바의 무력연조 및 최근 中印국경 분쟁등등.

이루 배겨할 수 없다. 그러나 소련이 이와같이 역사적 반동적 행동을 하고 있는 동안 중전에 광대한 식민지를 차지하고 있던 그들이 말하는 소위 제국주의 국가들인 자유국가들은 해마다 옛식민지 국민들에게 독립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도와 주었고 그들이 참되게 갈살수 있지 않은 정실적 경제적인 조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필립핀, 월남공화국, 인도네시아, 버마, 인도, 파키스탄 등의 아세아 국가들은 이미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戰前에는 불과 하나 둘을 헤아리면 아무리카에는 지금 20개국의 독립국이 이미 수립되고 있는 것이다.

소련이 戰後 七億에 달하는 人民을 제국주의적 수법으로 노예화하는 동안 自由世界의 국가들은 七億의 인민들에게 自由와 獨立을 준 것이다.

팍스와 레닌의 이론을 인용하는 나라도 個人을 제의하고는 어느 누구도 오늘날 자본주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제국주의의 식민주의로 믿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위에서 본 파와같이 역사적 현실에 의한 실증적 요결로 현학적 논리의 유희에 의한 것만이 아니다.

공산주의야말로 인간의 모든 好嗜를 다해 평화의 가면을 쓰고 끊임없는 침략을 자행하는 제국주의의 화신이라 아니 할수 없다.

高分子化合物時代

李 鍾 珍

〈서울대文理大教授〉



一、天然高分子化合物

흔히 현대를 科學時代, 機械時代, 原子力時代, 宇宙時代, 抗生物質時代, 高分子化合物時代라고 부른다. 이 중에서 우선 高分子化合物이란 무엇인가를 다루어 보기로 하자.

高分子化合物이란 文字 그대로 해석하여 스테이트 펠딩모양으로 높은 化合物을 결코 의미하지는 않는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대단히 무거운 化合物을 뜻하는 말이다.

사람이 낀 微生物인 아메바와 같은 모든 生物은 養分을 섭취하지 않으면 살아가질 수가 없다. 여기서 養分이란 주로 澱粉, 脂肪, 蛋白質이다. 이것을 所謂三大營養素라고 하며 이 중에서 澱粉과 蛋白質은 分子량이 무거운 高分子化合物이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植物, 動物에 있는 化學工場에서 酵素의 奇妙妙妙한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잎의 푸른 색소인 葉綠素가 그 공장이다. 이 공장을 움직이는 에

너지는 日光이다. 공기 속의 炭酸가스 특히 공장 같은 데서 많은 窒素를 가지고 나오는 炭酸가스를 잎이 吸收하고 흡수에 있는 물을 뿌리가 빨아 올려서 이것을 原料로 하여 糖分도 만들고 澱粉도 만든다. 필요하면 植物을 지탱하는 구성재료인 셀룰로오스, 脂肪, 蛋白質도 만든다. 이러한 葉綠素의 기능을 炭素同用化作用이라고 한다. 소는 다시 植物 그 自身인 물 또는 植物이 만든 糞을 먹고 生命을 유지하며 우리들에게 제공할 고기같은 蛋白質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人工衛星을 타고 地球를 몇바퀴 돌아올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의 知能을 차내어도 아직 植物이 가지고 있는 化學工場의 機密을 全部 알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알겠지 植物의 機密을 알아내야만 발전적이고 새로운 사람이 만든 化學工場에서 오늘날은 할 내일은 보리식으로 生産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三十年後가 될는지 四十年後가 될는지 豫測하기 困難하지만 그때의 光景을 그려보면 눈이 있던 곳에 工場이 즐비하게 서게 되고 여기저기에 하늘

높이 솟은 이상한 모양의 굴뚝같은 管으로 공기가 빨려 들어가고 地下水도 계속해서 펌프로 빨아 올려질 것이다. 이렇듯이 工場의 原料가 되는 것이다. 合成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電氣를 쓰게 되든지 또는 植物처럼 日光을 쓰게 될 것이다. 또 動物의 糞내를 내어 고기 만드는 工場도 서게 될 것이며 工場은 물론 오트메이선화되어 사람도 별로 많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이런 最新式工場에서는 合成된 쌀, 밀, 고기 그리고 從前에 自然에 없었던 새로운 風味를 가진 食品도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農産物을 생산하고 牧畜에 사용되는 農土와 山林은 롤프場, 運動競技場으로 變하고 사람들은 時間이 남아서 어떻게 消遣하는가 문제로 될 것이다. 너무 將來의 꿈을 그려 보았겠지 現實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이제 人間이 이미 完成해 놓은 高分子化合物 求景을 떠나기로 하자.

二、人工高分子化合物

人間은 물과 炭酸가스라는 간단한 物質로부터 出發해서 動物처럼 澱粉, 蛋白質, 셀룰로오스 같은 高分子化合物을 만들어 내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澱粉과 蛋白質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요 셀룰로오스는 술과 啤酒와 木材의 成分으로 되어 있으니 사람은 이것을 加工하여 옷감으로 쓰고 木材와 啤酒로 집을 짓고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은 高分子化合物도 지은 집에서 高分子化合物을 입고 高分子化合物

을 먹으면서 삶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自然에 挑戰하여 偉大한 現代科學의 힘을 가지고도 진다면 말이 안된다. 그래서 이리 연극하고 저리 연극한 결과 衣住의 原料인 高分子化合物을 炭酸가스와 물以外的의 것을 原料로 하여 만들어 내는데 성공하여 쓰고 있다. 이것이 파라텍스와 合成纖維이다. 우리나라 五個年계획에 들어있는 PVC (鹽化비닐樹脂)工場도 高分子化合物製造工場이다. 이것의 原料가 하나는 소금이며 이것이 電氣를 통하여 분해하여 鹽素와 水素를 만들고 이것으로 다시 鹽酸을 만든다. 또 하나의 原料는 石灰과 石灰이며 이것을 電氣爐에 넣어서 카아바이트를 만들고 여기에서 아세틸렌을 發生시켜 이것과 위에서 이미 만든 鹽酸을 作用시켜 鹽化비닐單量體를 만들고 이것을 重合(연결시키는 것)시켜서 鹽化비닐 樹脂를 만든다. 우리나라에서 石灰石도나고 石灰도나고 소금도나니 全部 國產原料로서 PVC 生産이 可能한 셈이다. PVC로 電線酸과 알칼리에 이질수 있는 化學工場용 파이프, 鐵管과 이프르타, 壽命이 三培나 된다는 水道비닐파이프, 農業用비닐 필름, 타일 같은 비닐建築材, 皮革代用비닐, 家具用비닐等 其他 衣食을 비누갑과 같은 日用品을 만들 수 있으며 그數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플라스틱 材料를 틀에 넣어서 物件을 만들어 내는 約二十個所의 成型工場에서 쓰는 原料수입대로 三百萬弗의 外貨

가 每年 消費되고 있다. 이 중에서 PVC로 充當할 수 있는 것만을輸入한다면 約一四〇萬弗의 外貨가 節約된다.

三、人工高分子化合物의 利點

하여튼 이렇게 만든 人工高分子化合物인 合成 고무, 플라스틱의 合成纖維는, 고무와 같은 彈性, 밀가루 반죽과 같은 마늘대로 成形할 수 있는 可塑性성을 備할 수 있는 紡糸能, 필름을 만들 수 있는 成膜能, 아교와 같은 接着性, 또는 機械的強度, 伸性 등을 위시하여 유리와의 같은 透明性, 耐水性, 耐藥品性, 電氣絶緣性 등을 생각할 때, 우리 생활에 얼마나 편리하게 利用될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저 저리를 걸어가서는 아뭏다운 아가씨를 失禮지만 觀察해 보기로 하자. 우선 그 白玉같은 몸을 감싸고 있는 원부라우스는 나일론이라고 하는 合成纖維이다. 또 줄진 스카트는 데쿠론이라는 合成纖維 즉 高分子化合物이다. 그런데 그 女子의 헨드백이 가죽보다 더 밋밋하고 보이는 데살그머니 관찰해보니 초위 비닐 메자라는 플라스틱제품이다. 양말은 말할 것도 없이 나일론 양말이고 구두, 구두장 역시 비닐계의 플라스틱이다.

또 무엇이 몸에 붙어 있는가 보았더니 밋진 셀룰라스를 끼고 있는 데이안겔레도 플라스틱이라는 高分子化合物로 되어 있다. 결국 마지코나 高分子化合物美人이 되고 말았다. 全部 外國産이나 五千萬에 全部가 國産品이며 原料만을 外國에

서 輸入하고 있었던 데 이번 五個年 經濟計畵으로 鹽化비닐 樹脂工場이 建立되면 原料도 손주산으로 代置될 것이다.

그러나 天然에 있는 高分子化合物을 人工의 合成物으로 合成하는 대신에 天然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사람들이 만들어 쓰고 있는 셈이다. 구체적 예로는 人工合成고무는 天然고무보다 더 질겨서 심지어 二次大戰以後에는 종전에 鐵로 만들어진 탱크의 無限軌道에도 쓰이고 있다.

四、플라스틱

人工高分子化合物이 여러 가지이지만 우선 플라스틱부터 이야기 하던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야기 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辭典에는 「粘土 또는 石膏와 같이 成形할 수 있는 物質」이라고 定義하고 있으나 粘土나 石膏는 플라스틱과 다르므로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

天然物中에는 플라스틱과 조금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약간 있다. 이런 것으로는 印度의 락트에서 採取하는 세라크암바로 진갈은 天然樹脂가 있고 또 鐵物性으로 밋지 같은 것이 있다. 이런 物質도 廣範圍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今일은 合成樹脂 즉 플라스틱 工業이 발달되어 熱과 壓力을 써서 마늘대로 여러 가지 것을 合成하고 있다. 이것은 다시 目的에 따라서 成型하여 여러 가지 성질의 물질을 만들 수 있다.

熱을 플라스틱에 작용시키는 두 가지 方法中의 하나이며 이것은 플라스틱의 分野는 二大部門으로 나

눌 수 있다. 그 하나는 熱可塑性을 락스틱이며 熱을 가하면 인체가軟해지고 인체는 형태로 成型할 수 있고 그대로 冷却하면 成型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굳어 버린다.

같은 것을 다시 加熱하면 또 다시 연해지는 것이 可塑性을 다시 나타내며 몇번이고 되풀이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熱硬化性 플라스틱으로 인체는 材料에 熱을 가하여 연하게 하여 成型할 수 있는 점은 마찬가지로 하지만 化學變化가 일어나서 性質이 아주 變하는 점이 다르다. 좀더 상세히 이야기 하면 原子가 서로 結合되어 있는 기체란 分子간 상호結合이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硬化한 후에는 다시 加熱하여도 熔融하지 않으며 영원히 可塑性인 狀態는 再現치 않는다. 따라서 相當한 高温도를 加하지 않는 이상 變化하지 않는다. 熱可塑性인 樹脂로 만든 빗비누 등은 加熱에 의하여 다른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으나 熱硬化性인 尿素樹脂로 만든 우산대공기 같은 것은 이것이 불가능하다. 熱可塑性樹脂로 만든 것은 부부막같이 뜨거우면 녹지 않아야 하며 熱도 많이 우글우글하게 된다.

一, 九〇〇年頃에 프카라트氏는 消毒藥으로 쓰고 있는 두가지 化合物 즉 羰화알데히드水溶液인 포르말린과 石炭酸을 燻殺과 섞어 反應시켜 一分子의 물을 빼내서 化合케 하였다. 이 化合物은 거대한 사슬 모양의 分子로 형성되어 있으며 熱可塑性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케놀을 알데히드樹脂의 主要한 用途는 粉碎해서 成型用粉末로서 加

工業者에게 販賣된다. 이러한 粉末는 原料이며 成型加工工場에서 원하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製鐵工業과도 유사하다. 즉 一部分의 材料業者가 材料를 만들고 이것을 다른 工場에 供給하여 工作해서 機械製品을 만들어 내는 것과 같다.

成型工程에 있어서 粉末는 熱과 壓力의 作用으로 끈적끈적한 液體로 되는 데 이것을 壓入하여 成型한다. 여기서 最後段階의 反應으로 樹脂가 된 것을 加熱해서 부스러지지 않는 物體가 되게 된다. 이렇게 만든 樹脂製品은 裝飾 또는 補助材料로서 실내 바닥인 메라민계의 化粧板을 위시하여 熱絶緣體, 防音材, 쉬트, 強化플라스틱스, 불라인트 등에 이용되며 石炭酸이나 尿素樹脂의 接着劑를 사용한 せん단도 우리아나에서 활발히 생산되고 있고 초산비닐계 또는 아크릴계室內塗料도 이미 수입되고 있다.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것으로 폴리스틸렌의 빗, 초산纖維素의 비누갑, 치솔, 우산대, 전기소켓, 페코드판, 폴리에틸렌의 보자기, 주머니 등이 있다. 自動車車體나 보오트船體를 폴리에스테르로 만들고 있다. 또 이것은 깨끗하고 튼튼하고 무겁고 깨지지 쉬운 유리대신에 가볍고 질긴 「메라크릴」樹脂로 유리창은 물론이고 안전알, 렌즈까지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

現代는 確實히 高分子化合物로 된 페디오스리에 잠이 깨고 高分子化合物인 合成纖維로 된 옷을 입고 高分子化合物로 된 바닥에서 活動하는 時代다.

生活經濟 A·B·C ④

—消費理論을 中心으로—

崔 虎 鎮

〈總 博〉

Ⅲ.

다음에는 공급가격의 법칙과 결합 생산비를 보기로 하자. 먼저 공급 가격의 법칙을 보기 위하여 ① 생산비가 변하지 않는 경우, ② 생산비가 줄어드는 경우, ③ 생산비가 늘어드는 경우의 셋으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①의 경우는 생산량의 다과에는 관계없이 한 단위의 생산비가 일정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재화의 가격이 생산비에 일치하라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만일 생산비보다 가격이 비싸면 생산이 활발하게 되어 공급이 늘어난 결과 가격은 떨어지고 생산비에 일치하게 된다. 반대로 생산비에 비하여 가격이 떨어지면 생산은 침체되어 공급이 줄어 결과 가격은 올라가며 다시 생산비와 같아지는 까닭이다. 이 경우에는 가격이 생산비와 같게 되지만 자본주의적 생산하의 있어서는 오랫동안 두루 부다면 가격이 생산비와 같다고는 볼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면 기계 발달 등의 따라 새로운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생산비와 가격 사이에 어긋나 생기기 때문이다. 다만 자유경쟁 아래에 있어서는 공급생산물만이 생산비와 같게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②의 경우는 생산량이 늘어감에 따라 한 단위의 생산비가 점점 줄어가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재화의 가격이 그 최저의 생산비와 일치하라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는 특히 농업생산물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농업생산물의 생산이 늘어간다는 사실은 대체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아지는 까닭이다. 즉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아지면 생산물 대꾸로 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고 따라서 한 단위에 대한 생산비는 줄어드는 까닭이다. 여기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資金(金)과 같은 流動資本(本)에 대한 固定資本(機械等)의 구성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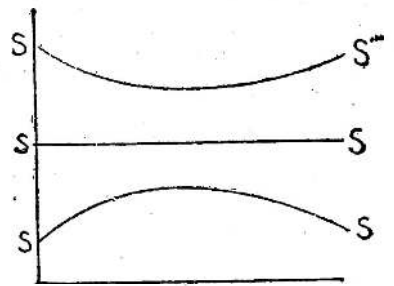
그러나 생산비가 오랫동안 두루 가격에 비하여 싼 등하게 떨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그러냐 하면 발달된 기계를 채용하여 실사 超過利潤을 얻는다 하더라도

도 그 기계는 얼마 안가서 일반적으로 보급되기 때문이다.

③의 경우는 생산비가 과기업자에게 있어서 같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재화의 가격이 최고생산비와 같아지려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재화의 가격이 비하여 최고생산비가 비싸지면 생산은 침체되고 공급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가격은 올라서 감소된 공급량의 있어서의 최고생산비에 일치된다. 반대로 최고생산비에 비하여 재화의 가격이 비싸지면 생산은 활발하여지고 공급은 증가한다. 그 결과 가격은 떨어지고 이리하여 증가된 공급량에 있어서의 최고생산비에 일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를 가리켜 농업생산물의 쥘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한 단위의 생산비를 늘임으로써 농산물의 수량도 늘어난 까닭이다.

이상에서 ②를 농업생산물의 쥘, ③을 농업생산물의 쥘이라고 하였으니 이 경우엔 엄밀하게 구별할 것은 못된다. 왜 그러냐 하면 공급부선(가계의 노동력의 변화하는 공급량을 나타내는 곡선)의 제장, 제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생산량의 증가에 있어서는 제장의 경향이 있으며 다른 생산량의 범위에서는 제음의 경향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상 ①②③ 세계의 쥘은 생산량과 공급가격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공급가격의 법칙』이라 한다. ①②③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S S S는 생산비가 불변인 때, S S S는 생산비가 제장할 때, S S S는 생산비가 제음할 때, 공급부선의 이와 같은 세개의 쥘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첫째의 원인은 생산물 대꾸로 하면 이익이 생긴다는 점이다. 이익이 어느 정도도 되는 데 따라서 공급부선의 형식은 결정된다.

둘째 가변비용이 그 산업전체의 대꾸로 어느 정도로 유리하냐 하는 문제도 공급부선의 형식을 결정한다. 「마셜」(A. Marshall, 1824~1924)의 법칙은 전자의 두 가지의 부계에서 유래한 원인이라고 하고 있다. 즉 경제의 여러 원인이 있다고 한다. 공급부선의 이상과 같이 해석할 수 장기의 결과와 한 시점에서 표시한다는 전체 아래에서만 가능하다고 다시 말하면 기업의 생산설비가 생산량에 따라서 변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생산설비가 이것이 생산량의 따라 변동하지

단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상 ③ ④ 세계의 생산은 생산량과 공급과
적과의 관계를 장기간에 걸쳐서 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생산량과 공급가격
과의 관계를 단기간으로 본다면 생
산설비는 변동되지 않고 고정적인
것으로 된다. 만일의 생산설비를 고
정적인 것으로 한다면 생산설비는
인정된 생산량을 내는데 있어서 최
대의 효율을 발휘한다. 따라서 이
점을 넘는 생산량은 단위생산비의
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이 경
우에는 생산비 제정의 법칙이 적용
된다.

생산비 불변·제감·제증의 법칙
은 이를 수확불변·제감·제증의 법
칙이라고도 한다. 다만 생산량의 변
동에 따르는 생산비의 변동의 증감
을 두어 조사하는 경우에 단위생산비
불변·제감·제증의 법칙이라고 부른
다.

다음에는 結合生産費에 대하여 보
기로 하자. 공급의 분석에 있어서
결합생산비가 문제되는 까닭은 결
합공급이 고립의 생산으로 되기 때
문이다. 즉 같은 생산과정에서 동
류를 달리하거나 여러가지의 상품이
생산되거나 혹은 여러양면의 용도
에 쓰이는 상품이 생산되는 경우의
이를 결합생산물이라고 한다. 결합
생산물에 있어서 각종의 상품의 대
하도 또는 부분의 전체에 대하여 생
산되는 지출되는 경우의 이 각종의
상품 또는 부분은 결합생산비를 가
졌다고 한다. 전자의 속하는 예로
는 카스되사에서 카스, 코우스코를
타일등의 상품을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 또 같은 기차·기선예다가 동
시에 여러 상품을 수송하는 경우,
같은 광산에서 여러가지의 광석을
채굴해 내는 경우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소가 우유, 우피, 불, 우황
등을 내며, 보리가 곡식과 맥고를
내며, 후와나무가 목화과 면실을 내
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면 이 결합
생산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결합생산비를 그 전체에서 가 아니
라 각각의 개별 요소에서 알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그 방법은
결합생산비를 조개는 수밖에 없다.
소 미는 사람이 소 전체에 대하
여 결합생산비를 가질 수 있다. 그
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우유, 우피,
내장등에 따로 따로 가격이 변한다.
즉 결합생산물의 각 부분의 대하의
가격이 변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
기에서 결합생산비는 분할되지 않
은면 아니 된다.

첫째, 같은 생산과정에서 각종의
상품이 나오는 경우, 이 경우에는
카스 및 코우스달이 수요되는 형편
에 따라서 공급이 결정된다. 그러
하되 이들 상품의 가격에 합제한 것
이 결합생산비와 같은 경우의는 결
합생산물의 분할이 안 된다.

둘째, 동일 생산물이 그 용도를 달
리하는 각종의 부분상품을 내는 경
우, 예를 들면 소가 수요되는 형편
에 따라서 소의 공급은 결정된다.
즉 소의 가격을 결합생산비와 같이
하여 놓는다. 그러면 결합생산비의
분할은 어떻게 하는가. 우피의 수
요에 의해 따라서 우피의 가격을 우
선 정한다. 앞선 정하고 남은 소 전
체의 가격에서 우피의 가격을 빼면

잔액을 우유에 가격으로 정한다.
이와같은 방식으로 생산비를 분할
한다.

그리고 결합생산물에 있어서는 어
느 한편의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한
편의 가격은 떨어진다. 가령 카스가
많이 수요되면 그 가격은 오르지만
만일 코우스의 수요에 변동이 없으
면 그 가격은 떨어진다. 그 까닭은
카스가 많이 수요된다고 하여 그 생
산량을 늘이니까 동시에 코우스의
생산량도 많아지는 까닭이다. 이와
반대로 카스의 수요가 줄어들면 동
시에 코우스의 공급도 줄게 된다.
그러하여 카스의 가격은 떨어지나
코우스의 가격은 올라간다. 이상의
예는 한편의 공급증가가 동시에 다
른 한편의 공급증가를 가져오는 경
우의 상품에 대한 예다. 그렇지 않
고 한편의 공급증가가 다른 한편의
공급을 감소케 하는 경우에 있어서
는 양편의 가격이 다 같이 오른다.

다음에는 상품의 수량과 생산비
와의 관계에 관련된 몇개의 법칙
을 보자. 상품의 수량이 증가하는
데 따라서 평균 비용이 증가는 경
우에는 이른바 비용제정의 법칙이
작용한다. 이의 대하여 상품의 수
량이 증가하는 데 따라서 평균 비용
이 제감하는 경우에는 비용 제감의
법칙이 작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비라는 것은
어느 상품을 생산하는 데 개개의 기
업가가 필요로 하는 비용 즉 私經
濟的인 비용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비용 즉 사회적적인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적으
로 필요로 하는 비용에는 사회적

로 필요한 생산중 회약의 생산조건
에 있어서의 비용 즉 회고의 비용
이라고 볼 수 있는 것과 평균적 생
산조건에 있어서의 비용 즉 사회의
동산물의 대다수의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농업생산에 있
어서의 생산조건의 우열은 자연적
인 원인의 기인하며 따라서 그 생
산비는 평균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공업생산에 있어서는 그것은 주로
인위적인 원인에 좌우되는 성질을
갖기 때문에 생산비는 평균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농업생산에
는 前說이, 농업생산에는 後說이 타
당하다고 볼 수 있다. 여하간에 가
격의 기준인 생산비보다 적은 생산
비로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은 평균
이윤 이상의 超過利潤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하여 농업생산에는 비용제정
의 경향이 있고 공업생산에는 비용
제감의 경향이 있다고 한다. 비용
제감의 법칙을 다른 자도에게 본다
면 대량 생산의 법칙으로 나타낸다.
일반적 생산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생산요소들 대꾸로도 결합을 하면
상품 한 단위의 코스트는 절약이 되
며 따라서 생산은 대량적으로 이루어
어진다. 이는 법칙이다. 이러한 법칙이
가능한 것으로 되자면 노동 대신의
기계가 많은 기계 대신에 우수한 기
계가 나오며 기일이 큰 규모로 되
는 데 달렸다.

(이하 다음호의 계속)

x x x x x

52 IMPORTANT MURDERS

by Roy Carroll



조용한 殺人

로이·카로올
柳起英譯



I

그는 殺人을 하였다. 그는 누구를 위하여 殺人을 하였는가? 아니 그는果然 마땅히 殺人罪에 대한 處刑을 받아야 할 것인가? 이 小說의 作者는 이것을 讀者에게 물 어본다. (譯者)

바아트·카리스타는 진정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랫배가 약간 떨리는 것 같은 것은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의 자리는,五十명 가량의 거의 한가운데였다. 주위 사람들의 얼굴은 누구를 보아도 모두가 자기와 같은 민간인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 모두의 표정이 자기와 다를바 없이 불안스럽다. 그래서 카리스타는 이 사람들도 모두 자기와 같이 간단한 종이 조각 한장으로 소집당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 종이 조각에는 저극히 간단하게 용적이 매우 중대하다는 것과, 사제가 진박하다는 것과, 인선(人選)은 주도하고 신증을 기했다는 것... 읽어보면 읽어 볼수록 불안함을 더할 뿐이다.

어떤 명령이 내려질 것인가? 여기는 위싱턴, 그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오백마일이나 떨어진 곳이다. 이를 전한 하더라도 위싱턴을 방문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던 곳이다. 물론 전화가 걸려와서 그 조용한 로타리에서 만나자는 것이다. 나가보니 그 남자는 공무원의 신분증을 제시하고는 살머시 내미는 것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간단한 종이 조각의 소집장이다. 아내인 로오라에게는 이물간 여행할 용적이 생겼다고 속이고 떠났었다.... 그리고는 지금 위싱턴까지 오기는 했으나 지금 있는 곳이 어디며 앞으로 어디를 가는지는 전연 오리무중이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다. 한 시간쯤 기다리면서도 한 사람도 얘기를 지는 사람이 없었다. 카리스타는 담배를 태울가 하다가 그만 두었다. 담배 조각도 아무도 피우는 사람이 없었다. 바로 나란히 앉은 옆에 사람에게 얘기를 지는 사람도 없었다.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 나울 것 같지도 않기 때문이다.

카리스타는 시계를 들여다 보았다. 열한시가 가깝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내적이 있는 것은 알지겠구나.』

아이들은 침대와 들이갠 것을 것이다. 로오라는 뜨개질을 할 것이다. 아니면 레피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아니, 나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지금의 나처럼 불의에 휘기는 것만 같은 이 같은 불안에 쌓여 있지 않는 것 마를 들었었다.

그 로타리에서 공무원 신분증을 보았던 남자의 말이 생각났다.

는 것이 어머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카리스타는 지절했다. 지극히 절에 붙어 가
야 할 중대한 임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승객 가운데에서도 특이한 나팔이 있었다. 처음 그는 친절한
남자가 누구인지 몰랐고 또 관심도 가지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자기에게
소집장을 가져왔던 그 공무원이었다. 카리스타는 인사를 할려고 했으나 그
남자는 모른체 하라고 눈짓을 했다.

비행기에서 내린 카리스타는 배식을 주었다고 짐으로 돌아갔다. 배문간에는
로오라가 기다리고 있었다. 로오라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 작작 놀랐다. 얼굴
이 왜 그렇게 창백하냐는 것이다. 그래서 카리스타는 비행기는 내게 맞지 않아
— 하면서 말티모어에 갇힌 용전에 관해서는 일바꾸려고 말했다.

이날 하오에는 여러 차례 교실의 나가서 여러 차례 강의를 마쳤다. 무엇을
강의했는지 자신도 모르게... 그의 비록 속에는 살인죄의 계획이 자꾸만 떠올
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판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는 살인의 자신이
없다고 보았다. 자신이 그만 어디로 도망갈까 했으면 — 하고 생각했다.

다섯시가 되어서 그는 슬그머니 교정(校庭)에 나가 보았다. 마침 배커가 비
어 있었기에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려 보았다. 그가 담담한 「말삼해 버려야 할
반역자」는 물론 같은 대학의 교수였다. 교수는 인종은 모두가 변인(變人)
의 집합이다 — 적어도 그렇게 보이고 있다. 해가 질 무렵은 제법 쓸쓸하다.

그런데도 배커에서 정신없이 책을 읽고 있는 인종들이었다. 어둠침침한 건물
물을 읽망하지도 않고 정신없이 책을 들고 다 보고 있었다. 카리스타도 책을 펴
놓고 있었다. 그러나 머리의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말삼해 버려야 할」 그 남자가 이 말과 좀 짐으로 돌아가는 것을 카리스타는
이전에 여러 번 보아왔다. 그러나 그가 버릇을 고치지 않았다면 오늘날도 이 교
정을 지나서 점으로 돌아갈 것이다. 벌써 퇴교해 버렸을지도 모른다. 어디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나 않을까. 혹은 그렇다 혹은 그가 이미 어떤 정보
를 입수하고 자취를 감춰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랬으면 좋겠는 데 — 저어쪽에
서 걸어오는 것이 누군가? 바로 그 자로구나. 아아 그 자는 도망을 가지 않
았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카리스타는 절망적인 충격을 느꼈다. 무언
과 피상한 별개가 등줄기를 타고 말부락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 소름을 느
꼈다.

기형적으로 배를 쭉 내민 그 사나이는 어제의 다름없는 검은 코트와 의 것
을 세우고 두들긴 가죽 가방을 끼고 있었다. 쭉 내민 배에 저의 등골다 싶은
가방을 건 그 사나이는 산에서 내려오는 공을 연상케 한다. 전신을 검은 옷
으로 둘러감은 그는 마치 곰처럼 이속으로 걸어온다. 그는 물리학 교수 주
이코프. 아 — 만.

카리스타는 그가 자기를 보기 전에 도망쳐 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
데로 앉았으면 그와 시선이 마주치고 만다. 그것조차 카리스타는 피로했다.
발이 땅을 들이주지 않는다. 그 데로 앉아서 곰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

었다.

주이코프. 아 — 만 — 어딘가 구라파의 대학에서 왔다던가. 후그리진 필트
모자, 색이 날아간 것 같은 재색 눈썹, 털로 만든 수염, 도수가 높은 티 없
는 안경, 어디로 보나 외국인 차림을 그대로 가지는 보기에는 지극히 순진스
러운 사나이다.

아 — 만이 가까이 왔다. 흥분한 숨이다. 조금도 경계하는 눈치는 없다.
이 정도 걸으면 죽일 수도 있을 것 같다. 흥분해 내가 먼저 떨고 있는 것이 아
닌가...
지나치면서 아 — 만은 고개를 끄덕하고 지나갔다. 아직 인사는 없지 않는 것
은 교수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카리스타가 담배를 하기도 전
에 벌써 지나가고 말았다.

죽었다면 이 해다. 카리스타의 머릿속에 전광처럼 번쩍했다. 운동장에는 사
람의 그림자라곤 없었고 이미 어둠사리가 끼어들어 조금 떠러진 곳에서는 아
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죽여 버리고 도망치자. 갈고늘러 목을 졸라 대면 폐소
리 못하고 저옥으로 직행이다.

그러나 카리스타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보다 강한 본능이 나를 구해 준 것
이다. 위험한 생각이 있었다. 하마트면 큰 일을 저지를 뻔 했다. 운동장 같은
곳은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면서도 그렇지 않은 곳이다. 자기 방위의 본능.
그러나 그는 만족하는 것이 있었다. 이로써 살인할 수 있는 자신이 생겼다
고 느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뢰다. 기뢰만 만들면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
자한 카리스타는 천천히 일어섰다. 문명이라는 비단 옷에 두루말린 자기 자신
의 야성(野性)에 그는 소름을 느끼면서.....

아 — 만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는 그 자리를 떠
났다. 다섯시二十분. 아주 어두워졌다. 책을 열에 끼고 반마일을 걸어서 집
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자 아이들의 떠돌이 때였다. 저녁을 먹을 때 아버지는 언
제나 방심상 버렸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아이들이 조만간 파 소늘어나는 것이
다. 웨이브드는 올해 열살, 다이나는 열두살, 아이나는 초등학교 소년은 제각기
볼이 야기며 학회회 애기를 한꺼번에 털어 내놓는 바람에 어머니 로오라는
번갈아 상패를 해주면서 도저 정스파히 남편의 얼굴을 살피고 있다.

「오늘 밤, 어디 가 보겠어요요?」
「오늘이...」
「구경이 라두 가 보지요.」
로오라는 거짓말을 했다.

로오라는 거짓말을 했다.

〈 劇 作 〉

파란 창과 아이의 幸福

金 耀 燮



밤이 깊도록 글을 쓰다가 피곤하면 나는 곧잘 베레모자를 눌러 쓰고 산책을 나선다.

글을 쓰노라고 무거워진 머리를 찬바람에 쏘이기 위해서이다. 나의 밤의 산책 코스는 나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다.

백스 중절에서 언덕을 넘어 산쪽으로 행이 있는 길이다. 언덕에 올라서면 서울의 불빛들이 멀리 내려다 보인다.

한때 죽인 산길을 바라보면 새로 세운四通 아파트 한 채가 서 있다. 아파트에는 많은 창이 있다. 그 많은 창에는 모두 불빛들이 어둠 있었다. 멀리서서 창마다 희친 불빛들을 바라본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것은 나의 사랑하는 친구의 행복을 보듯 마음이 흐뭇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꼭 창 하나만이 잠잠하게 불빛이 없다. 그 모든 창에 행복란 불빛들이 켜져 있을 때 혼자서 불빛이 없는 창은 마음을 쓸쓸하게 한다.

나는 늘 불빛 없는 창을 바라보다가 그 창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불빛 없는 창에 대해서 느낀 감흥은 나의 영혼은 의사가 되거나 의사가 될 소원과 같이 이 야기를 꾸미게 하였다.

밤이 깊은 다음, 언덕에서 저 아파트의 불빛 없는 창을 보면서 내 마음대로 야기를 꾸미는 것은 이제 나의 조그만 취미가 되고 말았다.

그때면 느긋한 밤이었다. 나는 밤이 새도록 써야 할 글이 있었다. 어니 때보다도 밤이 깊었다.

자정도 불빛 없는 창이다. 아무래도 찬바람을 쏘이어야만 쓰면 글이 더 빨리 나갈 것 같다.

나는 느긋하게 나왔다. 언덕을 향해서 걸었다. 언덕에 올라서니 잠잠한 하늘과 산을 뒤로 하고 아파트가 우뚝 서 있었다.

창마다의 불빛들은 모두 꺼지고 깊은 잠의 파적이었다. 그런데 창 하나가 파란 창이 밝혀져 있었다.

바르다 보면 창이 모두 불이 밝혀져 있을 때 불빛이 없는 창이었다. 그

창이 어떤데는 다른 창들이 저런 이 때에 혼자서 쳐져 있었다. 정말 뜻밖의 일이었다. 나는 그 창에 대해서 더욱 궁금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냥 언덕에서 있을 수도 없었다. 나의 걸음은 저절로 아파트를 향하여 걷게 되었다.

고요한 밤이었다. 길가의 풀밭에 소리만 들렸다. 나는 슬릴름엔 혼자 커진 아파트 밑에까지 왔을 때 약간하게 비치면 창이 환한 빛으로 변화하였다.

이름날 밤 일흔하다가 머리를 쉬고 있으니까 과연 창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기도 하였다.

다른 때는 좀더 걸어나가서 합승을 타고 성안으로 들어가기가 일수 있으나 나는 이상하게 배스를 타고 싶은 생각이 더러웠다.

가끔 배스를 타기는 하였으나 요즘 와서는 별로 타지 않았다. 배스 중점에는 피개는 낮은 사람이 서 있다.

그러나 서쪽은 처음 하지 않을 뿐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처음 보는 키가 훌쩍하게 큰 사람이 서 있었다. 곁에는 팔간모자를 쓴 여자가 서 있었다.

의젓살가랑 되어 보이는 아이는 손에 바이올린 케이스를 한손에 받들고 있었다. 정오가 가까운 시간이 되어, 이곳 중점에는 다른 사람이란 별로 없었다.

나와 그 두사람과 세사람뿐이다. 저절로 우리들의 눈짓은 마주치고 말았다. 그때 나는 이상한 일을 보았다.

팔간모자의 아이가 바이올린 케이스로 그의 아버지같이 보이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다 보았다. 사람은 팔간모자의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팔간모자의 아이는 몇번 그 맑은 눈을 감박거리고 보았으나 무슨 눈치잡지 알아 채리지 못했다.

키가 큰 사람과 팔간모자의 아이는 약속이나 한듯 내 앞에서 돌아서 버렸다. 키가 큰 사람은 머리를 굽혀었다. 팔간모자의 아이는 발음을 하면서 키가 큰 사람의 귀에다 입을 대고 무어라고 속삭이였다.

다시 돌아선 팔간모자의 아이는 나를 보면서 말조웃었다. 팔간모자아이한테서 귀속말을 들은 키 큰 사람은 나를 의심스레 보고 있었다.

배스 가 있었다. 배스 승은 정면 비어 있었다시피 하였다. 손님이 라곤 우리들께 사랄하고 다른 사람이 자리에 앉았을 뿐이다.

내가 앉은 곳은 변에 인부러 팔간모자의 아이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가슴에 안고 앉은 것 같았다.

할수 없이 팔간모자와 아이와 같이 올라 탄 키 큰 사람도 나와 마주 앉게 되었다.

꼭꼭 못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 팔간모자의 아이는 다

사생조웃거나 머리를 끄덕하고서는 인사를 하였다. 단단히. 그 곁의 사람도 가볍게 목례를 하였다. 이렇게 되고보니 나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서로 아는 척 하였으나 사실 서로 모르고 있는 사이라 나는 한참 망설리고 있는데 배스가 다음 정류장에서 섰다.

노인이 우우우우음을 하면서 올라왔다. 나는 내 자리를 내어주고 저절로 금방 모른채 인사를 한 팔간모자아이의 앞에 가서 섰다.

서로 아무 말도 안하고 섰 수가 없었다. 그러자니 일부러 차창 밖 풍경만 훑어지게 내다볼 수 밖에 없었다.

「선생님。」 팔간모자의 아이가 나를 부르면서 일어섰다.

「제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자기 자리를 내 놓았다. 그러니까 그 곁에 앉았던 사람도 일어서서, 「아니 아니 제자리에 앉으십시오。」 자기 자리를 권했다.

「괜찮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서면서 사양을 하였다. 이때 또 차가 정류장에 머물면서 꽃을 바꾸기에 가득 담은 꽃장사가 올라왔다.

「아 저봐 파리아!」 팔간모자의 아이가 나를 보고 의했다. 그 목소리는 나도 그 꽃을 봐달라는 눈치 같았다.

나는 때를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신분에 연재하고 있는 소설의 이름이 △파리아△인데 지금 꽃장사가 들고 있는 꽃도 파리아였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앉은 아이가 나를 아는척 하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소설이 나오기 전에 내 사진이 소개되었기 때문에 내 이름을 알기도 있다고 나는 생각하였다.

나는 용기를 내었다. 나는 방긋이 웃으며 물었다. 「언디까지 가요?」

「선생 웃기만 하고 아이는 말하지 않았다. 「절이 어디지요?」

곁에 앉았던 사람은 슬피서 얼굴을 물리고 말았다. 그리고 바이올린 케이스를 안은 그 아이의 얼굴은 이상하게 흥당부가 되었다.

나는 물어서는 안될 것을 물었고 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일흔 이야기를 풀려야 했다.

「네 바이올린을 배우니?」 「아뇨。」

그때사 대답을 하였다.

그리고 물지도 않은 말을 더 했다.
「이건 아버지의 바이올린인데 빼앗아 가요.」
「아니 이애가!」

결례 않았던 키가 훌쩍한 사람은 당황해 하면서 말하였다.
그때자 나는 알았다. 이 아이하고 그 사람은 아버지하고 할 사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선생님 글을 쓰시죠?」
「네!」 나는 대답하였다.

「선생님의 수필을 보아서 잘 압니다.」
「네!」

이런데는 내가 좀 익숙한 표정을 할 수 밖의 없었다.
헤스가 웃었다.

나는 헤스에게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안녕!」

저절로 나에게서는 이런 말이 나왔다.
「아니, 선생님은 여기서 내리십니까?」

「네!」
「그럼 저도 같이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은 황급히 차에서 나를 따라 내렸다. 물론 그 결의 아이도 아
퍼지들 따라서 내렸다.

「선생님 좀 얘기할 수 없을까요?」
나는 조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무슨 얘기일까. 내가 좀 익숙한 얼굴을
지어나카.

「저는 나쁜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나의 모의가 일흔 아파트의 파란 창이 생각이 났다.

그리고 그 파란창안에는 소설보다 더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으리라고 짐작
한 이 「나쁜」의 기연은 또 생각했다.

「죄송합니다.」
우린 한 자루 온 다방의 물이 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런데는 아버지의 바
이올린을 그냥 가슴에 안고 현의 저위하면서 들고 있었다.

다방의 물이 가 않은 우리들은 한참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나는 우선 그 아파트의 파란창이 이야기할까 했다.

「아파트는 그 아파트의 처혼자 사시지요?」
나는 이 말을 들었다. 빨간 모자의 아이와 아버지는 파르파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파르파르 사시지요.

내가 좀 놀라는 기색을 아이는 또 알아채 버렸다.
「그래서 제가 바이올린을 빼려고 가지요. 아버지는 나보다 바이올린
이 피 소울하니까요.」

아이는 불안스레 머리의 빨간 모자를 벗으며 말하였다.
빨간 모자의 아이의 아버지는 미안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서 다방 밖의 그
린 그림을 쳐다 보았다. 나의 마음은 파삭 파삭 떨기었다.

사실 짐작한 것파 같이 파란불빛의 유리창 속에는 내가 상상 못할 이야기
있으리라 짐작이 맞아 틀어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물었다.
「제가 누굴 짐작하시죠?」

빨간 모자의 아이는
「벌써 아까 헤스를 탈 때 다 알았는데 뭐.」 자랑스레 대답하였다.

「그럼 하나 볼 때는 바이올린의 바이올린은 왜 빼려고 가지요. 아버지는 그냥
아파트의 두요?」
나도 빨간 모자의 아이와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런데 양은 편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인제나 같이 있지 않을까?」
아파트 가장 짐작이 다 갔다. 빨간 모자의 아이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파르
파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알게 된 것이다.

그런데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왜 헤어져 사는지는 모를 일이었다. 아마 이
것은 빨간 모자의 아이도 아버지 모를 일일 것 같았다.

그리고 이런 오래된 일을 아이 한테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나 빨간
모자의 아이가 추운 한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싸움 틈바귀에서 어
린 아이만이 쓸쓸한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 마음의 안도였다.

「그럼, 이 다음에 다시 만날까요?」
내가 불쑥 이런 말을 던지었다. 우리가 다방에 마주 앉아서 그런 일마 되
잖은 때였으니까 빨간 모자의 아이와 그의 아버지는 좀 망황하였다.

「안디 바쁘십니까?」
「네!」

나는 바쁘진 않으면서 바쁘다고 대답하였다.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기도 좋습시다.」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인제.」
「이름 지네으로 하지요. 지네 되고 선생님의 아파트로 찾아가 볼지요. 선
생님께 실례가 안된다면! 처음에는 망서리다가.」

「그럼 약속합니다.」
「죄의를 피고서 전 산책할 그쪽으로 나갑니다. 아홉시에 서 열시요.」
「그런데 올라셨다. 이중 아파트가 참다다 불빛을 밝히고 이 들속에서 있었
다. 불꽃이 켜져 있지 않으면 창도 오를 발은 켜져 있었다.

쓸쓸한 아이가 사는 집장은 불을 켜도 밝아지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나의 생각은 새로운 얘기가 마음 속에서 불피져 나가는 것 같기도 하였
다. 나는 오솔 아홉 아파트의 뽀얀라는 것도 들지 못하였다.

그때면서 아파트가 가까이 가니까 파란창으로 보아서 그 집을 서둘러 왔고 누
르 하였다.

論 壇
×××××

問題論

業務能率의 向上을 위하여

대위 김 병 로

〈行政官室〉



여기서는 問題論 Problem으로 서서 그中 難題라는 解釋을 擇하고 論한다.

무릇 人間은 이 世上에 落地하는 瞬間부터 問題에 부딪쳐야 하고 意識

四月에 오는 비는 와도 그 마음 꽃술처럼 화안적 되는 까닭을 알았으랴. 사랑들을 뭇 쏟아 피가 뛰는 그 날, 나는 의로운 孤島 石山에서 풀 한 포기라도 심고 싶었다. 친질 만질 낭떠러지 배랑 위에서도 비찬 환성을 지르며 물러오는 나를 나뭇의 대신에 빙는 심장을 씻어내어 한 떨기 탐스러운 꽃을 피우고 싶었다. 속국의 진진 세월에 흘러간 슬픔과 분노와 기막힌 치욕과 물이 되어 끝내 그때서는 안될 사람끼리 삼과 죽음을 사랑하는 총자루 앞에서 두견화 피었던 詞錄을 읽어야만 했던 動亂을. 그래서 회진된 내 하들과 산하에 한마리 비둘기라도 날려 보내고 싶었다. 사랑아 그립고 애석한 이 心思사.

인 對父母와 의 關係로 出發하여서 對人, 對社會, 對國家 더 나아가서 對宇宙關係에로가져 問題의 範圍는 擴大되는 것이며, 複雜의 度나 深刻의 度도 個人의 生命을 死境으로 이끄는 地境까지 陷入될 수 있다는 事實에 外面할 수가 없다.

勿論 사람의 天性이나 處地에 따라 個人이 부딪치게 되는 問題의 類別은 그야말로 千差萬別이겠지만, 누구나 問題와 全혀 遊離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 問題解決을 爲한 몸부림이 곧 나날의 우리의 生靛라고 봐서 틀림이 없으리라라고 생각한다.

깊은 睡眠으로 카마득히 잊었던가 싶던 어제까지의 問題가 아침에 起床하여 順序에 따라 움직이는 사이에 다시금 머리를 들기 始作하고 오늘날대로

의 問題와 舍命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肉薄해 오게 마련이다. 우리는 실진 좋진 오늘 하루도 이 問題와 對決해서 싸워야 하며 또 이겨야 한다. 그러나 問題와 싸워서 이긴다는 일이 그리 容易하지는 않다.

本論에서는 人生에 關聯되는 廣範圍한 問題를 全般的으로 取扱치는 못 하고 範圍를 縮小해서 우리 軍人들이 軍務를 遂行하는 途上에 부딪치게 되는 여러 種類의 問題를 羅列해 보고 다음은 그 解決方案을 許容된 紙面의 範圍內에서 論해 보기로 한다.

一、問題의 種類

1. 業務知識의 不足에서 오는 問題.
 2. 不注意로 惹起되는 問題.
 3. 怠慢으로 放心 問題.
 4. 실마하는 放心에서의 問題.
 5. 不知中에 일어나는 問題.
 6. 官(上官) 同僚, 部下)에 依한 問題.
 7. 無能으로 因한 問題.
 8. 家庭과의 關聯에서 오는 問題.
 9. 私慾에 因한 問題.
 10. 感情에 因한 問題.
 11. 異變에 起因된 問題.
 12. 性格으로 因한 問題.
 13. 疾病에서 오는 問題.
 14. 異性 때문에 오는 問題.
- 其他

詩

하나를 爲한 嘆願 <祖國에> 金 炘 永 (七〇一大隊)

솔피 바람 일렁이는 그 산 자락 힐끗고
끓주린 북쪽 내 형제가 보내는 애틁는 호소
가 품겨 있었다.

우뢰

하늘이 아니라도 잔잔스런 가랑비
가랑가랑 마다 자유의 메아리는 산 넘어 가고
돌아온 솔개미 날개 폭 깃털에 사무친 살인귀.

다른 입술 웃어 주질 않는 저 굳어 버린
벽을 허물고 쏟아지는 햇살.

그리워

달려오는 사람들 사람들

저 날개 치는 날개 치는 곤충의 보람찬
생애가 한없이 좋아.

조수와 기수는 활주로 끝에서 기폭을
날리어 「파이트」을 또 하늘에 띄워
보는 석연한 동공에 아롱지는

그날

가슴 벅찬 이 환희가
四月에 오는 비는 와도 그 마음
꽃술처럼 활짝 피는 까닭을 알았으랴.

사랑아

진정 뜨거운 사랑 앞에서
내일을 위해 작열하는 이 순간을 알았으랴.

내 가슴은 빗속에서 불꽃보다
훨씬 정열을 하늘 끝 그리운
천국에 타이라 꽃잎을 뿌리고
활개치는 비를 기 날개 위

무한한 시공을 알았으랴.

孤獨한 내 城壁 이끼가
질어 간들 허물지 않는 永進을 알았으랴.

저 문해의 어둠을 고간 어둠에
승어 배를 일렁이는 자람을
나 무한 그루 먹이 풀 한 포기
라도 의식 할 수 있는 내 부드러운
흉에 뿌리박아 내가 서기를

강한 근육을 이룬 산맥을.

그래서 바다 끝 요원한
지평선 일점까지도 나를 위해
나를 치는 까닭을.

꽃병아리 백아는 꽃나무
나 무릇 마다 푸른 잎 너를
거리는 힘찬 의욕을 알았으랴.

사랑아

죽도록 사랑해도 不足한
사랑 앞에서 슬픔을 깨닫고

그 하나만을 위한 기다림에
나는 의로운 孤島 石山에
돌 한 포기라도 심고 싶었다.
한 떨기 탐스러운 꽃을 피우고 싶었다.

以上 열 다섯種으로 區分해서 羅列
해 봤지만 勿論 이것으로 完璧을 期한
것은 못된다. 일대는 저 더 細分되
지만 概略의 一로 그렇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런 種類의 問題들을 如何
히 解決하느냐의 愚見을 그것도 紙面
關係上 줄거리만 추려서 略述키로 한
다.

二, 問題의 解決方案

1, 問題의 捕虜가 되지 말것.

이것은 무엇일 말하느냐 하면 問題
와 自己(理性)는 어디까지나 別個로
分離되어 存在하되, 自己가 優位에서
問題를 다루는 立場에 있어야지 問題
와 同格으로 엉켜서 理性을 잃거나
問題에게 自己를 料理하라고 맡겨서
는 안된다는 말이다. 俗談에 법에게
잡혀 가도 精神만은 두둑히 차리라는
말이 있지만 極端의 一로 말해서 問題
가 우리의 目的을 要求하는 境界을 벗
드래도 決코 나를 問題에게 맡아서는
안된다.

2, 解決의 方向이 一定한 標的으
로 集約되어야 한다.

이것은 問題解決의 主體인 自己가
늘곧은 信念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과녁을 모르고 활을 쏠 수가 없듯이
一定한 信念이 없는 사람이 問題
를 다룬다는 것은 確實히 虛妄한 노
릇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自我를 가
져야 하고 그것이 問題解決의 標準이
되어야 한다.

3, 人間으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만 하면 된다.

사람은, 特히 젊은 사람은 自己를 人
間以上の 무엇으로 錯覺할 수 있다.
이런 觀念은 問題解決의 障壁이 된다

完全無缺을 바라는 나머지 그 問題를 能力 있는 데까지 끌고 가 보지도 않고 지레 拋棄하는 경우가 많다. 完全無缺은 神에게만 期待된다. 人間은 언제나 不足과 缺을 수에 삼게 마련이기 때문에 不足속에 서 希望속에서 自己의 能力을 다하면 그만인 것이다. 盡人事하고 待天命하는 以上의 것을 바라는 確實히 感情의 奢侈로 失望의 前提이다.

4. 自己의 能力은 남이 속속들이 知悉하고 있다고 認定하다. 人間은 恒用 自我를 擴大鏡에 비쳐서 外部에 表現하려 한다. 一時的으로 可能한지 모르지만 이것은 恒久性을 缺한다. 더구나 問題를 解決하는 마당에서 自己의 體面 때문에 躊躇하고 남의 눈을 避하려 든다면 決斷을 失敗로 歸着한다. 自己는 自己보다도 남이 더 잘 評價하려 마련이고 또 그것은 普通 妥當性을 지닌다. 自己만이 唯我獨尊 格으로 버릴 때 남은 비웃고 相對로 자 않는 법이다. 못났어도, 無識해도 病身이라도 自己대로의 自己를 主張 해 두는 것이 언제나 마음편하고 問題 解決도 容易하다.

5. 人間自體가 不完全하기 때문에 人間에게 주어지는 問題도 完全하지나 固定된 것이 못된다는 事實을 銘心하라.

우리는 恒用 어떤 問題에 부닥치면 法부터 되게 되는데 이것은 別세 問題에게 주류의 徵兆이다. 每事가 그렇지만 남에게 주류가 잡혀서 協商한다면 그 結果는 보나마나 되고 있다. 問題와 關係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都大體 뒤나 格으로 價値하게 對決하면 以外로 行하게 될, 다

은 시킬 때가 있는 것이다. 特別 問題는 固定되었다고 봐서는 안된다. 그것 自體가 不完全하다는 見地에서 차근차근히 깨고 들면 아무것도 아닌, 問題로 形成된 內容도 없는 것이 존재 있다.

紙面이 다 되었으므로 더 仔細한 것은 뒤로 미루고 오늘 이만하기로 한다. 結論의 으로 말해서 우리 人間은 나면서부터 問題에 부닥치고 意識, 無意識間에 이 問題와 싸우노라 몸부림치다가 죽겠음 宿敵이 되었다는 嚴然한 事實에 外面하지 말고 果敢히 問題와 對決해서 쉼이 없게 이로 슬기로 解決方法을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우리를 軍人앞에는 肅한 問題들이 우리의 能力을 테스트하려는 듯 待期하고 있다. 검내지 말고 果敢히 對決해야 할 것이다.

想
× × ×
再 建 草
隨 × × ×

一兵 김 길 조
〈第四航團〉

早魘이 환란 가까이 계속되었다. 上部 指示에 따라 우리의 部隊에서도 오늘날의 勳을 내는 作業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하늘도 뜻은 알았는지 점심 때부터는 빗방울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했다. 진이 없이 하늘엔 비구름이 확 펼쳐지고 日課를 나날이 完일부럽 부

터는 바빠마른 大地에 주름주름 단비가 내린다. 使役이라 하면 勳선해서 나가가는 兵長, 오늘 역시 使役을 나갔다가 勳을 비를 맞고 돌아왔다. 남은 作業에 선 물방울이 툭 툭 떨어지고 門을 열자마자

『헤이, 아로운!』 나의 애칭(愛稱)을 부르며, 손가락들을 세워 입술에 갖다대며 하는 말이다.

한말의 열잡나오는 「花郎」이 骨草인 그 애친 한달은 커녕 열물이 못잔다 담배를 자주 피우는 탓도 있지만 아직 담배가 잡채 있으면 절반도 타기 전에 버리는 그에게서라.

오늘 들에 나갔다가 담배를 못피웠다고 수다를 떨며 내 심함을 뒤진다. 이 내 풍조를 피워 물고는 「야! 나 가 나! 차암 종드라. 들음! 노랑게 보리 가! 치꼬오! 산! 들음! 어느새 소쩍새가 울고 앉았나!...」 독특한 경성도 발음의 情懷描寫는 魅力있게 나를 故郷으로 誘惑했다.

外出이래야 기껏, 오십환차리 同時 上映에 足하면 내 勳을 使役 못나간 게 적이 아쉽다. 내 故郷 들에서도 옛날과 다를없이 지내줄까? 했보리 점심 상추살에 진종일 등질전전.....

『야! 내음 주라!...』 K병장의 목소리가 신나게 故郷山川을 그리며 나를 깨워준다.

내게 담배가 아직 남아 있는 건 많이 못피워서 慚만은 아니다. 別지한 事務室 掃除를 도맡은 나는 아침마다 세틸이를 비운다. 담배 배급이 나온 며칠까지는 의 배 재떨이마다 반도 채 못

피운 풍조가 가득하다. 난 이걸 깨끗이 몰아 버지에 넣어 『再建草』라 써 두었다. 지난 土曜日 午後였다. 담배가 피고 싶다고 재떨이를 뒤지는 兵長에게 나는 예의 재떨이를 꺼내 보였다. 『제 마요? 재진조요?』 입맛을 다시며 풍조를 찾던 그는 풍조를 뱉어 들고 환성을 올리며 돌아간다. 恰似과자봉지를 안은 어리엔 처럼.....

오늘도 『再建草』 생각이 나서 혼났다는 것이다. 나는 瞬間, 이때다 싶어 得意滿面해서 『있을때 아저 피웠으면 오늘같은 곤란은 알았을게 아네요?』 조금만 있을 절반도 안피우고 버리다니..... 이후에 K兵長님 담배가 받은 녀름걸요?..... 『先賢인 그를 나는 낮을 불리며 忠告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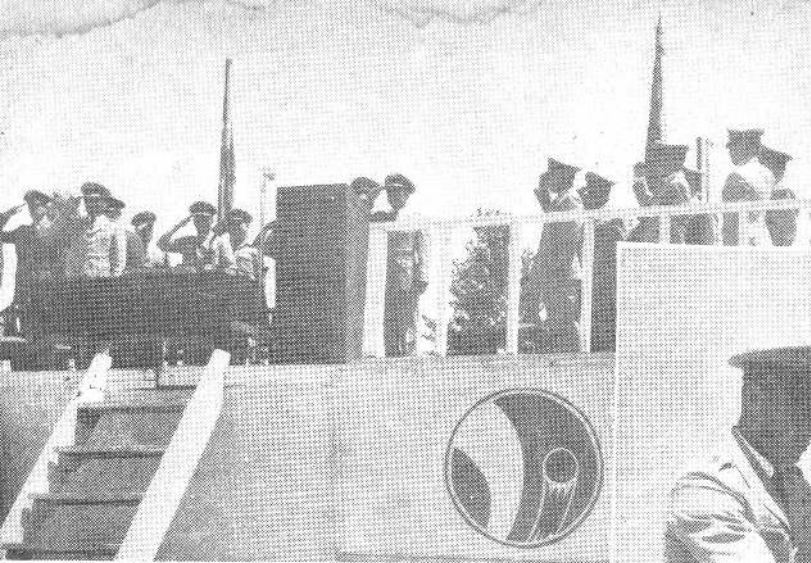
或者, 내 애친 들은 사람이 있다면 『자! 식 쟁제하게.....』 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軍隊로서 배운게 「節制」라는 單語다. 사랑받은 것은 배 「節」구 쓰고 없으면 절절한다. 언젠가는 봉투를 또 쓸려고 뒤집었더니, 이전 빌써 先手를 친 것이었다. 未知의 先手者에게 나는 微笑를 보내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그 일이나 많은 일들이 耐乏生活을 의겨 왔던가? 지금 우리는 花郎담배 한가득이 있어 양은가? 經濟再建의 先頭에서 있지 않은가? 恩惠처럼 비는 아직도 주름주름 내리는데.....

현명정신 이오판아
안일무사 일소하자

飛行安全에 또 金字塔

十戰飛서 堂堂 萬時間을 突破



지난 7월 5일 제 10 전투비행단에서는 동단
장병들의 헌신적 노력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단시간 무사고 비행에 대한 참모총장 비행안전
상 수여식이 거행되어 우리 공군의 우수한 정
비술과 조종기술을 내외에 과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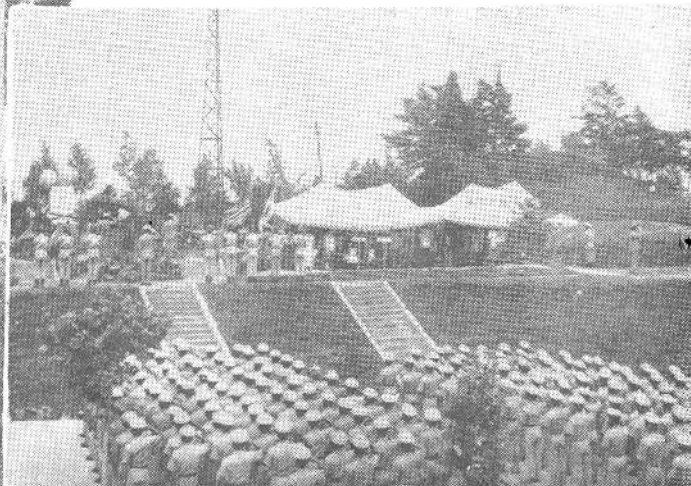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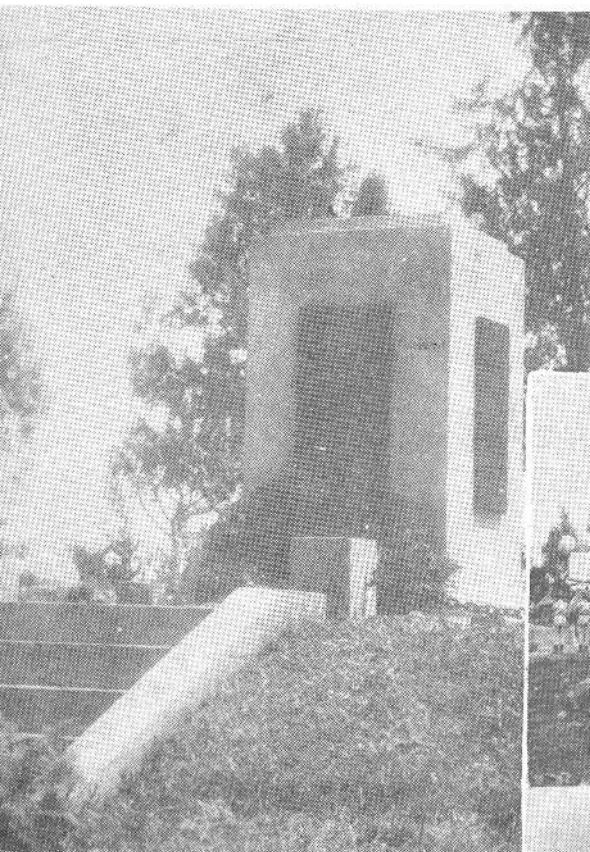
<사진은 동 안전상패 수여식 광경과 개인표창 광경>

고이 잠들라 꽃다운 낮돌아

K-4 기지서 위령비 제막식 엄수

지난 6월 28일 K-4 기지에서는 동기지
주둔이래 임무수행중 호국의 영령으로 산화
순직한 고 김영환 준장의 44 주의 명복을 비
는 위령비 제막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사진: 동제막식 전경 (좌)
위령비 (우)





물길이 열린다

「목타는 농촌」을 도우기 위한 양수작업, 수로개척작업 등이 전 부대에 걸쳐 실시되었다. 땀에 젖은 삽질따라 물길이 열리고 깊숙히 묻힌 파이프를 통해 물줄기가 쏟아질 때마다 넘치는 재건에의 의지는 더욱 굳어가기만 했다.

<사진·K-2 기지 횡단 군민합동 수로개척작업 광경>